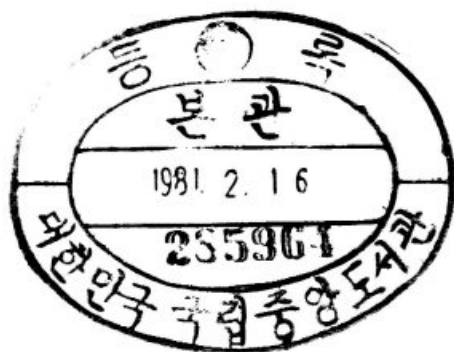


崇敬錄

晦屏 申體仁 先生 著





錦淵精舍全景

(晦屏先生이 弟子를 가르치기 위해 英祖 壬寅1776
년에 創建, 1977年 9月 20日 다시 重建 上棟)

※ 義城郡 鳳陽面 龜尾洞 錦山麓 所在



晦屏先生の 六代祖
 (號 梧峯、諱之悌) 祠堂



晦屏先生の 五代祖
 (號 孤松 諱弘望) 樂善堂



梧峯 宗家の 一部 遠景
 (義城郡 鳳陽面 龜尾洞 所在)

晦屏申先生の生涯와業績

本貫 鶴洲、姓中、始祖 諱英美(高麗權知戶長)의 二十世孫 顯祖인 諱之梯(號梧峯 宣祖朝 文科及第官吏判)의 七世孫으로 英祖七年 辛亥四月二十五日 慶北義城郡鳳陽面龜尾洞에서 誕生하여 大山李先生(象靖)의 門下에서 修學하였다. 儒學에 大成하여 冠童子弟를 講學하기 爲하여 英祖壬寅 一七七六年에 義城郡鳳陽面龜尾洞錦山麓에 錦淵精舍를 創建하여 여기서 隱居하시면서 權貴나 地位等은 食내지 않고 오직 後學養成에만 心血을 기울여 文集十餘卷과 崇敬錄이란 著書를 남기고 純祖壬寅 一八一〇年四月三日 八十三歲로 世上을 떠나셨다.

※ 其他參考.. 先生이 世上을 떠나신뒤 現今에 이르기까지 箱子에 가득담긴 毛筆글씨의 崇敬錄이 單純히 個人家庭의 遺物로 宗宅에 保存하고 있었는데 十餘年前 某學者에게 우연히 閱覽된후 各大學이나 圖書館 등에서 이를 찾는 境遇가 많아 一九七四年三月 親筆原本을 複寫하여 五百部를 내었는데 그后 繼續 찾는 이가 늘어나 不得已 再發行하기로 梧峯派門會에서 可決이 되었다. 그런데 이왕 發行할바엔 누구나 볼수 있도록 翻譯版을 내는 것이 좋다고 해서 柳正基 前忠南大教授에 依頼했다. 그리고 國文分野의 連結過程이나 校正一切의 責任者는 傍後孫인 申炳浩가 擔當했다.

冊첫머리에 나오는 錦淵精舍 寫眞은 새로 重建한 것인데 옛날의 조그만 精舍는 세운지 一三六년이 經過하여 一九二二年에 무너지고 기왓조각과 懸板만이 申梧峯先生宗宅에 保存되어 있었는데 五代孫인 申鎮旭 大邱 協成教育財團理事長의 發議로 一九七七年八月五日 着工하여 同年 十一月三十日 竣工하였다.

빈 면

崇敬錄이란

이 책은 申體仁(號 晦屏)의 著書인데 公敬(敬)을 主題로 삼은 珍貴한 것으로 오늘날 學界의 評價를 받고 있다. 正宗朝에 執筆하여 純祖壬寅(一八一〇)年에 完成한 것으로 一般文集과는 달리 堯舜以來的 中國 및 우리나라의 古今에 걸친 道學君子의 「敬」에 對한 主張과 理論을 體系 있게 整理하고 거기에서 自身의 思想을 加味한 論文이다. 通卷 四卷으로 된 崇敬錄은 主敬旨訣 旨訣通集 旨訣續集 主敬淵源 淵源通集 淵源附集 微省錄等 七箇部門(編目解題參照)으로 나뉘며 敬을 喝破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要約해서 말하기는 어려우나 敬을 定義한 一節을 引用하면 行의 第一步을 밟아 놓을 때 心도 第一步上에 있고, 行의 第二步를 밟아 놓을 때 心도 第二步上에 있고, 三步나 四步도 모두 이와 같이 하는 것이 所謂 「敬」이라고 하고 있다. 萬若에 行은 第一步을 밟아 놓는데, 心은 二、三步의 外에 있고, 行은 第二步를 밟아 놓는데, 心은 五、六步의 外에 있다 면, 바로 「敬」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寫字나 處事같은 데도, 다 그러하지 않음이 없으니, 第一字를 쓰는데는, 心도 第一字上에 있고, 一事을 하는 데는, 心도 一事上에 있어서, 件件마다 專一하게 하는 것이, 바로 「敬」이라고 定義를 내리고 있다. 이 책은 現在 主唱되고 있는 忠孝教育에 좋은 資料가 되고 있다. 各大學이나 圖書館 등에서 이를 亡境遇가 많아 崇敬錄 親筆原本을 晦屏의 五世孫 申鎮旭氏에 依래 複寫版 五百部를 낸 바 있고 이어서 讎譯版도 鎮旭、鎮洙兄弟의 도움으로 發行되는 바이다.

一九八〇年 七月 日

族後孫 炳哲 謹序

晦屏先生の親筆片貌

鵝洲申氏世牒

鵝洲巨濟屬縣今巨濟府鵝洲縣尚多有姓申者云或謂
韓山舊號鵝洲申之先疑出於韓山而州與洲字固不同
按退溪李先生嘗撰申參奉諱椿年墓碣曰公巨濟人我
先祖孤松府君司馬栢眼印本書曰本巨濟鵝洲之為巨
濟地無疑矣故觀故籍或書以巨濟或書以鵝洲梧峯孤松兩世
文科栢目橋洞墓碣梅堂孝友錄墓誌皆以鵝洲書之未嘗不迭用而今闔族無或
以巨濟書本但稱鵝洲若相謀然未知始於何代又觀先
輩手書如詩牋題名等帖或稱梅城後人而梅城非巨濟
舊號或鵝洲縣一名稱梅城歟亦未可知也按吉治隱夫

自序

人之一心 合理氣 統性情 爲一身之主 萬事之本者 或不免私邪所蔽 物欲所引 昏昧放逸 出入萬變 而無形影之可指 方向之可尋 苟不有以檢攝提掇 扶策維持 致操存涵養之工 則曷以保其天理之明 而不爲外誘所撓汨哉。嘗竊惟之 吾之一身 知覺運用 雖莫非心之所主 而敬之一字 又爲一心之主 宰必欲使是心 存在裏許 總領百體 而不至昏昧放逸 則蓋頃刻捨是敬 不得此聖學之所以成始成終 而爲徹上徹下之工者也。故自灑掃應對至於格致誠正 自戒愼不睹恐懼不聞 至於中和位育 安百姓平天下 莫不以一敬字貫之 千古聖賢相傳心法之要 曷嘗有外於敬者乎。聖人之敬與學者不同 雖曰安而行之不勉而中 而所謂不顯亦臨 無射亦保 亦不無警惕維持之意 不可謂全無所事 而在學者則其工夫節度 自有次第。若不究古聖賢旨訣之明 淵源之的 而列錄編載 合成一通 若朱子所謂類聚程門論敬處觀之者 而日夕擎玩反覆不已 則亦奚由端的省悟 感發興起 實體于身 而知所用功哉。

(譯) 人間の 心體는 理와 氣를 合하고 性과 情을 統해서 一身의 主 萬事의 本이 되는 것이나 或은 私心の 가리우는바와 物慾의 끌리는 바가 되어 昏昧하고 放逸하여 出入에 萬變해서 本心の 形影을 기르고 方向을 察을 수가 없게 되니 萬若에 마음을 檢束하고 提掇하여 扶策하고 維持함으로써 操存하고 涵養하는 工夫가 있지 않으면 어찌 그 天理의 明哲함을 保全해서 外的인 誘惑에 動搖되는 바가 되지 않을가。가만히 생각하니 나의 一身에 知覺의 運用은 비록 一心의 主管하는 바가 되지 않음이 없는 것이나 敬의 一字가 또한 一心의 主宰가 되어 반드시 이 마음으로 하여금 體內에 存在해서 百體를 總領하게 하여 昏昧放逸하는데 이르지 아니하게

하러면 대개 暫時라도 이 敬을 버려서는 이 聖學의 成始成終하는바에 徹上徹下의 工夫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灑掃應對로부터 格致誠正에 이르기까지 남이 안보는 곳에서 戒愼하고 남이 안듣는 곳에서 恐懼하는 것부터 中和位育해서 安百姓하고 平天下하는데에 이르기까지 「敬」한字로써 一貫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千古에 聖賢의 相傳하는 心法의 要點이 어찌 敬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을가. 聖人の 敬은 學者와 더불어 같이 얹으니 비록 저절로 行해져서 힘쓰지 않아도 맞게 된다고 해도 「時經大雅에 所謂「不顯赤臨無射亦保」(神이 臨視하시느듯 厭症없이 保全했네)고 한것에 또한 警惕해서 維持하는 뜻이 없지 않으니 천허하는바 일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學者에 있어서는 그의 工夫하는 節度가 스스로 順序가 있으니 만약 옛적 聖賢의 旨訣이 明哲하고 淵源이 確實한 것을 研究해서 列錄하고 編載하여 一通을 合成하는데 朱子의 이른바 程門의 論敬한 것을 類聚한 것처럼 보아서 朝夕으로 擊玩하여 거듭하여가지 아니한다면 또한 어찌 端緒를 잡아 깨치어 感發하고 興起하여 實地로 自身에 體驗해서 用力한바를 알 수가 있을가.

余以讒劣空疎 兼以老荒 其於本領工夫 了無實得 固不敢與議心學 而少也從先生長者遊 幸得以略聞主敬之說 與同志論 亦或掇拾糟粕 談說及此 而恨未能究極源委 的認成法以自勉. 數年前嘗占得閒日月 試取經傳史記 羣聖賢書 特以敬字爲標準 而歷究其旨訣淵源 一一拈採 片片騰出 欲編作一部 藏之巾衍已久 而亂藁無別 縱橫錯雜 未暇勘定 昨年春始因子姪申請 欲爲之整頓序次 而病眼模糊 無以攷檢 遂令家兒鼎輝 逐條歷提 再三誦讀以聽之、只自閉目塊坐 默領心會 商量去取 指揮編載 以聖賢相傳旨訣之要 集爲一通 而分上下. 其次列錄聖賢相承淵源之正 合爲一統 而又分上下 是併爲元篇. 且有所謂旨訣續集 淵源附集 承元篇次載. 至若懲省錄 別爲外篇係末 合以名之曰「崇敬錄」

(譯) 나는淺薄하고空疎함에兼해서老昏하여 그本領을工夫하는데全然實得한 것이 없으니眞實로敢히心學을議論하는네는參與할 수가 없으나少時에先生長者를 따라서多幸히 조금主敬의說을 얻어듣고同志와 더불어論學하기도하며또或은糟粕을 뒤워서談說이 이에 이르면能히 그의本末을究極하여成法을確認해서自勉하지 못했음이恨이었다。그런데數年前에閒暇한 때를 얻어서經傳史記와 여러聖賢의書를試取해서特히敬의字를標準으로하여 그의旨訣과淵源을歷究해서一一이蒐集하고片片히謄寫하여一部의書를編纂하려고箱子에 감춰둔지가 이미 오래되니原稿가混亂해서縱橫이錯雜하여整理할餘暇가 없더니昨年봄에 비로소子姪들의要請으로因해서次序를整頓하리하니病眼으로視力이模糊하여攷檢할 수가 없어서드디어家兒鼎輝로 하여금逐條로再三訂正하여듣고서는눈을 감고있어서 마음에領會하여商量하고取捨해서編載를指揮하는데聖賢이相傳하신旨訣의要를 모아一通으로해서上下로 나누고그다음은聖賢이相承하신淵源의正을列錄하여一統으로해서또上下로 나누었으니 이것이 모두原篇이 되고또한所謂「旨訣續集」과「淵源附集」이란 것이 있어서元篇을이어서다음으로列錄하고「懲省錄」같은 것은特別히外篇으로하여統合해서「崇敬錄」이라고題名하였다。

令鼎輝紬繹繕寫 僅成草本 尚不無遺闕舛誤 不得不更待勘校 然而其大體已成。觀於此 而欲從事是敬則至論備載大統昭揭 一開卷 而爛若日星 所謂操存涵養 勝私慾 明天理 而得一心體用之正者 庶將由是渙悟用力 然此只要自勉 而與同志共覽而已 敢曰發明心學哉。嗚呼 子路以聖門高弟 爲百世之師 而及聞修己以敬之說 則猶不免少之而再三申問 矧如後生末學 未嘗眞實得力於敬 則亦安知其功用之大 足以體信達順 而終至於安百姓也。敬之功用甚大 而其工夫特要嚴密 此當從儆若思始 而所謂整齊嚴肅 正衣冠 尊瞻視 爲學者最初下手之地。凡厥有志於持敬者 盍亦知所當務哉

乙丑仲夏月日末學鵝洲申體仁序

(譯) 그래서 冊輝로 하여금 淨書를 시켜서 겨우 草稿가 되었으나 오히려 遺漏된 것이 없지아니하여 不得不 誤錯된 것은 고치지 아니해서는 안되니 그것은 校正을 기다리는 바이다. 그러나 그의 大體가 이미 成立이 되니 이것을 보고서 이 敬을 工夫하려면 至論이 備載하고 大統이 昭揭하여 한번 開卷하면 日星처럼 明瞭한 것이다. 所謂「操存」「涵養」이란 것은 私慾을 이기고 天理를 밝혀서 一心の 體用이 바른 것을 얻으면 將次는 거의 이로 말미암아 渙然하게 깨치어 用力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스스로 힘을 써서 同志와 더불어 共覽하기에 必要로 할 뿐이다. 어찌 敢히 心學을 發明했다고 말할가. 嗚呼라 / 子路는 聖門에 高弟로서 百世의 師表가 되어서도 修己하는데는 敬으로서 하라는 말씀을 듣고는 오히려 不足해서 再三이나 거듭 물었는데 하물며 後生末學으로서 일찌기 敬에 眞實하게 得力을 하지도 못했은즉 또한 어찌 그의 功力이 큰 것을 알아서 足히 體信하고 達順함으로써 마침내 「安百姓」에까지 이를수 있을가. 敬의 功用은 甚히 커서 그의 工夫는 特히 嚴密을 要하는 것이니 이것은 마땅히 「儼若思」로부터 비롯하여서 (朱子敬齊箴) 所謂「整齊嚴肅、正衣冠、尊瞻視」(態度를 整齊하고 嚴肅하게 해서 衣冠을 바르게 하고 瞻視를 높이하라)는 것이 學者가 最初에 下手할 곳이 되는 것이니 무릇 持敬하는데 有志할 者가 어찌 또한 힘을마를 몰라서 될가.

乙丑仲夏月日末學鵝洲申體仁序

崇敬錄 序

心爲一身之主宰 而敬爲一心之主宰 莫尊於心 而主宰之以敬 則敬之崇宜可知也。 故經禮三百曲禮三千 一言以蔽之曰 毋不敬。 敬者禮之所爲用也 然而夫子贊易 有謂知崇禮卑者 以其對知之無所不通 而禮之戒謹謙約 有似乎卑 則其卑者即其所以益尊而光也 此可以互相見也。 爰自洛婺以來 發明敬之爲學之要 無復餘蘊 而其在吾東 則溪湖相傳之正宗 壹是用此道也。

(譯) 心은 一身의 主宰요, 敬은 一心의 主宰이다. 心보다 더 높은 것은 없으니 敬으로서 主宰하면 敬의 높음을 可히 알 것이다. 그러므로 經禮三百과 曲禮三千을 一言으로 蔽한다면 「毋不敬」이란 것이다. 敬이란 禮의 用으로 하는바이다. 그러니 孔夫子께서 易經의 贊辭에서 「知崇禮卑」라 하셨음은 그의 知가 無所不通한데 對해서 禮의 戒謹謙約함이 卑한것 같으나 그 卑하다는 것이 바로 더욱 尊하고, 光이 있는 所以이니 iese 可히 相對的으로 볼수가 있는 것이다. 程朱(洛婺閩)에서 以來로 敬이 學問의 要點이 됨을 發明해서 다시 餘蘊이 없었는데 그것이 우리 東國에 있어서는 退溪 大山으로 相傳해온 正宗이 다같이 이 敬의道를 썼던 것이다.

晦屏先生申公 生於聞韶世鄉 早游湖上門得高弟適統之望 其平生用工 要不出敬之一言 而逮至晚年 手自蒐輯 歷代聖賢主敬之語 以爲一編 首明旨訣之所本 次以淵源之由來 而旁及於羣哲諸儒之發明 懲省者總而名之曰「崇敬錄」蓋亦出於深體實得之餘 而於是乎有欲究觀此一字之旨者 可以無待他求而足也。 其有功於後學者 不已多乎。 公之卒今且二百年 所著文集早已行于世 而惟此一編 尚在家藏。 族後孫鏞稷 泓諸君 齊其原本 遠來示余 屬以勘覈 而爲之一言 以其書成於晚年 而或

有未及整理條例者故爾。竊以爲儒者之學 本以爲己修身之道 必先正心誠意 而心之正 意之誠寧 有不以敬者乎。

(譯) 晦屏申先生은 義城에서 出生하시와 일찍이 大山先生의 門下에 다니서 高弟로 應統의 望을 얻으셨으니 그의平生에工夫하신要點은敬의一言에 不過하였던 것이다. 晩年에 이르러 손수 歷代 聖賢의 主敬한 말씀을 蒐輯해서 一編을 編成하셨는데 첫째는 旨訣의 根本한 本을 闡明하시고 다음은 淵源의 由來한 本을 紹介해서 널리 여러 哲人儒者에까지 미치었고 또 「懲省錄」이란 것을 總合해서 「崇敬錄」이라고 命名하셨으니 대개 이것이 實際로 體得한대서 나온 것이다. 이에서 「敬」한字를 研究하려는 者는 다른 곳에 求하지 아니해도 自足할 것이다. 그의 後學에 功이 있음이 참으로도 多大한 것이 아닐가. 公이 逝去하신지 至今에 二百年인데 所著하신文集은 일찍이 世上에 行하였으나 오직 이冊만은 아직 집에 감추어 있었다. 그래서 族後孫 鑄搜 泓等 諸君이 그의 原本을 가져오고 멀리 와서 보이면서 내게 校勘을 하고 序文을 해달라고 付託하니 이冊은 晩年에 되었기에 間或 條例가 整理되지 못한 點이 있기 때문이다. 가만히 생각하니 儒者의 學問은 爲己를 根本으로 하는 것이니 修己하는 眞理는 반드시 멀리 正心하고 誠意해야 하니 心을 正하고 意를 誠하는데 어찌 敬으로써 하지 아니해서 될가.

心者萬理之總會也。欲明其理 必由存心 存此心 而明此理所主者不在敬乎。雖以措諸事業者言之 大則國與天下 小則日用云爲 一無有不敬 而能善始終者。夫敬之可崇者如此 而乃或有想像空寂 廢絕主宰者 甚至有欲打破這字 而自安於偷妄者 亦獨何如哉。是錄之出 其無有惕然警悟 而從之詳察反求者乎。顧此素乏主敬之工 而自棄其德 於道塗聽說者 何敢與議 於聖賢相傳之說 而中心歎嘆 猶懼是錄之不得公諸世也。謹爲書此 以待好學深思 心知其意者 與之道焉。

歲甲寅白露節鄉貫後生金槐敬叙

(譯) 心이란 것은 萬理의 總會한 것이니 그의 眞理를 闡明하려면 반드시 存心을 해야하고 民心을 保存하고 此理를 闡明하는내 主要한 것은 敬에 있는 것이 아닌가. 비록 事業하는 것으로 말해도 크게는 國家와 天下이고, 작게는 日用하는 言行에 하나도 敬이 아니고서는 能히 始終을 잘하는 者가 없으니 그 敬을 崇尚해야 함이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에 或은 空寂을 想像하고 主宰를 絶廢하는바가 있고 심지어는 그 字를 打破하고서 스스로 偷安하려는 者는 또한 獨히 어찌 할 것인가. 그의 由來를 惕然히 警惕、詳察하여 反求하지 않을 수 있을까. 自願하던대 본디 主敬하는 工夫가 없이 그것을 道聽塗說로서 自棄하는 者가 어찌 敢히 聖賢의 相傳하는 說에 參與할 수 있을까. 中心에 欽嘆해서 오직 이冊이 世上에 公布되지 못할가가 걱정이다. 삼가 이것을 써서 好學하고 深思하여 마음으로 그 뜻을 아는 者를 기다려야만 더불어 論道할 수 있을 것이다.

歲甲寅白露節에 鄉貫後生 金梲은 敬叙라.

빈 면

崇敬錄 目次

卷之一

主敬旨訣……………一九

卷之二

主敬旨訣……………一三七

卷之三

主敬淵源……………二〇一

卷之四

旨訣通集……………二五〇

淵源通集……………二六七

旨訣續集……………三三九

淵源附集……………三四九

附懲省錄……………三五三

※錦淵精舍懸板目錄……………三五九

編目解題

主敬旨訣—敬을 주로 해서 工夫하는 要訣이니 上卷은 書經 易經 家語 論語 大學 中庸 禮記 孟子 등에서 下卷은 周禮 漢 程明道 程伊川 蘇季明 張橫渠 朱晦庵 등의 諸書에서 「敬」에 關한 것을 抄出하여 그 諸家의 註說까지 輯錄한 것이다.

旨訣通集—古今에 聖賢의 旨訣이 中間時代의 隔經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드디어 이것을 上下로 나누어서 聖賢의 大訓 以外에 또한 諸家의 諸說이 많이 있으니 마땅히 서로 參考로 해야 하기 때문에 또한 別로 通集이라고 한 것이다.

旨訣續集—한 敬字의 外에 또한 相順하고, 相發하는 功을 하나만 들어서 偏廢해서는 아니되니 先賢의 旨訣을 또한 分曉하는데도 마땅히 細密하게 研究해야만 되기 때문에 特別히 誠敬說 敬義說 靜敬說 居敬窮理說의 四條를 收錄한 것이다.

主敬淵源—敬을 主持하신 聖賢의 淵源이니 堯帝 舜帝 禹王 湯王 文王 武王 周公 孔子 顏子 曾子 子思 孟子 등 古聖의 實踐窮行하였음과 周禮 漢 程明道 程伊川 張橫渠 朱晦庵 등의 宋賢의 持敬工夫를 하였는 史實을 輯錄한 것이다.

淵源通集—古今에 聖賢의 淵源大統外에 또한 諸賢의 實踐이 많이 있어서 같이 相承해 왔기 때문에 또한 그를 가리켜서 通集이라고 한 것이다.

淵源附集—聖賢의 心學이 全體淵源外에 또한 或은 日用實行에서 特別히 謹嚴한 것이 足히 師法으로 해서 可히 古人の 敬을 힘써서 貴하게 體驗한 史實을 輯錄한 것이다.

附德省錄—不敬하여 非敬함은 好悖한 小人이며 假敬으로 欺人함은 結局에 敬의 敵이고 持敬함이 乖理하여 空寂으로 偏波하게 異端이 됨도 깨치지 못한 者는 다 後學의 마땅히 鑑戒하고 反省해야만 되기 때문에 特別히 附錄으로 한 것이다.

崇敬錄 卷之一

主敬旨訣

丹書曰 敬勝怠者吉 怠勝敬者滅。義勝欲者從 欲勝義者凶(大戴禮)

(譯) 丹書에 曰—敬이 怠를 이기는 者는 吉하고 怠가 敬을 이기는 者는 滅하며 義가 欲을 이기는 者는 興하고 欲이 義를 이기는 者는 凶한 것이다.

朱子曰 敬便堅立 怠便放倒。以理從事是義 不以理從事是欲 這敬義 是體用 與坤卦說同。

(譯) 朱子曰—敬은 바로 堅立하는 것이요 怠는 바로 放倒하는 것이니 理로써 從事하는 것이 義이고 理로써 從事하지 않는 것이 欲이니 그 敬과 義이 것이 體와 用이니 坤卦의 說과 같은 것이다.

西山眞氏曰 敬則萬善俱立 怠則萬善俱廢 義則理爲之主 欲則物爲之主 吉凶存亡之所有分 上古聖人已致謹於此矣

(譯) 眞西山曰—敬하면 萬善이 모두 足하고 怠하면 萬善이 다 廢하니 義는 理를 主로 하고 欲은 物을 主로 하는 데서 吉과 凶 存과 亡이 나누어지는 것이라, 上古에 聖人은 이미 이것을 삼가 하신던 것이다.

阜陶曰 行有九德 曰寬而栗 柔而立 愿而恭 亂而敬 擾而毅 直而溫 簡而廉 剛而塞 彊而義 彰厥

有常吉哉

(書經 泉陶談)

(譯) 泉陶曰 一行為에는 九德이 있으니 寬大하고도 莊愷하고 柔順하고도 強立하며 謹厚하고도 恭遜하고 靖亂이고도 敬畏하며 擾訓하고도 果毅하고 正直하고도 溫順하며 簡易하고도 廉潔하고 剛健하고도 篤實하며 剛勇하고도 好義한 것이라. 그의 常則을 彰明하면 吉한 것이다.

蔡氏曰 寬而栗者 寬弘而莊栗也。柔而立者 柔順而植立也。愿而恭者 謹愿而恭恪也。亂而敬者 有治才而敬畏也。擾而毅者 馴擾而果毅也。直而溫者 徑直而溫和也。簡而廉者 簡易而廉隅也。剛而塞者 剛健而篤實也。彊而義者 彊勇而好義也。

(譯) 蔡沈曰 一寬而栗이란 것은 寬弘하고도 莊栗한 것이고 柔而立이란 것은 柔順하고도 道立한 것이며 愿而恭이란 것은 謹厚하고도 恭恪한 것이고 亂而敬이란 것은 靖亂이 있고도 敬畏한 것이며 擾而毅란 것은 馴擾하고도 果毅한 것이고 直而溫이란 것은 徑直하고도 溫和한 것이며 簡而廉이란 것은 簡易하고도 廉隅한 것이고 剛而塞이란 것은 剛健하고도 篤實한 것이며 剛而義란 것은 剛勇하고도 好義한 것이다.

唐孔氏曰 恭在貌 敬在心 愿者遲鈍 外失於儀 故言恭。治者輕物 內失於心 故稱敬。

(譯) 唐代에 孔氏(穎達)曰 一恭은 外貌에 있고 敬은 內心에 있다. 愿이란 것은 遲鈍해서 外로 威儀를 失하기 때문에 恭을 말하였고 治란 輕物해서 內로 良心을 失하기 때문에 敬을 말한 것이다.

日宣三德 夙夜浚明有家 日嚴祇敬六德 亮采有邦(同上)

(譯) 날로 三德을 宣揚해서 晝夜로 明哲하게 하면 一家를 保有한 것이고 날로 嚴히 六德을 祇敬해서 일 을 잘 하면 國家를 保全한 것이다.

蔡氏曰有家 大夫也 有邦諸侯也。九德有其三 必日宣而充廣之 而使之益以著。九德有其六 尤必日嚴 而祇敬之 而使之益以謹也。

(譯) 蔡沈曰 一有家는 大夫의 집이고 有邦은 諸侯의 나라다. 九德中에서 그의 세가지를 가지면 반드시 날로 宣揚해서 擴充하여 더욱 나타나게 하고 九德中에서 그의 여섯가지를 가졌으면 반드시 더욱 날로 嚴하게 祇敬해서 하여금 더욱 삼가하게 하는 것이다.

無教逸欲有邦 兢兢業業 一日二日萬幾。

(譯) 安逸하게 國家를 다스리려 하지말고 操心하고 畏懼하소서. 하루이틀에 萬事의 幾微가 있나이다.

蔡沈曰 兢兢戒謹也 業業危懼也。幾微也。蓋禍患之幾 藏於細微 而非常人之所豫見及其著也 雖智者不能善其後。故聖人於幾則兢兢以圖之。所謂圖難於其易 爲大於其細者此也。一日二日之間 事幾之來。且至萬焉、是可一日而縱欲乎。

(譯) 蔡沈曰 兢兢은 戒謹함이고 業業은 危懼함이며 幾는 微함이니 대개 禍患의 動幾는 細微한 곳에 감춰 있으나 常人으로서는 豫見할수 없는 것인데 그것이 나타나게 되면 비록 智者라도 그의 後를 能히 察할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聖人은 그 幾에 있어서 戒謹하고 危懼해서 豫防하는 것이니 이것이 所謂「圖難於其易 爲大於其細」(그 쉬울때 어려움을 豫防하고 그 작을때 큰 것을 制御한다)는 것이다. 一日二日의 間에 事件의 幾微가 오는데 또한 萬가지가 이르는 것이니 이에 可히 一日이라도 放欲을 해서 될가.

陳氏大猷曰 功成之後 逸欲易生 逸豫怠遊宴之類 欲聲色嗜慾之類 逸欲生 治功隳矣。惟戒逸欲而存兢兢 則此心清明剛健事之幾微 無不洞燭。逸欲少肆 兢兢少間 則此心昏惰 何以察微眇而圖之。

(譯) 陳大猷氏曰—成功한 뒤에는安逸함과 欲心이 나기 쉬우나安逸함은豫怠遊宴하는種類이고 欲心은聲色嗜欲하는種類이다. 逸欲이 나면治功은 무너지는 것이다. 그러니 오직 逸欲을警戒해서 戒懼하는마음이 있으면이 마음은清明하고剛健해서事件的變微가洞燭되지 않음이 없을 것이나 逸欲을 조금내고 戒懼가 조금 없으면이 마음이昏惰한 것이니 어찌微를 살피서豫防할 수가 있을가.

天叙有典 勅我五典 五惇哉。天秩有禮 自我五禮 五庸哉。同寅協恭 和衷哉。

(譯) 天의 秩叙에는 典法이 있어서 우리에게 五種의 典法을 주셨으니 그 五典을 惇篤히 하시고 天의 秩序에 禮法이 있어서 우리에게 五種의 禮典을 주셨으니 그 五禮를 常用하시어 다같이 恭敬으로 協同하되 哀心을 和合케 하소서.

蔡氏曰 叙者君臣 父子 兄弟 夫婦 朋友之倫叙也。秩者尊卑 貴賤等級 隆殺之品秩也。勅正 惇厚 庸常也。衷降衷之衷卽所謂典禮也。典禮雖天所叙秩 然正之 使叙倫 而益厚 用之 使品秩而有常 則在我而已 故君臣當同其寅畏 協其恭敬 誠一無間 融會流通 而民彝物則 各得其正 所謂和衷也。

(譯) 蔡沈曰—叙란 것은 君과臣 父와子 兄과弟 夫와婦 朋과友의 倫叙이고 秩이란 것은 尊과卑 貴와賤 등等級의 隆殺하는 品秩이다. 勅은 正이고 惇은 厚며 庸은 常이며 衷은 降衷이란 衷이니 所謂 典禮인 것이다. 典禮는 비록 天의 叙秩이나 그를 바르게 해서 叙倫으로 하여금 더욱 厚하게 하고 그를 써서 品秩로 하여금 常이 있게 함은 내게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君臣은 마땅히 그 敬畏함을 같이 하고 그 恭敬함을 도와서 誠一로 間斷이 없게 하고 融會해서 流通하면 民의 良心과 物의 法則이 各各 그의 正道를 얻는 것이 所謂 和衷이라는 것이다.

呂氏曰寅恭惇典庸禮之根源也。君臣聚精會神與天無間。則所惇所庸皆天之典禮。否則爲虛文矣。

(譯) 呂氏曰—寅恭惇典庸은 禮의 根源이다。君臣이 聚精하고 會神하여 天과 더불어 間隙이 없으면 惇한 바와, 庸한 바가 다 天의 典禮가 되나 그러하지 않으면 虛文이 되는 것이다。

天聰明自我民聰明 天明畏自我民畏 達于上下 敬哉有土。

(譯) 天의 聰明함이 바로 우리民의 聰明함이고 天의 明畏함이 바로 우리民의 明畏함이니 上과下가 通達하는 것이다。國家를 統治하는 이는 恭敬해야만 함이다。

蔡氏曰 上下上下天下民也 敬心無所慢也。言天人一理通達無間。民心所存 卽天理之所在 而吾心之敬 是又合天民 而一之者也。有天下者 可不知所以敬之哉。

(譯) 蔡沈曰—上下란 上과 下民이고 敬이란 것은 다음에 僣慢함이 없는 것이다。달라자면 天과人은 一理로 다 通達하며 間隙이 없는 것이라 民心이 있는 바가 바로 天理가 있는 바이니 우리 마음의 敬은 이것이 또한 天과民을合一하는 것이다。天下를 다스리는 자가 可히 敬할바를 몰라서 될가。

陳氏(經)曰 有土之君 惟敬 則不忽乎民 是乃不忽乎天。不敬則徒知天之當嚴 而以民爲易虐 是天民有二理也。此臯陶安民之謨 必推極於此歟。

(譯) 陳經氏曰—國土를 다스리는 임금은 오직 敬하기만 하면 백성을 忽待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上天을 忽待하지 않는 것이고 敬하지 않으면 다만 天을 嚴하게만 할줄 알고 民은 虐待하기가 쉬운 것이니 이것은 天과 民을 二理로 한 것이다。이것은 臯陶의 安民하는 法이니 반드시 이에서 推極할 것인저。

王氏(炎)曰—以君臨民 敬心不存 則所以安民者 必未盡也 當以敬臨之。

(譯) 王炎氏曰—君主로서 백성에 臨하는 데 敬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安民하는 바가 반드시 未盡할 것이니 마땅히 敬으로써 臨해야만 할 것이다.

○董氏(鼎)曰 臯陶言知人 則戒逸欲 崇兢業 惟恐人君不知戒懼 而至於曠官廢事。言安民 則懋政事 敬有土 惟恐人君不知懋敬 而至於褻天玩民。蓋以人君一心又知人安民之根柢歟。

(譯) 董鼎氏曰—臯陶는 知人을 말했은즉 逸欲을 戒하고 兢兢하고 業業함을 崇尚하여 오직 人君이 戒懼한 줄을 모르고서 缺勤하고 廢事하는 데까지 이를가. 점을 내고 또 安民을 말했은즉 政事를 힘쓰고 國土를 恭敬해야 하니 오직 人君이 敬을 힘쓸 줄 모르고서 侮天하고 玩民하는 데까지 이를까 두려워한 것이다. 대개 人君으로서 一心으로 또한 知人하고 安民하는 根柢가 되는 것인저.

○西山眞氏曰 武夷胡氏嘗學臯陶謨 天叙至有土章 曰臯陶之學 極純粹。

(譯) 眞西山曰—武夷胡氏는 일찍이 臯陶謨에 天叙에서 有土章까지를 引用하고서 臯陶의 學問이 極히 純粹하다고 말하였다.

○帝庸作歌曰 勅天之命 惟時惟幾。乃歌曰 股肱喜哉 元首起哉 百工熙哉。臯陶拜手稽首颺言曰 念哉 率作興事 慎乃憲欽哉 屢省乃成欽哉。乃廢載歌曰 元首明哉 股肱良哉 庶事康哉。又歌曰 元首叢脞哉 股肱惰哉 萬事墮哉。帝拜曰 俞往欽哉(益獲)。

(譯) 舜帝께서 노래를 지어「勅勅하는 天의 命은 언제라도 보시리라」고 하고 이에 노래하시되「股肱(大臣)이 즐거하니 元首(自身)가 일어나고 百工이 明朗하네」고 하시니 臯陶가 拜手하고 稽首하며 말씀드리되「留念하

사와 政事를 하시는 데는 그의 大法를 삼가서 恭敬하시며 여러번 그의 成功을 살피시사 恭敬하소서」고 하는 이어서 노래하되「元首가 賢明하시니 股肱도 善良하고 庶事도 健全함이다」고 하고 또 노래해서「元首가 煩瑣하시면 股肱도 惰怠하고 萬事가 墮落되리라」고 하니 舜帝는 절하며「그러하도다. 가서 恭敬할진저」고 하였다.

蔡氏曰 勅戒勅也 幾事之微也。 惟時者無時而不戒勅也 惟幾者無事而不戒勅也。 頃刻謹畏之存則怠荒之所自起 毫髮幾微之不察則禍患之所自生 不可不戒也。 此舜將欲作歌 而先述其所以歌之意也。 臯陶言 人君當總率羣臣 以起事功。 又必謹其所守之法慶 興事而數考其成 兩言欽哉者 興事考成 二者皆所當深敬 而不可忽者也。 此臯陶將欲廢歌 而先述其所以歌之意也。 帝拜者 重其禮也。 重其禮 然其言 而曰汝等往治其職 不可不敬也。 舜作歌 而責難於臣。 臯陶廢歌 而責難於君。 君臣之相責難者如此 有虞之治 茲所以爲不可及也歟。

(譯) 蔡沈曰 勅은 戒勅함이고 幾는 事의 微한 것이며 惟時한 것은 어느 때는 戒勅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고 惟幾한 것은 無事할 때라도 戒謹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니 暫時라도 謹畏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荒怠함이 그에서 일어나고 조금이라도 幾微를 살피지 아니하면 禍患이 그에서 나는 것이니 警戒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것은 舜帝가 將次로 노래를 지으려고 먼저 그의 노래할바 뜻을 表示하시니 臯陶는 말하되 人君은 마땅히 君臣을 總率해서 事功을 일으키되 또한 반드시 그의 지킨바 法度를 삼가하고 興事해서 그의 成功을 자주 考檢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번이나 欽哉를 말한 것은 興事하고 考成하는 두가지지를 다 마땅히 深敬해서 輕忽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니 이것이 臯陶가 將次로 노래를 이어서 먼저 그의 노래하려는 뜻을 表示한 것이다. 舜帝가 절한 것은 그의 禮를 重히 한 것이니 그 禮를 重히 하여 그 말을 듣고서 「너희들은 가서 그의 職責을 다하는데 恭敬하지 않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舜帝는 노래를 지

어서 臣에게 어려운 責任을 勸하고 阜陶는 노래를 이어서 君에게 어려운 責任을 勸하여 君과 臣이 서로 이
러운 責任을 勸한 것이 이와 같으니 虞舜의 治績에 미쳐 갈 수 없는 所以가 이것인저.

陳氏(大猷)曰 阜陶因帝 振奮增廣之意而欲其加謹慎省察之心 凡作興必謹守成憲而欽哉 不可輕
於有爲也。 又必屢察已成之治 而欽哉 不可玩夫己爲也。

(譯) 陳大猷氏曰 阜陶는 舜帝로 因해서 增廣하는 뜻을 振奮해서 그의 謹慎하고 省察하는 心情을 더하려
는 것이다. 무릇 作興하는 데는 반드시 삼가 成憲을 지켜서 恭敬하여 事爲함을 輕視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고 또 반드시 여러번 已成한 治績을 살펴 보아 恭敬하여 既爲한 것을 보기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伊尹訓于王(太甲)曰 嗚呼嗣王 祇厥身念哉。(書經伊訓)

(譯) 伊尹이 太甲(湯王의 孫)에게 「아아! 嗣王은 그 自身을 恭敬해서 留念하소서」고 訓戒하였다.

蔡氏曰 太甲當以三風十愆 敬之於身 念而勿忘也。

(譯) 蔡沈曰 太甲은 마땅히 三風과 十愆(歌舞하는 巫風 貨色 遊畋하는 淫風 侮聖言 逆忠直 違善德 此
頭章하는 亂風)으로써 當하여 自身을 恭敬하고 留念하여 잊지 않았던 것이다.

陳氏(大猷)曰 祇厥身 乃指太甲 下手工用功處 一篇之綱領也。

(譯) 陳大猷氏曰 그 自身을 恭敬하라 함은 그것이 太甲이 下手해서 工夫할 곳을 가리킨 것이니 一篇의 綱
領이다.

張氏曰 能敬其身 則能如夏後之懋德 繼先王以嗣德。 立愛立敬 作善之祥 惟德之慶 皆自敬其身

出 故敬立 則百善從也。

(譯) 張氏曰 能히 그 自身을 恭敬하면 能히 夏後와 같이 德을 힘써서 先王을 받아서 德言이 있을 것이다. 立愛하고 立敬함은 作善하는 祥瑞이니 오직 德의 慶事는 다 그 自身을 恭敬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敬이 立하면 百善이 모두 따르는 것이다.

伊尹作書曰 一先王(湯) 顧諟天之明命 以承上下神祇。社稷宗廟 罔不祇肅 天監厥德 用集天命

撫綏萬邦 肆嗣王丕承基緒(書經大甲)

(譯) 伊尹이 戒書를 지어 말함하시되 先王께서는 이 天의 밝은 命을 돌아보사 上下의 神祇를 받드시니 社稷과 宗廟가 肅敬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上天이 그 德을 下監하시와 大命을 주시어서 萬邦을 平定하시었으니 이에 嗣王은 그의 創業을 크게 承奉하였나이다.

蔡氏曰 一顧常自在之也 在天爲明命 在人爲明德。成湯常自在是天之明命 以奉天地神祇 社稷宗廟無不肅敬。故天視其德 用集大命 以有天下 撫安萬邦 嗣王得以大承其基業也。

(譯) 蔡沈曰 顧는 늘 보는 것이니 天에 있어서는 明命이 되고 人에 있어서는 明德이라 하는 것이다. 成湯은 恒常이 天의 明命을 돌보셔서 天神과 地祇를 받드시고 社稷과 宗廟를 肅敬하지 않음이 없었다. 그러므로 天은 그 德을 보시고 大命을 賦與하시니 天下를 가지고 萬邦을 撫安하셨으니 嗣王은 그의 創業을 크게 받들도록 하라는 것이다.

陳氏(雅言)曰 一顧諟者即敬也 推此心以奉天地神祇 社稷宗廟罔不祇肅 所謂顧諟明命也。

(譯) 陳雅言氏曰 顧諟란 것은 即 敬이니 이 마음을 이루어서 天神과 地祇를 받드시니 社稷과 宗廟가 敬肅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所謂「顧諟明命」이란 것이다.

嗣王戒哉 祇爾厥辟 辟不辟 忝厥祖

(譯) 嗣王은警戒하여 王位를敬慎하소서. 王이 王노릇을 못하면 그 祖上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蔡氏曰 嗣王當敬爾所以爲君之道 君而不君 則忝辱成湯矣。

(譯) 蔡沈氏曰 嗣王은 마땅히 그君이 되는 所以의 道를敬慎하소서. 君이 君답지 못하면 湯王을辱되게 하는 것이다.

先王昧爽丕顯 坐以待旦。

(譯) 先王께서는 未明에 크게 나타나사 앉아서 아침을 기다리셨다.

蔡氏曰 昧爽云者 欲明未明之時。丕大也顯亦明也。先王於昧爽之時 洗濯澡雪 大明其德 坐而待旦 而行之也。

(譯) 蔡沈氏曰 昧爽이란 것은 날이 밝으려 할 때이고 丕는 대며 顯은 또한 明이니 先王은 昧爽할 때에 洗手를 하시고 그의 德을 크게 밝혀 앉아서 해 뜨기를 기다려 實行하셨던 것이다.

欽厥止 率乃祖攸行。

(譯) 그 行止를敬慎하시와 그의 祖가 行하시던 바를 따라 하셨다.

蔡氏曰 欽者肅恭收斂。止者心之所止也。人心之靈 事事物物 莫不各有至善之所 而不可遷者。欽厥止者 所以立本。率乃祖者 所以致用。

(譯) 蔡沈曰—欽이란 것은 肅敬하여 收斂함이고 止한 것은 마음이 所止함이니 人心의 靈함은 事事物物에 各其다 至善한 바가 없지 않아서 옮길 수가 없는 것이니 欽厥止란 은 本을 세우는 所以고 率乃祖란 것은 用을 이루는 所以인 것이다.

王懋乃德 視乃烈祖 無時豫怠。

(譯) 王은 이에 힘을 쓰시와 名祖를 본받아 豫怠할 때가 없게 하소서.

蔡氏曰 湯之盤銘曰苟日新 日日新 又日新。湯之所以懋其德者如此。太甲亦當勉於其得 視烈祖之所爲 不可頃刻 而逸豫怠惰也

(譯) 蔡沈曰—湯王 盤銘(沐浴湯에 새긴글)에는 「眞實하게 날로 새로 우러하면 날로 날로 새롭게 하고 또 날로 새롭게 하라」고 하였으니 그의 德을 힘쓰는 所以가 이러하였다. 太甲도 또한 마땅히 그의 德에 힘을써서 湯王의 하시던 바를 보아서 暫時라도 享樂하고 惰怠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惟天無親 克敬惟親。民罔常懷 懷于有仁。鬼神無常享 享于克誠

(譯) 天은 누구만 親하는 것이 아니라 能히 敬하는 者를 親하고 民은 언제나 德하는 것이 아니라 仁이 있는 者만 懷하는 것이며 鬼神은 固定하게 歆享하는 것이 아니라 能히 誠한, 者에만 欽享하는 것이니 天位는 어려운 것인저.

蔡氏曰 曰敬 曰仁 曰誠 各因所主 而言。天謂之敬者 天者理之所在 動靜語默不可有一毫之慢 民謂之仁者 民非元后何戴 鰥寡孤獨 皆人君所當恤。鬼神謂之誠者 不誠無物 誠立於此 而後神

格於彼。分而言之則三合而言之則一德而已。太甲遷善未幾而伊尹以是告之其才固有大過人者歟。

(譯) 蔡沈曰 敬이라 하고 仁이라 하고 誠이라 함은 各各 그의 主로 하는 바를 因해서 말했는데 天에는 敬을 말한 것은 天이 탄 것이 理의 所在니 動과 靜과 默에 一毫라도 怠慢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民에 仁을 말한 것은 백성이 元後가 아니면 무엇을 奉戴할가. 嫫婁孤獨이 모두다 人君의 마땅히 도울바라는 것이고 鬼神에 誠을 말한 것은 誠이 없이는 物이 없으니 誠이 이에 있는 뒤에야만 神이 그에 欲格하는 것이다. 그러나 分해서 말하면 三種이지만 合해서 말하면 一德뿐이다. 太甲이 改過遷善한지 얼마 아니되어서 伊尹이 이렇게 告戒하였으니 그의 才質이 眞實로 크게 過人한 것인저.

○西山眞氏曰 敬誠仁并言始於此 三者堯舜禹湯之正傳也。

(譯) 眞西山曰 敬과 誠과 仁을 이에 비로소 같이 말 하였으니 이 三者는 堯舜禹湯의 正傳하신 것이다.

先王惟時懋敬 厥德克配上帝。今王嗣有令緒尚監茲哉。

(譯) 先王께서는 敬을 힘쓰셔서 그 德이 能히 上帝에 配하셨으니 只今에 王이 그 아름다운 系統을 이었으니 언컨나 이것을 鑑戒할진저.

○蔡氏曰 成湯勉敬其德 德與天合 故克配上帝。今王嗣有令緒 庶幾其監視此也。

(譯) 蔡沈曰 湯王은 그 德이 敬을 힘쓰셔서 德이 天에 合하셨기 때문에 能히 上帝에 配하셨었다. 只今에 王은 그 令緒를 받았으니 거의 그를 보고 鑑戒해야만 할 것이다.

○西山眞氏曰 惟時云者 謂敬德之外 無復他道 所以深勉太甲也。前言敬仁誠 茲獨總之以敬者 蓋

敬而後 能仁能誠故也。

(譯) 眞西山曰―惟時란 것은 敬의 德外에는 다시 다른 道가 없다는 것을 말함이니 堯이 太甲을 勉戒한 所以이다. 앞에는 敬信誠을 말하고 이에는 獨히 敬으로서 總合한 것은 대개 敬을한 뒤에야 能히 仁하고 誠하게 되기 때문이다.

王命說曰 欽豫是命 其惟有終(書經說命)

(譯) 王이 傳說에게 命하시되 나의 이 命을 恭敬해서 오직 成功이 있게 하소서

○蔡氏曰 言敬我是命 其思有終也

(譯) 蔡沈曰―나의 이 命을 敬慎하여 그 成功이 있기를 생각한 것이다.

說進于王曰 惟天聰明 惟聖時憲。 惟臣欽若惟民從。

(譯) 傳說이 王에게 나아가 말하기를 오직 天神은 聰明하시니 오직 聖人이 그를 模法하시면 臣下가 敬順하며 오직 百姓은 다스려질 것입니다.

蔡氏曰 人君法天之聰明 一出於公 則臣敬順 而民亦從治矣。

(譯) 蔡氏曰―人君이 天의 聰明함을 模法에서 모든 것을 公正하게 하면 臣은 敬順하고 따라서 民이 다스려질 것이다.

惟學遜志 務時敏 厥修乃來 允懷于茲 道積于厥躬。

(譯) 오직 學은 뜻을 遜順하게 하는 것이니 이것을 敏捷하게 힘써서 그것을 닦아 오소서 眞實로 이것만 생 각하시면 道가 그 몸에 쌓일 것입니다.

蔡氏曰 遜謙抑也 務專力也 時敏者無時而不敏也 遜其志如有所不能 敏於學如有所不及 虛以受人 勤而勵己 則其所修如泉始達 源源乎其來矣 篤信而深念乎此 則道積於身 不可以一二計矣 夫修之來來之積 其學之得於己者如此。

(譯) 蔡沈曰 遜은 謙抑함이고 務는 專力함이라 時敏이란 것은 어느때나 不敏함이 없는 것이다. 그 뜻은 遜順해서 能하지 못하는 바가 있는 듯 하고 배움에는 敏捷해서 及하지 못하는 바가 있는 듯하며 虛로써는 人言을 듣고 勤으로써는 自己를 督勵하면 그의 닦은바가 셀처럼 비로소 솟나아서 源源하게 흘러갈 것이니 篤信해서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 道가 自身에 쌓여서 한 두가지로 말할수 없을 것이니 그의 닦아 오고와 서 쌓아서 그의 배움이 自己에 얻은 것이 이와 같은 것이다.

惟敦學半 念始終典于學 厥德修罔覺。

(譯) 생각할전데 가르침과 배움과는 서로 半이니 心中에 始終을 學問에 法으로 하면 그 德이 不知中에 닦여질 것이라다.

蔡氏曰 敦教也 言教人居學之半 蓋道積厥躬者 體之立 敦學于人者 用之行 兼體用 合內外而後聖學可全也 始之自學學也 終之教人亦學也 一念終始 常在於學 無少間斷 則德之所修 有不知其然而然者矣。

(譯) 蔡沈曰—敎은 敎함이니 남을 가르치는 것이 배움의 半이 됨을 말한 것이다, 대개 道를 그 自身에 쌓는 것은 體가 서는 것이고 敎를 他人에게 얻는 것은 用을 行하는 것이니 體用을 兼하고 內外를 合한 뒤에야만 聖學이 可히 完全해질 것이다. 처음에 自己 스스로 배우는 것도 學이고 마침내 他人을 가르치는 것도 또한 學이니 終始一念을 恒常學問에 두어서 조금도 間斷이 없다면 德을 닦은 바가 그렇게 됨을 알지 못해도 그렇게 됨이 있을 것이다.

監于先王成憲 其永無愆。惟說式克欽承 旁招俊人 列于庶位。

(譯) 先王의 法度가 된 것을 보시와 그 길에 過失이 없게 하소서. 오직 傳說은 能히 恭敬해서 받자와 널리 俊人한 人物을 써서 여러 職位에 排列하리이다.

蔡氏曰—言高宗之德 苟至於無愆 則說用能敬承其意 廣求俊人 列于衆職。

(譯) 蔡沈曰—殷나라 高宗의 德이 眞實로 過失이 없는데 이르렀음을 말하였은즉 傳說이 能히 그 뜻을 敬承하여 널리 人材를 求해서 여러 職位에 配置하리는 것이다.

○陳氏曰 古人言學 自傳說君臣始。

(譯) 陳氏曰—古人이 學問을 말하기는 傳說의 君과 臣에서 始作하였던 것이다.

○洪範九疇 敬用五事 一曰貌 二曰言 三曰視 四曰聽 五曰思。貌曰恭 言曰從 視曰明 聽曰聰 思曰睿。恭作肅 從作人 明作哲 聰作謀 睿作聖 (周書)

(譯) 書經의 洪範篇 九疇에는 五事를 敬用하는데 첫째는 貌 다음은 言 셋째는 視 네째는 聽 다섯째는 思이

니 貌는 恭하고 言은 從하며 視는 明하고 聽은 聰하며 思는 睿하면 恭은 肅하게 되고 從은 人하게 되며 明은 哲하게 되고 聽은 謀하게 되고 睿는 聖하게 되는 것이다.

蔡氏曰 五事曰敬 所以誠身也。

(譯) 蔡沈曰—五事에서 敬이라 함은 自身을 誠實히 하는 所以인 것이다.

○張氏曰 九疇雖多 人君所守 惟在敬用五事 心敬則貌言視聽思 極於肅人哲謀聖 其精神所運上而五行下而福極 無不得其所 洪範之要 在於敬而已。

(譯) 張氏曰 九疇는 비록 많으나 人君이 지킬바는 오직 「敬用五事」에 있으니 心이 敬하기만 하면 貌言視聽思가 肅人哲謀聖에 極해서 그의 精神의 運하는바 五行 行해져서 福이 되니 極에는 그의 適所를 얻지 못함이 없는 것이라 洪範의 要點은 敬에 있을 뿐이다.

○西山眞氏曰 五事天之所賦 而具於人者 貌之恭 言之從 視之明 聽之聰 思之睿 皆形色中 天性之 本然也。必以其敬用之 則能保其本然之性 不以其敬用之 則貌必慢 言必悖 視聽則昏且窒 思慮 則粗且淺 而本然之性喪矣。

(譯) 眞西山曰—五事는 天神이 賦與한 것으로서 人間에 갖추어 있는 것이니 貌가 恭함과 言의 從함과 視의 明함과 聽의 聰함과 思가 睿함은 다 形色의 中에 天性의 本然에 맞는 것이니 반드시 敬으로서 쓰면 能히 그 本然의 性을 保全할 것이나 敬으로서 하지 않으면 貌는 반드시 倨慢해지고 言은 반드시 妄悖해지며 視聽은 昏하고 또 窒해지고 思慮는 粗하고 淺해서 本然의 性을 喪失한 것이다.

○又曰貌言視聽思各有攸主而總以敬之一言。何哉。蓋敬者五事之主也。敬不存於中則形於貌者必輕且慢。無由而能恭。發於言者必易而肆。無由而能從。視聽蔽於物。何由而明且聰。思慮汨於多端。何由而通微。故敬則五事皆得。不敬則五事皆失。程子曰聰明睿知皆由此出。信哉。

(譯) 又曰 貌言視聽思가 各各 主로 하는 바가 있으나 敬의 一言으로서 總合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개 敬이란 心中에 있지 않으면 貌에 形함이 반드시 輕하고 또 慢해져서 能히 恭할 수가 없을 것이요 言에 發함이 반드시 易하고 肆해져서 能히 從할 수가 없을 것이며 視聽이 物에 蔽히면 어찌 明하고 聰할 수가 있으며 思慮가 多端에 빠지면 어찌 通微할 수가 있을가. 그러므로 敬하면 五事가 다 得利하지만 敬하지 못하면 五事가 다 失敗할 것이다. 程子는 「聰明睿知가 모두 이 敬에서 나온다」고 했으니 믿을 말이다.

○新安陳氏曰 建用皇極 爲九疇之宗旨 而敬用五事 爲建用皇極之根本。敬以用五事則身修 而極建 而天之道備矣。不敬以用五事 則身不修 而極不建 而天之道胥失之矣。此九疇之樞在皇極 而皇極之要在五事 五事之本 又在敬之一字也。

(譯) 新安陳氏曰 「建用皇極」이 九疇의 宗旨가 되는데 「敬用五事」는 그의 根本이 되는 것이다. 敬으로서 五事를 쓰면 自身이 닦여서 皇極이 세워져 天人의 道가 具備될 것이나 不敬으로서 五事를 쓰면 自身이 不修하고 皇極이 不建해서 天人의 道가 共失될 것이니 이것이 九疇의 樞는 皇極에 있다면 皇極의 要는 五事에 있고 五事의 本은 또한 敬의 一字에 있다는 것이다.

○又曰 五事皆當以敬用之。能以敬爲主 則物循其則 而貌言視聽思 皆能盡其性 以踐形 恭從明聰 睿充而極於肅又哲謀聖矣。不以敬爲主 則物失其則 性不盡 而無以踐形矣。盡性踐形之學 貴

乎內外交進 以致夾持之功。五事固以思爲主 而思必以貌言視聽爲先。貌言視聽在外 而可見者也。思在內 而不可見者也。於外而可見者 先致持守之功 則百體各職其職。於內而不可見者 復致操存之功 則百體於天君 而從其令。一敬之功 內外夾持 庶幾其無滲漏乎。

(譯) 又曰—五事는 모두 마땅히 敬으로서 써야만 하니 能히 敬으로서 主로만 하면 物도 그의 法則에 따라 貌言視聽思가 다 能히 그 性을 다해서 踐形하리니 恭從明聰睿가 되어 肅又哲謀聖에 極進할 것이나 敬으로 主로 하지 않으면 物이 그 法則을 잃어서 性을 다하지 못하여 踐形을 할 수 없을 것이다。盡性하고 踐形하는 學問은 內外가 交進하여 夾持의 功을 이루는 것이 貴重하니 五事는 眞實로 思로서 爲主로 하고 思는 반드시 貌言視聽으로 爲先해야 할 것이다。貌言視聽은 外에 있어서 볼 수가 있는 것이나 思는 內에 있어서 볼 수가 없는 것이니 外에 可見할 것은 먼저 持守하는 功을 이루면 百體가 各各 그 職分을 할 것이나 內에 不見할 것은 다시 操存하는 功을 이루면 百體가 天君(心)의 命令을 따를 것이니 한 敬의 功을 內外로 夾持하여야 거의 遺漏됨이 없을 것이다。

○太保(召公)曰 嗚呼 惟王受命無疆 惟休亦無疆 惟恤。嗚呼 曷其奈何不敬。(書經) 嗚呼 天亦哀于四

方民。其眷命用懋 王其疾敬德。(書經) 召誥

(譯) 太保召公曰—아아! 오직 王은 天命을 받아 無疆하게 오직 아름답고 또한 無疆하게 오직 愛恤하소서。아아! 그 어찌해서 敬하지 않아서 될까요。嗚呼! 天帝도 또한 四方의 民을 哀恤하시니 百姓은 그의 眷命에 힘쓰니 王께서도 한시 바빠 德을 敬하옵소서。

○袁氏曰 疾敬德者 更無等待遲疑 只今便下手

(譯) 袁氏曰—빨리 德을 敬한다는 것은 다시 等待하고 遲疑치 말고 只今에 곧 着手하는 것이다。

○新安陳氏曰 天命不可恃 祖宗不可恃。惟敬德 庶可凝固天命 而迆續祖德爾。敬德而言疾最有
力。蓋人心操則存 舍則亡。必緊着精神 汲汲用工 則莊敬日強 而能敬苟悠悠玩怠 則安肆日偷
而不能敬矣。又後言肆 惟王其疾敬德。一篇綱領在敬字 而敬之工夫 又在疾字。

(譯) 新安陳氏曰 天命도 믿을수 없고 祖宗도 믿을수 없으니 오직 敬하는 德만이 거의 天命을 固定시키고
祖德을 받아 잇게 하는 것이니 敬德에 疾을 말한 것이 가장 有力한 것이다. 대개 마음은 잠으면 있고 놓
으면 없어지는 것이니 반드시 精神을 바짝 차려서 汲汲하게 工夫를 한다면 莊敬함이 날로 強해서 能히 敬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萬若에 悠悠하게 怠慢하면 安逸한 데로만 흘러가서 能히 敬할수가 없을 것이다.
또 뒤에는 放肆를 말하여 오직 王은 그 빨리 敬德이라고 하였으니 一篇의 綱領이 敬字에 있고 敬의 工夫
는 또한 疾字에 있는 것이다.

○王敬作所 不可不敬德。

(譯) 王께서는 敬으로 사시옵소서. 敬德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蔡氏曰 所處所也 猶所其無逸之所。王能以敬爲所 則動靜語默 出入起居 無往而不居敬矣。不
可不敬德者 甚言德之不可不敬也。

(譯) 蔡沈曰 所之處所이니 「所其無逸」의 所字와 같은 것이다. 王이 能히 敬으로써 處所로 하면 動靜과
語默 出入과 起居가 각각마다 敬에 居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不可不敬德이란 것은 甚히 德을 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朱子曰 召誥中 其初說許多言語 却緊要處。只是惟王不可不敬德而已。

(譯) 朱子曰—召誥中에 그 처음은 許多한 言語를 하였으나 그에 緊要한 것은 다만 이 「惟王不可敬德」이라 한 것 뿐이다.

宅新邑 肆惟王 其疾敬德。 王其德之用 祈天永命。

(譯) 新邑에 宅을 하여 이에 王은 그 德을 敬德하소서。 王이 그 德을 用하십시요 天命을 終지하는 것입니다。

○蔡氏曰 宅新邑 所謂初服也。 王其疾敬德容可緩乎。

(譯) 蔡沈曰—新邑에 宅을 하였다는 것은 所謂 初服이란 것이다 王은 그 德을 빨리 해야 하니 어찌 늦추어서 될가。

○呂氏曰 祈天永命 無他術 惟敬德爲可耳。

(譯) 呂氏曰—天에 永命을 비는 데는 다른 方法은 없으니 오직 敬德만 하면 되는 것이다。

○新安陳氏曰 此一節 發明王乃初服之意。 蓋今日作邑 而自服土中 乃所謂初服。 是又中天下 定四海之一初也。 天之命吉凶 判於此 王之能敬德 祈永命與不能 亦判於此。 召公所以欲王乘此一初之機 而疾敬德也。 疾敬德 則能用德。 疾云者 欲其乘此機 而速勉之。 豈可又以悠悠失之哉。 肆惟王其疾敬德 蓋申上文。 王其疾敬德之語 而致重複懇切之意云。

(譯) 新安陳氏曰 이 一節은 王이 初服한 뜻을 發明한 것이다。 大개 今日에 作邑해서 土中에 自服하는 이 것이 所謂 初服이란 것이요 이것이 또 天下에 中立해서 四海를 安定시키는 한 처음이니 天의 吉凶을 命하는 것도 이에서 判定되는 것이다。 王이 能히 敬德을 해서 天命을 비는 것과 못하는 것도 또한 이에서 判

定되는 것이니 召公은 王이 初服의 機會를 타서 빨리 敬德할 것을 欲求하는 所以다. 빨리 敬德을 하면 能히 德을 쓸 것이니 빨리 한다는 것은 이 機會를 타서 速히 힘을 쓰도록 하려는 것이니 어찌 가히 또 悠悠하다가 失手해서 될가. 이에 오직 王은 그 빨리 敬德을 하소서 고 하였음은 대개 上文을 거듭해서 懇切한 뜻을 重複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蔡氏曰 召公作書致告 達之於王。其書拳拳於歷年之久近 反覆乎夏商之廢興 究其歸則以誠小民爲祈天命之本。以疾敬德爲誠小民之本。一篇之中屢致意焉。古之大臣爲國家 長遠慮蓋如此。

(譯) 蔡沈曰—召公이 글을 써서 王에게 告하였는 그 말이 歷年の 久近에 拳拳하고 夏商의 興廢를 反覆하였으나 그의 歸趣를 研究한다면 小民을 和合함으로써 天命을 비는 根本으로 하고 敬德을 빨리 함으로써 小民을 和合시키는 根本으로 하였다. 一篇의 中에 여러번 致意하였으니 옛날 大臣은 國家를 爲해서 思慮를 깊게 하였음이 대개 이러한 것이다.

○又曰 此篇專主敬 言敬則誠實 無妄 視聽言動一循乎理。好惡用舍 不違乎天。人君保有天命 其有要於此哉。伊尹亦言 皇天無親 克敬惟親。敬則天與我一矣。

(譯) 又曰—이 篇은 오로지 敬을 主로 하였는데 敬을 말하면 誠實해서 無妄함이라 視聽言動을 모두 理에 따라서 好惡하고 用捨함이 天에 어긋나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人君이 天命을 保有하는 그의 要訣이 이 에 있는 것이다. 「伊尹이 또한 皇天은 私親이 없이 能敬함을 親한다」고 하였으니 敬하면 天과 我가 一體로 되는 것이다.

○王(成王)拜手稽首曰 公(周公)不敢不敬天之休 來相宅 其作周匹休。公其以豫 萬億年敬天之休。拜手稽首海言(洛誥)公曰 汝其敬識百辟享 亦識其有不享。

(譯) 成王이 拜手하고 稽首하며 曰 公시여! 敢히 天의 休命을 尊敬하지 아니치 못할 것이옵기 오서서 相宅하사 그 周의 休命을 지으셨으니 公이 나로서 億萬年의 天의 休命을 敬仰하게 하였나이다. 海言에 拜手하고 稽首하셨다. 公이 曰 너는 敬을 하여 人君이 享國함을 알고 또한 享國하지 못한 것도 있음을 알지 어다.

○蔡氏曰 諸侯享上有誠有僞。惟人君克敬者能識之

(譯) 蔡沈曰 諸侯들이 享國함에는 誠도 있고 僞도 있으니 오직 人君은 能히 敬한 것만은 알아야 할 것이다.

○篤叙乃正父 罔不若豫 不敢廢乃命 汝往敬哉。

(譯) 너의 正父(武王)의 道를 篤實하게 펴되 내가지 不함음이 없으면 백성이 敢히 너의 命을 廢하지 못할 것이니 너는 가서 敬慎할 지어다.

○蔡氏曰 篤者篤厚而不忘 叙者先後之不紊。言篤叙武王之道 無不如我 則人不敢廢汝之命矣。

(譯) 蔡沈曰 篤이란 것은 篤實해서 잊지 않음이고 叙란 것은 先後가 紊亂하지 않은 것이니 말하자면 武王의 道를 篤叙해서 나가지 않음이 없게만 하면 백성이 敢히 너의 命을 廢하지 못할 것이다.

○周公曰 嗚呼 君子所其無逸(書經)

(譯) 周公曰 嗚아아! 君子는 安逸하지 아니한 곳에 處하나니라.

○蔡氏曰 所猶處也 君子以無逸爲所 動靜食息 無不在是焉。作輟則非所謂所矣。

(譯) 蔡沈曰—所는處와 같은 것이니 君子는 無逸함으로써 處所로 하여 動靜하고 食息하는데 인제나 그렇게 해야 하니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所謂 所라는 것이 아니다.

○厥或告之曰 小人怨汝詈汝 則皇自敬德 厥愆曰 朕之愆。

(譯) 그 혹은 告해 말하되 小人이 너를 怨罵한다고 하면 너는 크게 스스로 敬德해서 그 過失은 「나의 過失이라고 하라。」

○朱氏(方大)曰 聞謗而自反 以敬德 則凡怨詈之來 皆箴砭之益。

(譯) 朱方大氏曰 非謗을 듣고 反省을 해서 敬德으로만 하면 무릇 怨罵하는 말이 모두 有益한 箴言이 될 것이다.

○公曰 君爽其汝克敬 以予監于殷喪 大否 肆念我天威(君爽)

(譯) 公曰 君爽아! 그 너는 내 말로써 能히 敬하여 殷의 大亂을 보고 이에 우리 天威를 留意할 지어다.

○蔡氏曰 言汝能敬 以我所言 監視殷之喪亡 大亂 可不 大念我 天威之可畏乎。

(譯) 蔡沈曰—말하되 너는 能히 나의 말한바로서 敬하여 殷나라가 大亂으로 滅亡하였음을 보고 可히 크게 우리가 天威의 可畏함을 생각지 않아서 될까.

其汝克敬德 明我俊民

(譯) 그 너는 能히 敬德해서 우리 俊民을 밝힐 지니라

○蔡氏曰 能自敬德 益加寅畏。明揚俊民 布列庶位。以盡大臣之職業 以答滋至之天休。

(譯) 蔡沈曰—能히 스스로 敬德하고 더욱 敬畏를 加하여서 俊民을 明揚하여 여러 官位에 排列해서 大臣의 職業을 다하여 發展하는 天休를 報答하는 것이다.

○公曰 嗚呼 君惟乃知民德 亦罔不能厥初 惟其終 祇若茲 往敬用治。

(譯) 公曰 아아! 君은 오직 이 民德을 알고 또한 그 始作은 能하지 못함이 없지마는 그의 成功만은 어려움 을 알아서 이같은 데에 勉勵해서 가서 敬하여 다스리라.

蔡氏曰 其祇順此語 往敬用治 不可忽也。

(譯) 蔡沈曰—그의 誥戒를 祇順해서 가서 敬愼하여 다스리는 것은 輕忽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王(康王)曰 嗚呼! 今豫祇命公(畢公) 以周公之事 往哉(書經 畢命)

(譯) 康王曰—아아! 只今 나는 祇敬해서 公에게 周公의 事로서 命하노니 가서 行을 지어다.

○蔡氏曰 今我敬命公 以周公化訓頑民之事 公其往哉。

(譯) 蔡沈曰—只今 나는 敬해서 周公의 頑民을 化訓하던 일로서 命하노니 公은 그 같지니라.

○欽若先王成烈 以休于前政。

(譯) 先生の 成功에 敬順하와 前政처럼 休美하게 하라.

○王(穆王)若曰 嗚呼君牙 惟豫小子 嗣守文武成康遺緒。心之憂危 若蹈虎尾 涉于春冰(書經 君牙)

(譯) 穆王이 若曰—아아! 君牙야. 오직 나小子는 文王 武王 成王 康王의 遺緒를 이어 지켜서 憂危한 心淸이 虎尾를 밟고 春氷을 건너는 것 같노라.

○蔡氏曰 若蹈虎尾 畏其噬。若涉春氷 恐其陷

(譯) 蔡沈曰—虎尾를 밟는 것 같음은 물릴까 겁이 남이고 春氷을 건너는 것 같음은 빠질까 두려운 것이다.

○爾惟敬明乃訓用奉若于先王。對揚文武之光命。

(譯) 너는 오직 그의 訓을 敬해 밝혀서 先王을 받드는 뜻이 하여 文武의 光明을 對揚하라.

○陳氏曰 爲訓之道 不可以不敬 而尤不可以不明 敬以待之 明以告之 則爲教之道得矣。

(譯) 陳氏曰—訓戒하는 道는 敬하지 않으면 안되고 더우기 明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니 敬으로서는 待하고 明으로서는 告하면 教訓하는 道理를 얻는 것이다.

王若曰 伯冏 惟豫不克于德 嗣先人宅丕后 忱惕惟厲 中夜以興 思免厥愆(書經 冏命)

(譯) 穆王이 若曰—伯冏아 오직 나는 德에 能하지 못한데 先王의 宅에 큰 后系를 이에 받아 마음이 惕厲하여 中夜에 일어나 그 過失이나 免하기를 생각하노라.

○蔡氏曰 言我不能于德 繼前人 居大君之位。恐懼危厲。中夜以興 思所以免其咎過

(譯) 蔡沈曰—말하되 나는 德에 能하지 못한데 前人을 이어 大君의 位에 있으니 危厲함을 恐懼해서 夜中에 일어나 그 過失이나 免하는 所以를 생각하노라

○昔在文武聰明齊聖 小大之臣 咸懷忠良 其侍御僕從 罔非正人。以旦夕承弼厥辟 出入起居 罔有不欽 發號施令 罔有不臧 下民祇若 萬邦咸休。嗚呼欽哉 永弼乃后于彝憲

(譯) 옛적에 文王 武王의 때는 聰明하고 齊聖한 小大의 臣大가 모두 忠良하여 그의 侍御하고 僕從함이 正人 이 아님이 없었던 것이다. 朝夕으로 그의 王을 承弼해서 出入하고 起居하는데 敬欽하지 않음이 없고 發號하고 施令하는데 善良하지 않음이 없으니 下民은 그에 順해서 萬邦이 모두 平和했던 것이다. 嗚呼! 欽愼해서 너의 王을 常憲으로 길이 도우라.

○呂氏曰 穆王卒章之命 望於伯罔者 深且長矣。

(譯) 呂氏曰 穆王의 率章한 命이 伯罔에게 期望한 것이 深하고 또 長하다.

○王曰 典獄非訖于威 惟訖于富 敬忌 罔有擇言在身(書經 呂刑)

(譯) 穆王曰 典獄은 威에도 屈하지 않고 富에도 屈하지 말고 敬하고 忌해서 自身에 擇하는 말이 있지 않았다. 오직 天德을 能히 해서 스스로 大命을 지어서 配享이 아래에 있게 하라.

爾尚敬逆天命 以奉我一人 惟敬五刑 以成三德。

(譯) 너는 恒常 敬으로써 天命을 받들어 나 一人을 奉承해서 오직 五刑을 敬愼해서 三德을 成就하도록 하라

○在今爾安百姓 何擇非人 何敬非刑 何度非及。

(譯) 只今에 네가 百姓을 便하게 하는데 人材가 아니면 무엇을 擇하며 刑이 아니고 무엇을 敬愼하며 무엇을 度할가. 愛民이 아닌가.

○哀敬折獄 明啓刑書 胥占 咸庶中正。

(譯) 折獄에는 哀敬하고 刑書에는 明啓하여 서로 占하여야 모두가 거의 中正하게 될 것이다.

○王曰 嗚呼敬之哉。官伯族姓。朕言多懼 朕敬于刑 有德惟刑

(譯) 穆王曰 아아! 敬할진저. 官伯과 族姓아. 나는 말에 겁이 많아서 나는 刑을 敬하노니 德이 있어야만 刑을 할지니라.

○蔡氏曰 此總言之也。朕之於刑 言且多懼 況用之乎。朕敬于刑者 畏之至也。

(譯) 蔡沈曰 이것은 總言한 것이니 나는 刑을 말하는 것조차 또한 아주 겁이 나는데 하물며 實行함일가. 내가 刑을 敬한다는 것은 두려움이 至極한 것이다.

○毅齋沈氏曰 嘗讀罔命 呂刑二書 竊有感於人心之無常 操存之不易。蓋穆王一人之身 而此心凡三變焉。方其命伯罔也。既以怵惕惟厲自敬 復以格其非心 責臣罔有不欽之訓。嗚呼欽哉之辭 其憂思深且長矣。此心不繼 血氣方盛 馭八駿而略四方 幾至亡國。前日豫知敬戒者 不免躬自蹈之。逮其期頤 篤老之際 度作刑 以訓四方 而敬忌 罔有擇言在身 惟敬五刑 以成三德 與夫嗚呼敬哉之說 三四致意焉。雖周道由是而衰 然罔命之書 專主乎欽 呂刑之書 專主乎敬。心法之傳千載 猶可想也。吁 人心操舍存亡之變 抑可畏哉。

(譯) 沈毅齋曰 일찍이 罔命과 呂刑의 二書를 읽고 人心이 無常함과 操存이 不易한 感想이 있었다. 대개 穆王은 一人의 身으로서 그 마음이 세 번이나 變했으니 그의 伯罔에게 命할 때는 이미 怵惕하고 危厲로서

自警하여 다시 그의 非心을 바로잡아 臣下를 責함에 不欽한 訓은 잊지 않았다. 그의 「嗚呼欽哉」의 辭는 그의 憂思함이 深하고도 長하였으나 그 마음이 繼續되지 않아 血氣가 方盛하여 八駿을 몰고 四方을 달리 다가가 거의 亡國에 이르렀으니 前日에 豫知하고 警戒하던 것에 自己를 소 빠짐을 免치 못하였다. 그리고 나이가 百歲나 되는 篤老의 際에 이르러서 呂刑을 지어 四方을 訓戒해서 「敬忌 罔有擇言在身 惟敬五刑 以成三德」과 「嗚呼敬哉」의 說을 三四番이나 致意하였으니 비록 罔道는 그로부터 變化해 갔던 것이나 罔命의 書는 欽을 專主하였고 呂刑의 書는 敬을 專主하였으니 心法이 千載를 傳할 것이 오히려 像想할 수 있는 것이다. 吁라 / 人心의 操舍로 存亡하는 變化가 또한 可畏할 것인저.

○詩曰 上帝臨汝 無貳爾心。 (大雅大明)

(譯) 詩經에 曰 하는님은 너를 보시니 두 마음을 먹지 말라.

○慶源輔氏曰 上帝臨汝 無貳爾心。 辭意嚴格 洋洋乎 如在其上 如在其左右。 學者當常涵泳此二句 以存心養性而事天也。

(譯) 輔慶源曰 「上帝臨汝 無貳爾心」은 辭意가 嚴格하여 하는님이 洋洋하게 上에 계신듯도 하고 左右에 계신듯도 하니 學者는 마땅히 恒常이 二句를 涵養함으로써 存心하고 養性해서 하는님을 섬겨야 할 것이다.

○西山眞氏曰 詩意雖主伐紂而言 然學者平居 諷詠其辭 凜然如上帝之實臨其上 則所以爲閑邪存誠之助 顧不大哉。

(譯) 眞西山曰 詩의 뜻은 비록 紂를 伐하며 한말이나 學者가 平居에 이詩를 諷詠하면 凜然하게 하는님이 實로 위에 臨하신듯 한즉 奸邪함을 막고 誠心을 가지는 所以를 도우는데 돌아봄이 크지 아니한가.

○敬天之怒 無敢戲豫 敬天之渝 無敢馳驅。昊天曰明 及爾出王。昊天曰旦 及爾游衍。(儀禮 刺問 詩)

(譯) 天의 怒를 敬畏하지 敢히 戲豫하지 말고 天의 變함을 敬畏하지 敢히 馳驅하지 말라. 하늘이 變을 밝히니 너는 나가 敬謹하나 하늘을 밝아 아낌 되어 너는 나가 享樂하나.

朱子曰 天地聰明 無所不及 不可以不敬也。

(譯) 朱子曰 하늘의 聰明하심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니 可히 敬하지 않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張子曰 天體物而不遺 猶仁體事 而無不在也。禮儀三百 威儀三千 無一事而非仁也。昊天曰明 及爾出王 昊天曰旦 及爾游衍 無一物之不體也。

(譯) 張模渠曰 天은 萬物을 體해지 遺漏함이 없으니 仁이 萬事를 體해져 不在함이 없음과 같은 것이다. 禮儀가 三百이요 威儀가 三千이나 一事도 仁이 아님이 있지 않은 것이다. 「昊天曰明 及爾出王 昊天曰旦 及爾游衍」이라는 것은 한가지도 體하지 않음이 없다는 것이다.

朱子曰 體物 猶言 爲物之體也。蓋物有箇天理 體事謂事事 是仁做出來 如禮儀三百 威儀三千 須是仁做始得。凡言體便是做他那骨子。

(譯) 朱子曰 體物은 物의 體가 된다는 말과 같은 것이니 天理가 있는 것이고 體事는 事事가 이 仁에서 나오는 것을 말함이니 禮儀三百이나 威儀三千같은 것도 이것이 仁으로서만 비로소 얻는 것이다. 무릇 體를 말한 것은 바로 이것이 그의 骨자로 된다는 것이다.

又曰 橫渠此語 是將赤心片片說與人。苟揚 何曾有此。

(譯) 朱子曰 張橫渠의 이 말은 바로 갖가지 赤心으로서 人間을 말한 것이니 荀子와 揚雄이 어찌 일찌기 이런 말을 하였을가.

○抑抑威儀 維德之隅。敬慎威儀 維民之則。慎爾出話 敬爾威儀(大雅 抑篇)

(譯) 謹慎하는 그威儀는 그德의 있는 마요 그威儀를敬慎함은 그人間의法則이다. 너는 말을 삼가하여 너의威儀 恭敬하라.

衛侯(襄公) 在楚 北宮文子見令尹圍之威儀言於衛侯曰 令尹其將不免。詩云 敬慎威儀 維民之則 令尹無威儀 民無則焉。民所不則 以在民上 不可以終。

(譯) 衛襄公이 楚나라에 있을 때 北宮文子가 令尹圍의威儀를 보고 衛侯에게 말하되 「令尹은 그將次는免치 못할 것입니다。詩經에는 「敬慎威儀 維民之則」이라 했는데 「令尹은威儀가 없으니 백성이 模法하지 않는다면 백성의 위에서 永終지 못할 것입니다」고 하였다。

○視爾友君子 輯柔爾顏 不遐有愆。相在爾室尚不愧于屋漏。無日不顯 莫予云覯。神之格思 不可度思 矧可射思。

(譯) 네가君子 벗함을 보니 네 顔色이 부드럽다. 무슨 허물 있을 소냐. 네가 집에 있음을 보니 屋漏(西北구석 어두운곳)에도 無愧하네. 안 보인다 하지 말라, 나 못본다고 하지 말라. 天神이 이르심이 생각조차 못할진대 하물며 싫어하랴.

○朱子曰 相在爾室以下 只是做存養工夫。

(譯) 朱子曰「相在爾室」의 以下는 다만 本心을 存養하는 工夫인 것이다.

○慶源輔氏曰 人心 操則存 舍則亡。天理存亡 只在敬肆之間 須當於暗室屋。漏之中 不睹不聞之際 常若十手所指 十目所視 兢兢業業之心 不可有一息間之斷方可。若曰 此非顯明之處 人莫豫見也。此心一萌則便間斷矣。所以如此者 蓋鬼神體物而不遺洋洋乎如在其上 如在其左右。其至也尚不可測度 況可厭射之乎。

(譯) 輔慶源曰 人心은 잡으면 있고 놓으면 없어지는 것인즉 天理의 存亡은 다만 敬과 肆의 差異에 있으니 모름지기 마땅히 暗室(屋漏)의 中에서 보지도 듣지도 않는 곳에서 十手が 가르치고 十目이 보고 있는 것처럼 操目하고 恐懼하는 마음을 一息間이라도 間斷이 없게 해야만 肅을 것이다。萬若에 이곳은 드러난 곳이 아니니 남이 나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 마음이 한때도 萌動한다면 그것이 間斷된 것이니 이렇게 되는 所以는 대개 鬼神은 萬物에 體해서 遺漏됨이 없으니 洋洋하게 위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左右에 있는 것 같기도 하여 그의 이르는 것을 測量할 수도 없는데 하물며 심어할 수가 있을가。

○北溪陳氏曰 屋漏人跡不到之地 須是戒懼方無愧怍。

(譯) 陳北溪曰 屋漏는 人跡이 이르지 않는 곳이니 모름지기 거기서 戒懼하여야만 耻事가 없게 될 것이다。

○安成劉氏曰 不遇有愆 是省察之功。所以遏人欲於將萌。卽中庸之內省不疚 而慎獨之事也。能慎獨 則意無不誠矣。不愧屋漏者 是存養之功 所以存天理之本然。卽中庸之不睹不聞 而戒懼之事也。能戒懼則心無不正矣。

(譯) 劉安城曰「不遐有愆」은 이것이 省察하는 功이니 將次로 萌動하리니 人欲을 막는 所以라 卽 中庸에 「內省不疚」로서 愼獨하는 일이니 能히 愼獨(홀로 있을 때 삼가는 것) 하면 意는 誠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고 「不愧屋漏」란 것은 이것이 存養하는 功이니 天理의 本然을 保存하는 所以라 바로 이것이 中庸의 「不睹不聞」으로서 戒懼하는 일이니 能히 戒懼하면 心이 正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豐山謝氏曰 莊子云 爲不善於顯明之中者人得以非之。爲不善於幽暗之中者 鬼神得以責之。君子無人非 無鬼責 亦此意也。

(譯) 謝疊山曰 莊子は 말하되 「不善을 들어난 곳에서 하는 者는 人間들이 非難을 하고 不善을 숨은 곳에 서 하는 者는 鬼神들이 罪責을 한다」고 하였으니 君子는 人間の 非難도 鬼神의 罪責도 없다는 것이 또한 이러한 뜻이다.

○程子曰 不愧屋漏 則心安而體叙。又曰學始於不欺暗室。

(譯) 程子曰 屋漏에도 不愧하면 心이 便하고 體가 되진다。又曰 學問은 暗室에서도 속임이 없는데서 비롯한다。

○東萊呂氏曰 不欺暗室 此最是爲學切要處 中庸大學 只是此道。

(譯) 呂東萊曰 「暗室에서도 속임이 없는데 이것이 가장 學問함에 切要한 것이니 中庸 大學은 다만 이道인 것이다。

○西山蔡氏曰 獨行不愧影 獨寢不愧衾。

(譯) 蔡西山曰 獨行해도 影子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獨寢해도 衾枕에 부끄럽지 않게 하라。

○敬之敬之 天維顯思。命不易哉 無曰高高在上 陟降厥士 日監在茲。

(周頌敬之篇)

(譯) 敬하고 또 敬하라. 하늘이 보시니까.天命은 쉽게 앎은 것이니 高空이라 하지 말라. 이 土地에 陟降하사 날로 보고 계시니라.

○慶源輔氏曰 毋不敬 可以對越上帝。天之明命 不易保 惟敬則可以對越之。若曰高高在上 則便是不敬 不敬則自絕于天矣。常敬則見其陟降於己 所爲之事 日監在茲也。陟降厥士 卽所謂 昊天曰明 及爾出王。昊天曰旦 及爾游衍也。

(譯) 輔慶源曰 敬하지 앎음이 없으면 可히 上帝를 對越할 것이다. 天의 明命은 保全하기가 쉽지 앎으니 오직 敬으로만 하면 可히 對越할 수 있는 것이다. 萬若에 天上은 高空뿐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不敬이니 不敬하면 스스로 天帝에서 隔絶하는 것이다. 그러나 恒常 敬하면 하늘이 自己에게 陟降하면서 所爲하는 일을 날로 監視하고 있는 것이다. 「陟降厥士」란 것은 바로 所謂「昊天曰明 及爾出王. 昊天曰旦 及爾游衍」이란 것이다.

易坤之六二曰 君子敬以直內 義以方外。敬義立 而德不孤。直方大 不習無不利 則不疑其所行也。

(易經文言)

(譯) 易經坤卦의 第二爻에 曰「君子는 敬으로서는 內를 直하게 하고 義로써는 外를 方하게 하나니 敬과 義가 서서 德이 의를 지 앎는 것이니 直하고 方하여 大하니 不習해도 不利함이 없다면 그의 所行은 疑心할 것이 없으리라.

○程子曰 君子主敬 以直其內。守義以方其外。敬立而內直 義形而外方 義形於外 非在外也。敬

義既立 其德盛矣。不期大而大矣。德不孤也。無所用 而不周 無所施而不利 孰爲疑乎。

(譯) 程子曰「君子는 敬을 主로해서 그 內를 直하게 하고, 義를 守하여서 그 外를 方하게 하니 敬이 立해서 內가 直해지고 義가 形해서 外가 方해진다. 義가 外에 나타나 는 것도 外에 있는 것은 아니다. 敬이 外에서니 그 德이 盛한 것이라, 크기를 期하지 아니 하여도 커지는 것이고 德이 의롭지 아니하니 敬은 바가 周하지 않음이 없고 施하는 바가 利하지 않음이 없으니 누가 疑心할수 있을까.

○又曰 乾卦言 聖人之學 坤卦言 賢人之學。惟言敬以直內 義以方外 敬義立 而德不孤。至于聖人 亦只如是 更無別途。

(譯) 又曰 乾卦에는 聖人の 學을 말하고 坤卦에는 賢人の 學을 말하였는데 오직 「敬以直內 義以方外. 敬義立 而德不孤」라 하였으니 聖人에 이르러서도 또한 이와 같을 뿐이고 다시 다를 道理는 없는 것이다.

○又曰 敬以直內 義以方外 合內外之道也。又曰 敬義夾持 直上達天德自此。

(譯) 又曰 「敬以直內하고 義以方外하라」고 한것은 內外의 道를 合한 것이다. 又曰 敬과 義를 끼고서 바로 天德으로 上達하는 것이 이로 부터다.

○朱子曰 最是下得夾持兩字好 敬主乎中 義防於外。二者相夾持 要放下霎時也不得。只得直上去 故便達天德。

(譯) 朱子曰 가장 이에 「夾持」란 兩字를 얻음이 좋은 것이다. 敬은 中에서 主動하고 義가 外에서 防禦해서 二者가 서로 끼여서 暫時라도 放下해서는 안되는 것이니 다만 直上해야 되기 때문에 문득 天德에 達하는 것이다.

○又曰 表裏夾持 更無東西走作去處 上面只有箇天德直上者 無許多人欲牽礙也。

(譯) 又曰 表裏로 끼어서 가지면 다시 東西로는 갈곳이 없고 上面에는 다만 그 天德만 있으니 直上한다는 것은 許多한 人欲의 妨碍함이 없는 것이다。

○又曰 夾持者內外并進之謂 直上者 進進不已之謂。

(譯) 又曰 夾持란 것은 內外로 并進함을 말한 것이고 直上이란 것은 前進해서 마치 不停을 말한 것이다。

○程子曰 學者須是將敬以直內 直內是本。

(譯) 程子曰 學者는 모름지기 이 敬을 가지고 內를 直하게 하는 것이니 直內하는 이것이 根本이다。

○又曰 切要之道無如敬以直內。問人有專務敬以直內 不務方外何如 曰有諸中者 必形諸外。惟恐不直內 內直則外必方。

(譯) 又曰 緊要한 길은 敬으로 內를 「바르게 함만 같은 것은 없다. 누가 물기를 「사람이 敬으로써 直內만 專力하고 方外는 不務한다면 어떨습니까」고 하니 나는 又曰 中心에 있는 것은 반드시 外形에 나타나니 오직 直內가 안될까가 걱정이지 內만 直하다면 반드시 外도 方해질 것이다。

○又曰 心敬則內自直。直內是主一之義存 此涵養。久之 自然天理明。

(譯) 마음이 敬하면 內가 스스로 直해지니 直內한 것이 바로 主一 뜻이니 이 涵養할만 오래하면 自然히 天理가 밝아질 것이다。

○又曰 心豈有出入 亦以操舍而言耳 操之道 敬而直內而已。

(譯) 又曰 마음이 어찌 出入함이 있으리요. 또한 操하고 捨함으로써만 말한것뿐이니 그 操하는 方法이 「敬以直內」하는 것뿐이다.

○朱子曰 敬以直內 便能義以方外. 非是別有箇義. 敬譬如鏡 義便是能照底.

(譯) 朱子曰 「敬以直內」가 바로 「義以方外」를 能히하는 것이니 이것은 別로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다. 敬은 譬如 面鏡과 같고 義는 바로 能히 미치는 것이다.

○又曰 纔敬以直內 便義以方外. 義便有敬. 敬便有義 如居仁 便由義. 由義便居仁. 問敬莫只是 涵養 義使分別是非. 曰不須恁地說 不敬時便是不義.

(譯) 又曰 지우 「敬而直內」하면 바로 「義以方外」가 되니 義에 바로 敬이 있고 敬에 바로 義가 있음은 仁에 居하면 바로 義에 由함이고 義에 由하면 바로 仁에 居함과 같은 것이다. 「或」이 물되 敬은 다만 이것 이 涵養이고 義는 바로 是非를 分別하는 것이 아닌가 하니 答曰 그런 것은 不要하니 不敬할 때는 바로 不義한 것이다.

○又曰 若無敬以直內也 不知義之所在.

(譯) 又曰 敬以直內가 없으면 義의 所在도 알지 못한다.

○又曰 敬以直內 則湛然虛明 萬理具足.

(譯) 又曰 「敬以直內」하면 湛然하게 虛明해서 萬理가 具足한 것이다.

○又曰 敬以直內 最是緊切工夫.

(譯) 又曰「敬以直內」가 가장 이것이 緊切한工夫인 것이다.

○朱子曰 敬以直內 是持守工夫。義以方外 是講學工夫 問敬以直內 義以方外 曰說只恁地說。須自去下工夫 方見得是。如此敬以直內 是無纖毫私意。曾中洞然 徹上徹下。表裏如一 義以方外 是見得是處。決定是恁地。不是處決定不恁地。截然方方正正 須是自將去做工夫 若只恁地說過。依舊不濟事 若實是把做工夫。只是敬以直內。義以方外 八箇字。一生用之不窮。

(譯) 朱子曰「敬以直內」는 이것이 持中工夫이고「義以方外」는 이것이 講學하는工夫이다. 누구가「敬以直內·義以方外」를 묻되 答曰 다만 그러한 說만 말해서 모름지기 스스로工夫에着手하면 必야흐로 모르는 것을 얻을 것이니 이와같이「敬以直內」함은 이것이 毫厘의 私意도 없이 胸中이 洞然해서 徹上徹下하고 表裏가如一하게 되고「義以方外」하면 이것은 옳은 것을 見得해서 그러한 것을 決定하고 옳지 못한 것을 見得해서 그렇지 못한 곳을 決定하게 되니 截然하게 方은方 正은正으로 모름지기 이것을 스스로 가지고工夫를 해갈 것이다. 萬若 다만 그러한 說로만 지나가면 옛 그대로 일은 되지 않을 것이니 萬若에 實로 이것을 把握해서工夫하면 다만「敬以直內 義以方外」의八字만 一生을 써도 窮함이 없을 것이다.

○又曰 敬義二字 隨處加功久久自當得力 聖門只此便是 終身事業

(譯) 又曰 敬과義 두字를 곳에 따라 切을加해서 오래오래 되면 스스로 得力하게 될 것이니 聖門에는 다만 이것이 바로 終身의 事業이다.

○又曰 敬是立己之本。義是處事之本。截然方正各得其宜。

(譯) 又曰 敬은 이것이 自己를 세우는 根本이고, 義는 이것이 處事하는 것이니 截然하게 方과 正이 各各

그宜를 얻은 것이다.

○又曰 只是一事 如兩脚立定 是敬 纔行是義 合目是敬 開眼見物 便是義。

(譯) 又曰 敬과 義는 一事이니 겨우 가는 것은 이것이 義며 눈을 감는것은 이것이 敬이고 눈을 뜨고 보는 것은 바로 이것이 義란 것이다.

○又曰 敬者守於此 而不易之謂。義者施於彼 而合宜之謂。

(譯) 又曰 敬이란 것은 이에 操守해서 不易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義란 것은 저에게 施行해서 合宜한 것을 말한 것이다.

又曰 敬要回頭看 義要向前看

(譯) 又曰 敬은 回頭해서 보는 것을 要하는 것이고, 義는 向前해서 보는 것이다.

又曰 敬立而內自直 義形而外自方 若欲以敬要去直內 以義要去方外 則非矣。

(譯) 又曰 敬이 서면 內가 스스로 直해지고, 義가 形하면 外가 스스로 方해지는 것이다. 萬若에 敬으로써 直內하기를 要해가 義로써 方外하기를 要해간다면 그는 그런 것이다.

○西山眞氏曰 敬則此心 無私邪之累 內之所以直也 義則事物物 各當其分 外之所以方也。

(譯) 眞西山曰 敬하면 이 마음이 私邪의 累가 없어지니 이것이 內가 直하게 되는 것이고 義라면 事物物이 各各 그 分에 當하니 外가 方하게 되는 所以인 것이다.

○朱子名堂記曰 堂房兩夾室 暇日默坐 讀書其間 名其左曰敬齋 右曰義齋 蓋某嘗讀易 而得其兩言

曰敬以直內 義以方外 以爲爲學之要 無以易此 而未知所以用力之方也。及讀中庸 見所論修道之教 而必以戒愼恐懼爲始 然後得所以持敬之本。又讀大學 見所論明德之序 而必以格物致知爲先 然後得所以明義之端 既而觀夫二者之功 一動一靜 交相爲用 又有合乎周子太極之論 然後知天下之理 幽明鉅細 遠近淺深 無不貫乎一者 樂而玩之 足以終吾身 而不厭 何暇夫外慕哉。

(譯) 朱子の名堂室記에 曰 堂房의 두夾室에 餘暇대로 默坐하고 그 사이에 讀書을 하는데 그의 左室은 「敬齋」라하고 右室은 「義齋」라고 하였다. 대개 나는 일찍이 「易經」을 읽다가 그 兩言을 얻었으니 「敬以直內하고 義以方外」라는 것인데 그로써 學問하는 要點으로 하였으니, 그것을 바꿀수는 없을 것이니, 그의用力하는 方法을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中庸」을 읽고 所論한 「修道之教」를 보고서 반드시 戒愼恐懼로서 始作한 然後에 持敬하는 根本이 되는 所以를 얻었고, 또한 「大學」을 읽고서 論한바 明德하는 順序를 보고서 반드시 格物致知로서 先으로 한 然後에 明義하는 端緒가 되는 所以를 알았으니 그 두가지의 功을 보아서 一動一靜이 서로 用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또한 周子の 太極論에 合致되어 있는 然後에 天下의 理致 幽와 明 鉅와 細 遠과 近 淺과 深이 一理에 貫通되지 않음이 없음을 알고서 玩하여 足히써 내음을 마치도록 함이 하지 않았으니 어느 餘暇에 外의 것을 생각할가.

○西山眞氏 敬義齋銘曰 惟坤六二 其德直方 君子體之 爲道有常 內而立心 曰直是貴 惟敬則直 不偏以陂 外而制事 曰方是宜 惟義則方 各當其施 曰敬伊何 惟主乎一 凜然自持 神明在側 曰義伊何 惟理是循 利害之私 罔汨其眞 靜而存養 中則有主 動而酬酢 莫不中矩 大哉敬乎 一心之方 至哉義乎 葛事之綱 敬義夾持 不二不忒 表裏洞然 上達天德 昔有哲王 師保是詢 丹書有訓 西面以陳 敬與怠分 義與欲對 一長一消 禍福斯在 怠心之萌 闢然況昏 欲心之熾 蕩乎狂奔

惟此二端 敗德之賊 必壯乃猷 如敵斯克 怠欲既泯 敬義斯存 直方以大 協德于坤 一念少差 眊此齋扁 嚴師在前 永詔無倦。

(譯) 眞西山敬義齋銘曰—오직 坤卦의 陰二爻는 그의 德이 直方이다. 君子는 그를 體得하여 常道를 가졌으니, 內的으로 立心함에는 直한 것이 尊貴하다. 오직 敬은 直한 것이니 偏跛하지 아니하고 外的으로 制事함은 方한 것이 마땅하다. 오직 義는 方한 것이니 各其施함이 마땅하다. 敬이란 것은 무엇인가. 오직 一單 主로 하여 渾然하게 自持하니 神明만이 감에 있다. 義란 것은 무엇인가. 오직 理만 따르는 것이니 利害를 爲한 私邪의 마음 그 眞心을 못배었다. 靜해서 存表하니 中心에는 主가 있고 動해서 酬酢하니 中短로만 말게 한다. 偉大하다 敬함이여 一心되는 方法이고 至當하다. 義도움은 萬事에서 綱領이니 敬과 義가 來持해서 두가지로 안여기니 表와 裏가 洞然해서 天德으로 上達한다. 옛적에 哲王이 있어 師保에게 물으시니 丹書에는 訓戒있어 西面해서 陳述하니 敬과 怠가 나뉘졌고 義와 欲이 對稱되었다. 一長하면 一消하니 禍福이 이에 있다. 怠心이 한번 萌動하면 어리석게 昏況하고 欲心이 한번 熾盛하면 放蕩하게 狂奔된다. 오직 怠欲 두가지는 敗德하는 害賊이니 이에 研究 壯히 해서 怨讎처럼 克服하다. 怠와 欲이 없어야 하면 敬과 義가 있게 되고 直과 方이 대함으로 坤에로 協動한다. 一念이 조금 어긋나면 이 齋 이름을 볼지이다. 嚴師가 在前하니 기리 倦怠 없게 하라.

○孔子曰 君子無不敬也 敬身爲大 身也者 親之枝也 敢不敬與 不能敬其身 是傷其親 傷其親 是傷其本 傷其本 枝從而亡 (家語大婚解)

(譯) 孔子曰 君子는 敬하지 않음이 없지마는 自身을 敬함이 重大한 것이다. 自身이란 것은 兩親의 分枝이니 敢히 不敬해서 될까. 그 自身을 敬하지 않으면 이것이 그 兩親을 傷하는 것이고 兩親을 傷함은 이것이 根本을 傷함이다. 根本이 傷하면 分枝가 따라서 亡할 것이다.

方氏曰 身之於親 猶木之有枝 親之於身 猶木之有本 相須而共體 此所以不敢不敬也。

(譯) 方氏曰 제 몸이 어미에게 對함은 나무가 가지에 對함과 같으며 어미가 제 몸에 對함은 나무가 根本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서로 共體로 한 것이니 이것이 敢히 敬하지 않음은 아니 되는 所以인 것이다.

○子曰 道千乘之國 敬事而信 節用而愛人 使民以時

論語學而篇

(譯) 孔子曰 千乘되는 나라를 指導하는데는 敬事해서 信義있게 하고 節用해서 愛民하며 使民당에는 閒暇할 때 하라.

朱子曰 敬者主一無適之謂 敬事而信者 敬其事 而信於民也。

(譯) 朱子曰 敬이란 것은 主一에서 無適함을 말하는 것이니 敬事而信이란 것은 그 일을 敬해서 백성에게 信用있게 하는 것이다.

又曰 主一之謂敬 無適之謂一 故此合而言之 身在是 則其心在是 而無一息之離 其事在是 則其心在是 而無一念之雜

(譯) 又曰 主一은 敬이라 하고 無適은 一이라 하니, 그러므로 이것을 습해서 말한 것이다. 몸이 이에 있다면 그 마음도 이에 있어서 一息하는 사이도 떠날 수 없는 것이고, 그 일이 이에 있다면 그 마음도 이에 있어서 一念도 섞임이 없는 것이니라.

問 敬事而信 疑此敬是小心畏謹之謂 非主一無適之謂 曰 遇事臨深履薄 而爲之不敢輕 不敢慢

乃是主一無適。

(譯) 누군가 물기를 「敬事而信」은 疑心하건데 敬은 이것이 小心해서 畏懼하는 것이고 主一해서 無適함을 말함은 아닌가고 하니 答曰 일을 만나면 深淵을 다다르고 薄氷을 밟는 듯이 해서 敢히 輕率하지도 않고 敢히 怠慢하지도 않는 이것이 主一無適이란 것이다.

又曰 敬事而信 是節用愛人 使民以時之本 敬又是信之本 要之本根都在敬上 若能敬 則下面許多事 方照管得到。

(譯) 又曰 「敬事而信」이라 함은 이것이 「節用愛人 使民以時」하는 根本이고 敬은 또한 이것이 信의 根本이다. 要컨데 根本이 모두 敬에 있으니 萬若에 能히 敬하기만 한다면 下面에 許多한 일에 包야 包호로 包括하게 될 것이다.

致堂胡氏(寅)曰 凡此數者 又皆以敬爲主。

(譯) 胡致堂曰 一무릇 이 두어가지는 또 하나 敬으로서 主로 하는 것이다.

覺軒蔡氏曰 敬該動靜 主一亦該動靜 此章 敬者乃是主動而言。

(譯) 覺軒曰 敬은 그 動靜을 兼하는 것이고, 主一도 또한 그 動靜을 兼한 것이다. 이 章에서 敬이란 것은 이것이 動을 主로 해서 말한 것이다.

仲弓曰 居敬而行簡 以臨其民 不亦可乎。居簡而行簡 無乃太簡乎。子曰 雍之言然。(論語)

(譯) 仲弓曰 一敬에 居해서 簡을 行하여 그, 百姓에 臨하는 것이 또한 可하지 아니한가. 簡에 居해서 簡을 行함은 너무 簡한 것이 아닌인가. 孔子曰 一雍의 말이 그러하다.

朱子曰 自處以敬 則中有主而自治嚴 如是而行簡 以臨民 則事不煩 而民不擾 所以爲可 若先自處以簡 則中無主 而自治疎矣 而所行又簡 豈不失之太簡 而無法度之可守乎。

(譯) 朱子曰 一敬으로서 自處하면 中心에 主가 있어서 自治함이 嚴하니 이와같이 해서 簡을 行하여서 百姓에 臨하면 事가 煩하지 않고 民이 擾하지 아니하니 可하게 되는 것이다. 萬若에 면러 簡으로서 自處하면 中心에 主가 없어서 自治함이 疎해져 行하는 바가 또한 簡하니 어찌 太簡에 失해서 法度を 지킬것도 없는 것이 아닌가.

又曰 持身以敬 則心不放逸 而義理著明 故其所以見於事者 自然操得其要 而無煩擾之患。

(譯) 又曰 一몸가짐을 敬으로써 하면 마음이 放逸하지 아니해서 義理가 著明하게 되기 때문에 그의 일에서 보는 바가 自然히 그 要點을 얻어서 煩擾할 걱정이 없을 것이다.

又曰 居敬是自處以敬 行簡是所行得要

(譯) 又曰 居敬은 이것이 敬으로써 自處하는 것이고 行簡은 이것이 行한바가 要點을 얻은 것이다.

又曰 居敬則明燭事理 而無私意之擾 故其行必簡。問居敬之居如居室之居曰然

(譯) 又曰 一居敬하면 事理를 밝게 보아서 私意에 혼들림이 없기 때문에 그 行爲가 반드시 簡單한 것이다. 누가 묻되 「居敬의 居字는 居室의 居字와 같은가」하니 答曰 一그러하다.

○勉齋黃氏曰 居謂身所自處 行謂見於行。

(譯) 黃勉齋曰 一居는 自身이 處하는 바를 말하고 行은 動에서 나타난 것을 말함이다.

○雙峯饒氏曰 敬者一心之主宰 而萬事之根本也 簡出於敬 則其簡爲有本 而每事順理而要直 仲弓之簡 敬而簡者也。蓋他日常問仁於夫子 夫子告之曰 出門如見大賓 使民如承大祭 此居敬之謂也。其得於平日師友之所講磨者如此。

(譯) 饒雙峯曰 敬이란 것은 一心의 主宰로서 萬事의 根本이니 簡이 敬에서 나오면 그 簡은 根本이 있게 되어 每事에 順理해서 要는 바로 弓仲의 簡이 敬해서 簡한 것이다. 他日에 일찍이 孔子께 仁을 물으니 夫子는 告하되 「出門하는 데는 大賓을 보는 듯이 하고 使民하는 데는 大祭를 받드는 듯이 하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居敬함을 말한 것이다. 그의 平日에 師友의 講磨한 바가 이와 같은 것이다.

程子曰 居敬則 心中無物 故所行自簡 居簡則先有心於簡 而多一簡字矣 故曰太簡。

(譯) 程明道曰 居敬하면 心中에 物仲이 없기 때문에 行하는 바가 스스로 簡하나 居簡하면 먼저 簡에有心해서 한 簡字만 많기 때문에 「太簡」이라고 한 것이다.

雙峯饒氏曰 無物只是 無私意。

(譯) 饒雙峯曰 無物이란 다만 이것이 私意가 없는 것이다.

問 一集註何不全用程說。朱子曰 程子只說 得敬中有簡底意 亦有自處以敬 而所行不簡 却說不及聖人所以曰居敬 曰行簡二者 須是周盡某所以 不敢全用他說。

(譯) 누가 묻되 「集註에 어찌하여 程說을 쓰지 않았는가」고 하니 朱子は 「程子は 다만 敬의 속에 簡의 뜻이 있어서 또한 敬으로 自處해서 行한 바가 簡하지 않아도 되어 聖에 이르지 못한 것이니 「居敬」 「行簡」이

란 두가지가 모름지기 다했기 때문에 내가敢히 그의說만 全用하지 못한 所以다」고 하였다.

又曰 程子之意 非仲弓本意

(譯) 又曰 程子の 뜻은 仲弓의 本意가 아니다.

又曰 居敬行簡 是兩件工夫 居敬了 又要行簡。

(譯) 居敬과 行簡은 이것이 두가지 工夫이니 居敬을 마치고 또 行簡을 要하는 것이다.

又曰 世間有居敬 而所行不簡者 如工蔡說呂進伯 是箇好人極至誠 只是煩擾 便是請客也 須臨時兩三番 換食次 又有不能居敬 而所行却簡易者 每事不勞擾 只從簡徑處行 如曹參之治齊 專尚清靜 及至爲相 每日酣飲不視事 隔壁小史歌呼參 亦酣歌以和之 何有於居敬。據仲弓言 自是兩事 程子作一事看了。

(譯) 又曰 世間에는 居敬해도 所行은 不簡한 者가 있으니 謝上蔡가 呂進伯에게 말한 것 같음이니 이러한 好人이 至誠을 極하나 다만 이 煩擾함은 바로 이것이 客氣를 請하는 것이다. 모름지기 臨時로 二三番이나 食次를 갈고 또한 能히 居敬은 하지 못하여도 行한 바는 도리어 簡易한 者가 있으니 每事에 勞擾하지 아니하고 다만 簡徑만 따라서 處行한 者가 있으니 曹參과 같은 사람은 治齊하는데 清靜만을 崇尚하다가 其政丞이 됨에 이르러서는 每日 술에 醉酣해서 일은 보지 아니하고 壁을 隔한 小史가 노래로 參을 부르던 또한 酣歌로서 和答하였으니 居敬하는데 무엇이 있으리오. 仲弓의 말에 依據하면 이것은 스스로 兩事이지 마는 程子는 一事로만 보았던 것이다.

又曰 程子說 自不相害 果能居敬 則理明心定 自是簡。

(譯) 又曰—程子の 說은 스스로 相害되지 않으니 果然 能히 居敬만 하면 理가 明하고 心이 定하여서 自然히 簡이 되는 것이다.

南軒張氏曰 主一之謂敬 敬則專而不雜 序而不亂 常而不迫 其行自然簡也。

(譯) 張南軒曰—主一함을 敬이라 하니 敬하면 專一해서 雜되지 않고 序해서 亂하지 않고 常해서 迫하지 않으니 그의 行함이 自然히 簡해지는 것이다.

敬簡堂記曰 心宰萬物 而敬者心之道 所以生也 生則萬理森然 而萬事之綱總攝於此 凡至于吾前者 吾則因其然而酬酢之故 動雖微 而吾固經緯乎吉之先 事雖大而吾處之 若起居飲食之常 雖雜然并進 而釐分縷析 條理不紊 無他 其綱既立 如鑑之形物 各止其分 而不與之俱往也 此所謂居敬而行簡者歟。

(譯) 敬簡堂記曰 마음은 萬物을 主宰하는데 敬이란 것은 마음의 道로서 生하는 所以이다. 生하면 萬理가 森然하고 萬事의 綱이 이에 總攝되어서 무릇 나의 앞에 이르는 것에 내가 그대로 因해서 酬酢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動은 비록 微해도 나는 진실로 吉의 先兆에 經緯하고, 事는 비록 커도 나는 起居飲食의 常事처럼 處理하니 비록 雜然하게 并進해서도 毫縷를 分析하여 條理가 不紊한 것이다. 그는 다름이 아니라 그의 綱要가 이미 서면 거울에 物形이 나타남과 같이 物件은 各其分數에 맞게하여 더불어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所謂居敬해서 行簡한다는 것이다.

仲弓問仁子曰 出門如見大賓 使民如承大祭 己所不欲勿施於人(顏淵篇)

(譯) 仲弓이 仁을 물으니 孔子는 曰—出門에는 大賓을 본듯이 하고 使民에는 大祭를 받드는 듯이 하며, 自

己가 싫어하는 것은 남에게 하지 말라.

朱子曰 敬以持己 恕以及物 則私意無所容 而心德全矣。

(譯) 朱子曰 敬으로서는 自身을 가지고 恕로서는 外物에 미치면 私意가 容納할 곳이 없어서 心德이 完成될 것이다.

敬恕齋銘曰 出門如賓 承事如祭 以是存之 敢有失墜 己所不欲 勿施於人 以是行之 與物皆春 胡世之人 恣己窮物 惟我所便 謂彼奚恤 孰能反是 歛焉厥躬 于牆于羹 仲尼子弓 內順于家外 同于邦 無小無大 罔時怨恫 爲仁之功 曰此其極敬哉 恕哉 永永無斁。

(譯) 敬恕齋의 銘에는 曰「出門에는 손님같이 使民에는 祭祀같이 이 마음만 가진다면 敢히 失敗가 있겠는가. 自己가 싫어함을 남에게는 하지 말라. 이렇게만 行한다면 모두 溫和할 것인데 어찌하여 사람들은 放縱해서 窮物할가. 오직 나의 便한 바를 어찌 생각하랴. 누가 能히 이에 反해서 그의 몸을 收斂하고 牆에서나 羹에서나 孔子仲弓생각노라. 內로는 家에 順應하고 外로는 邦에 同和하니 小와 大의 區別없이 아무 怨恨없이 된다. 仁을 하는 그의 功이 이것으로 그 極을 하니 敬하고도 恕하여서 길이 길이 변하지 말라.

程子曰 孔子言仁 只說出門如見大賓 使民如承大祭 看其氣像 便須心廣體胖 動容周旋中禮 惟謹 獨便是守之法。

(譯) 程明道曰「孔子께서 仁을 말씀하시는데 「出門如大賓 使民如承大祭」이라 하셨으니 그의 氣像을 보면 문득 마음이 넓고 몸이 살찌서 動容하고 周旋함이 禮에 맞으니 오직 謹獨하는 것이 바로 守心하는 法이다.

新安陳氏曰 程子恐人認見賓承祭 作勉強拘束之敬故云然。 (惟謹獨便是守之法)

(譯) 陳新安曰 程子是 사람들이 손님을 보고 祭祀를 받드는 뜻이 함을 拘束하는 敬으로 만들까 걱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였다.

又曰 又恐人外貌如此 而中心不如此 必於一念前動 己所獨知之處 而致謹焉 便是持守此敬之法

(譯) 又曰 또한 사람들이 外貌가 이러해도 中心은 이러하지 앎을까를 겁내서 받드시 一念이 前動함을 自己란이 아는데서 삼가 하는 것이 바로 이 敬을 持守하는 大法이다.

雙峰饒氏曰。心廣體胖。周旋中禮。持敬之氣像耳。至於用工。却在謹獨上。蓋人但見其出門使民耳。如見大賓。如承大祭。則人所不知而已。所獨知者。於此謹之。則得其用工之要。

(譯) 饒雙峰曰 心이 넓고 體가 살피며 周旋이 禮에 맞는 것은 持敬하는 氣像이다. 그의 工夫를 하는데 이르러서는 도리어 홀로 있을 때를 삼가 하는데 있으니 大개 사람이 다만 그의 出門하고 使民하는 것을 볼 때 大賓을 보고 大祭를 받드는 것과 같이 함은 남이 알지 못하고 저만 혼자 아는 예에서 삼가하면 그의 用工하는 要法을 얻은 것이다.

或問 出門使民之時 則如此可也。未出門 使民之時 如之何。曰 此儼若思時也。 (曲禮曰 儼若思此 靜時敬) 有諸中而後 見於外。觀其出門 使民之時 其敬如此則前乎此者 敬可知矣。非因出門使民 然後有此敬也。

(譯) 누가 묻되 「出門하고 使民함에는 이렇게 함이 可하지 마는 아직 出門하고 使民하지 앎을 때는 아직

할가」고 하니 答曰「이것은 儼然하게 思惟하는 것 같이 할 때이다. (曲禮에 曰儼若思라 하니 이것은 고요할 때에 敬함이다.) 中心에 있어야만 外形에 나타나는 것이니, 그의 出門하고 使民할 때를 보면 그 敬함이 이르 한즉 前의 敬함을 可히 알 것이고 出門하고 使民함으로 因한 然後에 만이 이 敬이 있는 것은 아니다.

問程子只說作敬。先生便設 敬以持己。恕以及物。着來。須如先生說方全。朱子曰程子不是 就經上說。是偶然摘此二句所以只說作敬

(譯) 누가 물기를 「程子是 다만 作敬을 말하였는데 先生님은 문득 敬으로서는 自己를 가지고 恕로서는 남을 對한다고 말씀 하심을 보면 「모름지기 先生님의 說과 같이 해야만 完全함니까」고 하니 朱子曰「程子是 이 經義上으로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偶然히 이 二句만 따서 다만 作敬을 말씀한 것이다.

朱子曰 如說出門如見大賓 使民如承大祭等類 皆是敬之目 又曰須先主於敬 然後能行其恕

(譯) 朱子曰 「出門如見大賓 使民如承大祭」等類 같은 것은 이것이다. 敬의 條目이다. 又曰「모름지기 먼저 敬을 主로한 然後에서야만 能히 그 恕를 行할 것이다.

雙峰饒氏曰 平居固是敬謹 出門使民時 尤加敬謹蓋 出門使民 是與人交接之時 於此時有敬謹之心 則私意不存 而得以盡推己及人之恕矣。

(譯) 饒雙峰曰 平居에는 眞實로 이 敬謹하나 出門하고 使民하는 데는 더욱 敬謹해야 하니 大개 出門하고 使民함은 이것이 남들과 交接하는 때니 이때에 敬謹하는 마음이 있으면 私心이 있지 아니해서 自己를 미루어서 남에게 미치는 恕를 다할수가 있는 것이다.

程子曰 如見大賓 如承大祭 敬也 敬則不私 一不敬 便私欲萬端 害於仁

(譯) 程子曰「如見大賓 如承大祭」는 敬이니 敬하면 私하지 아니하니 한번이라도 不敬하면 문득 私欲이 萬端으로 나서 仁을 害할 것이다.

又曰 學要在敬也 誠也 中間便有箇仁。

(譯) 又曰 學行의 要點은 敬과 誠에 있는데 그 中間에 문득 仁이 있는 것이다.

又曰 敬以直內 義以方外 仁也

(譯) 又曰「敬以直內 義以方外」라고 한것은 仁이다.

問一孔門諸子問仁聖人多告之以敬 如何 楊氏曰一齊莊中正 仁之守也 要得爲仁 須是敬

(譯) 누가 물기를 「孔子的 門人 여러 弟子가 仁을 물음에 聖인이 많이 敬으로써 告함이 어떠한가」楊氏 答曰 齊莊中正은 仁으로 지키는 것이니 要는 仁함을 얻는 것이 바로 敬인 것이다.

問一學以何爲極 武夷胡氏曰仁。問一從何入 曰從敬入。何謂敬 曰一心不在焉是 謂不敬

(譯) 누가 물기를 「學問은 무엇으로써 極으로 하는가」하니 武夷胡氏는 仁이다.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는가」고 하니 「敬으로 들어간다」 또 「무엇이 敬인가」고 하니 答曰「心이不在하면 이것이 不敬이다.

朱子曰 學者當知孔門所指 求仁之方 日用之間 以敬爲主 不論感與未感 常是如此涵養 則善端之發 自然明著 無少間斷而察識存義 擴而充之 皆不難乎爲力矣。造次顛沛 無時不習 此心之全體 皆貫乎動靜語嘿之間 而無一息之間斷 斯其所謂仁歟。

(譯) 朱子曰「學者도 마땅히 孔子門에서 가리킨바 求仁하는 方法을 알아야만 하니 日用하는 사이에서 敬으로써 主로 하여 己感과 未感을 勿論하고 恒是 이와 같이 涵養하면 善端의 發함이 自然히 明著해서 조금도 間斷이 없이 察識하고 存養해서 擴充을 하면 다 힘쓰는데 어렵지 않을 것이다. 暫時間이라도 練習하지 않을 때가 없이 이 마음의 全體가 다 動靜語嘿의 間을 뛰어서 一息하는 사이라도 間斷이 없게 하는 것이 그 所謂仁인 것인저.

又曰 觀夫子答門人 爲仁之間不同 然大要以敬爲入門處(答石子重書)

(譯) 又曰「孔子께서 門人의 問仁한 答辯을 보면 다 같지 않으나 大要는 모두 敬으로서 入門處로 하였던 것이다.

問 如何以此便謂之仁。曰亦是仁也 若到私欲淨盡 天理流行處 皆可謂之仁

(譯) 누가 물기를 「어찌해서 이것을 바로 仁이라고 하는가」고 하니 答曰「또한 仁이니 萬若에 私欲이淨盡하고 天理가 流行하는 곳에 到達하면 仁이라 할수가 있을 것이다.

又曰 人心湛然虛靜者 仁之本體 把捉不定者 私欲奪之 而動搖紛擾矣 然則把捉得定 其惟篤於持敬乎。

(譯) 又曰「人心이 湛然하고 虛靜한 것은 仁의 本體이고 把握해서 不正한 것은 私欲에 빼앗겨서 動搖하고 紛擾한 것이다. 그러면 把捉하여 得定하는 데는 오직 持敬에 篤實한 인저.

又曰 百行萬善 固是都合着力如何 件件去理會 百行萬善 總於五事 五事又總於仁 所以孔孟只教人求仁 求仁只是主敬求放心

(譯) 又曰―百行萬善은 眞實로 着力함이 如何에 있으니 件件을 理會해가면 百行에 萬善은 五事에로 總合되니, 五事는 仁에 總合이 되니 孔子와 孟子께서 다만 사람에게 求仁함을 가르치신 所以이니 求仁함은 다만 이 敬을 主로해서 敬心을 求하는 것 뿐이다.

又曰 執事敬者 固爲仁之端也 推而成之則篤恭而天下平矣。

(譯) 又曰―執事에는 敬하는 것이 진실로 仁의 端緒가 되나 그것을 推進해서 이루어지면 篤恭해서 天下가 平定해질 것이다.

又曰 敬不須言仁 敬則仁在其中矣。

(譯) 又曰 敬에는 모름지기 仁을 말할수 없으나 敬하면 仁은 그 중에 있는 것이다.

問五峰曰 敬以養吾仁 又曰 敬則仁矣 二說如何。曰 敬以養吾仁 則是先識仁了然後別以敬養之而敬與仁爲二矣 敬則仁 却是就此實下工夫 仁便只在這裏 此意極爲親切 答張欽夫書曰 人有是心 而或不仁 則無以著此心之妙 人雖欲仁 而或不敬 則無以致求仁之功。

(譯) 又曰 五수가 胡五峯에게 물되「敬으로써 나의 仁을 기른다하고 敬하면 仁이라오 하는 二說이 어떠한가」고 하니 曰―敬으로써 나의 仁을 기르면 이것은 먼저 仁을 단 뒤에 別로 敬으로써 踐行해서 敬과 仁이 둘이 되는 것이고 敬하면 仁이라는 것은 도리어 이것이 實地로 工夫에 나아가는 것이니 仁이 바로 그 속에 있는 것, 極히 親切한 것이다. 張欽夫에게 對한 答書에서 말하되 사람이 이 마음이 있어도 或不仁하다면 이 마음의 妙가 나타날수 없으니 사람이 비록 仁을 하려해도 或不敬하면 求仁하는 功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又曰 心者主乎身 而無動靜語默之間者也。仁即心之道 而敬即心之貞也 此乃徹上徹下之道 聖

學之本統

(譯) 又曰 마음이란 것은 一身을 主宰해서 動靜語默에 間斷이 없는 것이고, 仁은 卽心の 道이고 敬은 卽心の 眞함이니 이것이 徹上徹下하는 道로서 聖學의 本統인 것이다.

西山眞氏曰 敬則仁 不敬則私欲賊之 而不仁矣。

(譯) 眞西山曰 一敬하면 仁하고 不敬하면 私欲이 妨害해서 不仁하게 되는 것이다.

樊遲問仁 子曰 居處恭 執事敬 與人忠 雖之夷狄不可棄矣(論語子路篇)

(譯) 樊遲가 仁을 물으니 孔子는 居處를 恭하게 하고 執事는 敬하게 하고 對人해서 忠하게 하면 비록 野蠻人에게 가더라도 버림을 받지 않을 것이다.

朱子曰 恭主容 敬主事 恭見於外 敬主於中 之夷狄不可棄 勉其固守 而勿失也。

(譯) 朱子曰 一恭은 容貌을 主로 하고 敬은 事爲를 主로 하며 恭은 外에 나타나고 敬은 中을 主로 하니 野蠻人에게 가도 버림을 받지 않을 것이니 그를 固守해서 잃지 말 것이다.

又曰 敬就心上說 恭是對人而言 初學則不如敬之切 成德則不如恭之安。

(譯) 又曰 敬은 心에서 말한 것이고 恭은 對人해서 말한 것이니 初學에는 敬의 切實함만 알지 못하고 成德에는 恭의 便安함만 알지 못한 것이다.

又曰 恭形於外 敬主於中 自誠身而言 則恭較緊 自行事而言 則敬爲切 或云 敬主於中者也 恭發

於外者也。曰 凡言發於外 比似主於 中者較大 蓋必充積盛滿 而後發於外 則發於外者 豈不如主於中者然主於中者 却是本不可不知

(譯) 又曰 恭은 外에 形하고 敬은 中에 主하니 誠身으로서 말하면 敬이 絶對로 切實한 것이다。或은 말하되 「敬은 中에서 主로 한 것이 고 恭은 外에서 發하는 것이다」고 하니 曰 一무릇 外에 發하는 것은 中에서 主로 하는데에 比하면 比較的 重大한 것 같으니 大개 반드시 充積하고 盛滿한 뒤에 外로 發한 것인즉 外에 發한 것이 어찌 中에서 主로 함만 같지 못할까마는 中에서 主하는 것이 도리어 根本이니 이것을 可히 물라서는 아니 될 것이다。

又曰 本領雖在敬上 若論那大處 恭反大如敬若不是裏面積成 無緣發出來做得恭

(譯) 又曰 一本領은 비록 敬위에 있으나 萬若에 어떤 큰 것을 論한다면 恭이 도리어 크나 敬이 萬若에 裏面에서 積成되지 않을 것 같으면 發表되어 恭이 되는데 因緣이 없을 것이다。

又曰 恭字軟 敬字硬

(譯) 又曰 恭字는 軟하고 敬字는 硬한 것이다。

勉齋黃氏曰 居處指幽獨而言 未有事者也。執事指應事而言 未涉乎人也 與人指接物而言則涉乎人矣。

(譯) 黃勉齋曰 一居處는 幽獨할 때를 말한 것이니 아직 일이 없는 것이고 執事는 應事할 때를 말한 것이니 아직 남을 對하지 아니한 것이며 與人은 接物할 때를 말한 것이니 그는 人間에 交涉한 것이다。

又曰 恭似低頭 敬似擡頭

(譯) 又曰—恭은 低頭함과 같고 敬은 擡頭함과 같은 것이다.

西山眞氏曰—敬有堅強意 恭有柔巽意

(譯) 眞西山曰—敬은 堅強한 뜻이 있고 恭은 柔巽한 뜻이 있는 것이다.

北溪陳氏曰 敬工夫細密 恭氣像濶大 敬意思卑屈 恭意思尊嚴 但恭只是敬之見於外者 敬只是恭之存於中者 敬與恭不是二物 如形影然未有內無敬 而外能恭者 亦未有外能恭 而內無敬者

(譯) 陳北溪曰—敬工夫는 細密하고 恭氣像은 濶大하며 敬意思는 卑屈하고 恭意思는 尊嚴하나 다만 恭은 이것이 敬이 外로 나타나난 것이고 敬은 다만 이것이 恭이 中에 있는 것이니 敬과 恭은 二物이 아니라 形과 影같은 것이다. 그러나 內에 敬이 없고서 外에 能히 恭하는 者는 없으며 또한 外에 能히 恭이 있는데 內에 敬이 없는 者도 없는 것이다.

又曰 恭有嚴底意 敬字較實

(譯) 又曰—恭은 嚴한 뜻이 있는데 敬은 比較的 實한 것이다.

新安陳氏曰 居處恭 靜時敬也。執事敬 動時敬也。

(譯) 陳新安曰—居處恭은 靜할 때 敬함이고 執事敬은 動할 때 敬하는 것이다.

程子曰 此是 徹上徹下語 聖人初無二語也 充之則睟面盎背 推而達之 則篤恭而天下平

(譯) 程子曰—이것은 徹上徹下한 말씀이니 聖人은 처음에 두 말이 없는 것이나 擴充하면 睟面盎背(빛이潤澤하고 등에 盛溢한 것)하고 推進해서 道達하면 篤恭해서 天下를 平治할 것이다.

慶源輔氏曰 聖人之言 貫徹上下 此數言自始學至成德 皆不過如此 近而辟盜於一身 遠而治平乎天下 亦不外乎此 皆是徹上徹下

(譯) 輔慶源曰 聖人の 말씀은 上下를 貫通한 것이라 이 數言이 初學으로 부터 成德에 이르기까지 다 이에 不過한 것이니 近하게는 一身에 充實하고 遠하게는 天下를 平治하는 것이 모두 이에 不外한 것이니 이것이 다 徹上徹下한 것이다.

陳氏曰 徹上徹下 謂凡聖皆是此理 小則樊遲可用 大則堯舜不過

(譯) 陳氏曰 徹上徹下는 凡人이나 聖人이나 다 이 理數言을 말한 것이니 各계는 樊遲도 可用할 것이고 크게는 堯舜도 不過한 것이다.

子路問君子 子曰修己以敬 曰如斯而已乎 曰修己以安人 曰如斯而已乎 曰修己以安百姓 修己以安

百姓 堯舜其猶病諸 (論語 憲問篇)

(譯) 子路가 君子에 對해 물으니 孔子曰 敬으로서 修己할 지니라 曰 一「이같이 할 뿐입니까」 曰 一修己해서 安人할 지니라. 曰 一「이같이 할 뿐입니까」 曰 一修己해서 百姓을 편하게 할 지어다. 修己해서 百姓을 편하게 함은 堯舜도 오히려 不足하게 여겼던 것이다.

朱子曰 修己而敬 夫子言之至矣盡矣 而子路少之 故以其充積之盛 自然及物者告之 無他道也。

(譯) 朱子曰 一「修己以敬」이란 孔子의 말씀이 極盡하였으나, 子路가 그를 不足하게 여겼기 때문에 다시금 그의 充積함이 盛한 然後에 自然히 及物하는 것으로써 答辯하신 것이니 다른 길이 없는 것이다.

又曰 自古聖賢 自堯舜以來 便說這箇敬字 孔子修己以敬 是最緊要處

(譯) 又曰—自古로 聖賢은 堯舜以來 문후 그런 敬字를 말씀하셨는데 孔子께서 修己以敬이란 말씀이 가장 緊要한 것이다.

又曰 敬字聖學之所以成始成終者皆由此 故曰 修己以敬 下面要安人安百姓 皆由於此 只緣子路問不置 故夫子復 以此答之要之只是修己以敬 則其事皆了

(譯) 又曰 敬字는 聖의 成始해서 成終하는 所以가 다 이에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修己以敬」이라고 하셨으니 다음에는 下面의 安人과 安百姓도 다 이에 말미암은 것이니 다만 子路가 質問해서 알지 않음에서 緣由한 것이기 때문에 孔子께서 다시 이렇게 對答하였으니 要컨대 다만 이 修己以敬만 하면 그 일이 다 될 것이다.

問 修己以敬 曰 敬者非但是外面恭敬而已 須是要裏面 無一毫不直處 方是所謂敬以直內者是也。

(譯) 누군가 「修己以敬」을 물으니 答曰—敬이란 것은 다만 이것이 外面으로 恭敬할 뿐만 아니라 모름지기 이 裏面에 一毫라도 不直한 것이 없기를 要하는 것이니 이래야만 所謂「敬以直內」라 할 수 있는 것이다.

又曰 修己以敬 語雖至約 而所以齊家治國平天下之本 舉積諸此 蓋修己以敬 而極其至 則心平氣和 靜虛動直 而所施爲無所不自然 各當其理 是以其治之所及者 群黎百姓 莫不各得其安也 是皆本於修己以敬之一言 而其功效之自然及物者耳

(譯) 又曰—「修己以敬」이란 말은 비록 至極히 簡單해도 齊家 治國 平天下하는 根本으로서 이것을 쌓아가는 所以가 되는 것이다. 대개 修己하는데 敬으로서 하여 그의 極에 이르면 心이 平和고 氣가 和하며 靜하

면處하고 動하면 直해서 그의 하는바가 不自然한 것이 없이 各其 二理致에 當하니 그의 治化가 미치는 곳에는 여러 百姓들이 各其安處를 얻지 않음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다 修己以敬이란 一言에 根本해서 그의 功效가 自然히 及物하는 것이다.

又曰 修己以敬 貫徹上下 包舉遠近 而統言之也 安人 安百姓 則因子路之間 而以功效之及物者 言也. 安人則修己之餘 而敬之至也 安百姓則修己之極 而安人之盡也 是雖若有小大遠近之差 然皆不離於修己以敬之一言 而非有待於擴之而後大 推之而後遠也.

(譯) 朱子又曰「修己以敬」이란 上下를 貫徹하고 遠近을 包舉해서 統言한 것이고 安人和 安百姓은 子路의 質問에 因해서 功效로서 及物한 것을 말승한 것이니 安人함은 修己의 餘로서 敬의 至하는 것이고 安百姓 함은 修己의 極에서 安人을 다한 것이니 이것이 비록 小와大 遠과近의 差가 있는듯하나 다 修己以敬이란 一言을 떠나지 않으니 擴充하기를 기다리지 아니해도 推進하기를 기다리지 아니해도 멀어지는 것이나.

勉齋黃氏曰 非謂修己之外 又有充積之功也 修己以敬 而可謂君子 則是充積之盛在其中矣 修己以安人 猶曰修己以敬 而可以安人也 修己而安百姓 猶曰修己以敬 而可以安百姓也

(譯) 黃勉齋曰 修己의 外에 또한 積充하는 功이 있는 것을 말함이 아니라 「修己以敬」으로서 可히 君子라고 한다면 이것은 充積한 盛이 그 中에 있는 것이고 「修己以安人」은 오히려 「修己以敬」으로써 可히 남을 편히 하는 것이고 「修己安百姓」은 오히려 「修己以敬」으로써 可히 百姓을 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다.

程子曰 修己以安百姓 篤恭而天下平 唯上一於恭敬 則天地自位 萬物自育 氣無不和而 四靈

畢至矣 此體信達順之道 總明睿知 皆由是出 以此事天饗帝 (天以理言動靜語默無非事也。帝以主宰言饗即郊祀之類)

(譯) 程子曰「修己以安百姓 篤恭而天下平」은 오직 上下가 모두 恭敬을 하면 天地가 自位하고 萬物이 自育해서 氣가 不和함이 없이 四靈(祥瑞의 徵兆가 되는 龍鳳龜麟의 四者)이 다 이를 것이니 이것이 體信하고 達順하는 道로서 聰明과 睿知가 모두 이로 말미암아 나오니 이로써 天을 事하고 帝를 享하는 것이다. (天은 理로써 말하니 動靜과 語默 모두가 事爲이고 帝는 主宰를 말한 것이며 饗는 即郊祀하는 種類인 것이다.)

朱子曰 上一於恭敬 這却是上之人 有以感發 而興起之信是實理 順是和氣 體信是致中意 達順是致和意 言能恭敬 則體信達順 聰明睿知 皆由此出者 言能恭敬 自然心便開明

(譯) 朱子曰「上下가 모두 恭敬하여 가면 人間은 感發이 되어서 興起를 할 것이다. 信은 이것이 實理이고 順은 이것이 和氣며 體信함은 이것이 敬中하는 뜻이고 達順함은 이것이 敬和하는 뜻이다. 그러니 能히 恭敬하면 體信하고 達順해서 聰明睿知가, 모두 이로 말미암아 나는 것을 말한 것이다. 말하자면 能히 恭敬하면 自然히 마음이 문득 開明하게 되는 것이다.

又曰 體信是實體 此道於身 達順是發而中節 推之天下 而無所不通也 體信是忠 無一毫之偽 達順是恕 無一物不得其所 聰明睿知 皆由是出 是自誠而明意思

(譯) 朱子曰「體信은 이것이 實로 自身에 이 道를 體得하는 것이고 達順은 이것이 發해서 中道에 맞는다는 것이니 이것을 天下에 미루면 通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體信이란 忠이니 一毫도 僞는 없는 것이고 達順은 恕이니 一物도 그 場所를 얻지 못함이 없는 것이니 聰明睿知가 모두 이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

다. 이것이 自誠하면 明하게 된다는 意味다.

又曰 敬則自然聰明 人所以不聰 不明止緣身心惰慢 便昏塞了 敬則虛靜自然通達

(譯) 又曰—敬하면 自然히 聰明해져니 사람이 聰明하지 못한 것은 다만 身心이 惰慢함을 因緣하여 문득 昏塞하게 되는 것이나 敬하면 虛靜해서 自然히 通達하는 것이다.

又曰 敬且定下 如東西南北 各有去處此爲根本 然後可明 若與萬物并流 則如眯目播糖 上下四方易位矣 如伊川說聰明皆知皆由是出 問 敬中有誠立明通道理曰然。

(譯) 又曰—敬이 또한 定下함은 東西南北이 各各去處가 있는 것과 같아서 이것이 根本이된 然後에 可히 밝아지는 것이나 萬若에 萬物과 더불어서 흘러간다면 눈에 겨가 든 것 처럼 上下四方이 그 位置가 바뀌어 질 것이니 伊川의 聰明皆知가 다 이 敬에서 나온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누가 물기를 「敬中에 誠이 서 있어 道理를 明通합니까」고 하니 朱子曰—그러하다.

又曰 聰明皆知 皆由是出 非程子 實因持敬 而見其效 何以語及此間 天地自位萬物自育 四靈畢至 敬之功用 又不止於安百姓 雙峯饒氏曰—也只是一事初無大小. 若陰陽不和 五穀不熟 百姓何由而安

(譯) 又曰—聰明皆知가 다 이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니 程子가 實로 持敬으로 因해서 그의 效果를 보지 아니했다면 어찌 말씀이 이에 미칠 것이랴. 問曰「天地가 自位하고 萬物이 自育하며 四靈이 畢至한다 하니 敬의 功用이 또한 安百姓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닌가」고 하니 饒雙峯曰 그것이 또한 一事의 처음부터 大小가 없는 것이다. 萬若에 陰陽이 不和하고 五穀이 不熟하면 百姓이 무엇으로서 安定하리오.

新安陳氏曰 程子此條 亦推贊恭敬之極功以發明夫子之意

(譯) 陳新安曰—程子の 이 대문은 또한 恭敬의 極功을 이루어 推贊해서 孔子의 뜻을 發명한 것이다.

東陽許氏曰 程子此段 是推極而言 以見敬之功用無窮。

(譯) 許東陽曰 程子の 此段은 이것이 極까지 미루어서 敬의 功用을 봄이 無窮함을 말한 것이다.

敬軒薛氏曰 程子論恭敬 曰聰明睿知皆由此出 蓋人能恭敬 則心肅容莊 視明聽聰乃可以窮衆理之妙 不敬則心昏氣逸 四體放肆 雖粗淺之事 尚茫然而不能察 況精微之理乎 以是知居敬窮理二者不可偏廢而居敬又窮理之本也。

(譯) 薛敬軒曰—程子は 恭敬을 말해서 聰明睿知가 다 이로부터 나온다고 했으니 대개 사람은 能히 恭敬하면 心이 肅하고 容이 莊하여 視가 明하고 聽이 聰해서 이에 可히 衆理의 妙를 窮盡할 것이고 不敬하면 心이 昏하고 氣가 逸하며 四體가 放肆하여 비록 粗淺한 일이라고는 尚 茫然해서 能히 살피지 못할 것이니 精微한 理數를 알까 이로서 居敬과 窮理 二者는 하나도 廢해서는 아니 됨을 알 것이니 居敬이 또한 窮理의 根本이다.

子張問行 子曰 言忠信 行篤敬 雖蠻貊之邦行矣 言不忠信 行不篤敬 雖州里行乎哉

(論語衛靈公篇)

(譯) 子張이 行에 對해 물으니 孔子가서 答을 하시되 言이 忠信하고 行이 篤敬하던 비록 野蠻國에 가도 通할 것이나 言이 忠信하지 않고 行이 篤敬하지 않는다면 비록 故郷에서라도 通過될 것일가.

朱子曰 篤厚也 又曰 篤有重厚深沉之意 敬而不篤 則有拘迫之患

(譯) 朱子曰篤은厚함이다. 又曰篤은 重厚하고 深沉하는 뜻이 있으니 敬하되 篤하지 않으면 拘迫되는 격정이 있는 것이다.

子曰 君子有九思 視思明 聽思聰 色思溫 貌思恭 言思忠 事思敬 疑思問 忿思難 見得思美

(論語 季氏篇)

(譯) 孔子曰 君子는 아홉가지 注意할 것이 있으니 보는대로 明하기를 생각하고 듣는대로 聰하기를 생각하고 顔色은 溫하기를 생각하고 容貌는 恭하기를 생각하고 言은 忠하기를 생각하고 事는 敬하기를 생각하고 疑는 質問하기를 생각하고 忿은 어리움을 생각하고 所得에는 義理를 생각하라.

程子曰 九思各專其一

(譯) 程子曰 九思는 各各 그에 精神을 專一하게 하는 것이다.

問 各專其一 是主一之義 朱子曰然

(譯) 누군가 물기를 「各專其一」이란 이것이 一을 주로 한다는 뜻인가 고 하니 朱子曰 「그러하다.

雲峰胡氏曰 事思敬 九思之一 九思各專其一 則皆主乎敬者也

(譯) 胡雲峰曰 「事思敬」은 九思의 一이나 九思는 各各 그 한가지만 專主하면 다 敬을 주로 하는 것이다.

勉齋黃氏曰 九思固各專其一 然隨其所思而思焉 則亦泛然 而無統矣 苟能以敬義爲主 戒懼謹獨 而無頃刻之失 然後爲能隨其所當思而思矣。

(譯) 黃勉齋曰 九思는 진실로 各各 그 一만 專主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생각

하면 또한 汎然하여서 統一이 없을 것이니 眞實로 能히 敬義로써 爲主하여 戒懼하고 謹獨해서 暫時의 失手도 없이한 然後에야만 能히 그의 마땅히 생각하는 바를 따라서 생각하게 될 것이다.

子曰 正其衣冠 尊其瞻視 儼然人望 而畏之 斯不亦威 而不猛乎

(論語 堯曰篇)

(譯)孔子曰 그 衣冠을 바로 하고 그 瞻視를 높여서 儼然하게 남이 바라보아 두려워하면 이것이 또한 威嚴이 있어도 猛酷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南軒張氏曰 正衣冠 尊瞻視 臨之以莊也 持身嚴 故人望 而自畏之 非以威加人也

(譯)張南軒曰 衣冠을 바로고 瞻視를 높이는 것은 莊嚴하게 臨하는 것이니 持身이 嚴하기 때문에 남이 바라보고 스스로 두려워함이고 威力으로서 남에 加하는 것은 아니다.

程子曰 正其衣冠 尊其瞻視 其中自有箇敬

(譯)程子曰 「正其衣冠 尊其瞻視」라 하면 그 가운데 스스로 敬이 있는 것이다.

朱子曰 熟味整齊嚴肅 正衣冠 尊瞻視 此等數語 而加工焉 則所謂直內 所謂主一 自然不費安排 而身心肅然 表裏如一矣。

(譯)朱子曰 「整齊嚴肅 正衣冠 尊瞻視」라 하는 此等の 數語를 익히고 玩味해서 工夫를 加한다면 所謂「直內」所謂「主一」이란 것이 自然히 安排를 하지 않아도 身心이 肅然하고 表裏가 如一하게 될 것이다.

曾子曰 所謂誠其意者 毋自欺也 如惡惡臭 如好好色 此之謂自謙 故君子必慎其獨也(大學)

(譯) 曾子曰—所謂 그 뜻을 誠實하게 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이다. 惡臭을 싫어하는 듯이 하고 好色을 좋아하는 듯이 하는 이것을 「自謙」이라고 하나니 그러므로君子는 반드시 그 獨居할 때에 삼가하는 것이다.

朱子曰 誠其意者 自修之首也 毋者禁止之辭 自欺云者 知爲善 以去惡 而心之所發 有未實也 謙快也 足也 獨者人所不知 而已所獨知之地也 言欲自修者 知爲善 以去其惡 則當實用其力 而 禁止其自欺 使其惡惡 則如 惡惡臭 好善則如好好色 皆務決去 而求必得之 以自快足於己 不可 徒苟且 以徇外而爲人也 然其實與不實 蓋有他人所不及知 而已獨知之者 故必謹之於此 以審其幾 焉。

(譯) 朱子曰 誠其意란 것은 自修하는 첫째 條件이고 毋란 것은 禁止하는 말이며 自欺라는 것은 善을 하고 惡을 버릴줄 알아서 마음에서 發한 바가 未實함이 있는 것이다. 謙이란 것은 快하고 足한 것이고 獨이란 것은 남이 모르고 自己만 아는 것이니 말하자면 自修하려 하는 者는 善을 하고 惡을 버릴줄 알면 마땅히 實地로 그에 힘을 써서 그의 自欺함을 禁止하여 하여금 그 惡을 미워하기를 惡臭을 싫어하는 듯이 하고 善을 좋아하기를 好色을 좋아하듯이 하며 다 決去하기에 힘을 써서 求하면 반드시 얻게 되어 自己에 快足해서 다만 苟且하게 外的으로 남의 耳目만 爲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眞實과 不實은 대개 他人이 알수 없고 自己만 獨히 아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에서 삼가하여 그의 微幾를 明察하라는 것이다

新安陳氏曰 此獨字指心所獨知 而言非指身所獨處而言

(譯) 陳新安曰—이 獨字는 마음이 홀로 아는 것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고 그 몸이 홀로 處한 것을 가리켜 말한 것은 아니다.

朱子曰 誠意以敬爲先

(譯) 朱子曰 誠意는 敬으로서 첫째로 한다.

又曰 毋自欺者 正當於幾微毫釐處 做工夫只幾微之間 少有不實 使爲自欺

(譯) 又曰 毋自欺란 것은 바로 毫釐가 가리는 幾微에서 工夫하는 것이니 다만 幾微의 間에 조금이라도 不實함이 있다면 그는 바로 自欺가 되는 것이다.

又曰 誠意是人鬼關 過此一關方會進

(譯) 又曰 誠意는 이것이 人鬼의 關門이니 이 한 關門을 지나면 바야흐로 會進할 것이다.

問 孟子所論浩然之氣 其原出於此何也 曰人只是 慊快充足 仰不愧 俯不作 則其氣自直 便自日長 以至于充塞天地 雖刀鉅在前 鼎鑊在後 也不怕

(譯) 問曰 孟子的 所謂 浩然之氣는 그 根源이 이에서 나왔다고 하니 무엇 때문인가고 하니 答曰 사람은 다만 이 慊快하고 充足해서 우러러서는 天에 부끄럽지 않고 구부러서는 地에 부끄럼이 없으면 그 氣運이 스스로 발라서 문득 自然히 날로 차라나 天地의 間에 充塞하게 됨에 비록 刀鉅(칼과 톱)가 앞에 있고 鼎鑊(솥과 가다)이 뒤에 있다고 해도 겁나지 않을 것이다.

又曰 誠之爲言實也 然經傳用之 各有所指 不可一槩論 如周子謂誠者聖人之本 蓋指實理而言者也 如所謂聖誠而已矣 即中庸所謂天下至誠者 指人之實有此理者 而言也 溫公所謂誠(劉忠定公問蓋心行己之要 溫公曰 其誠乎問行之何先 曰 自不妄語始) 即大學所謂誠其意者 指人之實其心 而不自欺者也

(譯) 朱子又曰 誠이라고 말하는 것은 實이다. 그러나 經傳에서 쓰는 데는 各其 가르치는 것이 있으니 一括해서 論할 수는 없는 것이다. 周子가 誠을 聖人の 本이라고 말한 것은 大개 實理를 가리켜서 말한 것이고 所謂 聖은 誠뿐이라고 함과 같은 것이다. 卽中庸에 所謂 天下의 至誠이란 것은 사람이 實로 이 理를 가진 것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고 溫公이 말한바 誠은(劉忠定公이 問) 實行하는 데는 무엇을 먼저 하는지를 물으니 溫公曰「妄語를 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始作된다」고 하였다. 卽大學에 所謂한「誠其意」란 것이니 사람이 그 마음을 眞實하게 해서 自欺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 것이다.

西山眞氏曰 劉公問學道從何入 溫公曰 自誠入 又問誠自何入 曰自不妄語入。南軒張氏嘗疑之 蓋誠者道之極致 學者必先窮理主敬 然後誠者幾焉 今乃以爲入道之始 其語誠若未安 今以朱子此說觀之 則知誠之爲義 經傳所指不同 溫公之所謂誠 主於不欺詐 無情僞 正學者立心之初 所當從事 非指誠之至者 而言也

(譯) 眞西山曰 劉公이 學道에는 어디로 들어 가는가고 물으니 溫公은「誠으로부터 들어간다」고 하고 또 「誠은 어디로부터 들어 가는가」고 물으니 「妄語를 앎음으로부터 들어간다」고 하였음에 張南軒은 일찌기 疑心하였다. 大개 誠이란 것은 道의 極致이니 學者는 반드시 먼저 窮理와 主敬을 한 然後에야만 誠이란 것이 거의 될 것인데 只今 이에 入道의 始作이라고 하였으니 그 말씀이 未安한 듯하다. 只今에 朱子의 이 說로서 본다면 誠의 뜻은 經傳에서 가르친 것과 不同함을 알 것이니 溫公의 所謂 誠은 欺詐하지 아니하고 情僞함이 없는 것을 주로 한 것이니 바로 學者가 立心하는 처음에 마땅히 從事해야 할 바이고 誠의 至極을 가르켜서 말한 것은 아니나.

曾子曰 十目所視 十手所指 其嚴乎

(譯) 曾子曰—열눈이 보는 바이고 열손이 가르치는 바이니 그監督이 嚴한 것인저.

朱子曰 言雖幽獨之中 而其善惡之不可搭如此 可畏之甚也

(譯) 朱子曰—비록 幽獨한 데서라도 그 善惡을 덮을 수가 없음이 이와 같다는 것을 말한 것이니 甚히 可畏한 것이다.

又曰 人雖不知 我已自知 自是甚可惶恐了 其與十目十手所視所指 何異哉

(譯) 又曰 남은 비록 몰라도 나는 이미 아는 것이니 이것이 甚히 惶恐한 것이다. 그 十目과 十手로서 보 고 가르치는 것과 무엇이 다르리오.

玉溪盧氏曰 實理無隱顯之間 人所不知 己所獨知之地 即十目十手 共視共指之地故爲善於獨者 不求人知而人自知之 爲不善於獨者 惟恐人知 而人必知之 其可畏之甚如此 曾子所以戰兢臨履 直至啓手足而後已者此也。

(譯) 盧玉溪曰—實理는 隱이나 顯의 差異가 없는 것이니 남은 모르는 것을 저는 홀로 아는 것이 바로 十目과 十手로 같이 보고 같이 가리키는 곳이니 그러므로 홀로 善을 하는 者는 남이 알기를 求하지 않아도 남이 自然히 알게 되고 홀로 不善을 하는 者는 남이 알까 節을 내어도 남이 반드시 아는 것이다. 그러니 그 可畏함이 甚하기가 이와 같으니 曾子가 戰兢臨履(벌벌 떨고 操心해서 深淵에 臨하고 薄氷을 履한 듯한 것)해서 바로 啓手足(그가 臨終에 그 手足을 열어 보라고 한 것)에 까지 이른 뒤에 끝마친 것이 이것이다.

心不在焉 視而不見 聽而不聞 食而不知其味

(譯) 마음이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아니하고 들어도 듣지 아니하고 먹어도 그 맛을 모르는 것이다.

朱子曰 心有不存 則無以檢其身 是以君子必察乎此 而敬以直之 然後此心常存 而身無不修也

(譯) 朱子曰 마음이 있지 않으면 그 自身을 檢察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君子는 반드시 이것을 명察해서 敬으로서 바르게 한 후에야 만이 마음이 恒常 있어서 自身이 타이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新安陳氏曰 朱子於此 又下一察字 且曰敬以直之 以足大學本文未言之意 提出正心之要法 以視萬世學者

(譯) 陳新安曰 朱子가 이에서 또한 察字를 쓰고 또한 敬으로서 다룬바고 하였으니 그것이 大學本文中에서 말하지 못한 뜻을 補足해서 正心의 要法을 提出하여 萬世의 學者에게 보인 것이다.

子思子曰 道也者 不可須臾離也 可離非道也 是故君子戒慎乎其所不睹 恐懼乎其所不聞 (中庸)

(譯) 子思曰 道라는 것은 暫時도 떠나서는 안되는 것이니 떠난다면 道가 아니다. 그러므로君子는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戒慎하고 그 듣기 지 않는 곳에서 恐懼하는 것이다.

朱子曰 君子之心 常存敬畏 雖不見聞 亦不敢忽 所以存天理之本然 而不使離於須臾之頃也。

(譯) 朱子曰 君子의 마음은 어느때나 敬畏함이 있어서 비록 보지도 듣지도 않는 곳에서라도 또한 敢히 輕忽히 하지 아니하는 것이 天理의 本然을 保存하는 所以니 暫時라도 떠나지 않게하는 것이다.

又曰 戒謹不睹 恐懼不聞 即是道不可須臾離處

(譯) 又曰 一 보이지 않는 데서 戒懼하는 것이 바로 道는 暫時도 떠날수 없는 것이다.

又曰 中庸戒謹恐懼 皆敬之意 問恐懼是己思否 曰 一思又別思 是思索了 戒謹恐懼 便是防閑其

未發。問 卽是持敬否 曰亦是

(譯) 又曰「中庸에서 戒謹하고 恐懼한다는 것은 다 敬한다는 뜻이다. 누가 「恐懼함은 이것이지 이미 主意한 것이 아닌가」고 물으니 答曰「생각하고 또 別로 생각함은 이것이 思索함이고 戒謹하고 恐懼함은 바로 이것이지 그의 未發을 豫防하는 것이다. 또 이것이 「바로 持敬하는 것이 아닌가」고 물으니 曰「그러하다.

又曰 不睹不聞 不是合眼掩耳 只管喜怒哀樂未發時 凡萬事皆未萌芽 自家便先焦地 戒謹恐懼常要提起此心 常在這裏 便是防於未然 不見是圖底意思

(譯) 又曰 보이지도 듣지도 않는 것은 이것이 눈을 감고 귀를 덮은 것이 아니라 다만 喜怒哀樂이 未發할 때는 무릇 萬事가 다 아직 萌動하지 않는 것이니 自身이 물론 먼저 그 戒謹하고 恐懼해서 恒常이 마음을提起하여 그 속에 있게 하기를要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데서 圖謀하고 未然에 防止하는 意思인 것이다.

又曰 戒謹恐懼是未發 然只做未發也 不得 便是所以養其未發 只是聳然提起 在這裏 問 不知無事時 如何戒謹恐懼 若只管如此 又恐執得太過 若不如此 又恐都忘了 曰 也有甚麼矜持 只不要昏了他便是戒懼 問 喜怒哀樂未發之初 不知戒懼 心何處着落 曰 戒懼謹獨 不須說得太重 只是常常提撕 認覺這物事 常常存得不失 孟子曰 操則存 亦不是着力把持 只是操 便在這裏 如人之氣呼便出 吸便入

(譯) 又曰 戒謹恐懼는 이것이 未發이나 다만 未發이라고만해서는 아니되고 물론 이것이 그 未發을 기르므로 所以이니 다만 이것이 聳然하게提起해서 그 속에 있는 것이다. 問曰「알지 못하오나 無事할 때에 戒

謹恐懼는 어찌 하는가. 萬若 이와 같이만 하면 또한 執持함이 太過한까 걱정이요 萬若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모두 잊어버릴까 걱정이다」答曰「또한 어떤 矜持가 있으리오. 다만 昏了함을 不要하는 그것이 바로 戒懼인 것이다. 또 矜持를 喜怒哀樂이 未發하는 처음에는 戒懼心이 어디에 落着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니 答曰「戒懼謹獨은 太重하게 說得한 必要가 없이나만이 恒常引導해서 그 物事를 깨쳐서 恒常가지고 서 있지 않는 것이다. 孟子曰「잠으면 있다」는 것도 또한 이것이 着力해서 把持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것을 잡아 가지고 그 속에 있게 하는 것이니 사람의 氣息이 呼하면 나가고 吸하면 들어오는 것과 같은 것이다.

(潛室陳氏曰。此問最精。前輩於此境界。最難下言語既是未發。才着工夫。便是已發了蓋。

雖是未發之初。體已含具萬用在此不比禪家。寂如空如。所以惺惺。主人常在冥。漠中照管都
不會效下了。蓋雖是特守體段却不露形跡)

(譯) 陳潛室曰「이 質問이 가장 精切하니 前輩는 이 境界에서 가장 말하기가 어려우니 이미 未發에서 겨우 工夫를 着手하면 工夫를 그 것이 已發한 것이다.」대개 비록 이 未發의 初에라고 本體에 이미 萬用의 있으니 禪家의 空寂한데는 比할수 없는 것이다. 惺惺한 所以는 主人이 恒常冥漠中에서 照管하여 都總放下하지 않음이 있는 것이니 대개 비록 이것이 體段을 持守하는 것이나 도리어 形跡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朱子又曰 先就瞎聞處做了 却就不瞎 不聞處用功 方能細密 今人於瞎聞處 元不會有工夫 却便去不瞎不聞處做。可知是不成。

(譯) 朱子曰「먼저 보이고 듣기는 곳에서 물론 아니 보이고 듣지 않는 곳에 가서 用功하면 能히 細密하

게 될 것이다。瞎聞되는 곳에서는 元未에工夫를 하지 않고서 도리어 不瞎不聞한 곳에서 한다면 이것이 되지 않을것을 可히 알 것이다。

又曰 戒謹恐懼 是普說言 道理逼塞 都是無時 而不戒謹恐懼 到得隱微之間 人所易忽 又更用謹
這箇 却是喚起說戒懼 無箇起頭處 只普遍都用

(譯) 又曰 戒謹恐懼는 이것을 널리 말해서 道理가 逼塞할 때는 언제나 戒謹恐懼를 하지 않음이 없게 함을 말한 것이니 사람들이 輕忽하게 여기는 隱微한 사이에 이르러서는 또한 다시 삼가서 그것을 도리어喚起하고 戒懼를 말하는데 그 起頭處가 없고서는 다만 이것을 普遍으로만 쓰는 것이다。

又曰 戒謹恐懼 只是略省 一省略是箇敬模樣 然道箇敬字 已是重了 只略略收拾來 便在這裏
伊川所謂道箇敬字也 不大段用得力

(譯) 又曰 戒謹恐懼는 다만 이것을 略省하여 한번 省略하는 이것이 그 敬의 模樣이나 그 敬字를 말하는 것이 이 重要的 것이다。 다만 略略히 收拾함이 문득 그속에 있으니 伊川이 말씀한 그 敬字는 大段 得力한 수는 없는 것이다。

莫見乎隱 莫顯乎微 故君子慎其獨也

(譯) 숨은 것보다 더 나타나지는 것은 없고 微한 것보다 더 드러나는 것은 없나니 그러므로 君子는 그 獨居한 때를 삼가느니라。

朱子曰 隱暗處也 微細事也 獨者人所不知 而已所獨知之地也 言幽暗之中 細微之事 跡雖未形

而幾則已動 人雖不知 而已獨知之 則是天下之事 無有著見明顯而過於此者 是故君子既常戒懼 而於此尤加謹焉 所以遏人欲於將萌 而不使其潛滋暗長於隱微之中 以至離道遠也

(譯) 朱子曰「隱은 暗處이고 微는 細事며 獨이란 것은 남은 알지 못하는 데 처만 아는 곳이니 말하자면 幽暗한 中에서 細微한 事가 아직 事跡으로는 나타나지 아니해도 動機는 이미 動하였으니 남은 비록 몰라도 저는 홀로 아는 것인즉 이것은 天下의 事가 이보다 더 著見하고 明顯하는 것은 있지 아니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君子는 이미 恒常戒懼해서 이에 더욱 삼가함은 人欲이 將次로 萌動하려는 것을 막아서 그로하여 陰隱微한 中에서 가만히 滋長해서 道를 멀리 떠나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問 謹獨是念慮初萌處否 曰 此是通說 不止念慮初萌 只自家自知處 如小可沒緊要處 胡乱去 便是不謹 謹獨是思慮已有些少事 已接物了

(譯) 누가「謹獨이란 이것이 念慮가 처음에 萌動할때가 아닌가」고 물으니 朱子答曰「이것이 通說이나 念慮가 初萌할때 만이 아니고 다만 自身만이 혼자 아는 것은 些少해서 緊要하지 않은 것 같으나 그래서 混亂하는 이것이 不謹한 것이다. 謹獨은 이것이 思慮가 些少한 일이라도 이미 接物한 것이다.

又曰 這獨不是恁地 獨時如與衆人對坐 自心中發一念 或正或不正 此亦是獨處 故中庸以此言爲 篇首

(譯) 又曰「그 獨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 獨居할 때도 衆人과 더불어서 對坐한 것과 같이 하여 心中에서 一念이 나는데 或은 正하고 或은 不正해도 이것이 또한 獨處한 것이기 때문에 中庸에는 此言을 篇首로 했던 것이다.

又曰 中庸徹頭徹尾 說箇謹獨工夫 即所謂敬而無失 平日涵養之意(答林擇之書)

(譯) 又曰—中庸은 徹頭徹尾 그 謹獨工夫를 말하였으니 그것이 이른바 敬해서 임지 말고 平日에 涵養하라는 뜻이다.

邵子曰 思慮一萌 鬼神得以知之矣 故君子不可不慎獨

(譯) 邵康節曰—思慮가 한번 萌動하면 鬼神은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獨居할 때를 삼가하지 안해서 는 안되는 것이다.

道鄉鄒氏曰 慎獨最爲入道之要 所謂獨者非獨閒居靜處而已 萌於心之謂獨 能於此着力 無由有過舉 西山眞氏曰 鄒氏之言 慎獨最有深味

(譯) 鄒道鄉曰—慎獨하는 것이 가장 入道하는 要門이니 所謂獨이란 것은 獨히 閒居靜處할 때 만이 아니라 마음이 萌動하는 것을 獨이라고 하니 이에 着力을 하면 過誤를 犯하지 않을 것이다. 西山眞氏曰—鄒氏의 慎獨을 말한 것이 가장 깊은 意味가 있는 것이다.

胡氏(季隨)曰 戒懼者所以涵養於喜怒哀樂未發之前 當此之時寂然不動 只下得涵養工夫 涵養者所謂存天理也 慎獨者所以省察於喜怒哀樂欲發之時 當此之時 一毫放過 則流於欲矣 判別義理全在此時 省察者 所以遏人欲也。

(譯) 胡季隨曰—戒懼란 것은 喜怒哀樂이 未發할 때에 涵養하는 所以이니 이때를 爲해서 寂然하게 不動하여 다만 涵養하는 工夫를 하여야 될 것이다. 涵養이란 것이 所謂 天理를 保存하는 것이고 慎獨이란 것은 喜怒哀樂이 發하려 할 때에 省察하는 所以가 되니 그때를 爲해서 一毫라도 放過한다면 欲으로 흘러갈 것이다. 義와 利를 判別하는 것이 全히 이때에 있으니 省察이란 것은 人欲을 막아버리는 所以인 것이다.

朱子曰 此說甚善 但亦不是欲發時節 別換一心來 省察他 只是此箇全體 戒懼底略更開眼耳

(譯) 朱子曰 이 말이甚히 좋으나 다만 또發하리 할때 別로 一心을 바귀와서 省察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全體로 戒懼하는데 다시 開眼이 되는 것이다.

又曰 戒慎恐懼 是事之來形處 慎獨是幾之將然處 問 戒懼是保守天理 謹獨是防檢人欲 答曰 也得

(譯) 又曰 戒慎恐懼는 이것이 事爲가 나타나지 않는 곳이고 慎獨은 이것이 動機가 將次로 그러하게 될때 하는 것이다. 누군가 「戒懼는 이것이 天理를 保守하는 것이고 謹獨은 이것이 人欲은 防檢하는 것인가」고 물으니 答曰 一그러하다.

又曰 戒謹不睹 恐懼不聞 非謂於睹聞之時 不戒懼也 言雖不睹不聞之際 亦致其謹 則既睹既聞之際 其謹可知 此乃統同說承上 道不可須臾離之意 無時不戒懼也 然下文謹獨 既專就已發上說 則此段正是未發時工夫 只得說不睹不聞也 莫見乎隱 莫顯乎微 故君子必謹其獨 上既統同說了此 又就中 有一念萌動處 雖至隱微 人所不知 而已所獨知 尤當致謹 如一片止水 中間忽有一點動處 此最緊要着工夫處

(譯) 又曰 一 보이지 않는데서 戒謹하고 듣기지 않는데서 恐懼한다는 것은 보이고 듣기는데서는 戒懼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비록 不睹하고 不聞할 때라도 또한 그를 삼가한다면 既睹하고 既聞할 때는 그 삼가함을 可히 알것이니 이것이 모두 모아서 上文에 道는 暫時라도 떠날 수 없다는 뜻을 받아서 말한 것이라 何時라도 戒懼하지 않을 때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下文에서 謹獨은 이미 已發한 것만 말한 것

일즉 此段은 바로 이 未發할 때 工夫는 다만 不睹不聞을 말한 것 뿐이다. 「莫見乎隱 莫顯乎微」이기 때문에 君子는 반드시 그의 獨居할 때를 삼가하는 것이니 이것도 위에서 이미 統合해서 말한 것이다. 이것이 또한 就中에 一念이 萌動한 곳에 있어서 비록 隱微한 데 이르기까지 남은 모른다. 이는 이미 아는바에 就하여 더욱 바깥히 삼가한이 一片의 止水中에 靜止한 것과 같이 하여 聞或忽然히 一點의 波動하는 곳이 있으면 이것이 가장緊要하게 工夫에 힘쓸 곳이다.

又曰 方不睹不聞 未有私欲之際 己是戒懼了 及至有小私意發動 又却愼獨如此 即私不能爲吾害矣 問 謹獨 曰 是從見聞處 至不睹不聞處 皆戒謹了 又就其中於獨處 更加謹也 是無所不謹 而謹上又加謹也 問 能存天理了 則下面謹獨 似多了一截 曰 雖是存得天理臨發時也 須點檢 這便是他密處 若只說存天理了 更不謹獨 却是只用致中 不用致和了

(譯) 朱子又曰 方不睹하고 不聞하여 아직 私欲이 나기 前에 이미 戒懼를 하고 조금 私意가 發動하는 내 이르러서도 또한 이와같이 愼獨하면 私가 能히 나지 못할 것이다. 누운가 謹獨을 물으니 答曰 一이것은 보이고 들리는 곳으로 부터 不睹不聞하는 곳에 이르기 까지도 戒謹하고 또한 그 가운데 獨處할 때는 다시 더욱 삼가하니 이것이 삼가지 않는 곳이 없는 것이다. 삼가는 위에 또 더욱 삼가는 것이다. 누운가 「能히 天理를 保存하면 下面의 謹獨은 一切이 다한 것 같을가」고 물으니 答曰 「비록 이것이 天理는 保存해서도 發할 때에 當해서는 모를지 그 것을 點檢하는 것이 문득 이 愼密하는 곳이 되는 것이다. 萬若에 天理를 保存하는 말만하고 다시 謹獨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다만 致中만 하는 것이고 致和는 하지 않는 것이다.

又曰 道者率性而已 性無不有 故道無不在 充塞天地 貫徹古今 而取諸至近 則常不外乎 吾之一

心循之則治 失之則亂 蓋無須臾之頃 可得以暫離也 是以君子戒慎乎 其目之所不及見 恐懼乎其耳之所不及聞 瞭然心目之間 常若見其不可離者 而不敢有須臾之間 以流於人欲之私 而陷於禽獸之域 既已如此矣 則又以爲道固無所不在 而幽隱之間 乃他人之所不見 而已所獨見 無時不然 而細微之事 乃他人之所不聞 而已所獨聞 是皆常情所忽 以爲可以欺天罔人 而不必謹者 而吾心之靈皎如日月 既已知之 則其毫髮之間 無所潛遁 又有甚於他人之知矣 又況既有是心 藏伏之久 則其見於聲音容貌之間 發於行事 施爲之實 必有暴著 而不可搭者 又不止於念慮之差而已也 是以君子既戒懼乎耳目之所不及 則此心常明 不爲物蔽 而於此尤不敢不致其謹焉 必使其幾微之際 無一毫人欲之明 而純乎義理之發 體道之功 莫有先於此者 亦莫有切於此者 (中庸或問)

(譯) 朱子又曰 一 道란 것은 率性하는 것뿐이다. 性은 가지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道도 없는 곳이 없으니 天地에 充塞하고 古今을 貫通해서 至近한 데서 取한다면 恒常나의 一心에 不外하니 그분 마르던 다슬며지고 그를 일으키면 이 지리 위치는 것이다. 대개 暫時間이라고도 可히 떠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君子는 그 눈이 미처 보지 못하는 데서 戒慎하고 그 귀가 미처 듣지 못하는 데서 恐懼하여 瞭然하게 心目的 사이에 恒常 그 떠날 수 없는 것을 보는 듯이 하여 暫時 동안이라고도 敢히 人欲의 私에 흘려서 禽獸의 域에 빠지지 않게 해야만 하니 이 미 이 와 같이만 하면 道는 진실로 없는 곳이 없으며 幽隱한 사이에서 남들은 보지 못하는 곳이라도 自己만은 홀로 보는 것이고 또한 道는 진실로 그렇지 않은 때가 없어서 細微한 일을 남들은 듣지 못하는 곳이라도 저만은 홀로 듣는 것이니 이것이다 常情의 輕忽하는 바로서 可히 天과 人을欺罔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삼가지 않는 것이나 수리 마음의 靈함은 밝기가 日月과 같아서 이 미 알고 있는즉 그 毫髮의 사이라도 潛通하는 바가 없는 것이니 또한 他人이 아는 것 보나도 더 甚한 것이다. 또한 하물며 이 미 이 마음이 藏伏된지 오래면 그가 音聲과 容貌의 間에 나타나고 行事와 施爲의 實에 나타나게

됨이 반드시 突然히 나타나서 가리울수 없는 것이 또한 念慮의 差異에만 그칠 뿐이 아닌 것이랴. 그러므로 君子는 이에 耳目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戒懼하면 이 마음이 恒常 밝아서 物件의 되는 바가 되지 않을 것이니 이에서 더욱 敢히 삼가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다. 반드시 하여금 그의 幾微의 際에 一毫라도 人欲의 萌動함이 없게 해서 義理의 發을 純하게 하면 體道하는 功이 이 보나 더 먼저 잘 것이 없는 것이요 또한 이 보나 더 切實한 것이 없을 것이다.

又曰 既言道不可離 則是無適 而不在矣 而又言莫見乎隱 莫顯乎微 則是要切之處 尤在於隱微也 既言戒慎不睹 恐懼不聞 則是無處而不謹矣 又言謹獨則是其所謹者 尤在於獨也。

(譯) 朱子又曰 이 미 道는 떠날 수 없음을 말하였을즉 이것은 어디나 있지 않은 곳이 없는 것이니 또한 「莫見乎隱 莫顯乎微」을 말하였을즉 이것은 要切한 곳이 더욱 隱微한데 있는 것이고 이 미 不睹하는 데서 戒慎하고 不聞하는 데 恐懼하면 이것은 어디서나 삼가지 않음이 없는 것이고 또한 謹獨을 말하였을즉 그의 삼가는 것이 더욱 獨居할 때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 中也者 天下之大本也 和也者 天下之達道也 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

(譯) 喜怒哀樂이 未發한 것은 中이라고 하고 發해서 다 中節한 것은 私라고 하니 中이란 것은 天下의 大本이고 和라는 것은 天下의 達道라 中和를 이루면 天地가 그 자리에 있고 萬物이 자라나는 것이다.

朱子曰 自戒懼而約之 以至於至靜之中 無所偏倚 而其守不失 則極其中 而天地位矣 自謹獨而精之 以至於應物之處 無所差謬 而無適不然 則極其和 而萬物育矣

(譯) 朱子曰—戒懼로부터 約해서 至靜의 中에 이르기까지 偏倚한 바가 없어서 그 지킴을 잃지 않으면 그 中에 極致해서 天地가 그 位置에 있는 것이고 謹獨으로부터 精해서 應物의 處에 이르기까지 差謬한 바가 없어서 그렇지 않음이 없으면 그 和를 極히 해서 萬物이 養育되는 것이다.

又曰 君子自其不睹不聞之前 而所以戒謹恐懼者 愈嚴愈敬 以至於無一毫之偏倚 而守之常不失焉 則爲有以致其中 而大本之立 日以益固矣 尤於隱微幽獨之際 而所以謹其善惡之幾者 愈精愈密 以至於無一毫之差謬 而行之 每不違焉 則爲有以致其和 而達道之行 日以益廣矣(或問)

(譯) 又曰—君子는 그 不睹하고 不聞하는 前부터 戒謹하고 恐懼하는 所以가 더욱 嚴하고 더욱 敬해서 一毫도 偏倚함이 없는데 이르러서 地킴을 恒常 잃지 아니하면 그 中을 이루어 大本이 서서 더욱 굳어지게 될 것이다. 너무기 隱微하고 幽獨한데서 그 善惡의 動機를 삼가하는 所以가 더욱 더욱 精하고 密해서 一毫도 差謬함이 없이 行하여 每樣 어기지 아니하게 될 것인즉 그 和를 이루어 達道로 行함이 날로 더욱 넓어지게 될 것이다.

程子曰 中者天下之大本 天地之間 亭亭當當 直上直下之正理出 則不是惟敬 而無失最盡

(譯) 程子曰—中이란 것은 天下의 大本이니 天地의 間에 亭亭하고 當當하게 直上하고 直下하는 正理로 나가면 이 오직 敬해서 失하지 않으면 뿐만 아니라 가장 단 말씀이다.

又曰 敬而無失 便是喜怒哀樂 未發之謂中也 敬不可謂之中 但敬而無失 即所以中也 蘇季明問 喜怒哀樂發時 固當勉強裁抑。於未發之前 當如何用功 曰 喜怒哀樂未發之前 更怎生求 只平日 涵養 便是涵養久 則喜怒哀樂發自中節

(譯) 又曰—敬해서 無失함이 문득 이 喜怒哀樂의 未發한 것을 中이라고 하는 것이나 敬을 中이라고 해서 는 아니 되고 다만 敬해서 無失함이 바로 中이 되는 것이다. 蘇季明이 「喜怒哀樂이 發할 때는 眞實로 勉 強해서 未發하기 전에 抑裁하는 데도 마땅히 이렇게工夫를 해야 합니까」고 물으니 程子曰—喜怒哀樂 이 平일에 涵養은 해야 하니 이 涵養함이 오래면 喜怒哀樂의 發함이 스스로 中節되는 것이다.

或曰 先生於喜怒哀樂 未發之前 下動字 下靜字 曰 謂之靜則 可然靜中須有物 始得這裏 便是 難處 學者莫若且先理會得敬 敬則自如此矣。 問 極養於未發之初 舍不善之端 旋消則易爲力 若 發以後 則難別 曰 聖賢正要 就發處 別惟子思說喜怒哀樂未發謂之中 孔孟教人多從發處說 未 發時固當涵養 不成發後 便都不管

(譯) 누군가 「先生은 喜怒哀樂이 未發하기 前에는 動字를 붙일까 靜字를 붙일까」고 물으니 答曰—靜이라 고 하는 것이 可하지마는 靜의 中에 모든지 物이 있어서 그 속에서 비롯하니 바로 이것이 어려운 것이 다. 學者는 또한 먼저 敬을 理會하는 것만 간저 못하니 敬하면 스스로 이렇게 되는 것이다. 또 누가 「未發 한 처음에 涵養해서 하여금 不善한 發端을 바로 사라지게 하면 힘쓰기가 쉬우나 萬若에 發한 以後에는 分 別하기가 어려운가」고 물으니 程子曰—聖賢은 바로 發하는 곳에 나아가 別함을 要하는 것이니 오직 子 思의 「喜怒哀樂未發謂之中」이란 것이나 孔孟의 사람을 가르치는 데는 發하는 것을 많이 말 하였고 未發할 때는 眞實로 涵養해야 하나 不成해서 發한 뒤에는 문득 管知하지 않았다.

朱子曰 只是常敬 便是喜怒哀樂未發之中也 出便是已發 發而中節 只可謂之和 不可謂之中。 或 問 程子之言敬而無失者奈何 答曰—只敬而無失 便不偏不倚 只此便是中 子思之言 本不爲此 程子特取其有會於吾心耳

(譯) 朱子曰「나만이 恒常 敬하는 이것이 喜怒哀樂이 未發한 中이고 出함은 문득 已發이니 發해서 中節 함은 다만 和라고 할 수는 있으나 中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누가 「程子の 「敬而無失」이라고 말한 것이 어떠한가」고 묻으니 朱子答曰「나만이 「敬而無失」함은 바로 不偏不倚함이니, 다만 이것이 中이라. 子思의 말씀은 본디 이러한 것이 아니라 程子께서 特히 그의 吾心에서 理會한 것을 取한 것이다.

又曰 敬而無失 便是常敬 這中底便常在

(譯) 又曰「「敬而無失」은 바로 이것이 恒常 敬해서 그 가운데 문득 常在한 것이다.

又曰 此言人能持敬 而無間斷 則喜怒哀樂渾然在中 而無所偏倚

(譯) 又曰「이에 사람이 能히 敬을 가지고서 間斷이 없게하면 喜怒哀樂이 渾然하게 中에 있어서 偏倚한 바가 없음을 말한 것이다.

又曰 敬而無失 乃所以中 此語至約 是眞實下工夫處(答胡廣仲書)

(譯) 又曰「敬而無失하는 이것이 中이 되는 所以이니 이 말이 至極히 要約한 것으로서 이것이 眞實하게 工夫할 곳이다.

又曰 程子論中庸未發處 答問之際 初甚詳密 而其究竟 只就敬之一字 都收殺了 其所謂敬 亦無

他玄妙奇特 只是教人處事習箇專一而已 都無許多閑說話(答呂子約書)

(譯) 朱子又曰「程子가 中庸에 未發處를 論하는 問答할 때 처음부터 甚히 詳密하였으나 그 究竟은 다만 敬의 一字에 나아가서 모두 包含되었으니 그 所謂 敬이란 또한 다른 玄妙하고 奇特한 것이 아니라 다만 이

것이 사람에게 處事하는데 그에 專一하라는 것은 가르쳤을 뿐이고 도무지 許多한 閑說話는 없는 것이나.

又曰 大本用涵養 中節則窮理之功

(譯) 朱子又曰—大本은 涵養해서 中節하면 모름지기 窮理하는 功이 될 것이다.

又曰 大抵未發已發 只是一項工夫 未發固要存養 已發亦固要審察 遇事時時復提起 不可自怠生放過底心 無時不存養 無時不省察

(譯) 又曰—大抵 未發이나 已發은, 다만 이것이 一項의 工夫이니 未發할 때는 眞實로 存養을 要하고 已發할 때는 또한 眞實로 審察을 要하는 것이다. 일을 만나면 때때로 다시 提起해서 스스로 게으름이 다음에 나서 放過해서 아니 되니 어느 때나 存養하고 省察하지 아니 해서 안 되는 것이다.

又曰 未發已發 不必太泥 只是既涵養 又省察 若戒懼不睹不聞 便是通貫動靜 只此便是工夫 至於謹獨 又是或恐私意有萌處 又加緊切 若謂已發了 更不省察 則亦不可如曾子三省 亦是已發後省察

(譯) 又曰—未發이나 已發에 拘泥될 必要가 없이 다만 이미 涵養하고 또한 省察할 것이다. 萬若에 不睹不聞한데서 戒懼하면 바로 이것이 動靜을 貫通하는 것이니 다만 이것이 바로, 工夫가 謹獨함에 이르러서 또한 或시나 私心이 萌動할까 길을 내는 곳에 또한 緊切을 加해야만 될 것이다. 萬若에 이에 이미 發했다고 해서 다시는 省察하지 않는 것도 또한 아니 되니 曾子의 三省 같은 것이 또한 已發한 뒤에 省察할 것이다.

又曰 未發時着義理 不得纔知 有理有義便是已發 當此時 有義理之原 未有理義條件 只一箇主

宰嚴肅 便是涵養工夫

(譯) 朱子又曰「未發時에는 義理를 붙이지 못하니 겨우 有理하고 有義함을 알게 되면 이것이 바로 이 發이니 이때를 當해서 義理의 根原이 있는 것이다. 理義의 條件이 아직 없어도 다만 一個의 主宰가 嚴肅한 것이 바로 이 涵養工夫인 것이다.

又曰 如涵養熟者 固是自然中節便做 聖賢於發處 亦須審其是非而行 涵養不熟底雖未必中節亦須直要中節可也 要知二者可以交相助 不可交相待

(譯) 又曰「涵養함이 익은 것 같음은 진실로 自然히 中節이 되니 바로 聖賢이 될 수 있으나 發한 때에 또한 모름지기 그 是非를 살펴서 行해야 하고 涵養이 익지 못하면 비록 中節을 期必할 수가 없어도 또한 모름지기 바로 中節을 要함이 可한 것이니 要는 二者가 可히 서로 도와야 하고 서로 기다리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又曰 敬以直內 而喜怒哀樂 無所偏倚 所以致夫中也 義以方外 而喜怒哀樂 各得其正 所以致夫和也 敬義夾持 涵養省察 無所不用其戒謹恐懼 是以當其未發 而品節已具 隨所發用 而本體卓然以至寂然感通 無所間斷 則中和在我 天人無間矣

(譯) 朱子又曰「敬以直」으로서 喜怒哀樂에 치우침이 없는 것은 中道로 가는 所以고 「義以方外」로서 喜怒哀樂에 各其다 그 正을 얻음은 그 和에 이르는 所以니 敬과 義를 夾持해서 涵養하고 省察하는 데는 그 戒謹恐懼를 쓰지 않는 바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未發에 當해서 品節함이 이미 갖추어 어더서나 發用해서 本體가 卓然하여 寂然히 感通함에 이르러 間斷이 없으면 中和가 나에게 있어서 天人和 間隔이 없게 될 것이다.

又曰 心主乎一身 而無動靜語默之間 是以君子之於敬 亦無動靜語默 而不用其力焉 未發之前是敬也 有以主乎存養之實 已發之際是敬也 常行乎省察之間 方其存也 思慮未萌 而知覺不昧 是則復之 所以見天地之心也 及其察也 事物紛糾 而品節不差 是則良之 所以不獲其身 不見其人也 有以主乎 存養之實 是以寂而未嘗不感 有以行乎 省察之間 是以感而未嘗不寂 寂而常感 感而常寂 是則心之所以周流貫徹 而無一息之不仁也 (答張大善)

(譯) 朱子又曰 一心은 一身을 主宰해서 動靜語默의 間隔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君子가 敬에 있어서 또 한 動靜語默에 그 힘을 쓰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未發의 前에는 敬이 存養의 實을 主로 하고 已發할 때에는 敬이 恒常省察의 間에서 行하는 것이다. 그 存養을 할 때는 思慮가 아직 萌動하지 아니하여도 知覺이 어둡지 않으니 이것은 復卦에서 天地의 心을 보는 所以인 것이고 그 省察함에 미처서는 事物이 紛糾해도 品節이 어긋나지 않으니 이것은 民卦에서 「그 몸을 언저 못하고 그 사림을 보지 못하는」 所以인 것이다. 敬으로써 存養의 實에 主로 하니 그로써 寂然해도 感動하지 않음이 없고 省察의 間에 行하니 그로써 感動해도 寂然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寂한 데서 恒常感하고 感하는 데서 恒常寂하니 이것은 마음이 周流해서 貫徹하는 所以로써 一息하는 사이라도 不仁함이 없는 것이다.

又曰 未接物時 便有敬以主乎中 則事至物來 善端昭晰 而其所以察之者 益精明 (答張敬夫書)

(譯) 朱子又曰 一 아직 接物하지 않음 때는 本득 敬으로써 中을 主宰하면 事가 이르고 物이 오는데 善端이 밝아서 그 살피는 所以가 더욱 精明한 것이다.

又曰 心體通有無 該動靜 故工夫亦通有無 該動靜 方無透漏 若必待其發 而後察察 而後存 則工夫

之所不至多矣 惟涵養於未發之前 則其發處 自然中節者多 不中節者少 體察之際 亦甚明審 易

爲着力 (答林擇之書)

(譯) 又曰 心體는 有無를 通하고 動靜을 兼하기 때문에 工夫에도 또한 有無를 通하고 動靜을 兼하여 방
항으로 透漏함이 없을 것이니 萬若에 받드시 그의 已發을 기다린 뒤에 省察하고 省察한 뒤에 存養한다면
工夫가 이르지 못하는 바가 많을 것이니 오직 發外하기 전에 涵養을 하면 그 發하는 곳에는 自然히 中節
되는 것이 많아지고 中節이 되지 않는 것은 적을 것이니 省察할 때에 또한 甚히 明審하면 着力하기가 쉬
울 것이다.

又曰 夫謂未發之前 不可着力者 本謂不可於此探討尋究也 則固無害於涵養之說 謂當涵養者 本
謂無事之時 常有存主也 則固無害於平日涵養之說 謂省察於將發之際者 謂謹之於念慮之 始萌
也 謂省察於已發之後者 謂審之於言動已見之後也 念慮之萌 固不可以不謹 言行之著 亦安得以

不察 (答胡季隨書)

(譯) 朱子又曰 一 그 未發의 前에는 着力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本是 不可하다는 것이니 이에서 探討하고
尋究한다면 眞실로 涵養의 說에 害가 없을 것이니 마땅히 涵養해야 된다는 것은 本是 無事할 때에 恒常存
主함이 있음을 말하는 것인즉 眞실로 平日의 涵養의 說에 害가 없을 것이다. 將次로 發할 때에 省察한다
고 말하는 것은 念慮가 비로소 萌動할 때 삼가함을 말한 것이고 已發한 뒤에 省察한다고 말하는 것은 言動
이 이미 나타난 뒤에 살피는 것을 말한 것이다. 念慮가 萌動할 때는 眞실로 살피지 않아서는 아니 되니 言
行이 나타난 후에 또한 어찌 省察하지 않아서 될까.

又曰 未發之前 不可尋覓 已發之後 不容安排 但平日莊敬 涵養之功至 而無人欲之私以亂之 則

其未發也 鏡止水止 而其發也 無不中節矣 此是日用本領工夫 至於隨事省察 卽物推明 亦必以是爲本 而於己發之際觀之 則其具於未發之前者 固可嘿識 故程子之答蘇季明 反覆論辨 極於詳密而卒之以不過 以敬爲言

(譯) 朱子又曰 未發하기 前에는 可히 尋覓할 수가 없고 已發한 後에는 安排할 수가 없으니 다만 平일에 莊敬해서 涵養하는 功이 이루어져서 人欲의 私가 混亂함이 없으면 그의 未發할 때는 明鏡止水와 같고 그 已發할 때는 中節이 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이것이 日用하는 本領이다. 工夫가 隨事해서 省察하고 卽物해서 推明하는데 이르러서 또한 반드시 이것을 根本으로해서 已發할 때에 본다면 그 未發의 前에 갖추는 것이 진실로 가히 默識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程子의 蘇季明에게 한 答書에서 反覆論辨하여 詳密함에 極하였으니 마침내 敬을 말함에 不過한 것이다.

又曰 敬而無失 卽所以中

(譯) 又曰 「敬以無失」이란 것은 바로 中을하는 所以다.

又曰 入道莫如敬 未有致知 而不在敬者

(譯) 又曰 入道에는 敬만한 것이 없으니 知를 致하고서 敬이 있지 않음은 없는 것이다.

又曰 涵養須用敬 進學則在致知 盖爲此也

(與湖南諸公書)

(譯) 又曰 涵養하는 때는 모를지기 敬을 쓰고 進學하는 것은 致知함에 있으니 대개 이것을 爲한 것이다.

問 未發之前 當戒謹恐懼 提撕警覺 則亦是知覺 而伊川謂既有知覺 却是已發奈何 曰 未發之

前須常恁地 醒不是 寐 然不省 若 然不省 則道理何在 成甚麼大本

(譯) 又曰— 누가 「未發하기 前에는 마땅히 戒謹하고 恐懼하며 提撕(振作)하고 警覺하는 것인즉 또한 이것 이 知覺인데 伊川이 「이미 知覺이 있는 것이 도리어 이 已發이다」고 한 것이 어떠한가」고 물으니 朱子答 曰—未發의 前은 모름지기 恒常이러하게 깨우쳐서 어둡지 않은 것이나 깨치지 못하고 萬若 어두워서 省 察하지 않는다면 道理가 어디 있을까가 疑問의 大本이 될 것이다.

齊明盛服 非禮不動 所以修身也

(譯) 마음이 齊明하고 깨닫이 盛服해서 禮가 아니면, 動하지 않는 것이 修身하는 所以인 것이다.

北溪陳氏曰 齊齊其思慮 明明潔其心 齊明以直其內 盛服以肅其外 內外交相養也 齊明盛服 是靜而未接物之時 以禮而動 是動而已 應接之時 動靜交相養也 如此所以修身

(譯) 陳北溪曰—齊는 그의 思慮를 齊하는 것이고 明은 그의 心神을 明히 한 것이니 齊明은 그 內를 바로 게 함이고 盛服은 그 外를 肅하게 함이니 內外를 서로 기르는 것이다. 齊明盛服은 이것이 靜해서 아직 接物하지 않을 때고 禮로서 動하면 이것이 動해서 이미 應接할 때이니 動靜이 서로 기르는 것이라 이와 같 이 함은 修身하는 所以인 것이다.

雲峯胡氏曰 齊明盛服 靜而敬也 既首章戒懼存養之事 非禮不動 動而敬也 即首章 慎獨省察之事

(譯) 胡雲峰曰—齊明盛服은 靜해서 敬하는 것이니 이미 首章에서 戒懼存養하는 일이고 非禮不動은 動해서 敬하는 것이니 바로 首章에 慎獨省察하는 일이다.

程子曰 聖人齊戒敬也 以神明其德

(譯) 程子曰 聖인의 齊戒는 敬이니 그로서 德을 神明하게 하는 것이다.

問 齊戒是敬否 朱子曰 固是敬 但齊較嚴於戒 湛然純一之謂齊 肅然警惕之謂戒 到湛然純一時 那肅然警惕也無了

(譯) 누가 「齊戒는 이것이 敬인가」고 물으니 朱子答曰 「진실로 이것이 敬이나 다만 齊는 戒에 比較해서 더 嚴肅한 것이니 湛然하게 純一한 것은 齊라 하고 肅然하게 警惕한 것을 戒라고 한다. 湛然히 統一할 때 에 이르러서 어찌 肅然하게 警惕함이 없을까.

又曰 明道愛舉聖人齊戒 以神明其德 要之 意思自好 問 恐是篤恭 而天下平之意 曰 否 只如上 蔡惺惺法

(譯) 又曰 「程明道는 「聖인이 齊戒해서 그 德이 神明해진다는 것을 즐겨 引用하였으니 要컨데 意思가 스스로 좋은 것이다. 누가 「아마 이것이 篤恭해서 天下가 平하다는 뜻인가」고 물으니 朱子答曰 「아니라 다만 謝上蔡의 惺惺法和 같은 것이다.

齊莊中正 足以有敬也

(譯) 齊莊하고 中正함은 足히 敬을 하는 것이다.

龜山楊氏曰 齊莊中正 以直內 故有敬

(譯) 楊龜山曰 「齊莊中正」으로는 內를 直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敬이 있는 것이다.

詩云 潛雖伏矣 亦孔之昭(小雅正月篇) 故君子內省不疚 無惡於志 君子之所不可及者 其惟人之所不見乎

(譯) 詩經에는 「잠기었으나 비록 숨어서도 또한 크게 드러난다」고 하였으니 그러므로 君子는 內心으로 反省해서 缺點이 없고 뜻에 惡함이 없는 것이니 君子를 可히 따라갈 수 없는 바는 그 오직 남이 보지 못하는 곳에 있는 것인저.

朱子曰 言莫見乎隱 莫顯乎微也 無惡於志 猶言無愧於心 此君子謹獨之事也

(譯) 朱子曰 「이 詩는 「莫見乎隱 莫顯乎微」를 말한 것이니 「無惡於志」는 마음에 부끄럼이 없다는 말과 같이 이 것이 君子의 謹獨하는 일이다.

詩云 相在爾室 尚不愧于屋漏 故君子不動而敬 不言而信

(譯) 詩經에는 「네가 집에 있음을 보니 屋漏(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도 부끄럼이 없네」고 하였으니 그러므로 君子는 不動해도 敬하고 不言해도 信하는 것이다.

朱子曰 承上文 又言君子之戒謹恐懼 無時不然 不待言動 而後敬信 則其爲己之功 益加密矣。

(譯) 朱子曰 「上文을 받아서 또 君子의 戒謹恐懼함이 어느 때나 그러하여 言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도 敬하고 信함을 말하았은즉 그 爲己之功(自己의 人格을 爲한工夫)이 더욱더 嚴密한 것이다.

程子曰 不愧屋漏與慎獨 這是箇持養氣象也。

(譯) 程子曰 「暗處(屋漏)에서도 부끄럼이 없는 것과 獨居할 때도 삼가하는 것은 그것이 持養하는 氣象이다.

朱子曰 亦孔之昭 是謹獨意 不愧屋漏 是戒謹恐懼意

(譯) 朱子曰「亦孔之昭」는 이것이 謹獨하는 뜻이고 「不愧屋漏」는 이것이 戒謹恐懼하는 뜻이다.

又曰 戒謹不睹 恐懼不聞 是未有事 在相在爾室 尚不愧于屋漏之時 謹獨便已有形迹了 潛雖伏矣 亦孔之昭 詩人言語 只是大綱說 子思就裏面 別出這話來 教人又較緊密

(譯) 又曰「戒謹不睹恐懼不聞」은 이것이 아직 일이 없으니 「相在爾室尚不愧于屋漏」할 때 있어서 謹獨함에 문득 이미 形迹이 있게 된 것이고 「潛雖伏矣 亦孔之昭」는 詩人의 言語가 다만 이 大綱을 말한 것인데 子思가 裏面에 들어가 그 말을 別出해 왔으니 教人함이 또한 緊密한 것이다.

詩曰 不顯惟德 百辟其刑之 是故君子篤恭而天下平

(譯) 詩經에曰「드러나지 않는 德이 모든 人君法이 된다」고 하였으니 그러므로 君子는 篤恭만 하면 天下가 平해지는 것이다.

朱子曰 篤厚也 篤恭而天下平 乃聖人至德淵微 自然之應 中庸之極功也

(譯) 朱子曰「篤은 厚함이니 篤恭해서 天下가 平하게 됨은 이에 聖人의 至德이 淵微해서 自然에 應한 中庸의 極功이다.

記曰 毋不敬 儼若思 安定辭 安民哉(曲禮)

(譯) 禮記에曰「敬하지 않음이 없고 儼然하게 생각하는 뜻이 하여 言辭는 安定하게 하고 百姓을 安定하게 한 것인저.

西山眞氏曰 毋不敬者 謂身心內外 不可使有一毫之不敬也 其容貌必端嚴而若思 其言辭必安定而不違 以此臨民 民有不安者乎 此雖四言 而修身治國之道略備 其必聖賢之遺言歟。

(譯) 眞西山曰 「毋不敬」이란 것은 身心의 內外의 合宜한 一毫라도 不敬함이 있어서는 안 되고 容貌을 말한 것이니 그의 容貌은 반드시 端嚴하게 해서 생각하는 뜻이 하며 그의 言辭는 반드시 安定하게 해서 輕濫하게 하지 않는 것이니 이렇게 해서 百姓에 臨하면 百姓이 어찌 安定되지 않음이 있을까, 이것은 비록 내가 지 말이나 修身하고 治國하는 道理가 거의 갖추었으니 그 반드시 聖人의 遺言인저。

程子曰 毋不敬 可以對越上帝

(譯) 程子曰 「毋不敬」하면 可히 上帝(하느님)에 높이 對할 것이다.

又曰 敬則自然儼若思

(譯) 又曰 「敬하면 自然히 儼然하게 생각하는듯 할 것이다.

又曰 思無邪 毋不敬 只此二句 循而行之 安得有差 凡有差者 皆由不敬不正也 問 寢不尸 曰 毋不敬

(譯) 又曰 「思無邪」「思不敬」은 다만 이 두句를 따라서 行한다면 어찌 어긋남이 있으리오, 무릇 어긋남은 것은 다 不敬하고 不正한데서 曲來하는 것이다. 누가 「자는대 尸體처럼 아니 할을 들으니」詰曰 敬하지 않음이 없지 하라.

又曰 忘敬而後 毋不敬

(譯) 又曰 「敬도 잊은뒤에야만 敬하지 않음이 없게 되느니라.

范氏曰 經禮三百 曲禮三千 可以一言以蔽之 曰毋不敬

(譯) 范氏曰 一經禮가 三百이고 曲禮가 三千이나 可히 一言으로 蔽한다면 「毋不敬」이라 할 것이다.

藍田呂氏曰 毋不敬者 正其心也

(譯) 呂藍田曰 一毋不敬이란 것은 그 마음을 바로게 하는 것이다.

朱子曰 毋不敬是統言 主宰處 問 敬之貌如何 曰於儼若思時 可以見敬之貌

(譯) 朱子曰 一毋不敬은 이것이 主宰處를 統言한 것이다. 누가 「敬하는 態度는 어찌 하는가」고 물으니 答曰 儼然히 생각하는듯 할 때에 可히 敬하는 態度를 볼 것이다.

又曰 儼若思 敬者之貌也 安定辭 敬者之言也

(譯) 又曰 一儼若思함은 敬하는 者의 일함이고 「安定辭」 敬하는 者의 말이다.

又曰 平居須是儼然若思

(譯) 又曰 一平居에는 모름지기 儼然하게 생각하는 듯이 해야 한다.

南軒張氏曰 儼若思 雖非敬之道 而於此時 可以體敬焉

(譯) 張南軒曰 一儼若思는 비록 敬의 道는 아니라고 이 때에 可히 敬을 體驗할 것이다.

西山眞氏曰 毋不敬者其綱也 見於事親事君事長 與夫威儀容止 起居動作者 其目也

(譯) 眞西山曰 一母不敬이란 것은 그綱領이니 事親 事君 事長에 나타나고 그의 威儀容止나 起居動作은 그의 條目이다.

又曰 敬者禮之綱領也

(譯) 又曰 一敬이란 것은 禮의 綱領이다.

坐如尸 立如齊(上同)

(譯) 앉는 때는 尸와 같이 하고 서는 때는 正齊하게 하라.

孔氏曰 尸居神位坐也 矜莊 坐法必當如尸之坐 人之倚立 多慢不恭 雖不祭 亦當如祭前之齊

(譯) 孔氏曰 尸는 神位에 居해서 坐함이 矜莊한 것이니 坐法은 尸가 坐한 듯이 해야 하고 사람이 기대서 는 것은 倨慢해서 不恭함이 많으니 비록 祭때가 아니라도 또한 마땅히 祭前과 같이 齊戒해야만 할 것이다

君子莊敬日強 安肆日偷 君子不以一日使其躬儻焉 如不終日(表記篇)

(譯) 君子는 莊敬하면 날로 強해지고 安肆하면 날로 偷(輕薄)해 지나니 君子는 一日이라도 그 略으로 하여 금 儻(어긋남)해서 終日하지 못할듯이 할지니라.

應氏曰 儻者參錯不齊之貌 必無檢束 而紛紜雜亂 遂至儻焉 錯出 外既散亂 而不整 則內亦拘迫 而不安 故不能終日也 若主一以直內 而心廣體胖 何至於如不終日乎 伊川先生甚愛 表記君子莊敬日強 安肆日偷之語 蓋常人之情 纔放肆 則日就曠蕩 纔檢束 則日就規矩

(譯) 蓮氏曰「儼이란 것은 參錯해서 不齊한 貌樣이니 마음에 檢束함이 없으면 紛沓하게 亂雜해서 드디어 儼하여 錯出함에 이르나니 外貌가 이미 散亂해서 整齊하지 못하던 內心도 또한 拘迫이 되어서 不安하기 때문에 能히 終日하지 못하는 것이나 萬若에 主一해서 內를 바르게 해서 心이 넓고 體가 알찼다면 어찌 終日하지 못한듯이 되리오 伊川先生은 表記에 「君子는 莊敬日強하고 安肆日偷라는 말을 가장 좋아했으니 대개 常人의 情은 조금만 放肆하면 날로 虛蕩한 데로만 가니 조금만 檢束하면 날로 規則이 있게 되는 것이다.

問 強是志強否 朱子曰 志也強 氣力也強 今人放肆 則日怠惰 一日那得強 伊川云 莊敬則日就規矩 莊敬自是耐辛苦 自不覺其日就規矩也

(譯) 누가 「強함은 이것이 志가 強함인가」고 물으니 朱子答曰「志가 強함은 氣力이 強함이니 只今에 사람이 放肆하면 날로 情怠해지니 一日이라도 어찌 強할 수가 있을까. 程伊川은 말하되 「莊敬하면 날로 規則대로 나아간다」고 했으니 莊敬함은 바로 辛苦를 참는 것이라 스스로 그가 날로 法度있게 됨을 느낄 것이다.

敬軒薛氏曰 莊敬日強 安肆日偷之語 宜深體玩味 蓋莊敬則志以帥氣 卓然有立 爲善躋躋不倦 而不知老之將至 安肆則志氣昏惰 柔懦無立 玩愒歲月 悠悠無成矣

(譯) 薛敬軒曰「莊敬日強 安肆日偷라는 말은 마땅히 깊이 體驗하고 吟味해야 할 것이다. 대개 莊敬하면 志가 氣를 거느려서 卓然하게 確立하여 善을 하는데 孜孜하게 不倦해서 늙어가는 줄도 모르게 될 것이나 安肆하면 志氣가 昏惰하고 柔懦해서 確立될 수 없으니 歲月을 虛送해서 悠悠히 成功함이 없을 것이다.

君子曰 禮樂不可斯須去身 致樂以治心 則易直子諒之心 油然而生矣 易直子諒之心生 則樂 樂則安

安則久 久則天 天則神 天則不言而信 神則不怒而威 致樂以治心者也 致禮以治躬 則莊敬 莊敬則

嚴威 中心斯須不和不樂 而鄙詐之心入之矣 外貌斯須不莊不敬 而易慢之心入之矣 (樂記篇)

(譯) 君子曰—禮樂은 暫時도 버려서는 아니 되니 音樂을 해서 마음을 다스리면 簡易하게 子愛諒解하는 마음 이 油然而起 날 것이다. 그래서 「易直子諒」하는 마음이 나면 樂하고 樂하면 安하고 安하면 久하고 久하면 天이고 天이면 神일 것이다. 天은 不言해도 信하고 神은 不怒해도 威하니 이것이 音樂을 해서 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고 禮法으로서는 몸을 다스리면 莊敬해지고 莊敬해지면 嚴威해 지나니 中心은 暫時라도 不和不樂하면 鄙詐한 마음이 드러오고 外貌는 暫時라도 不莊하고 不敬하면 易慢한 마음이 드러오는 것이다.

程子曰 言不莊不敬 則鄙詐之心生矣 貌不莊不敬 則怠慢之心生矣

(譯) 程子曰—말이 不莊하고 不敬하면 鄙詐하는 마음이 나고 態度는 不莊하고 不敬하면 怠慢하는 마음이 나는 것이다.

敬軒薛氏曰 人有斯須之不敬 則暴慢之心生 而非禮矣 有斯須之不和 則乖戾之心生 而非樂矣

故曰禮樂不可斯須去身

(譯) 薛敬軒曰—사람은 暫時라도 敬하지 않으면 暴慢하는 마음이 나서 禮가 아니되고 또 暫時라도 和하지 않으면 乖戾하는 마음이 나서 樂이 아니 될 것이기 때문에 禮樂은 暫時도 버려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程子曰 敬則自然和樂

(譯) 程子曰—敬하면 自然히 和樂해질 것이다.

又曰 謂敬爲和樂則不可 然敬須和樂 只是中心没事也

(譯) 又曰 一敬을 일컬어서 和樂이라고 하는 것은 不可하나 敬하면 반드시 和樂하게 되니 다만 이 中心이 無事하기 때문이다.

問 初學莫未能和樂否 上蔡謝氏曰 雖未能便和樂 亦須以和樂養之

(譯) 누가 一初學者도 能히 和樂할 수가 없을가"고 물으니 謝上蔡曰 一 비록 바로 和樂이 되지는 아니해도 또한 모름지기 和樂으로써 修養을 해야만 할 것이니라.

朱子曰 禮樂固必相須 然所謂樂者 亦不過謂胷中無一事 而自和樂耳 非是着意 故開一路 而欲其

和樂也 然欲胷中無事 非敬不能 故程子曰 自然程樂 而周子亦以爲禮先而樂後 此可見也 (谷應子晦書)

(譯) 朱子曰 一禮樂은 진실로 서로 必須한 것이나 所謂樂이란 것은 또한 胸中에 一事도 없이 스스로 和樂함을 말함에 不過하니 이것이 着意함이 아니기 때문에 一路를 열어서 和樂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胸中이 無事하려는 때는 敬이 아니면 不能한 것이기 때문에 程子曰 一自然不樂"이라 하였고 周子도 또한 一禮를 먼저 하고 樂은 뒤로 해야 된다고 하였음을 이에서 可히 볼 것이다.

又曰 但得身心收斂 則自然和樂 不是別有一箇和樂 纔整肅 則自和樂。問 敬而不能安樂者何也

曰 只是未熟在 如飢而食喫 多得則飽矣

(譯) 又曰 一 다만 身心을 能히 收斂만 하면 自然히 和樂한 것이니 이것은 別로 一箇의 和樂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整齊해서 嚴肅만 하면 스스로 和樂하게 되는 것이다. 누가 一敬해도 能히 安樂하지 못한 것은 무슨 때문인가"고 물으니 答曰 一 다만 이것은 未熟한 데 있으니 배고플 때와 같아서 많이만 먹으면 배가 부

를 것이다.

故君子姦聲亂色 不留聰明 淫樂慝禮 不接心術 惰慢邪僻之氣 不設於身體 使耳目鼻口心知百體 皆由順正 以行其義(上同)

(譯) 그러므로君子는 姦聲과 亂色을 聰明에 두지 않고 淫樂과 慝禮를 心術에 接하지 않으며 惰慢하고 邪僻한 氣를 身體에 나지 않게 하여 耳目鼻口와 心知百體로 하여금 다 順正으로 말미암아서 그 義理를 實行해야 할 것이다.

西山真氏曰 君子之所以自養者無他 内外交致其功而已 故姦聲亂色 不留聰明者 所以養其外也 淫樂慝禮 不接心術者 所以養其內也 外無聲色之誘 則內亦正矣 內無淫慝之惑 則外亦正矣 惰慢之氣 自內出者也 邪僻之氣 自外入者也 二者不得 設於身體 如是則耳目鼻口 四肢百體內而心知 皆由順正 以行其義 自養之功畢矣 顏子四勿之功 可以庶幾也

(譯) 眞西山曰 君子가 自養하는 所以는 다른 것이 아니고 内外가 交致하는 功뿐인 것이다. 그러므로 「姦聲亂色不留聰明」이란 것은 그의 外를 養하는 所以고 「淫樂慝禮 不接心術」이란 것은 그의 內를 養하는 所以니 外로는 聲色의 誘引이 없으면 內도 또한 正해지고 內로는 淫慝한 誘惑이 없으면 外도 또한 正해질 것이다. 惰慢한 氣는 內에서 나오는 것이고 邪僻한 氣는 外에서 들어오는 것이니 二者를 身體에 나타나지 아니하게 할지니 이와 같이 만하면 耳目鼻口 四肢百體와 內로 心知가 모두 다 順正으로 말미암아서 그 義를 實行한다면 自養하는 功이 完成될 것이니 顏子の 四勿(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의 功을 可히 期望할 것이다.

君子之容舒遲 見所尊者齊邀 足容重 手容恭 目容端 口容止 聲容靜 頭容直 氣容肅 立容德 色容

莊(玉藻篇)

(譯) 君子의 容貌은 舒遲하게 해서 높은 者를 보면 恭敬하여 足容은 重하게 手容은 恭하게 目容은 端하게 口容은 止하게 聲音은 靜하게 頭容은 直하게 氣容은 肅하게 立容은 德하게 色容은 莊하게 하는 것이다.

陳氏(滄)曰 舒遲聞雅之貌 齊如夔夔齊慄之齊 遯者謹而不放之謂 見所尊者 則加敬

(譯) 陳滄曰 舒遲는 閑雅한 貌樣이고 齊는 恐懼해서 齊慄하는 齊와 같고 遯이란 것은 삼가서 放縱하지 않음을 말한 것이니 높은 者를 보면 敬意를 加하는 것이다.

朱子曰 坐如尸 立如齊 足容重 手容恭 以下 敬之目 即此是涵養本源也。問本源之地 固欲存養 於容貌之間 又欲隨事省察曰 即此便是涵養本源 這裏不是存養 更於甚處存養

(譯) 朱子曰 坐如尸 立如齊 足容重 手容恭 以下는 敬하는 條目이니 바로 이것이 本源을 涵養하는 것이다. 누가 「本源의 地는 眞實로 容貌의 間에서 存養하려는 것이고 또 일에 따라서 省察하려는 것인가」 고 물으니 答曰 바로 이것이 本源을 涵養하는 것이다. 그 속에 存養하는 뜻이 없다면 다시 어디서 存養 하리오.

溫良者仁之本也 敬慎者仁之地也(德行篇)

(譯) 溫良이란 것은 仁의 根本이고 敬慎이란 것은 仁의 臺地이다.

方氏曰 溫良則得於中 故以爲本 敬慎則發於外 故以爲地

(譯) 方氏曰 溫良은 中에서 얻기 때문에 本이 되고 敬慎은 外에서 發題하기 때문에 地가 되는 것이다.

孟子曰 持其志 無暴其氣也(公孫丑篇)

(譯) 孟子曰 그 뜻을 가지는 데는 그 기를虐待하지 말라.

朱子曰 志固爲至極 而氣次之 人固當敬守其志 然亦不可不致養其氣

(譯) 朱子曰 志는 진실로 至極한 것이고 氣는 그 다음이니 사람은 眞實로 그의 志를 敬守해야 할 것이나 또한 그의 氣를 기르지 않아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雲峰胡氏曰 敬守其志 添入一敬字 最有意 盖孟子養氣之功 在集義 而所以集義者在敬 敬義夾持 方爲成德

(譯) 胡雲峯曰 敬해서 그 志를 지키는데 한 敬字를 添入한 것이 가장 意味가 있는 것이니 대개 孟子的 養氣한 功은 集義에 있고 集義하는 所以는 敬에 있으니 敬과 義를 夾持함에서야 成德이 되는 것이다.

南軒張氏曰 孟子所謂持志 即敬之道也 非持其志 其能集義乎 敬義蓋相須 而成者也

(譯) 張南軒曰 孟子的 所謂持志란 것은 바로 敬하는 道理이니 그 志를 가지지 아니 하고서 能히 集義할 수가 있을까. 敬義는 대개 相須해서 成就되는 것이다.

敬軒薛氏曰 志固難持 氣亦難養 主敬可以持志 少慾可以養氣

(譯) 薛敬軒曰 志는 진실로 가지기 어렵고 氣도 또한 기르기 어려우니 敬을 주로 함은 可히 志를 가지는 것이고 慾을 적게 함은 可히 氣를 기르는 것이니라.

必有事焉 而勿正 心勿忘 勿助長也(上同)

(譯)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서 반드시 못하면 마음에 잊지 말고 助長하기를 말지니라.

程子曰 必有事焉 便是心勿忘 勿正便是勿助長

(譯) 程子曰 「必有事焉」은 바로 이 마음에 잊지 않음이고 「勿正」은 바로 이 「勿助長」이니라.

又曰 必有事焉 謂必有所事 是敬也

(譯) 又曰 「必有事焉」은 반드시 일하는바가 있음을 말함이니 이것이 敬인 것이다.

又曰 勿忘是 敬也

(譯) 又曰 「잊지 않음」이 敬이다.

又曰 必有事焉者 主養氣而言 故必主於敬

(譯) 又曰 「必有事焉」이란 것은 養氣를 주로 해서 말한 것이므로 반드시 敬을 주로 하는 것이다.

又曰 必有事焉 須把敬來做件事 着此道最是簡 最是易 又省工夫爲此語 雖近似常人所論 然持之久必別

(譯) 又曰 「必有事焉」은 모름지기 敬을 잡아서 일을 하는 것이니 이 도로만 着實히 하는 것이 가장 簡하고 가장 易한 것이다. 또한 工夫를 살펴보는 이 語義됨이 비록 常人의 所論에 近似한 것이나 가지기를 오래 하면 반드시 分別이 될 것이다.

朱子曰 孟子論養氣 以爲集義所生 而繼之曰 必有事焉 而勿忘 勿助長也 蓋又以居敬 爲集義之

本也 必有事焉者 敬之謂也 若曰其心 儼然常若有所事云爾(答何叔京書)

(譯) 朱子曰「孟子께서 養氣를 論하시 集義로 된 것이라고 하고 이어「必有事焉而勿忘 勿助長也」라고 하였음이 대개 또한 居敬으로서 集義하는 根本으로 하였다. 「必有事焉」이란 것은 敬을 말한 것이니 萬若에 그 마음이 儼然하게 恒常하는 바 일일이 있는 듯이 한다는 것이다.

程子曰 若以敬直內 則便不直矣 必有事焉 而勿正則直也。

(譯) 程子曰「萬若에 敬으로써 內를 直하게 함은 바로 直함이 아니나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서 正하지 않으면 直한 것이다.

上蔡謝氏曰 凡恭謹必勉強不安肆安肆必放肆不恭 恭如勿忘 安知勿助長 正當於勿忘勿助之間 仔細體認取

(譯) 謝上蔡曰「무릇 恭謹하면 반드시 勉強해서 安肆하지 아니하고 安肆하면 반드시 放肆해서 不恭할 것이니 恭敬해서 勿忘할 것 같으면 어찌 勿助長함과 같으리오 바로 勿忘 勿助長하는 사이에서 仔細하게 體認해서 取할 것이니라.

朱子曰 必有事焉 却是見得此理 而存養下功處

(譯) 朱子曰「必有事焉」은 도리어 이 理致를 見得해서 存養의 工夫를 할 곳이다.

又曰 以敬爲主 則內外肅然 不忘不助 而心自存(存張敬夫語)

(譯) 又曰「敬으로써 爲主로 하면 內外가 肅然해서 不忘하고 不助하여 마음이 自存할 것이다.

又曰。必有事焉而勿正。必勿忘。勿助長也。下兩句非是覆解上兩句 此自有淺深

(譯) 又曰「必有事焉、而勿正、心勿忘、勿助長」하는, 아래 二句는 이것이 위에 二句를 覆解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淺深이 있는 것이다.

退溪先生曰。「必有事焉。而忽正心勿忘勿助長」當作四項看了。有事一也。勿正二也。勿忘三也。勿助長四也。

(譯) 退溪先生曰「必有事焉、而勿正、心勿忘、勿助長」은 마땅히 四項으로 나누어 보아야 하니 有事가 第一이고 勿正이 第二며 勿忘이 第三이고 勿助長이 第四인 것이다.

程子曰 鳶飛魚躍 子思喫緊爲人處與必有事焉 而勿正之意 同活潑潑之地

(譯) 程子曰「飛魚躍」은 子思가 喫緊하게 사람을 爲한 것이니 「必有事焉而勿正」한 뜻과 더불어 같이 活潑潑(살아서 움직이는)한 境地를 같이한 것이다.

朱子曰 必有事焉 而勿正 心者乃指此心之存主處 活潑潑地 方是形容天理流行 無所滯礙之妙 蓋道之體用 流行發見 雖無間息 然在人而見諸日用者 初不外乎此心 故必此心之存 然後方見其全體呈露 妙用顯行 活潑潑地 略無滯礙耳 若見得破 則即此須臾之頃 此體便已洞然

(譯) 朱子曰「必有事焉 而勿正」에 心이란 것은 이에 마음의 存在하는 곳 活潑潑地를 가리키는 것이니 이것이 天理가 流行해서 凝滯됨이 없는 妙를 가리킨 것이다. 대개 道의 體用이 流行發見함은 비록 間息이 없는 것이나 人間에 있어서 日用에 나타나는 것이 처음부터 此心에 不外한 것이므로 반드시 이 마음이 있는 然後에야만 그의 全體가 露呈되는 妙用이 나타나서 活潑潑地에 조금도 凝滯됨이 없음을 볼 것이다. 萬

若에 見得이 있으면 바로 이것이 暫時 동안에 이 體가 문득 洞然해질 것이다.

又曰 道之流行 發見於天地之間 無所不在 在上則鳶之飛 而戾于天者此也 在下則魚之躍 而出于淵者此也 其在人則日用之間 人倫之際 夫婦之所知所能 而聖人之所不知不能者亦此也 此其流行發見於上下之間者 可謂著矣 子思於此 指而言之 惟欲學者於此 默而識之 則爲有以洞見道體之妙 而無疑 而程子以爲 子思喫緊爲人處者 正以示人之意 爲莫功於此也 其曰與必有事焉而勿正 心之意同活潑潑地 則又以明道之體用 流行發見 充塞天地 亘古亘今 雖未嘗有一毫之空闕 一息之間斷 然其在人 而見諸日用之間者 則初不外乎此心 故必此心之存而後 有以自覺

也(中庸或問)

(譯) 朱子又曰 道의 流行은 天地間에 發見해서 없는 것이 없는 것이다. 위에서는 鳶이 날아서 하늘에 도는 이것이고 아래서는 魚가 뛰어서 水에서 노는 이것이며 그것이 人間에 있어서는 日用하는 사이 人倫의 際에 愚民으로도 知하고 能하는 바이나 聖入도 不知하고 不能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流行해서 上下의 間에서 發見되는 것이 可謂 나탄난 것이다. 子思가 이것을 가리켜서 말하였으니 오직 學者가 이것을 默識하러는 것인즉 道體의 妙를 洞見해서 無疑한 것이 되니 程子는 「子思가 喫緊하게 爲人한 것이라」고 한 것이 바로 示人한 뜻이 이보다 더 切實한은 없는 것이다. 그의 말한 必有事焉 而勿正이라는 것과 心意가 活潑潑한 地와 같다고 한 것은 또한 道의 體用이 流行發見해서 天地에 充塞하고 古今을 貫通함을 밝히었으니 비록 一毫의 空闕이나 一息의 間斷이 있지 않아도 그 人間에 있어서 日用의 間에 나타나는 것인즉 처음은 이 마음에 不外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마음이 있는 뒤에야만 自覺이 있는 것이다.

必有事焉 而勿正 心活潑潑地 亦曰此心之存 而全體呈露 妙用顯行 無所滯礙云爾 非必仰而視

乎鳶之飛 俯而觀乎魚之躍然後可以得之也 抑孟子此言 固爲精密 然但爲學者 集義養氣而發耳 至於程子 借以爲言 則又以發明 學者洞見道體之妙非但如孟子之意而已也 蓋此一言 雖若二事 然其實則必有事焉 半詞之間 已盡其意 善用力者 苟能於此 超然默會 則道體之妙 已躍如矣 何待下句 而後足於言耶 聖賢特恐 學者用力之過 而反爲所累故更以下句解之 欲其雖有所事 而不爲所累耳 非謂必有事焉之外 又當別設此念 以爲正心之防也 (中庸或問)

(譯) 「必有事焉 而勿正과 마음이 活潑潑한 뜻이니 또한 此心이 있어서야만 全體가 露呈하고 妙用이 顯行해서 滯礙된 바가 없다는 것이라 만드시 우러러서는 鳶이 날아가는 것을 보고 구부러서는 魚가 뛰는 것을 본 然後에야만 可히 얻는 것이 아니다. 抑亦 孟子의 이 말씀은 眞實로 精密하나 다만 學者의 集義해서 養氣함을 爲해서 말한 것 뿐이고 程子에 이르러서 빌어서 말한 것인즉 또한 學者가 道體의 妙를 洞見하도록 發明한 것이니 다만 孟子의 뜻에 같을 분만 아니다. 대개 이 一言은 비록 二事 같으나 그 實인즉 「必有事焉」의 半詞의 間에 이미 그 뜻을 다한 것이니 잘 用力하는 者는 萬若 이에 能히 超然하여 默會하면 道體의 妙가 이에 躍如할 것이다. 아래 下句를 기다린 뒤에만 말할 것이다. 聖賢은 特히 學者가 用力이 지나치 도리어 累가 될까봐 戒을 낸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下句로서 解하여 비록 일하는 바는 있어도 그의 累가 되지 않도록 한 것이요 받드시 어딘 일이 있는 外에 또한 마땅히 이 생각을 別設해서 正心하는 堤防으로 한 것은 아니다.

又曰 某近日 因事方有少省發處 如鳶飛魚躍 明道以爲與必有事焉勿正之意同者 今乃曉然無疑 日用之間 觀此流行之體 初無間斷處 有下工夫處 此與守書冊 泥言語 全無交涉 幸於日用間 察之知此 則知仁矣 (答何叔書)

(譯) 又曰「某는 近日에 어느 일로 因해서 妨금 省發한 곳이 있으니 「鳶飛魚躍」같은데 程子는 「必有事焉 勿正」의 뜻과 같은 것이라고 하였음을 至今 이에 깨우쳐서 疑心이 없었다. 日用之間에 이 流行하는 體를 보니 처음에는 間斷함이 없이工夫에 着手하는 곳이 있으니 이것은 書冊만 지키고 言語에만 拘泥되어 全히 交涉이 없었으니 多幸히 日用의 間에서 이와 같이 살피본즉 仁을 알 것이다.

又曰 須知必有事焉 只此一句 便合見得天理流行 活潑潑地 方要於此着意 尋討便窒了(答呂子約書)

(譯) 又曰「모름지기 「必有事焉」을 알아야만 되니 다만 이一句에 문득 天理가 流行하는 活潑潑地를 見得하게 되었으니 要컨대 이에 着意해서 문득 窒礙된 것을 尋討해야만 할 것이다.

又曰 論必有事焉 鳶飛魚躍意 亦甚當 更且虚心寬意 不要回頭轉腦 計較論量 却向外面 博觀衆理 益自培植 則根本愈固 而枝葉愈茂矣 若至於此靜坐處 尋討却恐 不免正心助長之病 或又失之 則一蹴而墮於釋子之見矣 亦可戒也(上同)

(譯) 又曰「必有事焉 鳶飛魚躍」의 意를 論하는게 또한 甚히 得當하니 또한 虚心寬意로서 回頭해서 轉腦하고 計較해서 論量함을 不要하고 도리어 外面을 向해서 衆理를 닦아 보고 더욱 스스로 培植을 하면 根本이 더욱 크고 枝葉이 더욱 盛할 것이나 萬若이에 靜坐하는게 이르러서만 尋討하는 것은 도리어 正心助長의 病을 免하지 못할 것인데 或 또한 夫手를 하면 一蹴해서 佛陀의 見에 떨어질 것이니 또한 可히 警戒해야만 할 것이다.

牛山之木嘗美矣 以其郊於大國也 斧斤伐之可以爲美乎 是其日夜之所息 雨露之所潤 非無萌蘖之生焉 牛羊又從而牧之 是以若彼濯濯也 人見其濯濯也 以爲未嘗有材焉 此豈山之性也哉 雖存乎人

者豈無仁義之心哉 其所以放其良心者 亦猶斧斤之於木也 且且而伐之 可以爲美乎。其日夜之所息 平旦之氣 其好惡與人相近也者 幾希 則其且晝之所爲有梏亡之矣 梏之反覆 則其夜氣不足以存 夜氣不足以存 則其違禽獸不遠矣 人見其禽獸也 而以爲未嘗有才焉者 是豈人之情也哉 (告子篇)

(譯) 牛山에 나무가 일찍이 아름다웠으나 그것이 大國의 거리에 있어 斧斤으로 쳐버렸으니 可히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이것이 晝夜로 자라나는 바와 雨露의 적시는 바가 되어 萌芽가 나는 것이 없을 수가 없으나 牛羊이 또한 팔아가며 들어 먹었기 때문에 저 같이 濯濯(씻은듯이 없는 것)한 것이다. 사람들은 그 濯濯한 것만 보고서 일찍이 材木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이 어찌 山의 本性일까. 비록 人間에 있어서도 어찌 仁義의 마음이 없을까마는 그 良心을 버리는 所以가 또한 斧斤이 나무에서와 같이 아침마다 쳐버리니 可히 아름다울 필까. 그 晝夜로 자라나는 바와 平朝의 氣에 그의 好惡가 사람들과 더불어서 相近한 것이 드물게 되었음은 그 晝의 所爲가 그것을 梏亡(쳐 없애는 것)하였기 때문이니 梏亡해서 反覆하던 그 夜氣가 足히 남을 수가 없고 夜氣가 足히 남지 못한다면 그 禽獸에 가기가 足지 않을 것이니 사람들은 그 禽獸을 보고서 일찍이 人間의 才質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이 어찌 人間의 本性일 것이랴.

朱子曰 良心者 本然之善心 即所謂仁義之心也 平旦之氣 謂未與物接之時 清明之氣也 言人之良心 雖已放失 然其日夜之間 亦必有所生長 故平旦未與物接 其氣清明之際 此心猶必有發見者 但其發見至微 而且晝所爲之不善者 又已隨而梏亡之 如山木既伐 猶有萌芽 而牛羊又牧之也 晝之所爲 既有以害其夜之所息 夜之所息 又不能勝其晝之所爲 是以展轉相害 至於夜氣之生 日以寢薄 而不能存其仁義之良心 則平旦之氣 亦不能清 而所好惡遂與人遠矣

(譯) 朱子曰 良心이란 것은 本然한 善心이니 即所謂 仁義의 心이니 平朝의 氣는 아직 接物하지 않을 때

의 淸明한 氣를 말한 것이다. 말하자면 人間의 良心은 비록 이미 放失하였으나 그 晝夜의 間에 또한 반드시 生長하는 바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平且에 아직 接物하지 아니한 淸明할때의 이 良心은 오히려 반드시 發見할 것이 있을 것이나 다만 그 發見한 것이 至微해서 且 晝所爲가 不善한 것이 또한 따라서 枯亡하는 것이다. 그것은 山木을 이미 쳐도 오히려 萌芽가 있을 것이나 牛羊이 또한 뜰어 먹는 것과 같은 것이다. 晝間에 하는 바가 이미 夜間에 자라난 바를害치고 夜間에 자라난 바가 또한 晝間의 한바를 能히 이기지 못하니 그러므로 屢轉해서 相害함이 夜氣에 生함을害칠에 이르러 날로 侵迫해서 能히 그 仁義의 良心을 保存하지 못하면 平且의 氣가 또한 能히 淸明하지 못하여서 好하고 惡하는 바가 드디어 사람들과 멀어진 것이다.

又曰 愚聞之師曰 人理義之心 未嘗無 惟持守之 即在爾 若於且晝之間 不至枯亡 則夜氣愈淸 夜氣淸 則平且未與物接之時 湛然虛明氣象 自可見矣 孟子發此 夜氣之說 於學者極有力 宜熟玩而深省之也

(譯) 又曰 나는 先生님께 들으니 「사람에 理義의 心은 없지 않으니 그를 惟持해서 지키는 것은 오직 너自身에 있다」고 하였으니 萬若에 且 晝의 間에 枯亡하지 않던 夜氣가 더욱 淸할 것이고 夜氣가 淸하면 平且에 아직 接物하지 않을때 湛然하게 虛明한 氣象이 스스로 나타날 것이다. 孟子께서 이 夜氣의 說을 發하심이 學者에게 極히 有力하니 마땅히 익혀 玩味하고 깊이 省察해야만 할 것이다.

延平李氏曰 孟子有夜氣之說 更熟味之 當見涵養用力處也

(譯) 李延平曰 나는 孟子에 夜氣의 說이 있는 것은 다시 익혀 玩味하면 반드시 涵養함에 用力할 곳을 볼 것이다
西山眞氏夜氣箴曰 子盍觀夫冬之爲氣乎 木歸其根 蟄坏其封 凝然寂然 不見兆朕而造化發育之

妙實胚胎乎其中 蓋闔者 闢之機 貞者元之本 而良所以爲物之始終夫一晝一夜者 三百六旬之積故冬爲四時之夜 而夜乃一日之冬 天壤之間 群動俱闐 窈乎如未判之鴻濛 維人之身 嚮晦宴息亦當以造物而爲宗 必齊其心 必肅其躬 不敢弛然 自放於牀第之上 使慢易非僻 得以賊吾之衷雖終日乾乾 靡容一息之間斷 而昏冥易忽之際 尤當致戒謹之功 蓋安其身 所以爲朝聽晝訪之地 而夜氣深厚 則仁義之心 亦浩乎其不窮 本既立矣 而又致察於事物周旋之頃 敬義夾持 動靜交養 則人欲無隙之可入 而天理灑乎 其昭融然 知及之 而仁不能守之 亦空言其奚庸 爰作箴以自詆 常凜凜乎癯痼

(譯) 眞西山의 夜氣箴에曰 자네는 어찌 그 冬의 氣됨을 보지 않는가. 木葉은 떨어져 그 根으로 돌아가고 벌레는 蟄伏해서 그 地中으로 들어가서 凝然하고 寂然하게 兆朕을 보지 못해도 造化發育하는 妙理는 實로 그의 속에서 胚胎되는 것이다. 大개 闔은 闢의 機고 貞은 元의 本이니 良은 物의 始終이 되는 所以인 것이다. 부릇 一晝一夜가 三百六十을 積하니 冬은 四時의 夜가 되고 夜는 이에 一日의 冬이다. 天壤의 之間에 群物이 모두 갖추어 겨서 窮하게 未到한 鴻濛의 世와 같은 것이다. 이에 人間의 물은 嚮晦로 宴息을 하니 또한 當히 造物로서 宗으로 하여 반드시 그 마음을 齊하게 하고 반드시 그 몸을 肅하게 하여 敢히 弛然하게 牀第(寢臺)의 上에 自放해서 慢易하는 非僻한 마음으로 하여금 나의 衷心을 害賊하지 못하게 해서 비록 終日도록 부지런히 努力해서 一息의 間斷도 容認되지 않게 하여 昏冥하고 易忽한 데서라도 더욱 마땅히 戒愼의 功을 이루어야만 될 것이다. 大개 그 몸을 謹하게 함은 朝聽하고 晝訪하는 곳이 되는 所以니 夜氣가 深厚하면 仁義의 心이 또한 浩然하게 無窮한 것이다. 根本이 이에 서서 또한 事物을 致察해야 周旋하는 사이에 敬義를 夾持하고 動靜을 交養하면 人慾이 들어올 틈이 없이 天理가 灑然하게 昭融할 것이다. 그러나 知가 及해도 仁으로 守하지 못한다면 또한 그 空言을 그 어찌 쓰리오 이에 箴을 지어서 스스

로 針을 주어 凜凜하게 아 뜨게 하노라.

故苟得其養 無物不長 苟失其養 無物不消 孔子曰 操則存 舍則亡 出入無時 莫知其鄉 惟心之謂與
 (譯) 그러므로 眞實로 기르기를 얻으면 자라나지 않음 物件이 없을 것이나 眞實로 그 기를 잃는다면 消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孔子께서는 잡으면 있고 놓으면 없어져서 出入하는데 때가 없으나 그 있는 곳은 알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오직 마음을 말한 것일지.

朱子曰 孔子言心 操之則在此 舍之則失去 其出入無定時 亦無定處如此 孟子引之 以明心之神明不測 得失之易 而保守之難 不可頃刻失其養 學者常無時 而不用其力 使神清氣定 常如平且之時 則此心常存無適 而非仁義矣

(譯) 朱子曰 孔子께서 心을 말씀하는데 잡으면 이에 있고 놓으면 없어 버리니 그의 出入에 定時가 없고 또한 定處도 없음이 이와 같다는 것이다. 孟子께서 이것을 引用해서 心의 神明은 不測하여 得失하기는 쉽고 保守하기는 어려움을 밝혀서 暫時라도 그를 기르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니 學者는 마땅히 언제나 그 힘을 쓰지 않음이 없이하여 하여금 神이 清하고 氣가 定함이 恒常平且하게 같이만 하면 이 마음이 恒常있어서 仁義가 아님이 없을 것이다.

又曰 先聖只說 操則存 舍則亡 出入無時 莫知其鄉 只此四句 說得心之體用始終 眞妄 邪正 無所不備 又見得此心 不操則舍 不出則入 別無閑處 可安頓之意

(譯) 又曰 先聖은 다만 「操則存 舍則亡 出入無時 莫知其鄉」만을 말하였으니 다만 이 四句로서 心의 體用과 始終 眞妄과 邪正을 說得해서 갖추지 않는 바가 없고 또한 이 마음을 잡지 않음은 바로 놓은 것이요

나가지 않음은 바로 든 것이니 別로 閑處에서 可히 安頓할 수 없는 뜻을 알 것이다.

又曰 操則存 舍則亡 却是用功 緊切處是箇生死路頭

(譯) 又曰 「操則存 舍則亡」은 도리어 이것이工夫를 하는 緊切한 것으로서 이것이 死生の 路頭인 것이다.

又曰 此心操舍存亡 只在瞬息間 不須大段着力 然又不可不着力 久之自然見效

(譯) 又曰 「이 마음의 操舍存亡은 다만 이것이 瞬息間에 있으니 모름지기 大段의 着力은 못하나 또한 着力하지 아니해서는 아니되니 오대만 되면 自然히 效果를 볼 것이다.

又曰 孔子言操舍存亡 出入無時 莫知其鄉 四句 而以惟心之謂 一句結之 正是直指心之體用 而

言其周流變化 神明不測之妙也 若謂其舍亡致得 如此走作 則孔子言心體者 只說得心之病矣 聖人之言命物之意 恐不如此 兼出入兩字 有善有惡 不可皆謂舍亡所致也 又謂心之本體 不可以存

亡言 此亦未安 若所操而存者 初非本體 則不知所存者 果爲何物 而又何必以其存爲哉 (答石子 重刊)

(譯) 又曰 「孔子께서 「操存舍亡 出入無時 莫知其鄉」의 四句를 말씀하시 「惟心之謂」라는 一句로서 結論하였으니 바로 이것이 마음의 體用을 가리키셔서 그의 周流를 變化하여 神明이 不測한 妙理를 말하신 것이다. 萬若에 그의 舍亡(놓으면 없어 지는 것)으로 致得함이 이와 같이 走作함을 말하였을즉 孔子께서 心體를 말씀하신 것은 다만 心의 病만을 說得한 것이니 聖人の 命物의 뜻을 말씀하신 것은 아마 이와 같지는 않은 것이다. 出入의 二字를 兼해서 善도 있고 惡도 있으니 다 舍亡의 所致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心의 本體는 可히 存亡으로만 말할 수 없다고 하니 이것이 또한 未安하나 萬若에 짚어서 있는 것은

처음에 本體가 아니라고 하면 있는 곳은 모르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何必 그 있는 것만으로써 할 것이리오.

程子曰 心豈有出入 亦以操舍而言耳 操之道 敬以直內而已

(譯) 程子曰 心에 어찌 出入이 있으리오 또한 잡고 놓는 것으로서 말한 뿐이니 잡고는 方道는 敬으로써 內를 바르게 할 뿐이다.

又曰 操約者敬而已矣

(譯) 又曰 一操約이란 것은 敬뿐인 것이다.

朱子曰 所謂操存者 亦豈以此一物 操彼一物 如關者之相掙 而不相舍哉 亦曰主一無適 非禮不動 則中有主 而心自存矣

(譯) 朱子曰 一所謂「操存」(잡으면 있는 것)이란 것은 또한 어찌 이 一物보시거 一物을 잡는 것을 關爭하는 者가 서로 攈 잡아서 서로 놓지 않음과 같은 것일가. 또한 「主一無適 非禮不動」을 말하면 中에 主가 있어서 마음 스스로 있는 것이다.

又曰 操則存 舍則亡 只在操舍兩字之間 要只消一箇操字 到緊要處 全不消許多文字言語 若此意成熟 雖操字亦不須用

(譯) 又曰 「操則存 舍則亡」은 다만 操舍 두字의 間에 있어서 다만 一個의 操字를 없애려 하여도 緊要處에 이르러서는 全히 없애지 못하니 許多한 文字와 言語를 萬若에 이 뜻으로 成熟하면 비록 操字도 또한

쓸 필요가 없을 것이다.

又曰 若能常操而存 所謂敬者純矣 純則動靜如一 而此心無時不存矣

(譯) 又曰 萬若에 能히 恒常操해서 가지면 所謂敬이란 것은 純一한 것이니 純一하면 動靜이 如一해서 이 마음이 언제나 있지 않을 때가 없을 것이다.

仁山金氏曰 此章孟子切於捄人 山木一段與良心一段相對 養與失 養亦相對 而養之得失 又在操舍之間 程子又發敬以直內一句 指示操存之方 可謂切要 學者讀之急宜警省 存得則人存 不得則禽獸吁可畏哉。

(譯) 金仁山曰 此章은 孟子가 求人함에 切實하였으니 山木(牛山の木)의 一段과 良心의 一段이 養과 失로 相對하니 養을 또한 相對로 해서 기르니 得失이 또한 操舍의 間に 있는 것이다. 程子는 또한 「敬以直內」의 一句를 發해서 操存하는 方法을 指示함이 可謂緊要했으니 學者는 그것을 읽고 急히 警省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得하면 人間이 되고 不得하면 禽獸가 되니 可畏한 것인저.

學問之道無他 求其放心而已矣(上同)

(譯) 學問하는 길은 다름이 아니라 그放心을 求해 드리는 것 뿐이다.

朱子曰 放心不獨是走作 喚做 放才昏睡去也 是放 只有些昏惰便是放 問程子曰 心要在腔子裏 心如何在腔子裏 曰 敬便在腔子裏

(譯) 朱子曰 放心은 獨히 走作하는 것이 아니라 放心을 喚求하는데 조금 昏睡하는 것도 이것이 放이고

다만 조금昏惰함이 있어도 이것이 바로放이다. 程子에게 누가 묻되「心은 腔子속에 있기를 要한다고 하니 어떤것이 腔子속에 있는 것인가」고 하니「敬이 바로 腔子속에 있는 것이다」고 對答하였다.

又曰 求放心非是心放出去 又討一箇心去求他 如人睡着覺來 睡是他自睡 覺是他自覺 只是要常惺惺

(譯) 又曰—求放心은 이 마음이 放出해 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一箇心이 간 것을 求해 드리는 것이니 사람이 자다가 쉰 것과 같으니 睡함도 그가 自睡함이고 覺도 그가 自覺함이다. 다만 그 自覺함은 恒常 惺惺함을 要하는 것이다.

勉齋黃氏曰 古之聖賢戰戰兢兢 靜存動察 如履淵水 如捧盤水 不使此心 少有所放 此孟子求放心之一語 所以警學者之意切矣 自秦漢以來 學者所習 不曰詞章則曰記問也 視古人心之學 爲何事哉 及周程 倡明絕學 以繼孟子不傳之緒 故其所以誨門人者 尤先於持敬 敬則此心自存 而所以求放心之要旨與

(譯) 黃勉齋曰—옛날, 聖賢은 戰戰兢兢해서 靜한 때는 存養하고 動할 때는 省察하여 淵水を 밟는 뜻이 盤水를 받드는 뜻이 해서 이 마음으로 조금도 放過하는 바가 없게 하였으니 이것이 孟子的 求放心이란 一語가 學者를 警戒하는 뜻이 切實한 所以다. 秦漢以來로 學者의 工夫하는 것은 詞章이 아니면 記問이었으니 古人的 存心하는 學問으로서 본다면 그 부는 일이 없던가. 그런데 周와 程에 이르러서 들어진 學問을 唱明해서 孟子的 傳하져 못했던 學統을 이었으니 그의 門人을 가르친 所以는 더욱 持敬을 急先務로 하였다. 敬하면 이 마음이 自存해서 求放心하는 要旨가 되는 所以인 것인저.

存其心 養其性 所以事天也(盡心篇)

(譯) 그 마음을 保存하고 그 本性을 기르는 것은 하는법을 삼기는 바이다.

延平李氏曰 居處恭 執事敬 與人忠 便是存心之法

(譯) 李延平曰 一居處는 恭하게 하고 執事는 敬하게 하여 對人에는 忠으로 하는 이것이 바로 存心하는 方法이다.

朱子曰 以敬爲主 則內外肅然 不忘不助而心自存 不知以敬爲主 而欲存心 則不免將一箇心 把捉一箇心 外面未有一事時 裏面已是三頭兩緒 不勝其擾擾矣(答張敬夫書)

(譯) 朱子曰 一敬으로서 主로 하면 內外가 肅然해서 不忘하고 不助하여 마음이 自存하는 것이나 敬을 主로 할것을 알지 못하고서 存心을 하려면 一箇의 心을 가지고 一心箇의 心을 把捉하려는 것을 免치 못하는 것이다. 外面에는 아직 一事가 있지 않을 때 裏面에는 이미 三頭兩緒가 되어 그의 擾亂함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又曰 存之 養之 便是事心 性便是天 故曰事天也

(譯) 又曰 一保存하고 養成하는 이것이 바로 事心함이고 性은 바로 天이기 때문에 「事天」이라고 한 것이다.

養心莫善於寡欲 其爲人也寡欲 雖有不存焉者寡矣 其爲人也多欲 雖有存焉者寡矣(上同)

(譯) 養心을 하는 데는 寡欲한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으니 그爲人이 慾心이 적으면 비록 良心이 있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해도 그 慾心이 있을 때는 적을 것이나 그爲人이 慾心이 많으면 비록 良心이 있을 때가 있다

고 해도 그良心 있을 때는 금할 것이다.

朱子曰 欲口鼻耳目四肢之所欲 雖人所不能無 然多而不節 則未有不失其本心

(譯) 朱子曰 一慾은 口鼻耳目四肢의 欲求하는 마니 비유 人間으로는 能히 없을 수가 없는 것이나 그慾心이 많아서 節制하지 못하면 그의 本心을 잃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又曰 眼前事事 要時 這心便一齊走出了 未必邪僻不好底物事 只眼前才多欲 便將本心都紛雜了

(譯) 又曰 一眼前에 일일이 일을 때는 그 마음이 一齊히 달아나니 만드지 邪僻하여 不好한 物事는 아니라 고 해도 다만 眼前에 多慾하면 本心이 모두 紛雜하게 되는 것이다.

又曰 敬則欲寡而理明

(譯) 又曰 一敬하면 欲이 적어지고 理가 밝아지는 것이다.

又曰 敬則內欲不萌 外誘不入

(譯) 又曰 一敬하면 內欲은 欲이 萌動하지 못하고 外誘는 誘或이 들지 못하는 것이다.

又曰 敬則天理常明 自然人欲 懲窒消治

(譯) 又曰 一敬하면 天理가 恒常 밝아서 自然히 人欲이 懲窒되고 消治되는 것이다.

又曰 敬所以抵敵人欲 人常敬則 天理自明 人欲上來不得

(譯) 又曰—敬은 人欲에 敵對하는 所以인 것이니 사람이 恒常敬하면 天理가 自明하여 人欲이 들어오지 못 하는 것이다.

又曰 只是一箇敬 徹上徹下 只是這箇道理 到得剛健 自然勝得 物欲之私

(譯) 又曰—다만 이 一箇의 敬은 徹上徹下하니 다만 이에 그 道理가 到得해서 剛健하면 自然히 物欲의 私를 克服하는 것이다.

南軒張氏曰 若何而能敬 克其所以害敬者則敬立矣 害敬者莫甚於人欲 自容貌顏色辭氣之間 而察之天理人欲絲毫之分耳 遏止其欲 而順保其理 則敬在其中 引而達之 擴而充之 則將有常 而日新 日新而無窮矣

(譯) 張南軒曰—어떻게 해서라도 能히 敬해서 그 敬을 害치는 것만 克服하면 敬이 서는 것이다. 敬을 해치는 것은 人欲보다 더함이 없으니 스스로 容貌 顏色 辭氣의 間에서 부터 天理人欲에 絲毫의 分을 明察할 뿐이다. 그 人欲을 막아서 그 天理를 順保하면 敬이 그 가운데 있으니 그것을 引達하고 擴充하면 將次로 常이 있어서 날도 날도 새워서 窮함이 없은 것이다.

朱子曰 誠敬寡欲 不可以次序 做工夫數者 未當不串 然其實却是一件事不成 到敬則欲自寡 却全不去 做寡欲工夫 則是廢了克己之功也 但恐一朝發作 又却無理會 譬如平日慎起居 節飲食 養得如此了 固是無病 但一日意外病作 豈可不服藥 敬只是存養底工夫 克己是去病 須是俱 到無所不用其極

(譯) 朱子曰—誠敬과 寡欲은 可히 次序로 할수 없으나 工夫를 자꾸 하는 者는 一貫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

다. 그러나 그 其實은 도리어 一件事을 이루지 못해도 敬에만 이르면 欲心이 스스로 적어지나 도리어 全히 버려지지 못하고 寡欲工夫를 하면 이것은 克己의 工夫를 廢하는 것이니 다만 一朝에 發作하거나 또한 理會하지 못함이 같나니 弊하면 平日에 起居를 삼가고 飲食을 節해서 이와 같이 기를 것 같으면 진실로 病이 없을 것이나 다만 하루라도 意外로 病이 發作하면 어찌 服藥을 하지 아니 해서 될까. 敬은 다만 이것이 存養하는 工夫이고 克己함은 이것이 病을 없애는 것이니 모름지기 이에 俱到해야만 그 極致를 쓰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勉齋黃氏曰 孟子嘗言 求放心 又言存其心 養其性 操之則存 舍之則亡 心之存亡 決於操舍 而又曰 莫善於寡欲何也 操存固學者之先務 然人惟一心攻之者衆 又安得保其常存而不放哉 出門如賓 承事如祭 夫子告仲弓 操存之方也 非禮勿視聽言動 告顏淵寡欲之謂也 高城深池 重門擊柝 固足以自守矣 內姦外宄 投隙伺便 一有少懈 而乘之矣 良將勁卒 堅甲利兵 掃除妖氛 而乾坤夷矣 此孟子發明操存之說 而又以爲莫善於寡欲也 雖然寡欲固善矣 然非眞知天理人欲之分 則何以施其克治之功哉 故格物致知 又所以爲寡欲之要 此又學者之所當察也

(譯) 黃勉齋曰 孟子께서 일찍이 「求放心」을 말하고 또한 「存其心養其性」과 「操之則存舍之則亡」을 말씀하셨으니 心의 存亡은 操舍에서 決定되는 것인데 또한 「莫善於寡欲」이라고 하였음은 무엇 때문일까 操存은 진실로 學者의 急先務이지 마는 사람이 오직 一心으로 攻하는 者가 여럿이면 또한 어찌 그의 常存을 保全해서 放失하지 않음은 有할까. 「出門如賓 承事如祭」하라는 것은 孔子가 仲弓에게 操存하는 方法을 告한 것이고 「非禮勿視聽言動」이란 것은 顏子에게 寡欲하는 方法을 告한 것이다. 高城과 深池로서 重門해서 擊柝함은 足히 自守하는 것이나 內姦과 外宄가 틈을 엿보는 것은 바로 이것이 조금만 懈弛해도 타고 올 것이니 良將과 勁卒이 堅甲과 利兵으로서 妖氣를 掃除해야만 乾坤이 清爽해질 것이다. 이것이 孟子가 發明

한 操存의 說로서 또한 「莫善於寡欲」을 말한 것이다. 비록 그러나 寡欲은 진실로 좋은 말이지만은 참으로 天理와 人欲의 分을 알지 못하면 어찌 그의 克治하는 工夫를 할 것인가. 그러므로 格物致知가 또한 寡欲하는 要法도 되니 이것이 또한 學者의 마땅히 明察해야 할 것이다.

崇敬錄 卷之二

主敬旨訣

周子曰 聖可學乎 曰可 有要乎 曰有 請問焉 曰一爲要 一者無欲也 無欲則靜虛 動直 靜虛則明 明則通 動直則公 公則溥 明通公溥庶矣乎 (通書)

(譯) 周子曰 一聖은 可히 배울수 잇스겟까 하면 曰 可할 것이다. 要法이 잇는가 하면 曰 잇다고 할 것이다. 請問한다면 一이 重要하니 一이란 것은 無欲이다. 無欲하면 靜虛하고 動直할 것이니 靜虛하면 明해지고 明하면 通해질 것이고 動直하면 公해지고 公하면 溥해질 것이니 明하고 通하며 公하고 溥하면 거의 聖이 될 것인저.

朱子曰 此章之指 最爲要切 然其辭義明白 不煩訓解 學者能深玩 而力行之 則有以知無極之眞兩儀四象之本 皆不外乎心 而日用之間 自無別用力矣 問 一者無欲也 如何 曰 一便是無欲 今試看無欲之時 心豈不一 問 一是純一靜虛 是此心如明鏡止水 無一毫私欲 壞於其中 故其動也 無非從天理流出 無一毫私欲 矯之靜虛 是體 動直是用 曰 是如此 靜虛只是伊川 云中有主則虛 虛則邪不能入是也 若物來奪之則實 實則暗 暗則塞 動直只是其動也 更無所礙 若少有私欲 便礙使曲。

(譯) 朱子曰 一此章의 主指가 가장 緊要하나 그 辭義가 明白해서 解說할 必要가 없으니 學者가 能히 깊이 玩味해서 力行하면 可히 無極의 眞理와 兩儀四象의 根本이 모두 心에 不外함을 알 것이니 日用하는 사이에 스스로 特別한 힘을 씀이 없을 것이다. 누가 묻되 「一者는 無欲이라 함은 어떤 것인가」고 하니 答曰 一

一은 바로 이것이 無欲이니 只今에 試驗으로 無欲한 때를 보면 心이 어찌 一로 되지 않을까. 또 묻되, 「一은 이것이 純一한 것이고 靜虛는 이것이 이 마음이 明鏡止水와 같아서 一毫의 私欲이 그 속을 채우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의 動함이 모두 天理에 따라서 流出되어 一毫의 私欲에도 흔들림이 없는 것이다. 靜虛는 이것이 體고 動直은 이것이 用인가」고 하니 答曰「이와 같이 靜虛함은 다만 이것이 伊川の中心에 주가 있으면 虛하고 虛하면 邪가 능히 들어 오지 못한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萬若에 物이 와서 奪하면 實해지고 實하면 暗해지고 暗하면 塞해 지니 動直은 다만 이것이 그 動함에 다시 拘碍되는 것이 없음이니 萬若에 조금이라도 私欲이 있으면 바로 拘碍되고 歪曲되는 것이다.

勉齋黃氏曰 動靜當以心言也 虛直兩字 亦當仔細體認 虛者此心湛然 外物不能入故虛直者 循理而發外 邪不能撓故直。

(譯) 黃勉齋曰「動靜은 마음하 心으로써 말한 것이니 虛直 두字를 또한 마음하 仔細히 體認해야 할 것이다. 虛란 것은 이 마음이 湛然해서 外物이 능히 侵入하지 못하기 때문에 虛한 것이고 直이란 것은 理에 따라서 外로 發現이 되어 邪가 능히 撓動하지 못하기 때문에 直이라고 하는 것이다.

北溪陳氏曰 一者此心渾然太極之體 無欲者心體粹然無極之眞 靜虛者體之未發 豁然絕無一物之累 陰之性也 動直者用之流行 坦然由中道而出 陽之情也

(譯) 陳北溪曰「一者란 것은 此心이 渾然한 太極의 體고 無慾이란 것은 心體가 粹然한 無極의 眞인데 靜虛란 것은 體의 未發한 것이 豁然하게 一物의 累도 없으니 陰의 性이고 動直이란 것은 用의 流行이 坦然하게 中道로 말미암아 나오니 陽의 情이다.

問 比主一之敬如何 朱子曰 之欲與敬字一般 比敬字分外分明 要之 持敬頗似費力 不如無欲撤

脫人只爲有欲 此心便千頭萬緒

(譯) 누가 묻되, 主一의 敬에 比하면 어찌한가 하고 하니 朱子答曰 一無欲과 敬字는 一般이나 敬字에 比함은 分外로 分明한 것이니 要컨대 持敬은 자못 費力하는 것 같아서 無欲으로 超脫하는 것만 같지 못한 것이다. 사람은 다만 欲心이 있게 되면 이 마음이 문득 千頭萬緒로 되는 것이다.

又曰 周先生說一者無欲也 然這話頭高卒急難湊泊 尋常人如何便無欲 故伊川只說箇敬字教人 只就這敬字上捱去 庶幾執捉得定有箇下手處

(譯) 又曰 一周先生說 一者를 無欲이라고 하였으나 그 말은 논아서 卒急히 湊泊하기는 어려우니 尋常人 이 어찌 해서 문득 無欲하게 될까. 그러므로 程伊는 다만 그 敬字를 말해서 남을 가르쳤는데 다만 그 敬字上으로만 나아가면 기의 執捉하고 得定하여 그 着手할 곳이 있는 것이다.

勉齋黃氏曰 敬則靜虛 亦能動直矣 敬該動靜者也

(譯) 黃勉齋曰 一敬하면 靜虛하고 또한 能히 動直할 것이니 敬은 動靜을 兼한 것이다.

徵菴程氏曰 學聖賢之道無他 主敬以立其本 窮理以致其知 反躬以踐其實而已 其反躬也 必以無欲爲敬 以無息爲誠

(譯) 程徵菴曰 一聖賢의 道를 배우는 데는 다름없이 主敬으로써 그의 本을 세우고 窮理로써는 그 知를 이루며 反躬으로써는 그의 實을 행하는 것뿐이니 그 反躬함에는 반드시 無欲으로써 敬을 하고 無息으로써 誠을 하는 것이다.

程伯子曰 質美者明 得盡渣滓便渾化 却與天地同體 其次惟莊敬持養 及其至則一也。

(譯) 程伯子曰「質이 美한 者는 明哲하여 澆淳가 모두 없이 되고 物을 渾化하게 되니 도리어 天地와 더불어 同體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오직 莊敬으로써 持養하는 것이니 그의 終局에는 同一하게 되는 것이다.

朱子曰 顏子明得盡者 仲弓莊敬以持養之者也 顏子資質剛明 仲弓資質溫粹 顏子於仁 剛健果決 如天旋地轉 雷勵風飛 做將去 仲弓則自斂藏 謹嚴做將去

(譯) 朱子曰「顏子は 淨明해서 澆淳가 없는 者고 仲弓은 莊敬해서 持養한 者이다. 顏子は 資質이 剛明하 고 仲弓은 資質이 溫粹하며 顏子は 仁을 함에 剛健하고 果決하기가 天地가 旋轉하고 雷風이 厲動하는 것 처럼 하여 갔으며 仲弓은 斂藏하고 謹嚴하게 하여 갔던 것이다.

問 心術最難執持如何 曰 敬

(譯) 누가 묻되「 마음의 作用은 執持하기가 어려운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고 하니 答曰「敬하라.

又曰 敬勝百邪

(譯) 又曰「敬하면 百邪를 다 이기느니라.

又曰 操約者敬而已矣

(譯) 又曰「要約을 잡는 데는 敬뿐이다.

西山眞氏曰 先生又嘗書一約字 而註敬字於其下 亦此意

(譯) 眞西山曰「先生은 또한 일찍이 한 約字를 쓰고 그 아래에 敬字로註하였으니 또한 이런 뜻이다.

古人動息皆有所養 今皆廢此 獨有理義之養心耳 但存此涵養意 久則自熟矣 敬以直內 利涵養意

(譯) 古人은 動하고 靜하는데 다 養하는 바가 있었으나 至今은 다 이것을 廢하고 獨히 理義로만 養心한 뿐이다. 다만 이 涵養하는 뜻이 있어서 오래면 自然히 익어지는데 敬으로써 內를 바르게 하는 이것이 涵養하는 뜻이다.

尹彥明嘗言 先生教人 只是專令用 敬以直內 若用此理 則百事不敢輕爲 不敢妄作 不愧屋漏矣 習之既久 自然有得

(譯) 尹彥明은 일찌기 말하되 先生께서 教人하심에는 다만 이 「敬以直內」만 專力하게 하였으니 萬若에 이道理만 쓰면 百事에 敢히 輕爲하지 못하고 敢히 妄作하지 못하며 屋漏(사람이 없는 곳)에도 부끄럽지 않은 것이니 그렇게 익혀서 이미 오래 되면 自然히 所得이 있을 것이다.

涵養吾一

(譯) 나의 하나로 涵養하는 것이다.

又曰 天地設位 易行乎其中 只是敬也 敬則無間斷

(譯) 又曰 天地가 그 位置에 있는데 易理가 그 中에서 行함은 다만 이 敬이니 敬하면 間斷이 없는 것이다.

朱子曰 天地亦是有一個主宰 方是恁地 變易無窮 便是天地之敬 天理只是直上去 更無四邊滲漏 更無走作 就人心言之 惟敬然後 流行不息 敬纔間斷 不誠無物也。

(譯) 朱子曰 天地는 또한 主宰가 있으니 그와 같이 變易이 無窮한 것이 바로 이 天地의 敬이다. 天理는 다만 바로 上去하는 것이고 다시 四邊으로 새는 것이 없으며 또한 走作함도 없으니 人心으로 말하면 오직

敬한 然後에야만 流行이 不息한 것이니 敬이 조금 間斷해서 不誠하면 無物한 것이다.

又曰 易是自然造化 聖人本意 只說自然造化流行 程子將來 就人身說敬 則這道理流行 不敬便 間斷也

(譯) 又曰 易理는 이것이 自然的 造化이니 聖人の 本意는 다만 自然的 造化와 流行을 說한 것이다. 程子는 人身에 對해서 말 했으니 敬하면 그 道理가 流行하고 不敬하면 間斷이 되는 것이다.

今學者敬 而不自得 又不安者只是心生(持敬而無自得之意)

亦是太以敬來 做事得重此恭而無禮則勞也 恭者私爲恭之恭也 禮者非體之禮(非體無形體。可捉摸見記孔子閒居) 是自然底道理也 只恭而不爲自然底道理 故不自在也 須是恭而安

(譯) 只今에 學者가 敬해도 自得하지 못하고 또한 安定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이 心生(持敬해도 自得하지 못하는 뜻)한 것이니 또한 이것이 너무 敬으로써 做事함이 得重한 것이니 이것은 「恭하기만 하고 禮가 없으면 勞하다」는 것이다. 恭이란 것은 私로 恭을 하는 恭이고 禮란 것은 體의 禮(非體란 것은 形體를 捕捉할 수 없는 것)가 아니고 이것이 自然的인 道理이니 다만 恭해서 自然的인 道理로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自在하지 못하는 것이니 모름지기 이에 恭해서 安하게 해야 할 것이다.

問 持敬覺不甚安 朱子曰 初學如何便得安除是 孔子方恭而安 初要持敬也 須勉強 但覺有些子 放去 便收斂提掇起敬 便在這裏 常常相接 久後自熟

(譯) 누가 물되 「持敬을 하면 甚히 편하지 못함을 깨닫는가」고 하니 朱子 答曰 「初學을 하는데 어찌 바로 便安할 수가 있으리오 孔子께서는 恭해서 安하셨으나 처음에 持敬을 要하는대는 모름지기 勉強하여 다만

조금이라도 마음에 결리는 것이 있으면 放去하고 문득 收斂으로 提擧해서 敬을 하면 그 후에 恒常相接하여 오래된 後에는 스스로 익어지는 것이다.

程叔子曰 涵養須用敬 進學則在致知

(譯) 程伊川曰 涵養하는 데는 반드시 敬으로 하고 進學하는 것은 致知함에 있는 것이다.

朱子曰 涵養致知亦何所始 但學者須自截從一處做去 程子謂莫先於致知 是知在先

(譯) 朱子曰 涵養하고 致知함에는 또한 무엇으로 비롯할까. 다만 學者는 모름지기 自絶해서 한 곳으로만 하여 가야만 하는 것이다. 程子は 致知보다 더 緊要한 것은 없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致知가 先在할 것이다.

又曰 未有致知 而不在敬者 則敬也在先從此推去 只管恁地

(譯) 又曰 致知를 하는 것이 敬함에 있지 않는 것이 없으니 敬이 先에 있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가면 그 대로 되는 것이다.

入道莫如敬 未有能致知 而不在敬者

(譯) 道에 들어가는 데는 敬만 같은 것이 없으니 能히 致知를 하는 것은 敬에 있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朱子曰 持敬致知 實交相發 而敬常爲主所居既廣 則所向坦然 無非大路 聖賢事業 雖未易以一

言盡 然大槩似恐不出此也

(答孫敬甫書)

(譯) 朱子曰 持敬과 致知는 實로 서로 發해도 敬이 恒常 主가 되니 所居가 이미 넓으면 向하는 바가 却然해서 大路가 아님이 없는 것이니 聖賢의 事業은 비록 一言으로써 다 하기는 쉽지 않으나 대개 이에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又曰 莫若且收斂身心 盡掃雜念 令其光明洞達 方能作得主宰 方能見理

(譯) 又曰 一 또한 身心을 收斂해서 雜念을 다 掃去하여 하여금 光明하고 通達하게 함만 같은 것은 없으니 마야호로 能히 主宰를 얻는 것이고 그것이 能히 眞理를 보는 것이다.

又曰 無事時且存養在這裏 提撕警覺 不要放肆 則那講習應接 便當思量義理 用義理做將去 無事便着存養收拾此心(上同)

(譯) 又曰 一 無事할 때에 또한 存養함이 그 속에 있으니 이끌어 警覺해서 放肆하지 않으면 이 講習하고 應接함에 문득 義理를 思量해야 할 것이다. 義理를 써 가지고 가는데 無事함에 문득 存養을 해서 此心을 收拾해야만 할 것이다.

又曰 敬之一字 乃學之綱領 須更於此加工 使有所據依 以爲致知力行之地 乃佳耳(上同)

(譯) 又曰 一 敬이란 一字는 이것이 學問의 綱領이니 모름지기 이에 다시 加工해서 하여금 依據할 바가 있게 하여 그로써 致知하고 力行하는 基本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又曰 聖賢千言萬語 大事小事 莫不本於敬 收拾得自家精神 在此看得道理 盡看道理 不盡只是不曾專一

(譯) 又曰 聖賢의 千言萬語와 大事小事는 敬에 基本하지 않음이 없으니 自己의 精神을 收拾하여 그에서

道理를 看破해야 하니 道理를 다 看破하지 못함은 다만 일찌기 專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問 程子謂格物窮理 但立誠意以格之 又曰 入道莫如敬 愚以爲誠意工夫在格致後今乃云 先立誠意 始去格物 無乃反經意歟 潛室陳氏曰 程門此類甚多 如致知用敬 亦是先侵了 正心誠意地位 蓋誠敬二字 通貫動靜始末 不是於格致之先 更有一敬工夫在 只是欲立箇主人翁耳 不然皆妄

(譯) 「程子께서 格物과 窮理는 다만 誠意를 세워서 格한다고 하고 또한 道로 들어감에는 敬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하였으니 愚(朱子の 自稱)는 誠意工夫는 格物 致知한 後에 있다고 하는데 只今 이에 먼저 誠意 하고서 格物로 간다고 하였음은 이것이 經書의 眞意에 反對되는 것이 아닌가」고 물으니 陳潛室曰「程子는 이러한 말씀이甚히 많으니 致知하는 데는 敬으로 하는 것 같은 것이니 또한 이것이 먼저 正心 誠意의 位置를 侵害한 것이다. 대개 誠敬의 二字는 動靜과 始末을 通貫한 것이니 이것이 格物하기 前에 다스린 敬工夫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것은 그 主體者를 세우려는 것 뿐이니 그러하지 않음은 다만 不當한 것이다.

人心不能無交感萬物 亦難爲使之不思慮 若欲免此 惟是心有主 如何爲主 敬而已矣 有主則虛 虛謂邪不能入 無主則實 實謂物來奪之

(譯) 人心은 萬物을 交感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니 또한 하여금 思慮하지 아니 하게 함도 어려운 것이다. 萬物에 이것을 免하려면 오직 이 마음에 主가 있어야 하니 무엇을 주로 할가 하면 敬만 주로 할 뿐이다. 마음에 主가 있으면 虛하니 虛함은 邪가 能히 들지 못함을 이르고 主가 없으면 實하니 實함은 外物이 와서 빼앗는 것을 말 함이다.

又曰 中有主則實 實則外患不能入

(譯) 又曰—中心에 主가 있으면 實하게 되니 實하면 外患이 能히 들지 못하는 것이다.

朱子曰 思慮息不得 只敬使自然無 問程子曰 中有主則實 實則外患不能入 自然無事 又曰 有主則虛 虛謂邪不能入 無主則實 實謂物來奪之 德明(廖子晦名) 云虛實二說 雖不同 然意自相通 皆謂以敬爲主也 敬則其心操存 而不亂 虛靜而能照 操存而不亂 外患自不能入 虛靜而能照 外物自不能干 無有二事 曰 子晦之說甚善 但敬 則內欲不萌 外誘不入 自其內欲不萌 而言則曰虛 自其外誘不入 而言故曰實 只是一時事 不可作兩截看也(答廖子晦書)

(譯) 朱子曰—思慮가 쉬지 않는 데는 다만 敬하면 물득 自然히 없어질 것이다. 누가 묻되「程子는 中心에 主가 있으면 實하니 實하면 外患이 能히 들지 못하여 自然히 無事하다고 하시고 또한 主가 있으면 虛하니 虛하면 邪가 能히 들지 못한다고 말 하고 主가 없으면 實이니 實하면 外物이 外에서 奪앗는 것이다」고 하였음에 廖子晦는 말하되「虛實의 二說이 比록 不同하나 그 뜻은 스스로 相通하니 다 敬을 主로 하라는 말이 다. 敬하면 그 마음을 操存해서 不亂하고 虛靜해서 能照하니 操存해서 不亂하면 外患이 能히 들지 못하고 虛靜해서 能照하면 外物이 自然히 침범하지 못하는 것이니 두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함에 朱子는 曰「子晦의 說이 甚히 좋으니 다만 敬하면 內에 欲心이 萌動하지 못하고 外에 誘惑이 侵入하지 못하나니 그 內欲이 不萌함으로 말하면 虛한 것이고 그 外誘가 不入함으로 말하면 實이라고 할 것이니 다만 이것은 一時의 事고 들로 끊어 보아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人活物也 既活則須有動作 須有思慮 幾時須如枯木死灰 敬以直內 則須君則是君 臣則是臣 凡事如此 大小大直截也

(譯) 사람은 活動이라 살았으면 반드시 動作이 있고 思慮가 있는 것이니, 열매 등안이나 枯木과 死灰처럼 될 수가 있을까. 「敬以直內」하면 모름지기 君은 이 君으로서 臣은 臣으로서 各其道理를 다할 것이니, 凡事들이 와 같이만 하면 大小가 크게 直截하게 될 것이다.

大凡人心 不可二用 用於一事 則他事更不能入者 事爲之主也 事爲之主 尚無思慮紛擾之患 若主於敬 又焉有此患乎

(譯) 무릇 사람의 마음은 두 가지로 써서는 아니 되니 한 가지만 쓰면 다른 것이 다시 能히 들지 못함은 그 일이 主가 되었기 때문이다. 일이 主가 되면 오히려 思慮가 紛擾될 걱정은 없으니 萬若에 敬을 主로 하면 또한 어찌 걱정이 있으리오.

或問事爲之主一段 疑當使心爲事主 不可使事爲心主 朱子曰 事爲之主 只是此心收在一事上 不走作耳 伊川欲以數珠與溫公之類 (程子曰 君實常患思慮紛亂 中夜而作 寤且不寐 其後告人曰 近得一術 常以中

爲念 則又是爲中所亂中又何形 如何念得 與其爲中所亂 却不如與一箇數珠之爲念也)

(譯) 누가 묻되 「事爲之主」란 一句는 疑心하진데 마땅히 心으로 하여금 事의 主가 되는 것이고 事로 하여금 心의 主가 됨은 不可한가」고 하니 朱子曰 「事爲之主」는 다만 이 마음을 一事의 上에만 收斂하여 走作하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程伊川이 念珠를 세는 것을 司馬溫公에게 가르쳐 주었던類다. (程明道曰 「司馬君實이 恒常 思慮가 紛亂함을 격정하여 밤중에 일어나서 아침이 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後에 남에게 말하되 「近者에 한 方法을 얻어서 恒常 中으로써 執念한즉 또한 그 中이 어지럽히는 바가 되니 中이 또한 무슨 形態이기에 어찌 執念이 되는지 그 中의 어지럽힘이 되는 것보다는 도리어 한층의 念珠를 세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하였다.」)

惟是動容貌 整思慮 則自然生敬 敬只是主一也 既不之東 又不之西 如是則只是中 既不之此 又不

之彼 如是則只是內 存此則自然天理明

(譯) 오직 이 용어를 움직이고 思慮를 바꾸면 自然히 敬이 되는 것이니 敬은 다만 이것이 主이다. 이미 東으로도 가지 않고 또한 西로도 가지 않으면 다만 이것은 中이고 이미 이리도 가지 않고 또한 저리도 가지 않으면 다만 이것은 內이니 이에 있거만 하면 自然히 天理가 밝아질 것이다.

所謂敬者主一之謂敬 所謂一者無適之謂一 且欲涵泳主一之義 一則無二三矣(一作不一則二三矣)

(譯) 所謂敬이란 것은 主一하는 것을 敬이라 하고 所謂一이란 것은 無適하는 것을 一이라고 하나 또한 主一の義에 涵泳하면 그 一은 二三이 없는 것이다. (或은 一이 아니면 二三이다)고도 보나.)

問敬曰莫若主一

(譯) 敬에 對해서 물으니 曰 主一함만 같은 것은 없다.

朱子曰 主一是敬字註解 要見事無小無大常令自家精神思慮 盡在此 遇事時如此 無事時也如此
(譯) 朱子曰 主一은 이것이 敬字의 註解이니 要는 일을 보는데 小도 大도 없이 恒常 自己의 精神思慮로 하여금 다이에 있게해서 遇事할 때도 이와 같이 하고 無事할 때도 이와 같이만 하는 것이다.

又曰 程子又云 只是持守得定 不馳騫走作之意耳 持守得定 而不馳騫走作 即是主一 是主一即

是敬 只是展轉相解 非無適之外 別有主一 主一之外 又別有敬也(答方子實書)

(譯) 又曰 程子는 또 말하되 다만 이 持守해서 得定함은 外로 馳走하지 않는 뜻이다. 且 하였으니 持守해 得定하여 外로 馳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主一이고 이 主一하는 것이 바로 敬이니 다만 이렇게 展轉해

서 相解함이 無適이 外에 別로 主一이 인는 것도 아니고 主一의 外에 또 別로 敬이 인는 것도 아니다.

又曰 一者其心湛然 只在這裏 問主一無適曰 主一只是心專一 不以他念雜之 無適只是莫做作 如讀書時 只讀書 着衣時 只着衣了此一件 又做一件 身在這裏 心亦在這裏

(譯) 又曰 一者란 것은 그 마음이 湛然하게 다만 그 속에 있는 것이다. 누군가 「主一無適」을 물으니 答曰 主一은 다만 이 마음을 專一하게 해서 他念이 混雜하지 않는 것이고 無適은 다만 이것이 走作하지 않는 것이니 讀書할 때는 讀書만 하고 着衣할 때는 다만 着衣만 하는 것 같음이니 이 한가지를 마치고는 또한 가지를 하는데 身이 그 속에 있으면 心도 또한 그 속에 있어야만 할 것이다.

又曰 做了這一事 却做一事 今人做一事未了 又要做一事 心下千頭萬緒

(譯) 又曰 一지 한 일을 해서 마치고 또한 일을 하는 것이니 只今 사람들은 한 일을 해서 마치지도 아니하고 또한 일을 해서 다음이 千頭萬緒가 되는 것이다.

又曰 主一兼動靜而言

(譯) 又曰 主一은 動과 靜을 兼해서 말한 것이다.

又曰 主一是敬 表德只是要收斂 處宗廟只是敬 處朝廷只是嚴 處闈門只是和 便是持敬問 方應此事未畢 而復有一事至 則當如何 曰 也須是敬一件了 又理會一件 亦無雜然 一而應之理 但甚不得已 則權其輕重可也

(譯) 又曰 主一은 이것이 敬의 表德이니 다만 이 收斂을 要하는 것이다. 宗廟에 處해서는 오직 敬하고

朝廷에 處해서는 오직 嚴하고 家庭에 處해서는 오직 和하는 것이 바로 持敬함이다. 누가 묻되「이 일도 아직 마치지 못했는데 또 한 일이 이르던 어떻게 할까」고 하니 朱子答曰「도를 지키기 한 件을 해서 그의 輕重을 따라 보아야만 할 것이다.

又曰 敬莫把做一件事看 只是收拾自家精神 專一在此 未說道有甚底事 分自家志慮 只是觀山玩水也 煞引出了心 那得似教他 常在裏面好 如世上一等閒物事 一切都絕意 雖似不近人情 要之如此方好問伊川云 主一之謂敬 無適之謂一

(譯) 又曰「敬은 한 가지만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自己의 精神을 收拾해서 이에만 專一하게 함이니 道를 즐기지 아니하고 어떤 일에 있어서 自己의 志慮를 나누는 것은 다만 山을 보고 水를 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나가는 마음을 죽이는 것이 어찌 그를 가르쳐서 恒常 裏面에 좋은 것을 얻으리오. 世上에 一等으로 無閒한 物事는 一切 모두 絕意하는 것이 비록 人情에는 가깝지 않은 것 같으나 要는 이와 같이 함이 좋은 것이다. 누가 程伊川에게 물으니「主一하는 것을 敬이라 하고 無適하는 것을 一이라 한다」고 하였다.

又曰 人心常要活 則周流無窮 而不滯於一隅 或者疑主一則滯 滯則不能周流無窮矣 竊謂主一則此心便存 心存則物來順應 何有乎滯 曰固是然 所謂主一者 何嘗滯於一事 不主一 則方理會此事 而心留於彼 這却是滯於一隅

(譯) 又曰「人心은 恒常 活함을 要하는 것인즉 周流해서 無窮하여 一隅에만 固滯하지 않는 것이다. 或者는 疑心하되「主一을 하면 滯하게 되고 滯하면 能히 周流해서 無窮할 수가 없는 것이라 나는 가만히 말하

노니 主一하면 此心이 있는 것이고 此心이 있으면 外物이 와도 順應할 것이니 어찌 滯함이 있을가」고 하니 曰「진실로 그러하나 所謂主一이란 것이 어찌 一事에만 固滯된 것일가. 主一하지 않으면 이 일을 理會하는데 마음이 저곳에 가서 머무르니 그것이 도리어 一隅에만 固滯된 것이다.

南軒張氏曰 正當深思於主一上進步 要是常常省厲 使凝定 清肅之時多 則當漸有向進矣

(譯) 張南軒曰「正當하게 深思해서 主一上에 進步하는데는 이에 恒常 猛省을 해서 하여금 凝定하기를 要하니 清肅할 때가 많으면 반드시 漸漸向進함이 있을 것이다.

又曰 未應事前 此事先在 既應之後 此事尚存 正緣主一工夫未到之 故須是思此事時 只思此事 做此事時 只做此事 莫教別底 交互出來 久久自別

(譯) 又曰「아직 應事하기 前에 이 일이 먼저 있고, 이미 應事한 뒤에는 이 일이 그에 있음은 바로 主一하는 工夫가 아직 이르지 못한 데서 緣由한 것이니 모름지기 이 일을 생각할 때는 생각이 다만 이 일에만 있고 이 일을 實行할 때는 다만 이 일에만 있어서 서로 뒤섞여 나오지 아니하게 해서 오래 오래만 되면 스스로 區別이 될 것이다.

又曰 所謂主一無適 眞學者指南 故某欲其於操舍之間 體察而居毋越思 事靡他及乃是實下手處 若於此用力 自然漸覺近裏趨約 意味自別 見則爲實見 得則爲實得不然徒談高說妙 元只在膠膠擾擾域中爾

(譯) 又曰「所謂「主一無適」은 참으로 學者의 指南이기 때문에 某는 操하고 捨하는 사이에 體察해서 居함에 생각이 다른데로 넘어가지 아니 하고 일함에는 다른데로 가지 않게 하려 하니 이것이 實로 下手할 곳

이다. 萬若 이에 用力하면 自然히 그 속으로 나아갈을 漸漸 깨치어 意味가 自別하여 저서 그의 보는 것은 實見이 되고 그의 얻은 것은 實得이 될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한갓 高妙한 것만 談說하는 것은 元來에 擾亂한 境內에 있는 것이다.

東萊呂氏曰 敬也者 純一不雜之謂也 事在此 而心在彼 安能體得敬者

(譯) 呂東萊曰 敬이란 것은 純一해서 不雜한 것을 말함이니 事는 이에 오는데 心은 저게 있다면 어찌 能히 敬을 體得할 것인가.

北溪陳氏曰 主一是心只在此 不二不三 無適是心 只在此 不東不西 主一無適 展轉相解釋 要分明 非主一外 又別有無適之功也。

(譯) 陳北溪曰 主一은 이 마음이 다만 이에 있어서 二도 아니고 三도 아닌 것이며 無適은 이 마음이 다만 이에 있어서 東에도 아니 가고 西로도 아니 가는 것이니 主一無適이란 展轉해서 서로 解釋함이 分明을 要하는 것이고 主一의 外에 또한 別로 無適의 功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西山眞氏曰 所謂主一者 靜時要一 動時亦要一 平居暇日 未有作爲 此心亦要主於此 此是靜時 敬 應事接物 有所作爲 此心亦要主於一 此是動時敬 靜時能敬 則無思慮紛紜之患 動時能敬 則無舉措煩擾之患 如此則本心常存 而不失 爲學之要 莫先於此

(譯) 眞西山 一所謂主一이란 것을 靜할 때도 一만 要하고 動할 때도 또한 一만을 要하니 平居에는 閒暇하여 아직 作爲함이 없을 때 이 마음이 또한 一에 主함을 要하니 이것은 靜할 때의 敬이고 應事해서 接物하여 作爲함이 있을 때도 이 마음이 또한 一에 主함을 要하는 이것이 動할 때의 敬이다. 靜할 때 能히 敬하

면 思慮가 紛紜할 걱정이 없고 動할 때 能히 敬하면 舉措함에 煩擾한 걱정이 없을 것이니 이와 같이만 하면 本心이 常存해서 잃지 않을 것이니 學問하는 要領은 이보다 먼저 할 것이 없는 것이다.

蘇季明曰 炳(自己의 이름) 常思慮不定 或思一事未了 他事如麻 又生如何 曰不可 此不誠之本也 須是習習 能專一時便好 不拘思慮與應事 皆要求一

(譯) 蘇季明曰 저는 恒常 思慮가 不定해서 或은 一事를 생각해서 아직 마치기도 前에 또 他事가 亂麻처럼 또 나오니 어찌 할까요. 程伊川 答曰 不可하니 이것은 不誠한 根本이다. 모름지기 이 習習해서 能히 專一할 때가 좋으니 思慮와 應事를 不拘하고 다 專一하기를 要하는 것이다.

朱子曰 不要因一事 而惹出三件兩件 如此則雜然無頭項 何以得他專一 只說文王 籒籒在宮 肅肅在廟 不顯亦臨 無射亦保 便可見敬只是如此(謂一專)

(譯) 朱子曰 一事로 因해서 二件 三件을 惹出함은 不要하니 이렇게 되면 雜然하게 頭緒가 없을 것이다. 이즉 그 專一함을 얻을까. 다만 文王의 家庭에선 和睦하고 廟堂에선 嚴肅하게 아니 보여도 하는 님이 臨한 뜻이 쉽지 않게 保全했네(詩經)고 한 데서 바로 敬이란 이와 같음을 可히 알 것이다.

又曰 古人自少 小時便做了這工夫 故方其灑掃時 加帶之禮 至於學詩 學樂舞 學絃誦 皆要專一 且如學射時 心若不在何以能中 學御時 心若不在 何以使得他馬 書數皆然 今既自少不曾做得不奈何 須着從今 做去方得 若不做這工夫 却要讀書看義理 恰似要立屋無基地 且無安頓屋柱處 却學從那頭去 又何處 是收功處 故程先生 須令就敬字上 做工夫爲此也

(譯) 又曰 古人은 少時로부터 暫時라도 그 工夫를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 灑掃할 때 비질하는 禮

로 부터 詩를 배우고 樂舞를 배우고 絃誦을 배우는데도 모두 다 專一을 要했던 것이다. 또한 弓道를 배울 때 마음이 萬若있지 않으면 어찌 能히 맞출 것이며 御馬를 배울 때 마음이 萬若있지 않으면 어찌 하여금 그 馬를 얻으리오, 書數도 다 그러한 것이다. 只今 이미 少時부터 일찌기 做得하지 못했으니 어찌 할 수 없으나 모름지기 着力을 해서 只今부터라도 하여 가는 것이 得이 될 것이다. 萬若에 그 工夫를 하지 아니 하고 도리어 讀書하는데 義理를 보려 한다면 恰似 家屋을 세우는 데 基地도 없고 또한 立柱할 곳도 없는 것과 같으니 學問을 어디서부터 할 것이며 또한 어느 곳에서 收功할 것인가. 그러므로 程先生은 모름지기 하여금 敬字上으로 나아가서 工夫를 하였으니 이 때문이다.

又曰 學問只要專一 如修養家想無成有 釋氏想有成無 只是專一 然他底難 自家道理 本來是有 只要人去理會 甚順且易 又如莊子用志不分 乃擬於神 亦是如此教人 但他只是箇空寂 儒者之學 則有許多道理 若看得透徹 可貫事物 洞古今

(譯) 又曰 學問은 다만 專一을 要하니 修養家는 無를 생각해서 有가 되고 佛家에서는 有를 생각해서 無가 되는 것 같은 것은 다만 모두 專一한 것이나, 그것은 어려운 것이다. 自家의 道理는 本來 있는 것이니 다만 사람들이 理會하는데 甚히 順하고도 易함을 要하는 것이다. 또한 莊子같은 이는 用志를 分辨하지 아니 하고, 精神만 統一하는 것도 亦是 이와같이 教人한 것이나 다만 그는 이 空寂한 것이다. 儒者의 學問은 許多한 道理가 있으니 萬若에 透徹하게 보면 可히 事物을 貫하고 古今을 通할 것이다.

有以一爲難見 不可下工夫如何 一者無他 只是整齊嚴肅 則心便一 一則自足無非僻之干 (譯) 그 이란 것은 보기가 어려워서 工夫를 아무렇게나 着手해서 는 아니 되니 이란 것은 다름이 아니라 整齊하고 嚴肅하면 마음이 문득 統一되고 統一이 되면 스스로 非僻한 것이 干犯할 수 없을 것이다.

朱子曰 伊川整齊嚴肅一段 是切至工夫說與人問敬曰 不必解說 但整齊嚴肅 便是問 上蔡常惺惺之說如何 曰 不如程子云云 尤切 人能如此 則其心常惺惺 問 心思擾擾 曰 程先生云 整齊嚴肅 則心自一 一則自無非僻之干 只才整頓起處 便是天理 但常常整頓 起思慮自一

(譯) 朱子曰 伊川の「整齊嚴肅」이란 一段은 이것이 남에게 工夫를 說하는 데는 切實한 것이다. 누가 敬에 對해서 물으니 答曰 一 解說할 必要가 없이 다만 整齊嚴肅만 하면 되는 것이다. 누군가 謝上蔡의 惺惺의 說이 어떠한지를 물으니 答曰 一 程子の 말씀이 더욱 切實한 것 같지 못하니 사람이 能히 그렇게만 하면 그 마음은 恒常 惺惺해질 것이다. 누군가 思慮가 紛亂함에 對해서 물으니 答曰 一 程先生이 말씀한 整齊嚴肅만 하면 마음이 스스로 統一이 되고 統一이 되면 스스로 非僻한 것이 干犯하지 못한다는 것이니 다만 整頓된 起處가 바로 이 天理니 다만 恒常 整頓해서 思慮가 일어나면 스스로 統一이 되는 것이니라.

新安陳氏曰 朱子深取整齊嚴肅之說者 蓋以有着實下手處耳

(譯) 陳新安曰 朱子는 眞이 整齊嚴肅의 說을 取한 것은 大개 着實하게 下手處가 있기 때문이다.

儼然正其衣冠 尊其瞻視 其中自有箇敬 雖曰無狀 敬自可見

(譯) 儼하게 그 衣冠을 바로고 그 瞻視를 높이는 그 가운데 바로 敬이 있으니 비록 形狀은 없어도 敬을 可히 스스로 볼 것이다.

朱子曰 詳考從上聖賢 以及程氏之說 論下學處 莫不以正衣冠 肅容貌爲先 蓋必如此 然後得所存 而不流於邪僻 易所謂閑邪存其誠 程子所謂制之於外 以養其內者此也 (答呂伯恭書)

(譯) 朱子曰 一 위로 聖賢에서 부터 程氏의 說에 이르기까지 詳考하면 學問을 始作하는 곳을 論하는 데는 衣

冠을 正하게 하고 容貌을 肅하게 함으로써 급선무로 하지 않음이 없으니 대개 이와 같이 한 然後에야만 保
存한 바를 얻어서 邪僻으로 흐르지 않을 것이니 易經에 所謂「閑邪存其誠」이란 것과 程子の 所謂「制之於外
以養其內」란 것이 이것이다.

又曰 比因朋友講論 深究學者之病 只是合下欠却 持敬工夫 所以事事滅裂 其言敬者 又只說能
存此心 自然中理 至於容貌辭氣 往往全不加功 設使眞能如此存得 亦與老釋何異 又況心慮荒忽
未必眞能如此存得耶

(譯) 又曰—近者에 朋友의 講論함으로 因해서 學者의 病을 深究해 보니 다만 元來에 持敬하는 工夫가 缺
했음이 일마다 滅裂한 所以이다. 그 敬을 말하는 者도 또한 다만 能히 이 마음만 가지면 自然히 理數에
맞는다고 말은하나 容貌나 辭氣에 이르러서는 往往히 전혀 工夫를 加하지 아니하니 設使함으로 能히 이와
같이 存得한다고 하더라도 또한 老子와 佛道에 무엇이 다르리오. 또한 하물며 心慮가 荒忽해서 반드시 참
으로 能히 이와 같이 存得하지도 못하는 것일까.

又曰 聖賢所言爲學之序 須先自外面 有形像處 把捉扶堅起來 不如今人動時說正心誠意 却打入
無形影稽攷處去也(答呂子約書)

(譯) 又曰—聖賢의 말한바 學問하는 順序는 모름지기 먼저 外面에 形像있는 곳으로 부터 把握해서 굳게
잡아오는 것이니 今人이 動하면 문득 正心誠意를 말하나 도리어 形影稽攷할 곳도 없는 데로 들어가는 것과
는 같지 않은 것이다.

南軒張氏曰 古人衣冠容止之間 不是要作意矜持 只是循他天則合 如是爲尋常 因循怠弛 故纔着勉

強自持 外之不肅 而謂能敬於內可乎

(譯) 張南軒曰—古人은 衣冠하고 容止하는 사이에서 有意하게 矜持를 要함이 아니라 다만 그 天意에 따라 서 이와 같이 되니 尋常하게 하면 因循해서 懈弛되기 때문에 勉強해서 自持하였으니 外가 嚴肅하지 아니 하고서 能히 內를 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玉溪盧氏曰 主一無適未易曉 故又就事實上教人 使只就眼前做工夫 如正衣冠 尊瞻視 足容重 手容恭之類 皆是內外一致外面整齊嚴肅 則內面便一 內面纔一 則外面便無非僻之干

(譯) 盧玉溪曰—「主一無適」이란 쉽게 깨우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事實上으로 나아가서 教人하는 데 다만 眼前에 나아가 工夫를 하는 것이「正衣冠 尊瞻視 足容重 手容恭」같은 種類이니 이것이 內外가一致되는 것이다. 外面이 整齊嚴肅하면 內面이 문득 專一해지고 內面만 겨우 專一해지면 外面에 문득 非僻함이 干犯할 수 없을 것이다.

嚴威儼恪 非敬之道 但致敬須自此

(譯) 嚴威하고 儼恪함이 敬하는 道가 아니라 다만 敬을 이루는 데는 모름지기 이로부터 들어가야만 되는 것이다.

朱子曰 恪是恭敬中 朴實緊切處 問 恪是有嚴意否 曰 太莊太嚴厲了 問 學者有心要收束 則入於嚴厲 有心要舒泰則入於放肆 曰 亦須稍嚴肅即可 不然則無下手處

(譯) 朱子曰—恪은 이것이 恭敬中에 朴實하고 緊切한 곳이다. 누가「恪은 이것이 嚴한 뜻도 있는가」고 물으니 答曰—가장 莊嚴하고 사나울 뿐이다. 또 누가「學者는 有心하게 斂束을 要하면 嚴厲한데로 들어가고

有心하게 舒泰를 要하면 放肆한대로 들어가는가」고 물으니 答曰「도한 모름지기 조금 嚴肅함은 可하지 마는 그러하지 않으면 下手할 곳이 없을 것이다.

又曰 持敬之說 不必多言 但熟味整齊嚴肅 嚴威儼恪 動容貌 整思慮 正衣冠 尊瞻視 此等數語 而實加工焉 則所謂直內 所謂主一 自然不費安排 而身心肅然表裏如一矣。

(譯) 又曰「持敬의 說은 多言할 必要가 없이 다만 익혀 整齊嚴肅하고 嚴威儼恪해서 「動容貌 整思慮 正衣冠 尊瞻視」하는 此등의 數語를 吟味해서 實際로 加工하면 所謂直內나 所謂主一이 自然히 安排를 虛費하지 아니하고 身心이 肅然해서 表裏가 如一하게 될 것이다.

敬則自虛靜 不可把虛靜 喚做敬

(譯) 敬하면 스스로 虛靜할 것이나 虛靜을 가지고서 敬이라고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問 敬還是用意否 曰其始安得不用意 若不用意 却是都無事了

(譯) 누군가「敬은 도리어 用意하는 것인가」고 물으니 答曰「그 始作이 어찌 用意하지 않으리오. 萬若에 用意하지 않으면 도리어 이것이 도무지 일이 될수 없을 것이다.

學者須敬守此心 不可急迫 當栽培深厚 涵泳於其間 然後可以有得 急迫求之 只是私己而已 終不足 足以達道

(譯) 學者는 모름지기 敬으로서 이 마음을 지키는데 急迫해서 는 아니 되니 마땅히 深厚하게 栽培하여 그 間에 涵泳한 然後에야만 可히 所得이 있을 것이나 急迫하게 求한다면 다만 이것은 自己를 私로 할 뿐이니 達道에 達함에는 足하지 않을 것이다.

朱子曰 學者須敬守此心 不可急迫 當栽培深厚 栽只如種得一物在此 但涵養持守之功 繼續不已 是謂栽培 深厚如此 而優游涵泳於其間 則浹洽 而有以自得矣 苟急迫求之 則此心已自躁迫紛亂 只是私而已 終不能優游涵泳 以達於道

(譯) 朱子曰 學者는 모름지기 敬으로 이 마음을 지키는데 急迫해서는 아니되고 마땅히 深厚하게 栽培해야 하니 다만 一物을 심어서 이에 있는 것과 같이 할 것이니 다만 涵養하고 持守하는工夫가 繼續해서 말지 않는 이것을 深厚하게 栽培한다고 말하는 것이나 이와 같이 하여 그 間에서 優游하고 涵泳한다면 浹洽해서 自得함이 있을 것이나 萬若에 急迫하게 求한다면 이 마음이 이미 스스로 躁迫하고 紛亂하여 지니다 만 이것은 私心할 뿐이고 마침내는 能히 優游涵泳해서 道에 達하지는 못할 것이다.

問 今於下工夫之時 不痛自警策 而遽栽培涵泳 恐或近於放倒 南軒張氏曰 敬守此心 栽培涵泳 正是下工夫處 若近於放倒 何栽培涵泳之有

(譯) 누군가 물되 「只今 工夫에 着手할때 아프게 스스로를 警策하지 아니하고서 갑자기 栽培하고 涵泳함은 或는나 放倒함에 가까울까 두렵다」고 하니 張南軒曰 「敬守此心 栽培涵泳」함은 바로 이것이 工夫에 着手하는 곳이니 萬若에 放倒하는데 가깝다면 어찌 栽培涵泳함이 있으리오.

問 人之燕居 形體怠惰 心不慢可否 曰 安有箕踞 而心不慢者 昔呂與叔 六月中來緱氏閒居中 某竊窺之 必見其儼然危坐 可謂敦篤矣 學者須恭敬 但不可拘迫 拘迫則難久

(譯) 누군가 「사람이 閒居할때 形體는 怠惰해도 마음만 慢忽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고 물으니 答曰 「어찌 箕踞를 하고서 마음이 慢忽하지 않는 자가 있을까. 옛적에 呂與叔이 六月中에 오니 반드시 그가 儼然히 危坐하였음을 보았으니 可히 敦篤하다고 할수 있는 것이다. 學者는 모름지기 恭敬을 해야하나 다만 拘迫해서

는 아니 되니 拘迫하면 오래 갈 수 없는 것이다.

朱子曰 學者常用提省此心 使如日之升 則群邪自息 他本自光明廣大 自家只着些子力去 提省照管他便了 不要苦着力 苦着力便不是

(譯) 朱子曰 學者는 恒常이 마음을 監着해서 하여금 太陽이 뜨는 듯이 하면 羣邪가 自然히 終息될 것이다. 그는 本來 스스로 光明廣大하니 自己가 다만 조금 힘을 써서 監督하고 管照할 뿐이고 괴롭게 着力하는 不要하니 괴롭고 着力하면 문득 옳지 못할 것이다.

有言未感時 知何所寓 曰 操則存 捨則亡 出入無時 莫知其鄉 更怎生尋所寓 只是有操而已 操之道 敬以直內也

(譯) 아직 感覺되지 않을 때에 마음이 어디에 들어 있는가. 曰 「操則存 捨則亡 出入無視 莫知其鄉」이라고 하였으니 다시 어찌 들어 있는 곳을 찾으리오. 다만 이것을 잡을 뿐이니 잡는 方法은 「敬以直內」하는 것이다.

君子之遇事 無巨細 一於敬而已 簡細故以自崇 飾私智以爲奇 非敬也 要之無敢慢而已

(譯) 君子는 일을 만나면 大小를 勿論하고 如一하게 敬할 뿐이니 簡細하기 때문에 스스로 높여서 私智를 꾸며서 奇事를 하는 것은 敬이 아니라 要는 敢히 慢忽함이 없는 것 뿐이다.

又曰 惡人齊戒 亦敬也 故可以事上帝

(譯) 又曰 惡人이라도 齊戒하면 또한 敬이라. 그러므로 可히 上帝도 섬길 수가 있는 것이다.

蘇季明問 喜怒哀樂未發之前 當如何用工 曰 未發之前 更怎生求 只平日涵養便是 涵養久則 喜怒哀樂發自中節

(譯) 蘇季明이 묻되(喜怒哀樂이 未發할 때는 마땅히 어떻게工夫를 합니까)고 하니 程伊川答曰(未發하기 전에 다시 무엇을 求하리오. 다만 平日에는 涵養함이 옳으니 涵養해서 오래되면 喜怒哀樂의 發함이 自然히 中節되느니라.)

靜中須有物 始得這裏 便是難處 學者莫若且先理會得敬 能敬則知此矣

(譯) 靜中에도 반드시 物이 있으니 비로써 그 속에 있는 것을 얻는 그것이 어려운 것이라 學者는 또한 먼저 理會해서 敬을 얻는 것만 같지 못하니 能히 敬하면 이것을 알 것이다.

舜孳孳爲善 若未接物如何爲善 只是主於敬便是爲善

(譯) 舜帝는孜孜하게 善을 했으나 萬若에 아직 接物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善을 할 수가 있었을까. 다만 이 敬을 주로 하는 것만이 바로 善이 될 것이다.

南軒張氏曰 伊洛發明未接物時 主敬爲善一段工夫 更須精進乃佳

(譯) 張南軒曰(程子)가 아직 接物하지 않았을 때 敬을 주로 하는 것이 善이 된다는 것을 發明한 一段으로工夫를 더욱 精進함이 아름다운 것이다.

西山眞氏曰 此說尤學者所當知

(譯) 眞西山曰 이 말은 더욱 學者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다.

朱子曰 敬字前輩多輕說過了 惟程子看得重

(譯) 朱子曰 敬字는 前輩가 많이 輕說해 지나 왔으나 오직 程子만이 重要하게 看得하였다.

又曰 自秦以來 無人識敬者 至程子方說得親切

(譯) 又曰 自秦代以後로는 敬字를 아는 者가 없었는데 程子에 와서 비로소 親切하게 말씀하셨다.

又曰 聖人言語當初 未曾關聚 到程子始關聚 說出一箇敬來教人

(譯) 又曰 聖人言語는 當初에 일지기 關聚하지 않았으나 程子에 이르러서 비로소 關聚하여 一個의 敬字를 說出해서 教人하였다.

又曰 二先生有功於後學者 最是拈出敬之一字有力

(譯) 又曰 二程子가 後學에게 有功한 것은 가장 이 敬의 一字를 拈出한 것이 有力한 것이다.

又曰 二先生拈出敬之一字 眞聖學之綱領存養之要法 一主乎此 更無內外精粗之間 請更會集二

先生言敬處 子細尋繹自當見之 (答何叔京書)

(譯) 二程子가 敬의 一字를 拈出하였음은 참으로 聖學의 綱領이고 存養의 要法이니 一貫해서 이것만을 主로 하면 다시 內外精粗의 間隔이 없을 것이니 請하건대 다시 二先生의 말씀한 敬을 모아서 仔細히 尋繹하면 스스로 見得이 있을 것이다.

又曰 聖賢言語 大約似乎不同 然未始不貫 只如夫子言 非禮勿視聽言動 出門如見大賓 使民如

承大祭 言忠信 行篤敬 這是一副當說話 到孟子又却說 求放心 存心養性 大學則又有所謂 格物 致知 誠意正心 至程先生 又專一發明一箇敬字 若只恁看 似乎參錯不齊 千頭萬緒 其實只一理 只就一處下工夫 則餘者皆兼攝在裏 聖賢之道如一室然 雖門戶不同 自一處行來 便入得

(譯) 又曰 聖賢의 言語는 大約不同한 것 같으나 一貫하지 않음이 없으니 다만 孔子의 「非禮勿視聽言動」 出門如見大賓 使民如承大祭 言忠信 行篤敬 이란 말씀과 같음은 모두 이說話에 得當한 것인데 孟子에 이르러서 또한 「求放心 存心養性」을 말씀하셨고 大學에는 또한 所謂 「格物致知 誠意正心」이 있는데 程先生에 이르러서 또한 專一하게 一箇의 敬字를 發明하였으니 다만 이것을 보면 어긋나서 같지 않는 듯하나 千頭萬緒가 그 實은 다만 一理이니 오직 一處로만 工夫를 着手하면 餘外의 것은 모두다 兼攝해서 속에 있는 것이다. 聖賢의 道는 한집과 같아서 비록 門戶는 같지 않아도 한곳으로부터 오면 문득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或曰 自秦以來 諸儒皆不識敬字 直至程子 方說得親切 學者知所用力 曰 程子說得 如此親切了 近世程沙隨猶非之 以爲聖賢無單獨說敬字時 只是敬親 敬君 敬長 方着箇敬字 全不成說話 聖賢說修己以敬 曰敬而無失 曰聖敬日躋 何嘗不單獨說來 若說有君 有親 有長 時用敬 則無君親 無長之時 將不敬乎 都不思量 只是信口胡說

(譯) 누군가 말하되 「秦代以後로 諸儒는 다 敬字를 알지 못하다가 바로 程子에 이르러서 비로소 親切하게 말하였으니 學者는 힘을 바를 알 바이다」고 하니 朱子曰 「程子는 이와 같이 親切하게 說得하였는데 近世에 程沙隨는 오히려 나무라서 聖賢은 單獨으로 敬字를 說한데는 없었으니 다만 이 敬親 敬君 敬長에만 그 敬字를 부치었고 전혀說話는 이루지 않았다. 聖賢은 「修己以敬 敬以無失 聖敬日躋」 등을 말씀하셨는데 어찌 일찌기 單獨으로는 말하지 않았으나 萬若에 君親長이 있을 때만 敬한다면 君親長이 없을 때는 敬하지 말

라는 것일까。 도무지思量하지 못한 信口胡說(입에 나오는 대로 무리하게 한 말)이다。

又曰 自小學不傳 伊川却是帶補一敬字

(譯) 又曰—小學에는 傳하지 않음으로부터 伊川이 이에 한 敬字로서 補足하였다。

又曰 二程說一箇敬字 正欲無智愚賢不肖皆得力耳

(譯) 又曰—二程子가 一箇의 敬字를 말하였음은 바로 智愚賢不肖의 差別이 없이 다 得力하게 하려는 것이다。

又曰 此一服藥 人人皆可服之 便有效 只是自不肯服耳

(譯) 又曰—이에 한 藥을 服用한다면 누구나 다 服用하여도 有效할 것이나 다만 그것을 服用하기를 즐기 않음을 뿐이다。

北溪陳氏曰 程子只說 一箇主敬工夫 可以補小學之缺

(譯) 陳北溪曰—程子는 다만 一箇 主敬의 工夫를 말하였으니 可히 小學의 缺點을 補足한 것이다。

張子曰 不愧屋漏爲無忝 存心養性爲匪懈(西銘)

(譯) 張橫渠曰—「不愧屋漏」는 辱됨이 없게 함이고 「存心養性」은 懈怠함이 없게 함이다。

朱子曰 孝經引詩曰 無忝爾所生 故事天者 仰不愧 俯不作 則不忝乎天地矣

(譯) 朱子曰—孝經에서 詩經을 引用해서 「너의 祖先을 辱하게 말라」고 하였으니 그러므로 事天하는 者는

우러러서나 구부러서나 부끄럼이 없으면 天地에辱됨이 없을 것이다.

又曰 夙夜匪懈 故事天者 存其心 養其性 則不懈乎事天矣 此二者畏天之事 而君子 所以求踐夫形者也

(譯) 又曰 「밤낮으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였으니 그러므로 事天하는 者는 그의 心性을 存養하면 事天을 戒을리하지 않는 것이니 이 두가지는 하늘을 두려워하는 일로서 君자의 그 踐形(그 形體가 視聽言動을 바르게 實踐하는 것)을 求하는 所以인 것이다.

正心之始 當以己心爲嚴師 凡有動作 卽知所懼 如此一二年間 守得牢固 則自然心正矣

(譯) 正心을 始作하는 때는 마땅히 自己의 마음을 嚴師로 해야 하니 무릇 動作을 할 때 바로 겁 낼 바를 알아서 이와 같이 一二年間을 牢固하게 지키면 自然히 마음이 바루어질 것이다.

建安葉氏曰 視心如嚴師 則知所敬畏 而私僻之念不作

(譯) 葉建安曰 「마음을 봄에 嚴師처럼 하면 敬畏할 바를 알아서 私僻한 생각이 나지 않을 것이다.

言有教 動有法 晝有爲 宵有得 息有養 瞬有存

(譯) 言辭에는 教訓이 있고 行動에는 法도가 있으며 晝間에는 事爲를 하고 夜間에는 所得이 있으며 一息에도 修養함이 있고 瞬間에도 存心함이 있게 하라.

朱子曰 橫渠此語極好 君子終日乾乾 不可食息間 亦不必盡日讀書 或靜坐存養 皆是用功處 天地生物 以四時運動 春生夏長 是不息 雖秋冬凋落 生意未當下 在其中學者 喚令此心不死 則日有進

(譯) 朱子曰—張橫渠의 이 말씀이 極히 좋으니 君子는 終日도록 努力해서 食事하고 休息하는 데도 間斷해서 아니 되니 또한 반드시 終日도록 晝할 必要도 없이 間或 靜坐해서 存養하는 것도 다 이 것이 用功하는 것이다. 天地가 生物하는 데는 四時로 運動하나니 春에는 生하고 夏에는 長하는 것이 쉬지 않는 것이다. 비록 秋冬에 凋落을 해도 生하는 뜻은 그 中에 없을 때가 없으니 學者는 이 마음을 불려 일으켜 죽지 아니하게 하면 날로 進歩가 있을 것이다.

建安葉氏曰 非先王之法言 不敢言 言有教也 非先王之德行 不敢行 動有法也 終日乾乾 晝有爲也 夜氣所養 宵有得也 氣之出入爲息 一息而必有所養也 目之開闔爲瞬 一瞬而必有所存也 此言君子無往無時而非學也

(譯) 葉建安曰—孝經에 「先王의 法言이 아니면 敢히 말하지 아니함」은 言語에 教가 있는 것이고 「先王의 德行이 아니면 敢히 行하지 아니함」은 行動에 法이 있는 것이며 「終日乾乾」(易經)함은 낮에 有爲함이고 「夜氣所養」(孟子)은 밤에 有得함이며 氣가 出入하는 것이 息이 되니 一息에 라도 반드시 기르는 바가 있고 目을 開合하는 것이 瞬이 되어 一瞬에 라도 반드시 가지는 바가 있게 하는 것이니 이것은 君子가 어디를 가나 어느 때나 배우지 않음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篁墩程氏曰 張子動息處 自修之功如此 眞學者法守也

(譯) 程篁墩曰—張子가 動作하고 休息하는데 自修한 工夫가 이와 같았으니 참으로 學者가 法을 받아서 지킬 것이다.

朱子曰 聖門之學別無要妙 徹頭徹尾 只是箇敬而已

(譯) 朱子曰—聖門의 學問은 別로 要妙한 것이 없고 徹頭하고 徹尾하게 이 한 箇의 敬 뿐이다.

又曰 敬天德也 敬便徹上徹下 與天無間

(譯) 又曰 敬은 天德이니 敬하면 바로 徹上하고 徹下해서 天和 더불어 間隔이 없는 것이다.

敬是箇扶策人底道理 人當放肆怠惰時 才敬便扶策得此心起 常常會恁地 雖有些放肆邪侈意思也 自退聽

(譯) 敬은 이것이 人間을 鞭撻하는 道理이니 사람이 放肆하고 惰怠할 때를 當해서 바로 敬하여 문득이 마음을 鞭撻해서 일으켜 인제나 그 狀態로 가면 비록 放肆하고 邪侈한 마음이 있다고 해도 스스로 退伏될 것이다.

敬之一字 聖學之所以成始 而成終者也 爲小學者不由乎此 無以涵養本源 而謹夫灑掃應對進退之

節 與六藝之教 爲大學者不由乎此 亦無以開發聰明 進德修業 而致夫明德新民之功也

(大學 戒問)

(譯) 敬의 一字는 聖學이 出發해서 歸着하는 所以이니 小學하는 者가 이로 말미암아 가지 있으면 本源을 涵養해서 灑掃應對進退하는 節次와 六藝의 教育을 삼가할 수가 없는 것이고 大學을 하는 者가 이로 말미암아 가지 않으면 또한 聰明을 開發해서 進德修業하여 明德하고 新民하는 工夫를 이룰 수가 없을 것이다.

敬者一心之主宰 而萬事之本根也 知其所以用力之方 則知小學之不能無賴於此 以爲始知小學之賴此以始 則夫大學之不能無賴乎此以爲終者 可一以貫之 而無疑矣 蓋此心既立 由是格物致知 以盡事物之理 則所謂尊德性 而道問學 由是誠意正心 以修其身 則所謂先立其大者 而小者不能奪 由是齊家治國 以及乎天下 則所謂修己以安百姓 篤恭而天下平 是皆未始一日 而離乎敬也 然則敬之一字 豈非聖學 始終之要也哉 (上同)

(譯) 敬이란 것은 一心의 主宰이고 萬事의 根本이니 그의 用力하는 方道를 알면 小學은 能히 이를 힘입어서 始發함을 알 것이고 小學이 이를 힘입어서 始發함을 알면 大學이 能히 이를 힘입어서 成終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니 可히 一로써 貫함이 無疑한 것이다. 대개 이 敬하는 마음이 이미 成立되면 이로 말미암아서 格物하고 致知해서 事物의 眞理를 다하는 것은 즉 所謂 德性을 높이고 問學을 해가는 것(大學)이 고 이로 말미암아서 誠意하고 正心해서 그 自身을 닦음은 즉 所謂 「그 大者를 먼저 세우면 小者가 能히 배앗지 못한다」 (孟子)는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齊家하고 治國해서 天下에까지 이름은 所謂 「修己해서 百姓을 편히 하고 篤恭해서 天下가 平한다」 (論語)는 것이니 이것이 다 하루라도 敬을 떠나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그러면 敬의 一字가 어찌 聖學이 始終하는 要訣이 아닐까.

北溪陳氏曰 主敬工夫 可以收放心 而立大本 大本既立 然後工夫循序而進 無往不通 大抵主敬之功 貫始終 一動靜 合內外 小學大學皆不可無也。

(譯) 陳北溪曰 主敬하는 工夫는 可히 放心 된 것을 거두어서 大本을 세우는 것이니 大本이 이미 세워진 然後에야만 工夫가 順序를 따라나아가서 어디에 가도 通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大抵主敬하는 工夫는 始終을 一貫하고 動靜을 合 하나며 內外를 合體하니 小學에나 大學에나 다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敬字是徹頭徹尾工夫 自格物至平天下 皆不外此 修身齊家治國平天下 都少箇敬不得

(譯) 敬字는 이것이 徹頭徹尾한 工夫니 格物에서부터 平天下에 이르기까지 모두다 이것에 不外한 것이다. 修身齊家治國平天下가 모두 이 敬이 아니면 아니 되는 것이다.

玉溪盧氏曰 敬者定志慮 攝精神 而存養本心之道 故爲聖學之始終 百倍其功 只在主敬 篇首三言爲大學一書之綱領 明明德一句爲篇首三言之綱領 敬之一字 又明明德之綱領

(譯) 盧玉溪曰—敬이란 것은 志慮를 安定시키고 精神을 收攝해서 本心을 存養하는 道이다. 그러므로 聖學의 始와 終이 되나니 그 功을 百倍나 되게 함은 다만 主敬에 있는 것이다. 大學 篇首에 三言은 大學의 一書의 綱領이고 明明德의 一句는 篇首三言의 綱領이고 또 敬의 一字는 또 明明德의 綱領이 되는 것이다.

敬者始終之要 未知則敬以知之 己知則敬以守之 若不敬則其心顛倒昏昧 而不自知 未知者非敬 無以知己知者非敬 無所守

(譯) 敬이란 것은 學問의 始終하는 要點이니 알지 못하면 敬으로서 알고 이미 알았거든 敬으로서 지킬 것이다. 萬若에 不敬하면 마음이 顛倒되고 昏昧해서 스스로 알지 못한 것이니 아직 알지 못하는 者는 敬이 아니면 알 수가 없고 이미 아는 者는 敬이 아니면 지킬 수가 없는 것이다.

問 敬字當不得小學 曰—看來小學 却未當得敬 敬己自包得小學 敬是徹上徹下工夫 雖做到聖人田地 也只放下這敬不得

(譯) 누가「敬字로는 마땅히 小學을 할 수 없는가」고 물으니 答曰—小學을 보아오면 도리어 敬을 얻는 데는 當하지 않으나 敬은 이에 스스로 小學을 包得한 것이라 敬은 이것이 徹上徹下한 工夫니 비록 聖人의 境地에 到達하여도 그 敬을 放下해서 는 아니 되는 것이다.

人之爲事 必立志爲本 志不立 則不能爲得事 雖能立志 苟不居敬以持之 此心亦泛 然而無主 悠悠終日 只是虛言 立志須高出事物之表 而居敬 則常存於事物之中 令此敬與事物 皆不相違言也 須敬動也 須敬坐也 須敬頃刻去他不得

(譯) 사람이 일을 하는데는 반드시 立志로서 根本으로 해야 하니 志가 서지 않으면 能히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이

나 비록 能히 立志를 해도 萬若에 居敬으로서 가지지 않으면 이 마음이 汎然해서 主體가 없이 悠悠하게 終日함이 다만 이 虛言일 것이다. 立志는 모름지기 높이 事物의 바깥에 올라도 居敬은 恒常 事物의 속에 있는 것이니 이 敬과 事物로 하여금 다 서로 틀린 말이 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모름지기 敬으로 動하고 모름지기 敬으로 坐하여 모름지기 敬은 頃刻이라도 버리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人之爲學 千頭萬緒 豈可無本領 此程先生所以有持敬之論 只是提攝此心 教它光明 則於事無不見久之自然剛健有力

(譯) 사람이 學問을 하는데 千頭萬緒가 어찌 可히 本領이 없어서 될수 있을까. 이것이 程先生이 持敬하는 論을 한所以니 다만 이것은 이 마음을 操攝해서 남을 先明하게 가르친 것인즉 일에 있어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니 오래면 自然히 剛健해서 有力하게 될 것이다.

敬則萬理俱在

(譯) 敬하면 萬리가 모두 다 있는 것이다.

又曰 心中若無一事時 便是敬

(譯) 又曰 心中에 하나의 일도 없는 그때가 바로 이 敬인 것이다.

又曰 敬無許多事

(譯) 又曰 敬에는 許多한 일이 없는 것이다.

人之心性 敬則常存 不敬則不存 如釋老等人 却是能持敬 但是它 只知得那上面一截事 却沒下面

一截事 覺而今恁地做工夫 却是下面一截 又怕沒那上面一截 却是箇根本底

(譯) 사람의 心性은 敬하면 恒常 있으나 不敬하면 잊지 않는 것이다. 佛子나 老子같은 이들은 도리어 能히 敬은 가졌으나 다만 그것은 달라서 오직 어느 上面의 一切事만 알고 문득 下面의 一切事는 모르는 것이다. 깨쳐서 只今에 그와 같은 工夫를 하는 것이 도리어 下面의 一切만 있고 또한 그 上面의 一切은 없으니 이것이 도리어 그의 根本인 것이다.

人能存得敬 則吾心湛然 天理燦然 無一分着力處 亦無一分不着力處

(譯) 사람이 能히 敬만 하게 되면 나의 마음이 湛然해서 天理가 빛이 나서 一分의 着力한 곳도 없고 또한 一分의 不着力도 없게 되는 것이다.

爲學有大要 若論看文字 則逐句看將去 若論爲字 自有箇大要 所以程子抽出一箇敬字與學者說要 且將箇敬字 收斂箇身心 放在模匣于裏面 不走作了 然後逐事逐物看道理而今只是理會箇敬 一日 則有一日之效 一月則有一月之效

(譯) 學問을 하는 大要가 있으니 萬若에 文字를 보는 것으로 論하면 逐句를 해서 보아 나가고 萬若에 學問 하는 것으로 論하면 스스로 그 大要가 있으니 그것이 程子가 一箇의 敬字를 배내어서 學者와 더불어 說한 所以인 것이다. 要는 또한 그 敬字를 가지고서 그 身心을 收斂해서 模匣의 裏面에 있게 해서 外部로 달아나 지 않게 한 然後에야만 事事物物을 말아가면서 그 道理를 보는 것이다. 只今에 다만 이 敬을 理會에서 一日만 하여도 一日의 效果가 있고 一月만 해도 一月의 效果가 있을 것이다.

只敬則心便一

(譯) 다만 敬하면 마음이 바로 統一이 되는 것이다.

又曰 敬非別是一事 常喚醒 在此便是

(譯) 又曰 敬은 別다른 一事가 아니라 恒常 불러 깨치는 것이 바로 敬이다.

又曰 人常恭敬 則心常光明

(譯) 又曰 人常은 恒常 恭敬하면 마음이 恒常 光明한 것이다.

敬不是只恁坐地 舉足動步 常要此心在這裏

(譯) 敬은 다만 그곳에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발을 들어 걸어가는데도 恒常이 마음이 그 속에 있도

록함을 要하는 것이다.

又曰 敬只是收斂來

(譯) 又曰 敬은 다만 이 마음을 收斂해 오는 것이다.

敬字不可只把 一箇敬字說過 須於日用間 體認是如何 此心常卓然公正 無有私意便是敬 有些子計較有些子放慢意思 便不是敬

(譯) 敬字은 다만 一箇의 敬字만을 가지고 說過해서는 아니되니 모름지기 日用하는 사이에서 이것이 어떠한지를 體認해서 이 마음이 恒常 卓然하게 公正하여 私心이 없는 것이 바로 이 敬이고 조금이라도 計較가 있거나 放慢하는 意思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敬이 아니다.

敬字工夫 乃聖門第一義 徹頭徹尾 不可頃刻間斷(答鄭子)

(譯) 敬字의工夫는 이것이 聖人의 教育에 第一條件이니 徹頭徹尾하게 暫時라도 間斷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問 敬曰 一念不存 也是間斷 一事有差 也是間斷

(譯) 누군가 敬을 물으니 答曰 一念이라든가 있지 않으면 그것이 間斷된 것이고 一事라도 아긔남이 있으면 그것이 間斷된 것이다.

問 持敬易間斷如何 曰 常要自省得 才省得便在此 或以爲此事最難 曰 患不省察爾 覺得間斷 便已 接續 何難之有

(譯) 누군가 「持敬함에는 間斷되기가 쉬우니 어떻게 할까」고 물으니 答曰 恒常 自省함을 要하니 겨우 自省하기만 하여도 바로 敬이 이에 있는 것이다. 或者가 「이심이 가장 어렵다」고 하니 答曰 省察하지 않는 것만이 걱정이니 間斷된 줄만 깨우친다면 그것이 이미 接續된 것이니 무슨 어리움이 있으리오.

初學於敬 不能無間斷 只是才覺間斷 便提起此心 只是覺處 便是接處

(譯) 처음으로 敬을 배우는 데는 能히 間斷이 없을 수가 없으니 다만 겨우 間斷된 것을 깨우치기만 하여도 바로 이 마음을 喚起하는 것이다 다만 그를 깨우치는 것이 바로 그가 接續이 되는 것이다.

北溪陳氏曰 敬字道理 貫動靜 徹表裏 一始終 本無界限 閒靜無事時也用敬 應事接物時也用敬 心在裏面也如此 動出外來做事也如此 初頭做事也如此 做到末稱也如此 此心常無間斷 纔間斷 便不敬

(譯) 陳北溪曰「敬字의 道理는 動靜을 通貫하고 表裏를 通徹하며 始終을 一貫하여 本來限界가 없는 것이 다. 閒靜하게 無事할 때도 用敬하고 應事해서 接物할 때도 用敬하여 마음이 裏面에 있을 때도 이렇게 하고 動出해서 外來의 做事을 하는데도 이렇게 하며 初頭에 做事하는데도 이렇게 하고 做事을 終結할 때 도 이렇게 하여 이 마음이 언제나 間斷이 없어야 하니 조금만 間斷되어도 바로 不敬이 되는 것이다.

問 敬何以用工曰 只是內無妄思 外無妄動

(譯) 누가 敬은 어떻게 工夫를 하는지 물으니 答曰「다만 이 內로는 妄思함이 없고 外로는 妄動함이 없는 것이다.

問 敬不在外 但存心便是敬 曰 須動容貌整思慮 則生敬 己而曰 却說得一邊

(譯) 누가「敬은 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마음을 가지는 바로 이것인가」고 물으니 答曰「모름지기 容貌를 움직이고 思慮를 바르게 하면 敬이 된다」고 하고 조금 뒤에 도리어 一邊만 說得한 것이라고 하였다.

今所謂持敬 不是將箇敬字 做箇好物事樣 塞放懷裏 只要胸中 常有此意 而無其名耳

(譯) 只今에 所謂持敬이란 것은 이 敬字만 가지고서 그들 物事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것을 막고 속에 품어서 다만 胸中에 언제나 이 마음이 있어서 그 이름이 없기를 要하는 것이다.

問 持敬易散漫如何 曰 只喚着便在此

(譯) 누군가「持敬하는데 散漫하기가 쉬우니 어찌 할까」고 물으니 答曰「다만 마음을 불러 가지고 바로 그에 있게 하라.

問 持敬思不能久 當如何下工夫 曰 某舊時 亦曾如此 思量要得一箇直截道理 元來都無他法 只是

習得熟 熟則自久

(譯) 누가「持敬하는 데는 能히 오래 하지 못함이 걱정이니 마땅히 어떻게工夫를 해야 하는가」고 물으니 答曰「某도 옛날에는 또한 그러했는데 思量해서 一箇의 直切한 道理를 要得하였노라. 元來에 도무지 다른 方法이 없고 다만 이 習熟하는 것이니 習熟하면 自然히 오래 되는 것이다.

問 先持敬令此心惺惺了 方可應接事物何如 曰 不然 或又問 須是去事物上求 曰 亦不然 若無事物時不成 須去求箇事物來理會且無事物之時 要你做甚麼

(譯) 누가「먼저 持敬함에는 이 마음으로 하여금 惺惺해야만 하니 마야호로 可히 事物을 應接하는 것이 어찌 한가」고 물으니 答曰「그러하지 아니하다. 또 누가「모름지기 事物을 떠난 데서 求하는가」 물으니 答曰「또한 그러하지도 아니하나 萬若에 事物이 없을 때는 되지 않으니 모름지기 그 事物을 求해야만 理解가 되는 것이다. 또한 事物이 없을 때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問 嘗學持敬 讀書心在書 爲事心在事 如此頗覺有力 只是眼目靜坐時 支遣思慮不去或云只眼目時 己是生妄想之端 讀書心在書爲事心在事 只是收聚得心 未見敬之體 曰靜坐而不能遣思慮 便是靜坐時不曾敬 敬只是敬 更尋甚敬之體 似此支離病痛愈多 更不曾做得工夫 只了得安排杜撰也。

(譯) 누가 일찍이 持敬을 배우는데 讀書를 할 때는 마음이 書에 있고 事爲를 할 때는 마음이 일에 있어서 이 렇게 하는 데서 工夫 有力함을 깨달았으나 다만 이에 눈을 감고 靜坐할 때도 思慮가 없어지지 아니 하니 或은 말하되「나만 눈을 감을 때에 이미 이 妄想이 發端 것이라 하고 하니 讀書함에는 마음이 書에 있고 事爲함에는 마음이 일에 있는 것은 다만 이것이 收聚해서 마음을 얻기는 했으나 아직 敬의 體는 보지 못했다」고 물으니 答曰「靜坐해서 能히 思慮를 보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靜坐할 때 일찍이 敬하지 못한 것이

다. 敬은 다만 이것이 敬이지 다시 무슨 敬의 體를 찾는 것일까. 이와 같이 支離하면 病痛이 더욱 많아지니 다시 일찍기工夫는 아니 하고서 다만 安排해서 杜撰한 것이다.

問 且如持敬 豈不欲純一於敬 然自有不敬之心 固欲與己相反 愈制則愈甚 曰 要之邪正本不對立 但恐自家胷中無主 若有主邪自不能入

(譯) 누가 묻되 「또한 持敬하는데 어찌 敬에 純一하지 않으려 할까. 마는 스스로 不敬하는 마음이 眞實로 自己와 더불어 相反하려 해서 그것을 더욱 制止하면 더욱 甚해진다」고 하니 答曰 「要컨데 邪와 正은 본디 對立하지 못하는 것이나 다만 自己의 胸中에 主體가 없는 것이 걱정이다. 萬若에 主體만 있으면 邪心이 自然히 들어 오지도 못하는 것이다.

因論大學 諸生答以念慮攪擾 曰 只是不敬 敬是常惺惺法 以敬爲主 則百事皆從此做去

(譯) 因해서 大學을 論하는데 諸生들의 念慮가 攪亂하다고 對答하니 答曰 「다만 이것이 不敬함이다. 敬은 이것이 恒常 惺惺法(마음을 깨우치게 하는 方法)이니 敬으로써 爲主하면 百事가 다 이를 따라서 하여 갈 것이다.

或問 明性須以敬爲先 曰 固是 亦不可混淪說 須是每事上點檢 論其大要 只是不放過耳

(譯) 누군가 「明性하는 데는 모름지기 敬으로써 先으로 하는가」고 물으니 答曰 「진실로 그러하나 또한 混同해서 말해서는 아니 되니 모름지기 이 每事에 點檢해야 하나 그의 大要를 論하면 다만 이것은 放過하지 않는 것 뿐이다.

或問 居常持敬 於靜時最好 及臨事時 則厭倦 或於臨事時 着力則覺紛擾 不然則於正存敬時 忽忽

爲思慮引去 是三者將何以勝之 曰 今人將敬來 別做一事 所以有厭倦爲思慮引去 敬只是自家一箇心常惺惺 便是不可將來 別做一事 又豈可指擎踞曲拳 塊然在此 而後爲敬

(譯) 누군가 묻되 居常하는 靜時에 持敬함이 가장 좋으나 臨事할 때에는 倦怠症이 나고 或은 臨事할 때 着力을 하면 紛擾함을 깨우치게 되니 그러하지 않으면 正히 存敬할 때는 忽忽히 思慮로 끌려 가는 데 이 세가지를 將次 어찌 하면 克服할 수 있을까 曰 今人이 敬을 하여 오는 데 別로 一事을 하면 倦怠症이나는 所以는 慮도 끌려감이 되기 때문이다. 敬은 다만 이것이 自己의 一箇心을 恒常 惺惺하게 함이 문득 옳으니 將來에 別로 一事을 하는 것이 不可하니 또한 어찌 可히 擎踞曲拳(禮儀를 極盡히 하는 態度)으로 塊然하게 아니한 것만이 敬이 될 것이다.

三國時朱然終日欽欽 如行陣 學者持此則心長不放矣

(譯) 三國時代에 朱然(吳人)이 終日 欽欽(謹慎하는 態度)해서 行陣함에 있는 듯 하였으니 學者가 이런 態度를 가지면 마음이 기리 放失되지 않을 것이다.

葉味道問 一向把捉 待放下 便覺恁衰颯 不知當如何 曰 這箇也不須 只管恁地把捉若要 把捉 又添一箇要把捉底心 是生許多事 公若知得放下不好 便提掇起來 便是敬 曰 靜坐久之 一念不免發動 如何 曰 也須看一念 是要做甚麼事 若是好事 合當做底事 須去幹了 或此事思量未透 須着思量教了 若是不好底事 便不要做 自家纔覺得如此 這敬便在這裏

(答葉味道問)

(譯) 葉味道가 묻되 「一向으로 把捉하다가 그것을 放下하면 문득 衰落함을 깨우치니 어찌해야 할까요」고 하니 答曰 「그것은 모름지기 그대로 把捉만 할 必要는 없으니 萬若에 그 把握해 감을 要한다면 또한 一箇를

把握하는 마음이 더 될 것이니 이것이 許多한 일을 낳을 것이다. 공이 萬若에 放下함이 不好한 줄 알면 문득 다음에 오는 것이 바로 敬이 될 것이다. 또 묻되「靜坐해서 오래되면 一念이 發動됨을 免하지 못하니 어찌 하겠읍니까」고 하니 答曰「모름지기 一念을 보아 그것이 무슨 일인지 萬若에 그것이 好事로서 해야만 하면 모름지기 해서 마쳐야 할 것이고 或은 그 일이 생각에 두칠하지 못하면 모름지기 思量해서 分辨해야 하고 萬若에 이것이 좋지 못한 일이면 바로 할 必要가 없으니 自己가 이같은 것을 겨우 깨우치면 敬이 바로 그 속에 있는 것이다.

敬只是此心 自做主宰處

(譯) 敬은 다만 이 마음이 스스로를 主宰하는 것이다.

敬莫把做一件事看 只是收拾自家精神專一在此

(譯) 敬은 다만 一件事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만 自己의 精神을 收拾해서 專一하게 이곳에 있게 하는 것이다.

大抵是且收斂得身心在這裏 便已有八九分了 却看道理有窒礙處 却於這處理會 爲學且要專一理會這一件 便只且理會這一件 若行時 心便只在行上 坐時心便只在坐上

(譯) 大抵 이 또한 身을 收斂해서 心이 그 속에 있으면 工夫 이미 八九分은 있게 된 것이나 도리어 그 道理를 보아서 막히는 곳이 있으면 그 곳을 도리어 理會해야 할 것이다. 學問을 함에는 또한 專一함을 要하는 것이니 그 한 件을 理會했다면 바로 또한 그 한 件을 理會한 것이니 萬若에 行할 때면 마음이 바로 다만 行上에만 있게 하고 坐할 때면 마음이 바로 다만 坐上에만 있게 하는 것이다.

人常須收斂箇身心 使精神常在這裏 似擔百十斤擔相似 須硬着筋骨擔

(譯) 사람은 恒常 모를지기 그 身心을 收斂해서 精神으로 하여금 恒常 그 몸속에 있도록 해야 하니 百十斤을 負擔하는 것같이 그 負擔이 重하니 모를지기 굳게 筋骨에 다 붙여서 負擔해야만 할 것이다.

敬有甚物 只如畏字相似 不是塊然兀然 耳無聞 目無見 全不省事之謂 只收斂身心 整齊純一 不恁地 放縱 便是敬

(譯) 敬에 어떤 物件이 있으리요. 다만 畏字와 相似하니 이것은 塊然萬然하게 귀에는 듣지지도 아니하고 눈에는 보이지도 아니하여 전혀 省事하지 못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身心을 收斂해서 整齊하고 純一해서 그 곳에서 放縱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敬이다.

敬只是有所畏 而不敢放縱 如此則身心收斂如有所畏 常常如此 氣象自別 存得此心 乃可以爲學
(譯) 敬은 이것이 두려운 바가 있어서 敢히 放縱하지 못함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身心이 收斂되며 畏하는 바가 있는 것같이 하니 恒常 이렇게 하면 氣象이 自別하여 이 마음이 保存되는 이것이 可히 學問이 될 것이다.

問 敬字何訓 曰 是不得爲訓也 惟畏庶幾近之

(譯) 누군가 「敬字는 무엇이냐고 訓할가」고 물으니 答曰 「이字는 訓할 수가 없으나 오직 畏함이 라면 거의 近似할 것이다.

答潘叔度書曰 所喻敬者存在之謂 此語固好然乃指敬之成功而言 若只論敬字下工夫處 蓋所以持守

此心 而欲其存在之術耳 只着一畏字形容 亦自得見 故和靖尹公 只以收斂身心言之 此理至約 若
如來喻 却似太瀾蘊也

(譯) 潘叔度께 한 答書曰—惠書에 깨우치 주신「敬이란 것은 마음의 存在를 말함이다」고 하신 이 말씀은 진실로 좋으나 이것은 敬의 成功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니 萬若에 다만 敬字의 工夫를 하려는 곳으로 말한다면 대개 이 마음을 가지는 所以로서 그의 存在하려는 方術일 뿐이다. 다만 한 畏字를 붙여서 形容하더라도 또한 스스로 得見한 것이다. 그러므로 尹和靖은 다만 身心을 收斂하는 것으로만 말 하였으니 이 理致가 至極히 要約된 것이다. 惠書에 말씀한 것 같은 것은 도리어 너무 瀾蘊(波瀾이 蘊覆해서 未盡하다는 뜻)한 듯 하의다.

答張欽夫書曰 未接物時 便有敬 以主乎其中 則事至物來 善端昭著 而所以察之者 益精明爾 不知以敬爲主 而欲存心 則不免將一箇心 把握一箇心 就使實能把捉得住 只此己是大病 況未必眞能把捉得住乎 儒釋之異 亦只於此便分了 如云常見光燦燦地 便是有兩箇主宰了 不知光者 是眞心乎 見者是眞心乎

(譯) 張欽夫께 한 答書曰—아직 接物하지 않은 때 物들 敬이 있어서 그의 中心을 主宰하면 事物이 未接해도 善端이 昭著해서 그것을 살피는 所以가 더욱 精明할 것이나 敬으로서 主宰로 할 줄은 모르고서 存心하려고만 한다면 一箇心을 가지고 一箇心을 把握함을 免하지 못할 것이니 假使 實을 能히 把握 했다고 해도 다만 이것이 이미 大病인데 하물며 반드시 實으로 能히 把握하지도 못한 것일까. 儒佛의 相異는 또한 이에서만도 分別이 되니 恒常 光明이 변적이는 것을 보았다고 해도 그것은 바로 두箇의 主宰가 있는 것이다. 그 光明을 알지 못한 者가 眞心인가 그것을 본 者가 眞心인가.

答曰 伯恭書曰 承喻整頓收斂 則入於着力從容游泳 又墮於悠悠 此正學者之通患 然程子嘗論之曰 亦須且自此去 到德盛後 自然逢其原 今亦當且就整頓收斂處着力 但不可用意安排等候 即成病耳

(譯) 呂伯恭께한 答書에 曰—惠書에서 「整頓收斂하면 着力으로 들어가고 從容游泳하면 悠悠한 데로 墮落된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學者의 通患이다. 그러나 程子께서 일찍이 論해서 「또한 모름지기 이로 부터 가면 德이 盛한데 이른 뒤에는 自然히 그의 根源에 逢着한다」고 하였으니 只今 또한 마땅히 또 整頓收斂한데 나아가서 着力해야 되고 다만 用意安排 등으로만 해서 는 그것이 바로 病이 되기 때문이다.

答何叔京書曰 所論持守之說 有所未喻 此乃實下工夫田地 不容少有差互 竊觀尊兄平日容貌之間 從容和易之意有餘 而莊整齊肅之功 終若有所不足 豈其所存 不主於敬 是以不免於若存若亡 而不自覺其舍 而失之乎 所謂既能勿忘勿助 則安有不敬者 乃似以敬爲功效之名 恐其失之益遠矣

(譯) 何叔京께한 答書에 曰—論하신 바 持守의 說은 理解되지 못하는 바가 있으나 이것이 實로 工夫에 着手하는 곳이 조금도 差異가 容認되지 않는 것이다. 尊兄이 平日에 容貌의 間을 가만히 보니 從容하고 和易한 뜻은 有餘하나 莊整하고 齊肅한 功은 마침내 부족한 데가 있는 듯하니 어찌 그 保存할 바가 敬을 主로 하지 아니한 것이리오. 그러므로 若存若亡함을 免하지 못하니 그의 놓아서 잃었음도 自覺하지 못하는가. 所謂이 미 能히 勿忘하고 勿助함을 能한다면 어찌 不敬한 것이 있으리오. 이에 敬으로써 功效의 名으로 한 것 같으니 그것은 아마 本말을 얻었음이 더욱 멀어진 것이다.

持敬之說 前書亦未盡 蓋此心操之則存 而敬者所以操之道也 尊兄乃於覺而操之之際 指其覺者 便以爲存 而於操之道 不復致力 此所以不惟立說之偏 而日用工夫 亦有所間斷而不周也 愚意竊

謂正當 就此覺處以操之 使之常存 而常覺 是乃乾坤易簡 交相爲用之妙 若便以覺爲存 而不加持 敬之功則恐一日之間 存者無幾何 而不存者 什八九矣。

(譯) 持敬의 說은 前書에서도 未盡하였으니 대개 이 마음은 잠으면 있는대敬이란 것은 잠게 하는 方道인 것이다. 尊兄은 이에 깨우쳐서 잠은 때에 그의 깨우친 것을 가리켜서 바로 存心이라고 하여 그 操心하는 道理에는 다시 用力하지 않으니 이것이 오직 立說이 偏僻할 뿐만 아니라 日用하는 工夫도 또한 間斷해서 周偏하지 못한 것이다. 나의 생각으로 간단히 말하노니 바로 그 깨우친 곳에 나아가서 잠아 가지고서 하여금 언제라도 깨우치게 해야만 된다는 이것이 乾坤의 易簡함이 서로 用이 되는 妙理이니 萬若에 문득 覺으로서 存이라고 해서 持敬의 工夫를 加하지 않으면 아마 一日之間이라도 마음이 存할 때는 얼마 되지 아니하고 存하지 않을 때가 十에 八九가 될 것이다.

持敬之說 前書已詳稟矣 如所喻 先存其心然後能視聽言動以禮則是 存則操 亡則舍 而非操則存 舍則亡之謂也 必曰 先存其心則未知所以存者 果若何以着力耶 去冬嘗有一書 請類集程子言敬處 考之 此最直截 竊觀累書之喻 似未肯於此加工也 豈憚於費力而不爲耶

(譯) 持敬하는 說은 前書에서 이미 仔細히 稟達하였으나 惠書에서 먼저 그 마음을 保存한 然後에 能히 視聽言動을 禮로서 한다고 했은즉 이것은 存하면 操하고 亡하면 舍하는 것이고 操하면 存하고 舍하면 亡하는 것을 말한 것은 아니다.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保存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 保存하는 所以는 果然 무엇에着力해야 될지 모를 일이다. 지난 겨울에 一書가 있는데 程子의 敬을 말한 것을 類集해서 詳考해 보는 것이 가장 直截할 것이다. 가만히 여러번 惠書를 보니 이 點에 加工하지 않는 것 같으니 어찌 費力함을 꺼려해서 하지 않는가.

根本枝葉 本是一貫 身心內外 元無間隔 今日專存諸內 而略夫外 則是自爲間隔 而此心流行之全

體常得其半 而失其半也 曷若動靜語嘿 由中及外 無一事之不敬 使心之全體 流行周浹 而無一物之不偏 無一息之不存哉 觀二先生之論心術 不曰存心 而曰主敬 其論主敬 不曰虛靜淵嘿 而必謹之於衣冠容貌之間 其亦可謂言近 而指遠矣。

(譯) 根本과 枝葉은 本是一貫된 것이고 身과 心 內와 外는 元來에 間隔이 없는 것이다. 只今에 「內에 있게 하는 데만 專力하고 그 外는 省略한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스스로 間隔이 나게 하여서 이 마음이 流行하는全體가 恒常 그 半은 得해도 그 半은 失할 것이다. 여기 動靜語嘿이 中에서 外로 나타남에 一事도 不敬함이 없이 心의 全體로 하여금 流行함이 周遍해서 一物에도 不偏함이 없고 一息에도 不存함이 없게 함만 같으라 二程先生이 心術을 論한 것을 보면 「存心」이라고는 하지 않고서 「主敬」이라고 하시고 또 그 主敬을 論한 것도 보면 「虛靜淵默」은 말 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衣冠容貌의 間에서 살아가라고 하였으니 그 또한 可히 言은 近해도 指는 遠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其未發也 敬爲之主 而義已具 其已發也 必主於義 而敬行焉 則何間斷之有哉

(譯) 그의 未發할 때는 敬이 主가 되어서 義가 이미 갖추어졌고 그의 已發할 때는 반드시 義가 主로 되어서 敬으로서 行한다면 어찌 間斷함이 있으리오.

敬則心有主宰 而無偏係 惟勿忘勿助者知之

(譯) 敬하면 心內에 主宰가 있어서 偏係됨이 없으니 오직 勿忘하고 勿助하는 者만이 알 것이다.

持敬之說甚善 但如所喻 則須是天資儘高底人 不甚假修爲之力 方能如此 若顏曾以下 尤須就視聽言動 容貌辭氣上做工夫 蓋人心無形 出入不定 須就規矩繩墨上守定 便自內外帖然 豈曰 放僻邪侈

於內 而姑正容謹節於外乎 且放僻邪侈 正與莊整齊肅相反 誠能莊整齊肅 則放僻邪侈 決知其無所容矣(既無放僻邪侈 然後到得自然 莊整齊肅地位 豈容易可及哉) 此日用工夫 至要約處 亦不能多談 但請以一事驗之 儼然端莊 執事恭恪時 此心如何 怠惰頹靡 渙然不收時 此心如何 試於此審之 則知內外 未如相離 而所謂莊整齊肅者 正所以存其心也

(譯) 持敬하는 說은 甚히 善으나 다만 惠書에 말한 것같이 모름지기 이 天資가 그냥 높은 사람은 甚히 修爲한 힘을 빌리지 않아도 그와 같이 될 수가 있으니 顏子 曾子와 같은 以下는 더욱 반드시 視聽言動 容貌辭氣의 上에 나아가서 守定해야 만 문득 內外가 帖然하게 맞을 것이다. 어찌 內心에는 放僻邪侈한데 外貌에 正容 謹節을 할수 있다고 할까. 또한 放僻邪侈는 바로 莊整齊肅과는 相反이 되니 진실로 能히 莊整齊肅만 하면 放僻邪侈함이 그 容納될 곳이 없지 않을 것이다. (이미 放僻邪侈함이 없는 然後에 야만 自然히 莊靜齊肅의 境地에 이르게 될 것이니 어찌 容易하게 可及할 것일까) 이 日用하는 工夫가 至極히 要約한 것이니 또한 多言할 必要도 없는 것이나 다만 一事로서 試驗한다면 儼然하게 端莊해서 執事를 恭恪하게 할 때는 이 마음 이 어떠한지 怠惰하고 頹靡하여 渙然하게 放散될 때는 이 마음이 어떠한가 는 이에서 審察해 보면 內外가 서로 分離될수 없을 을 알 것이니 所謂莊整齊肅이란 것이 바로 그 마음을 保存하는 所以가 되는 것이다.

躁妄之病 常竊思之 所以有此病者 殆居敬之功 有所未至 故心不能宰氣 有以動志而然耳 若使主一不二 臨事接物之際 眞心現前 卓然而不可亂 則又安有此患哉

(譯) 躁妄한 病을 일찌기 내가 생각해보니 이 病이 있는 所以는 거의 居敬하는 功이 未至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음이 能히 氣寡을 主宰하지 못하고 志를 움직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萬若에 二가 아니고 一을 주로 한다면 臨事하고 接物할 때에 眞心이 現前해서 卓然하게 混亂하지 않게 된다면 또한 어찌

이런 걱정이 있을까.

向來妄論持敬之說 亦不自記其云何 但因其良心發見之微 猛省提撕 使心不昧 則是做工夫底本領 既立 自然下學 而上達矣 若不察於良心發見處 即渺渺茫茫 恐無下手處也

(譯) 먼저번에 持敬하는 說을 妄論한 것이 또한 그때 무엇이냐고 했는지는 모르나 다만 그良心이 發見되는 幾微로 因해서 猛省하고 引導하여 마음으로 하여금 어둠이 아니하게 하면 이것이 工夫하는 本領이 되니 그 本領이 이미 서면 自然히 下學해서 上達하게 될 것이다. 萬若에 良心이 發見하는 곳을 살피지 못하면 바로 渺茫하게 되어 아마 下手할 곳이 없을 것이다.

答程允夫書曰 謂能持敬 則欲自寡 此語甚當 紙尾之意 以爲須先有所見 方有下手用心處 則又未然而 (譯) 程允夫에게서한 答書曰 一能히 持敬을 하면 欲心이 自然히 적어진다고 하는 이 말은 甚히 正當하나 紙尾에 뜻은 모름지기 먼저 본 바가 있어서 바로 下手해서 用心할 곳이 있다고 한 것은 또한 그러하지도 않을 것이다.

持敬用功處 伊川言之詳矣 只云莊整齊肅 則心便一 一則自無非僻之干 又云 但動容貌整思慮 則自然生敬 只此便是下手用功處 不待先有所見 而後能也 須是如此 方能窮理 而有所見 惟其有所見 則可欲之幾 瞭然在目 自然樂於從事 欲罷不能 而其敬日躋矣 伊川又言 涵養須用敬 進學則在致知 又曰 入道莫如敬 未有致知 而不在敬者 考之聖賢之言 如此類者甚衆 是知聖門之學 別無要妙 徹頭徹尾 只是敬字而已 又承苦於妄念 而有意於釋氏之學 此正是元不曾實下持敬工夫之故 若能

持敬以窮理 則天理自明 人欲自消 而彼之邪妄 將不攻 而自破矣 至於鳶飛魚躍之間 則非他人言語之所能與 亦請只於此用力 自當見得 蓋子思言君子之道 費而隱 以至于天下 莫能載 莫能破 因舉此兩句 以形容天理流行之妙 明道上蔡言之已詳 想非有所不解 正是信不及耳 欲信得及 捨持敬窮理 則何以哉

(譯) 持敬해서工夫하는 데는 程伊川이仔細히 말씀했으나 다만 莊整하고 齊肅하면 마음이 바로統一이 되고統一이 되면 自然히 非僻한 마음이 干犯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또한 다만 容貌을 음직이고 思慮를 整一하면 自然히 敬이 된다고 하였으니 다만 이것이 바로工夫에 下手하는 곳이 됨은 먼저 본 바가 있음을 기다린 뒤에 能하는 것이 아니다. 모름지기 이와 같이 해야만 能히 窮理가 되어서 보는 바가 있을 것이고 오직 그 보는 바가 있으면 欲心내는 動機가 瞭然하게 눈에 있어서 自然히 그의 從事함에 樂이 있게 되어 罷하려 해도 能히 할 수가 없이 되어 그 敬이 바로 進歩될 것이다. 伊川은 또 涵養에는 모름지기 敬을 쓰고 進學함은 致知에 있다고 말하고 또한 入道에는 敬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 致知해서 敬하지 않음은 없다고 하였으니 聖賢의 말씀을 詳考해 보면 이와 같은 類가 甚히 많으니 이에 聖門의 學은 別다른 要妙함이 없이 徹頭徹尾하게 다만 敬字뿐임을 알 것이다. 또한 妄念으로 苦悶해서 佛敎에 뜻을 두는 것은 이것이 바로 일찌기 持敬하는工夫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니 萬若에 能히 持敬해서 窮理를 한다면 天理가 自明하고 人欲이 自消해져서 그의 邪妄한 마음은 장차 치지 않아도 스스로 破去될 것이다. 「鳶飛戾天하고 魚躍于淵하는」問議에 이르러서는 他人의 言語가 能히 干與할 바가 아니니 또한 請하건대 이에 힘을 쓰기만 하면 自然히 見得이 있을 것이다. 대개 子思의 말한 君子의 道는 費(現實的인 것)하고도 隱(本體的인 것)하여 天下에서 다 收容할 수도 없고 다 分析할 수도 없다는 데까지 이르러 이 兩句를 들어서 天理가 流行하는 妙理를 形容하였음은 程明道와 謝上蔡가 이미 仔細히 말씀하셨으니 생각하건대 理解하지 못한 바가 있음이 아니고 바로 이 信念이 不及하기 때문이니 그 信念이 及하려면 持敬과 窮理를 버리고서 무엇으로 하리오.

答胡廣仲書曰 近來覺得敬之一字 眞聖學始終之要 向來之論 謂必先致其知 然後有以用力於此 疑若未安 蓋古人由小學而進於大學 其於洒掃應對進退之間 持守堅定涵養純熟 固已久矣 是以大學之序 特因小學已成之功 而以格物致知爲始 今人未嘗一日從事於小學 而必先致其知 然後敬有所施 則未知其以何爲主 而格物 以致其知也 故程子曰 入道莫如敬 未有能致知 而不在敬者 又論敬云 但存此久之 則天理自明 推而上之 凡古昔聖賢之言 亦莫不如此者 試攷其言 而以身驗之 則彼此之得失見矣。

(譯) 胡廣중에게한 答書에 曰 近來에 敬의 一字가 참으로 聖學의 始終하는 要點인을 깨우쳤다. 그 저께 所論에 반드시 먼저 그 知를 이론 然後에 이 敬에 用力하려고 하였음은 조금 未安한 듯하나 古人은 小學으로 말미암아 大學으로 나아갔으니 그의 灑掃하고 應對進退하는 사이에서 持中함이 堅定하고 涵養함이 純熟한지 진실로 이미 오랫동안 것이다. 그러므로 大學의 順序는 特히 小學의 이미 成功함으로 因해서 格物致知로서 비롯하였으나 今人은 일찍이 一日이라도 小學에 從事하지도 아니 하고서 반드시 먼저 그 知를 致한 然後에 敬을 施行한 바가 있으면 알지 못하나 그 무었으로써 主로 하여서 格物을 하여 그 知를 致하리오. 그러므로 程子曰 「入道에는 敬만한 것이 없으니 能히 致知함이 敬에 있지 않는 것은 없다」고 하고 또한 敬을 論해서 「다만 이를 오래 가지면 天理가 自明한다」고 하였으니 그로 미루어 올라가면 옛적에 聖賢의 말씀이 또한 이렇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그 말을 試攷해서 自身으로서 體驗한다면 彼此의 得失을 볼 것이다.

上蔡雖說明道先使學者 有所知識 却從敬入 然其記二先生語 却謂未有致知 而不在敬者 又自云 諸君不須自求見處 但敬與窮理 則可以入德矣 二先生亦言根本 須先培養 然後可立趨向 又言莊整齊肅久之 則自然天理明 五峯雖言知不先至 則敬不得施 然又云 格物之道 必先居敬 以持其志 此言皆

何謂耶 竊謂明道所謂 先有知識者 只爲知邪正識趨向耳 未便遽入知至之事也 上蔡五峯 既推之太過 而來喻 又因二公之過 而又過之 却是近世禪家說話 多如此 若必如此 則是未知己前 可以怠慢放肆 無所不爲 而若必曾子一唯之後 然後可以用力於敬也 此說之行 於學者日用工夫大有小害 恐將有談玄說妙 以終其身 而不及用力於敬者 非但言語之小疵也

(譯) 謝上蔡는 비록 程明道가 먼저 學者로 하여금 아는 바가 있음은 도리어 敬을 따라 들어가게 된다고 말하였으나 그 二先生의 말을 記錄하는데는 도리어 致知함이 敬에 있지 않음이 있지 않다고 말하고 또한 스스로 말하되 諸君은 스스로 求見하는 곳을 要하지 않으니 다만 敬과 窮理로만 하면 可히 서서 入德할 것이라고 하였다 二先生은 또한 말하되 根本을 모름지기 먼저 복들은 然後에 可히 서서 趨向할 것이라고 하고 또한 莊整하고 齊肅함을 소러하면 自然히 天地가 밝아진다고 하였으며 胡五峯은 知가 먼저 이르지 않으면 敬을 施行할 수가 없다고 말하였으나 또한 말하되 格物하는 길은 반드시 먼저 居敬을 해서 그의 志를 가지라고 하였으니 이 말들은 다 무엇을 意味한 것인가. 가만히 말하노니 明道의 所謂「먼저 知識이 있는 者는 다만 邪正을 알고 趨向을 하라는 것 뿐이고 바로 知至의 事로 아직 들어간 것은 아니다」고 하고 謝上蔡와 胡五峯은 이미 그것을 太過하게 推重하였는데 惠書에는 또 二公(上蔡와 五峯)의 지나감으로 因해서 또한 지나갔으니 도리어 이것이 近世에 禪家의 說話가 많이 이와 같은 것이다. 萬若에 반드시 이와 같이 한다면 이것은 아직 知己하기도 前에 可히 怠慢하고 放肆함이 못할 바가 없어서 반드시 曾子가 對答한 뒤와 같이 한 然後에야만 可히 敬에 用力할 수가 있을 것이나 이 말이 學者의 日用하는 工夫에 行해서 크게 害로우니 아마 將來에는 玄妙한 것만 談說해서 그 一身을 마쳐도 敬에 用力하기까지는 이르지 못할까 걱정이니 다만 言語의 작은 缺點일 뿐 만은 아닐 것이다.

答林擇之書曰 敬以直內 爲初學之急務 誠如所喻 此事統體操存 不作兩段 日用間便覺得力 嘗驗

之否 康節云 若非前聖開蒙 客幾作人間小丈夫 誠哉是言

(譯) 林擇之에게한 答書에 曰「敬以直內」를 初學의 急務라고 한 것은 진실도 말씀해준 바와 같으나 이것은 統體로 操存해서 兩段이 되지 아니 하게 하여 日用하는 사이 工夫 得力함을 깨우쳐서 일찌기 體驗하였는 가. 形康節은 「萬若에 前聖께서 蒙啓 일지 않았다면 빛이나 人間에서 小丈夫가 되었을가」고 하였으니 참으로 그러하도다.

敬字通貫動靜 但未發時 則渾然是敬之體 非是知其未發 方下敬之工夫也 既發則隨事省察 而敬之 已行焉 然非其體素立 則省察之功 亦無自而施也 故敬義非兩截事 必有事焉 而勿正 心勿忘 勿助 長 則此心卓然貫通動靜 敬立義行 無適而非天理之正矣。

(譯) 敬字는 動靜을 貫通하는 것이나 다만 未發할 때는 渾然한 이 敬의 體니 이것이 그 未發을 알고서 敬의 工夫를 着手하는 것은 아니고 既發하면 隨事로서 省察해서 敬의 用이 行할 것이다. 그러나 그 體가 부디 서있 지 않으면 省察하는 功을 또한 施行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敬과 義는 兩斷된 것이 아니라 「만디 서있 려서 바르지 못하면 마음에 의지 아니하고 助長하지도 아니하여 한다」면 이 마음이 卓然한지 動靜을 貫通해 서 敬이 서고 義가 行해서 가는 곳마다 天理의 正道가 아님이 없을 것이다.

答楊子直書曰 持敬之說 不必多言 但熟味整齊嚴肅 嚴威儼恪 動容貌 整思慮 正衣冠 尊瞻視 此 等數語 而實加功焉 則所謂直內 所謂主一 自然不費安排 而身心肅然表裏如一矣 豈陸棠之謂哉 彼其挾詐欺人 是乃敬之賊耳 今反以敬之名 歸之而謂敬之實 眞有不足行者 豈不誤甚矣哉 大抵身 心內外 初無間隔 今於其空處不用之處 則操而存之於其流行運用之實 則棄而不省 此於心之全體

雖得其半 而失其半矣 然其所得之半 又必待有所安排布置 然後能存 故存則有振苗助長之患 否則有舍 而不芸之失 是則其所得之半 又將不足以自存而失之 孰若一主於敬 而此心卓然 內外動靜之間 無一毫之隙 一息之停哉

(譯) 楊子直에게한 答書에 曰 持敬하는 說은 多言할 必要가 없는 것이나 다만 整齊하고 嚴肅해서 威嚴이 儼格하여 容貌을 動하고 思慮를 整하며 衣冠을 바루고 瞻視를 높이 함을 익히고 맛보아서 此等の 數語에서 實로工夫를 한다면 直內라는 것이나 主一이란 것이 自然히 安排를 하지 아니 해도 身心이 肅然해서 表裏가 如一하게 될 것이니 어찌 陸棠의 말한 것일까. 그의 挾詐해서 사람을 속이는 이것은 敬의 害賊인데 이에 도리어 敬의 名으로 들리어 敬의 實이라고 하니 참으로 行하기에 不足함이 있을 것이다. 어찌 甚한 謬謬가 아닐까. 大抵 身과 心 內와 外는 元來에 間隔이 없는 것인데 只今에 그 空虛로 쓰지 않는 곳에 있어서 是를 得해오가지고 그 流行해서 運用하는 實에 있어서는 버리고서 살피지 않으면 이것이 心의 全體에서 비록 半은 得해오지 못하도 失할 것이다. 그러나 그 所得의 半은 또한 반드시 安排하고 布置하는 바가 있는 然後에만 能히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操存하면 振苗(곡식의 고갱이를 빼올려 얼른 자라게 하려함)해서 助長하는 功정이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버려서 매지도 않는 失手가 있을 것이니 이것은 그 所得한 半도 또한 將次로 自存함에 不足하지 못하고 失手할 것이니 어찌 敬하나만 주로 해서 이 마음이 卓然하게 內外나 動靜의 間의 一毫의 틈이나서 一息의 멈춤도 없게 함만 같으랴.

答廖子晦書曰 二先生所論敬字 須該貫動靜看方得 方其無事 而存主不懈者 固敬也 及其應物而酬酢不亂者 亦敬也 故曰 毋不敬 儼若思 又曰 事思敬 執事敬 豈必以攝心坐禪 而謂之敬哉

(譯) 廖子晦에게한 答書에 曰 二程先生이 論한바 敬字는 모름지기 動靜을 貫通해 보아야만 될 것이니 그 無事할 때에 心主가 있어서 懈怠하지 않는 것이 진실로 敬이고 그의 應物해서 酬酢함에 混亂이 없는 것도

또한 敬이다. 그러므로 曲禮에는「敬하지 않음이 없이 儼然하게 생각하는 듯하라」하고 또한「일에는 敬하기를 생각하라」 「일을 삼을 때는 敬하라」고 하였으니 어찌 반드시 攝心하고 坐禪하는 것만으로서 敬이라고 할까

答方耕道書曰 若程夫子所謂敬者 不過曰 正衣冠 一思慮 莊整齊肅 不慢不欺而已 但實下工夫 時習不懈 自見意味 不必懸加揣料 著語形容 亦不可近捨顯然悔尤 預憂微細差忒也 向者妄謂自立規程 正謂正衣冠一思慮 莊整齊肅 不慢不欺之類耳 此等雖是細微 然人有是身 內外動息 不過是此數事 其根於秉彝 各有自然之則 若不於此 一一理會 常切操持 則雖窮理玄奧 論極幽微 於我亦有 何干涉乎

(譯) 方耕道에게한 答書曰 程夫자의 所謂 敬이라고 한 것은 말하자면 衣冠을 바로고 思慮들 모두며 莊整齊肅해서 倨慢하지 않고 欺瞞하지도 않는 것에 不過한 것이나 다만 實際로 工夫에 下手해서 時習함을 懈怠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意味를 볼 것이니 반드시 思料를 높이 加하고 말을 形容으로 나타낼 必要도 없고 또한 近捨해서 顯然하게 悔尤하고 微細한 差異를 걱정함도 不可한 것이다. 前者에 망녕이 되게 規程을 自立하였다고 말 했음은 바로 衣冠을 바로고 思慮를 모으고 莊整齊肅해서 倨慢하지 않고 欺瞞하지도 않는다는 種類이니 이것들은 모두 微細한 것이다. 그러나 人間은 이 肉體를 가지고 內外로 動息함이 이 數事에 不過하니 그것이 良心에 根據해서 各各 自然의 法則이 있으니 萬若에 이에서 一一이 理會하여 恒常 간절히 保存하고 持守하지 않으면 비록 玄奧한 理數를 研究하고 幽微한 事物을 論辨한다고 해도 나에게 또한 무슨 干涉이 있을까.

答呂子約書曰 所論主一 主事之不同 恐亦未然 主一只是專一 蓋無事則湛然安靜 而不驚於動 有事則隨事應變 而不及乎他 是所謂主事者 乃所以爲主一者也 觀程子書中所論敬處類集而考之 亦

可見矣 若是有所係戀 却是私意 雖似專一不捨 然既有係戀 則必有事已過 而心未忘 身在此而心在彼者 此其支離畔援 與主一無適 非但不同 直是相反 今比而論之 亦可謂不察矣

(譯) 呂子約에게한 答書에 曰—主一과 主事가 不同한데 對한 所論은 아마 그러하지 않은듯 하다. 主一은 다만 이것이 專一함이니 대개 無事하면 甚然하게 安靜해서 動해 가지 아니 하고 有事하면 隨事해서 應變하여 다른 데로 가지 않는 것이니 이 所謂 主事하는 것이 이미 主一하는 所以인 것이다. 程子의 書中에 敬을論한 것을 類聚해서 詳考해 보면 또한 可히 알 것이다. 萬若에 係戀한 바가 있다면 이것이 도리어 私意가 되니 비록 專一함을 버리지 않은 것 같으나 이미 係戀이 있으면 반드시 일은 이미 지났는데도 마음은 잊지 못하여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저기 있는 것이니 그것이 支離하고 紛亂해서 主一無適함과 다만 不同할 뿐 만 아니라 바로 相反되는 것인데 只今에 그것을 붙여서 論하니 또한 不察하다고 할 것이다.

答林伯和書曰 入心之病 不放縱即昏惰 日用之間 務以整齊嚴肅自持 常加警策 即不至昏惰矣

(譯) 林伯和에게한 答書에 曰—人心의 病은 放縱하지 않으면 바로 昏惰한 것이니 日用하는 사이에 整齊嚴肅으로 自持하기에 힘을 써서 恒常 警策을 加하면 昏惰한 데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答陳膚仲書曰 所謂涵養工夫 亦非是閉目合眼 如土偶人 然後謂之涵養也 只要應事接物 處之不失 此心各得其理而已

(譯) 陳膚仲에게한 答書에 曰—所謂 涵養의 工夫란 것은 또한 이 눈을 감고서 土偶像처럼 한 然後에야만 涵養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니 다만 應事하고 接物하는데 失手하지 아니하여 各各 그 理勢대로만 함을 要한 뿐이다.

答潘恭叔書曰 敬之一字 萬善根本 涵養省察 格物致知 種種工夫 皆從此出 方有據依 平時講學

非不知此 今乃覺得 愈見親切端的耳

(譯) 潘恭叔에게한 答書에 曰—敬의 一字는 萬善의 根本이니 涵養하고 省察하며 格物하고 致知하는 種種의 工夫가 다 이에서 나와야만 依據할 바가 있는 것이니 平時로 講學함에 이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이에 覺得하면 더욱 親切하고 端的함을 깨우칠 것이다.

答程正思書曰 聖賢之學 徹頭徹尾 只是一箇敬 致知者以敬而致之也 力行者以敬而行之也

(譯) 程正思에게한 答書에 曰—聖賢의 學問은 徹頭徹尾하게 다만 이 一箇의 敬이니 致知하는 것은 敬으로서 이루는 것이고 力行이란 것은 敬으로서 行하는 것이다.

答周舜弼書曰 所喻敬字工夫 於應事處 用力爲難 此亦常理 但看聖賢說 行篤敬 執事敬 則敬字本不爲默然 無爲時設 須向難處 力加持守 庶幾動靜如一耳

(譯) 周舜弼에게한 答書에 曰—惠書에 말한바 敬字工夫는 應事하는 곳에서 힘쓰기가 어려운 것이다 한 것은 이것이 또한 常理나 다만 聖賢이 行動에 篤敬하고 執事에 持敬이라고 말씀하신즉 敬字는 본디 默默하게 無爲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름지기 어려운 때를 向해서 더욱 持守하는데 힘을 쓴다면 거의 動靜이如一하게 될 것이다.

答董叔重書曰 所論心之存亡 正惟操則自存動靜始終 不越敬之一字而已 近方見得伊洛拈出此字 眞是聖學眞的要妙功夫 學者只於此 着實用功 則不患不至聖賢之域矣

(譯) 董叔重에게한 答書에 曰—마음의 存亡을 論한바는 바로 오직 操이면 自存해서 動靜과 始終이 敬의 一字에 넘어가지 않는 것 뿐이다. 近者에 二程子의 書를 보고 이에 敬字를 拈出하니 참으로 이것이 聖學의 眞的

으로 要妙한 工夫라 學者가 다만 이것을 着實하게 工夫한다면 聖賢의 域에 이르지 못함이 걱정이 되지 않을 것이다.

答胡季隨書曰 伊洛拈出敬字 眞是學問始終日用親切之妙 近與朋友商量 不若只於此處用力 而讀書窮理 以發揮之 直到聖賢究竟地位 亦不出此 坦然明白

(譯) 胡季隨에게한 答書에 曰—二程子の 書에서 敬字를 拈出하니 참으로 이것이 學問의 始終이고 日用에 親切한 妙法이다. 近者에 朋友와 더불어서 商量하니 다만 이곳에 用力해서 讀書하고 窮理하여 發揮하는 것만 같지 못하니 바로 聖賢의 究極한 地位에 이르는 것도 또한 이에 벗어 나지 않음이 坦然하게 明白한 것이다.

敬是病之藥 矜持是病之旁證 此兩句 文意齟齬 不相照應 若以敬喻藥 則矜持乃是服藥過劑 反生他病之證 原其所因 蓋爲將此敬字 別作一物 而又以一心守之 故有此病 若知敬字 只是自心 自省當體便是 則自無此病矣

(譯) 敬은 이것이 病의 藥이고 矜持는 이것이 病의 旁症이라고 하면 이 두 句는 文意가 矛盾이 되어 서로 照應되지 않는 것이다. 萬若에 敬으로서 藥에 比喻한다면 矜持는 이것이 너무 服藥을 過히해서 도리어 다른 病症이 날 것이다. 그의 原因을 찾는다면 대개 이 敬字를 가지고 別로 一物을 만들어서 또한 一心으로 써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病이 있으니 萬若에 敬字를 알면 다만 이 自心으로 自省해서 體驗해야 하니 문득 이렇게 하면 스스로 이 病이 없어질 것이다.

答李守約書曰 所說持敬工夫 恐不必如此 徒自紛擾 反成坐馳 但只大綱收斂 勿令放倒 到窮理精後 自然思慮 不至妄動 凡所營爲 無非正理 則亦何必兀然靜坐 然後爲持敬哉

(譯) 李守約에게한 答書에曰「말씀한바 持敬하는工夫는 아마 이와 같이 하여 스스로 紛擾하기만 해서 도리어 坐馳(마음이 外로만 달려가는 것)가 되는 것이니 다만 大綱만 收斂하여 하여금 放倒하지 말고 窮理가 精하게된 然後에 自然히 思慮가 妄動하는데 이르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무릇 營爲하는 바가 正理 아님이 없이 되면 또한 어찌 兀然하게 靜坐한 然後에야만 持敬이 될까.

答符舜功書曰 嘗謂敬之一字 乃聖學始終之要 未知者非敬無以知 已知者非敬無以守 若曰 先知大體 而後敬以守之 則夫不敬之人 其心顛倒謬亂之不暇 亦將何以察夫大體而知之耶

(譯) 符舜功에게한 答書에曰「일찌기 敬의 一字가 聖學의 始終하는 要點이다」고 하였으니 알지 못한 者는 敬이 아니면 알 수가 없고 이미 아는 者는 敬이 아니면 지킨 수가 없는 것이다. 萬若에 먼저 大體를 안뒤에 敬으로서 지키면 무릇 不敬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顛倒해서 謬亂하기餘暇가 없을 것인데 또한 어찌 그 大體를 살피서 알 수가 있을까.

答熊夢兆書曰 靜坐而不能遣思慮 便是靜坐時不曾敬 敬則只是敬 更尋甚敬之體

(譯) 熊夢兆에게한 答書에曰「靜坐해서 能히 思慮를 없애지 못하는 것은 바로 靜坐할 때 敬하지 못했기때문이니 敬하면 다만 이 敬할 뿐이지 다시 무슨 敬의 體를 찾으리오.

朱飛卿問持敬 但存之於心 而四體則少寬之終 可以有得 而無害於敬否 曰 心無不敬 則四體自然收斂 不待着意安排 而四體亦自舒適矣 着意安排 則難久而生病矣

(譯) 朱飛卿이「持敬하는 데는 다만 마음에만 두어서 四體를 조금 편히 하면 마침내 所得이 있고 敬에害는 없는가」고 물으니 答曰「마음에 不敬함이 없으면 四體가 自然히 收斂이 되어 着意해서 安排하지 아니하여도 四體가 또한 스스로 舒適해질 것이나 着意해서 安排하면 오래 하기 어려워져서 病이 날 것이다.

答楊仲思 曰 所云無思無慮之時 每加提省 此亦非是 所謂敬者 只是要專一耳 初不偏在靜處也
(譯) 楊仲思에게한 答書에 曰—이른바 無思無慮할 때는 每樣 反省을 加하는 것도 이 또한 齟지는 않으니 이
 른바 敬이라는 것은 다만 이 專一하기만 要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靜處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答方子實書曰 示喻主敬之說 先賢之意 蓋以學者 不知持守 身心散漫 無緣見得義理分明 故欲其
 先且習爲端莊整肅 不知放肆怠惰 庶幾心正 而理明矣

(譯) 方子實에게한 答書에 曰—惠書에 主敬의 說은 先賢의 뜻이 대개 學者로서 持守할 줄을 몰라 身心이 散
 慢하여 義理를 分明하게 見得할 因緣이 없기 때문에 그 먼저 또한 端莊正肅하기를 익혀서 放肆해서 怠惰함
 이 이르지 않으면 거의 마음이 바루어져 理性이 明哲해질 것이다.

答余正叔書曰 若其本領 則固當以敬爲主 但更得集義之功 以祛欲之蔽 則於敬益有助蓋有不待着
 意安排 而無昏憤雜擾之病 上蔡所謂 去却不合做底事 則於用敬有功 恐其意亦謂此也

(譯) 余正叔에게한 答書에 曰—그의 本領같은 것은 진실로 마땅히 敬으로서 主로 하고 다만 集義하는 功을
 다지 얻어서 利欲의 덮임을 除去하면 敬하는데 더욱 도움이 있을 것이니 대개 着意해서 安排함을 기다리지
 아니 하고서 마음에 昏亂하고 雜擾하는 病이 없어질 것이다. 謝上蔡의 所謂 일을 하는데 不합한 것을 버린
 다면 敬을 하는데 功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음도 아마 그 뜻이 또한 이것을 말한 것일 것이다.

答孟良夫書曰 伊洛垂訓 以持敬爲先 此要切之語 若不於此處 立得根本 却讀書應事思惟計度 徒
 成紛擾 卒無歸宿之地 若能於此用力 則動靜之間 無適而不爲學矣

(譯) 孟良夫에게 答한 答書에 曰—二程子의 垂訓에는 持敬으로서 先務로 하였으니 이것이 緊要한 말이다.

萬若에 그 곳에서 根本을 세우지 아니하고 도리어 讀書하고 應事하면 思惟와 計度가 한갓 紛擾하기만 해서 마침내 歸宿할 곳이 없을 것이나 萬若에 能히 이 敬에 用力하면 動靜하는 사이에 어디 가도 學이 되지 않을 이 없을 것이다.

答許順之書曰 聞有敬字不活之論 莫是順之敬得來不活否 却不于敬字事 惟敬故活 不敬便不活矣 此事所差毫釐便有千里之繆

(譯) 許順之에게한 答書에 曰—들으니 敬字에 不活의 論이 있다고 하니 이것을 順해서 敬을 얻어와도 不活한 것인가 도리어 敬字의 事에는 關係가 아니된 것이다. 오직 敬하기 때문에 活하니 不敬함은 바로 不活한 것이다. 이것은 毫釐의 差에 바로 千里의 繆가 있는 것이다.

陳氏曰 心常惺惺在這裏 便常惺惺恁地活若不在便死了 心纔在這裏 則萬理便森然於其中矣

(譯) 陳氏曰—마음이 恒常 惺惺(도록도록한 것)하게 그 속에 있어서 문득 恒常 惺惺한 그것이 活한 것이니 萬若에 不存하면 바로 死한 것이다. 마음이 겨우 그 속에 있으면 萬리가 바로 그 속에 森然할 것이다

敬齋箴曰 正其衣冠 專其瞻視 潛心以居 對越上帝 足容必重 手容必恭 擇地而蹈 折旋蟻封 出門如賓 承事如祭 戰戰兢兢 罔敢或易 守口如瓶 防意如城 洞洞屬屬 罔敢或輕 不東以西 不南以北 當事而存 靡他其適 弗貳以二 弗參以三 惟心惟一 萬變是監 從事於斯 是曰持敬 動靜不違 表裏交正 須臾有間 私欲萬端 不火而熱 不冰而寒 毫釐有差 天壤易處 三綱既淪 九法亦斁 於乎小子 念哉敬哉 墨卿司戒 敢告靈臺

(譯) 敬齋箴曰—衣冠을 整齊하여 瞻視를 높이고 潛心해서 居處하여 上帝를 對越하라. 足容은 重히 하고

手容은 恭히 하여 땅을 가리 디더서 行動을 法度있게 出門에는 손님 본듯 承事에는 祭 받드는 듯 戰戰하고 兢兢해서 쉽게 알자고 하지 말 것이며 瓶과 같이 입을 막고 城과 같이 뜻을 막아 洞洞하고 屬屬하여 輕忽하지 말지니라. 東에 있어 西로 말며 南에 있어 北을 말고 當時한데 마음두어 다른데로 아니가고 두가지도 하지 말고 세가지도 하지말아 마음오직 하나이니 萬變해도 이것보라 이것으로 從事하는 이것일리 敬이란다. 動과 靜에 어김없고 表와 裏를 바물지니 暫時라도 間斷하면 萬端私欲 일어나서 불없어도 드러올고 얼음없이 차워 진다. 毫釐라도 차이있으면 天地位置 달라진다. 三綱이 미 다빠지고 九法또한 문어진다. 슬프도다 小子들이야 念慮하고 恭敬하라 筆墨으로 警戒해서 心靈에게 告하노라.

朱子自叔題下曰 讀張敬夫一箴 掇其遺意 作敬齋箴 書齋壁 以自警云 問敬齋箴曰 此是敬之目 說有許多地頭去處(退溪曰。地頭之說。於做工好有據依)

(譯) 朱子는 이 題下에 自叔를 하여曰 張敬夫의 主人箴을 읽고 그의 遺意를 주어서 敬齋箴을 지어 齋舍의 壁에 써 붙이고 自身을 警戒하노라. 누가 敬齋箴에 對하여 물으니 答曰 이것은 敬의 要目으로서 許多한 位置의 去處가 있음을 말한 것이다. (退溪曰 地頭의 說은 工夫하는데 좋은 依據가 있는 것이다.)

或問 敬齋箴後面 少些從容不迫之意 欲先生添數句 曰 如何解迫切 今未曾下手便要從容不迫 却無此理 除非那人做工夫 大段迫切 然後勸他勿迫 如人相戰 未曾交鋒 便要引退 今未曾做工夫 便要開後門 然人亦不解迫切 只是不曾做 做着時不患其迫切 某但常覺得寬緩底意思多耳

(譯) 누가 「敬齋箴의 後面에 조금 從容해서 不迫한 뜻이 있으니 先生께서 數句를 더 添加했으면 합니다.」 고 물으니 答曰 어떻게 迫切하다고 말할까. 只今에 일찌기 下手하지도 아니하고 바로 從容하게 不迫하기를 要求하니 이런 理數는 없는 것이다. 어딘 사람이라도 工夫를 하는데 대단히 迫切하지 않는 然後에야만

他人에게 迫切하지 말라고 勸할 것이니 사람이 서로 戰爭하는데 아직 接戰하지도 아니하고서 바로 引退하기를 要求하는 것처럼 只今에 아직 일찌기 工夫도 하지 아니 하고서 바로 後門을 여는 것도 또한 迫切함을 解除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것이 일찌기 하지도 아니했으니 할 때에는 그 迫切함을 걱정하지 않는 것이다. 某는 다만 恒常 寬緩한 意思를 깨우쳤음이 많았다.

西山眞氏曰 敬之爲義 至是無復餘蘊 有志於聖學者 宜熟復之

(譯) 眞西山曰 敬의 義는 이에서 다시 餘蘊이 없으니 聖學에 뜻을 가진 자는 마땅히 익숙하게 反復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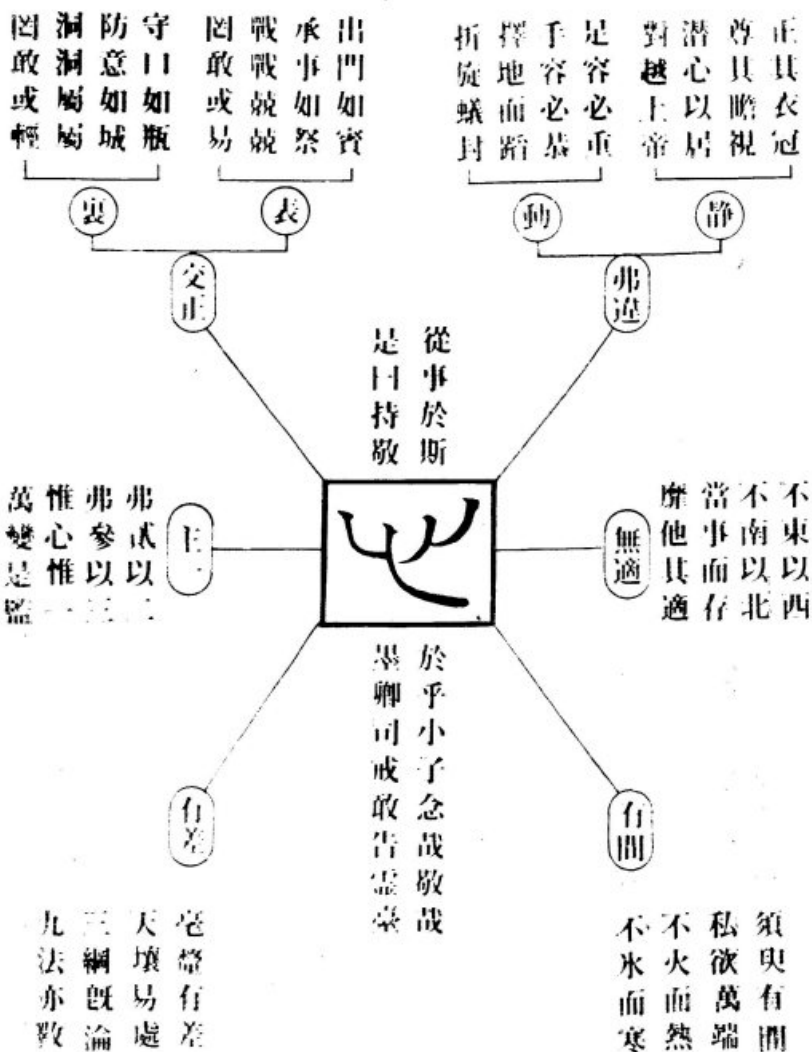
又曰 秦漢以下 諸儒皆不知敬 爲學問之本 至程子指以示人 而朱子又發明之 極其切至 二先生有功於聖門 此其最大者也

(譯) 又曰 秦漢以後로는 諸儒들이 다 敬이 學問의 根本임을 알지 못했다가 程子에 이르러서 그것을 가리켜서 사람들에게 보였고 朱子도 또한 發明하심이 極히 切至하였으니 二程子가 聖門에 有功함은 이것이 가장 큰 것이다.

退溪先生曰 金華王魯齋栢 排列地頭 作此圖 明白整齊 皆有下落 又如此 常宜體玩警省 於日用之際 心目之間 而有得焉 則敬爲 聖學之始終 豈不信哉

(譯) 退溪先生曰 金華王魯齋栢이 地頭를 排列해서 이 圖를 지음에 明白하고 整齊하여 다 歸結處가 있음이 明白하고 또한 이와 같이 恒常 마땅히 體玩하고 警省해서 日用的 際 心目的 間에서 所得이 있다면 敬이 聖學의 始終이 됨을 어찌 信用하지 않을까.

同 箴 齋 敬



崇敬錄 卷之三

主敬淵源

堯 放勳 欽明文思安安 允恭克讓 光被四表格于上下

(譯) 堯帝는 放勳이시니 欽해서 明하시고 文으로 思하시와 安할 때에 容하시어 允恭하시고 克讓하시 光輝가 四方에 비치어 上下가 歸格하였다.

欽若昊天 敬授人時

(譯) 昊天을 敬順하시 歷法을 敬授하였다.

寅(敬) 賓出日 寅餞納日

(譯) 公경해서 出日을 맞이하고 公경해서 入日을 餞送하시다.

釐降二女于嬀汭 嬀于虞 帝曰欽哉

(書經虞書 堯典篇)

(譯) 二女를 嬀汭에 내리 보내서 虞舜에게 妻로 주시고 曰「恭敬하라」고 하였다.

蔡氏曰 欽恭敬也 明通明也 敬體而明用也 書叙帝王之德 莫盛於堯 而贊堯之德莫備於此 首以 欽之一字爲言 此書中開卷第一義也 讀者深味 而有得焉 則一經之全體 不外是矣

(譯) 蔡氏曰 欽은 恭敬이고 明은 通明이며 敬은 體고 明은 用이다。書經에 帝王의 德을 叙述하였음이 堯帝보다 더 盛함은 없고 堯帝의 德을 贊하였음은 이보다 더 備함은 없을 것이다。篇首에는 欽의 一字로서 말하였으니 此書의 中에 開卷하는 第一義인 것이니 讀書가 甚이 吟味해서 所得이 있으면 一經의 全體가 이에 不外할 것이다。

東萊呂氏曰 作曆之前 欽若昊天 是先天而天不違 作曆之後 敬授人時 是後天而奉天時 皆以欽敬爲主

(譯) 呂東萊曰 作曆하기 前에 「欽若昊天」이라 하였음은 이것이 先天으로서 天에 不違함이고 作曆한 뒤에 「敬授人時」라 하였음은 이것이 後天으로 天時를 奉하는 것이니 모두 欽敬으로써 主로 한 것이다。

陳氏(雅言)曰 聖人事天治民 欽敬之心而已 敬天之心 嚴於曆象之際 勤民之民嚴於授時之際 聖人於事 何往不敬 而況於事天治民之大者乎

(譯) 陳雅言曰 聖人이 事天하고 治民하는 데는 欽敬하는 마음 뿐이었다。敬天하는 마음은 曆象의 際에 더 嚴肅하고 勤民하는 마음은 授時할 際에 더 嚴肅하였으니 聖人이 人事에서 어디 간들 敬하지 않으리오 하 불며 事天하고 治民하는 大事에 있어서라。

朱子曰 堯是初頭出第一箇聖人 尚書堯典是第一篇典籍 說堯之德 都未下別字 欽是第一箇字 如今看聖賢千言萬語 大事小事 莫不本於敬

(譯) 朱子曰 堯帝는 初頭에 出現하신 하나의 聖人이니 書經에 堯典은 이것이 第一篇의 典籍으로서 堯帝의 德을 말하는데 모두 別字를 쓰지 아니하고 이 欽이란 一個字 뿐이니 只今에 聖賢의 千言萬語와 大事나

小事를 보면 敬에 根本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又曰 欽是個本領 能敬便能明 惟明故文理詳密 粲然可觀 而其間意思自是深遠

(譯) 又曰 欽은 이 한箇의 本領이니 能히 敬하면 문득 能히 明해 지니 오직 明하기 때문에 文理가 詳密해서 粲然하게 可觀한 것이다 그 間의 意思가 스스로 深遠한 것이다.

呂氏曰 散而在外 則爲文 欽明之發見也 蘊而在內 則爲思 欽明之潛蓄也

(譯) 呂氏曰 흩어져서 外에 있음은 文이 되니 欽明함을 發見함이고 쌓여져서 內에 있음은 思가 되니 欽明함이 潛蓄됨이다.

西山眞氏曰 堯之德以欽爲首 而其行以恭爲先 學者之學聖人 此其準的也

(譯) 眞西山曰 堯帝의 德은 欽으로써 首로 해서 그 行은 恭으로써 先으로 했으니 學者가 聖人을 배우는 데 이것이 그 準的인 것이다.

董氏(傳)曰 堯典篇中 不過三大節 修齊治平一也 治曆明時二也 知仁學舜三也 節目有三 而綱領惟一 一者欽而已。欽敬者 一心之主宰 而萬事之根本 見於修齊治平者 此敬見於治曆明時者 亦此敬見於知人傳賢 而不溺於親愛之子 不遺於踈賤之舜者 亦此敬 一篇之中 言欽不一 曰恭曰寅 何往非一敬所貫通者 先儒謂敬者 百聖傳心之法 而實自堯啓其端焉 讀是書者 宜亦曰毋不敬

(譯) 董鼎曰 堯典의 篇中에는 三大節에 不過하니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가 그의 첫째이고 曆書를 받들어 時季를 밝힌 것은 그의 다음이며 仁材를 알고서 舜을 登用했음은 그의 세째다. 節目은 三이 있어도 綱領

은 오직 一이니 一이란 것은 欽뿐이다. 欽敬이란 것은 一心の 主宰로서 萬事의 根本이니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에 보이는 것도 이 敬이고 治曆해서 明時함에 보이는 것도 또한 이 敬이며 知人하고 傳賢해서 親愛하는 子에 빠지지도 않고 疎賤한 舜을 버리지도 아니한 것도 또한 이 敬이다. 一篇의 中에서 欽을 말했음 이 하나만이 아니라 恭이니 寅이니 하는 것이 어디를 가나 하나라도 敬으로서 貫通하지 않는 것인가. 先儒가 敬이라고 한 것은 百聖의 傳心하신 要法으로서 實로 堯帝로부터 그 端緒를 열었으니 이 冊을 읽는 者는 마땅히 또한 「毋不敬」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武夷熊氏曰 孔子定書 斷自唐虞以下 堯典是第一傳道之祖 以前雖有伏羲神農黃帝三聖人者作孔子作易大傳 不過畧述 其開物成務 大槩而已 卽制立法 蓋未詳也 混沌既判 至堯適當一元文明之會 讀書者不可不熟玩 而深求也

(譯) 熊武夷曰 孔子께서 書經을 編定하시는데 唐虞以下로만 끊어서 堯典이 第一傳道하는 祖가 되었으니 以前에 비록 伏羲 神農 黃帝의 三聖人이 있어도 孔子께서 易經大傳을 지으신데는 그의 開物해서 成務한 大槩만을 畧述했을 뿐이니 卽制하고 立法함은 대개 未詳한 것이다. 混沌이 이미 肇判해서 堯帝때 이르러 一元文明의 會에 當하였으니 讀書하는 者는 熟玩해서 깊이 探求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舜 重華協于帝 濬哲文明 溫恭允塞 玄德升聞 乃命以位

(譯) 舜帝는 重華니 堯帝에게 協相해서 濬哲하고 文明하시며 溫恭하고 允塞하시어 玄德이 升聞하심에 이에 帝位에 任命 되었나.

欽哉欽哉 惟刑之恤哉

(譯) 恭敬하고 恭敬하여 오직 刑으로 救恤하시라.

命契曰 敬敷五教在寬

(譯) 契(성)에 命令하시되 「五教(五倫)을 敬敷하는데는 寬大하게 하라」고 하셨다.

命伯夷曰 汝作秩宗(主叙次百神之官。以秩宗名之者。以宗廟爲主) 夙夜惟寅 直哉惟清 伯拜稽首 讓于夔龍 帝曰俞 往欽哉

(譯) 伯夷에게 命해서 「너는 秩宗(百神의 官을 叙次하는데 秩宗이라고 이름을 했음은 宗廟를 爲主로 했기 때문이다)을 任하노니 晝夜로 오직 恭敬해서 正直하고 清하게 하라」고 하니 伯夷는 稽首하고서 夔와 龍에게 讓步하니 舜帝는 좋다 가서 恭敬할 지어다」고 하셨다.

帝曰 咨汝二十有二人(四岳九官十二牧也) 欽哉惟時亮(明) 天功(舜典篇)

(譯) 帝舜曰—咨하노니 너를 二十二인(四岳九官 十二牧)아 恭敬하여 오직 때로 天功을 밝힐 지어다.

帝初于歷山 往于田 日號泣于旻天 于父母負罪引慝 祇載見 瞽瞍夔夔齊慄 瞽亦允若

(譯) 舜帝가 처음 歷山에 있을때 耕田하러 가서 하는님께 泣訴하사 父母에 對해 罪를 지고 慄을 끄이 恭敬해서 瞽瞍를 보는데 不安한 듯 恭敬하시니 瞽瞍도 感動하였다.

命禹曰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欽哉慎乃有位 敬修其可願(大禹謨篇)

(譯) 舜帝는 禹에게 命해서 「人心은 오직 危殆하고 道心은 오직 微弱하니 오직 精誠있게 오직 하나로 그 中庸을 잡아서 恭敬하고 삼가하여 너의 位를 가지고 그 可願함을 敬修할 지어다.

予違汝弼 汝無面從 退有後言 欽四隣

(譯) (舜帝는 禹에게) 내가 達德하거든 너가 諫해서 도우고 너는 面對해서 服從하고 退去해서 反對하지
를 달고 四隣에 恭敬하다.

阜陶庶載歌 又歌 帝拜曰 俞往欽哉(益稷篇)

(譯) 阜陶가 舜帝의 노래에 和答하고 또 노래를 하니 帝는 詰하고「 좋다 / 가서 恭敬할 지어다」고 하였다.

孔子曰 無爲而治者 其舜也歟 夫何爲哉 恭己正南面而已矣(論語衛靈公篇)

(譯) 孔子曰—無爲로서 治民한 이는 그 舜帝이신저 / 그가 무엇을 하였던가. 自己를 恭敬해서 바로 南面(政
治)했을 뿐이었다.

蔡氏曰 帝謂堯也 言堯既有光華 而舜又有光華 可合於堯 言其目 則深沉而有智文理而光明 和
粹而恭敬 誠信而篤實 有此四者

(譯) 蔡氏曰—帝는 堯를 이름이니 말하자면 堯가 이미 光華함이 있는데 舜도 또한 光華가 있어서(重華)可
히 堯에 合하였으니(協于帝) 그의 要目으로 말하면 深沉해도 智가 있고 文理해서 光明이 있고 和粹해서
恭敬이 있고 誠信에서 篤實하였으니 이 네가지가 있었던 것이다.

陳氏曰 自內形之外 則潛哲之發 乃所以爲文明 由外本乎內 則溫恭之實 乃所以爲允塞

(譯) 陳氏曰—內로 부터 外로 나타난즉 潛哲의 發함이 이에 文明이 된 所以이고 外로 由함은 內에 本하였
은즉 溫恭의 實함이 이에 允塞하게 된 所以인 것이다.

蔡氏曰 聖賢之於事 雖無所不敬 而敷五教 又事之大者 故特以敬言之

(譯) 蔡氏曰「聖賢이 事爲에는 비록 敬하지 않음이 없으나 五教를 피는 것은 또한 事爲中에서도 큰 것이기 때문에 特히 敬으로써 말씀하였다.

蔡氏曰 夙早寅敬畏也 直者心無私曲之謂人能敬以直內 不使少有私曲 則其心潔清無物慾之汚 可以交神明

(譯) 蔡氏曰「夙은 루이고 寅은 敬畏며 直이란 것은 마음에 私曲이 없음을 말함이니 사람이 能히 敬으로서 內를 다루어서 하여금 조금이라도 私曲되지 아니하게 하면 그 마음이 潔清해서 物慾의 汚染이 없이 可히 神明을 交할 것이다.

蔡氏曰 祇敬也 載事也言舜敬其子職之事 以見瞽瞍也 齊莊敬也 慄戰慄也 夔夔莊敬戰慄之容也 舜之敬畏小心 而盡於事親者如此

(譯) 蔡氏曰「祇는 敬이고 載는 事이니 말하자면 舜은 그의 子職의 일을 恭敬해서 瞽瞍를 보는데 齊는 莊敬함이고 慄은 戰慄함이며 夔夔는 莊敬하고 戰慄하는 貌樣이니 舜의 敬畏하고 小心해서 事親을 다했음이 이와 같은 것이다.

朱子曰 允執厥中者 堯之所以授舜也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者 舜之所以授禹也 堯舜禹天下之大聖也 以天下相傳 天下之大事也 其授受之際 丁寧告戒 不過如此 自是以來 聖相承 若成湯文武之爲君 皐陶伊傳周召之爲臣 既皆以此 而接夫道統之傳

(譯) 朱子曰「允執厥中」이란 것은 堯帝가 舜에게 傳授한 말씀이고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이란 것은 舜帝가 禹에게 傳授한 말씀이다. 堯舜禹는 天下의 大聖이고 天下로써 相傳함은 天下의 大事

이니 그의 授受할 때에 丁寧하게 告戒함이 이와 같은 것에 不過하니 그로부터 以後로는 聖聖이 相承해서 成湯 文王 武王의 君이 되고 阜陶 伊尹 傳說 周公 召公의 臣이 되었음이 이이다 이것으로서 그 道統이 傳해음을 接承하였던 것이다.

朱子曰 允執厥中 聖賢相傳 只是一箇敬字

(譯) 朱子曰「允執厥中」이란 聖賢이 相傳한 것이나 다만 이것은 一箇의 敬字인 것이다.

西山眞氏曰 敬之一言 堯舜禹湯文武以來傳心之要法

(譯) 眞西山曰「敬」의 한말은 堯帝 舜帝 禹王 湯王 文王 武王의 以來로 傳心해은 要法이다.

蔡氏曰 可願猶孟子所謂可欲 凡可願欲者皆善也 人君當謹其所居之位 敬修其可願欲者 苟有一毫之不善 生於心 害於政 則民不得其所者多矣

(譯) 蔡氏曰「可願」은 孟子의 所謂「可欲」과 같은 것이니 무릇 可히 願欲하는 것은 다 善한 것이다. 人君은 마땅히 그의 所居한 位를 삼가 해서 그의 願欲하는 것을 敬修하여 萬若에 一毫의 不善이라도 그 心上에서 生하여 그 政事를 害함이 있다면 百姓은 그의 適所를 얻지 못했음이 많을 것이다.

朱子曰 敬字當理會 雖堯舜之聖 亦只從這下來。

(譯) 朱子曰「敬字」는 마땅히 理會해야 하니 비록 堯舜의 聖德도 또한 다만 그에서 온 것이다.

又曰 敬是徹上徹下工夫做到 聖人境地也 只放下這個敬 不得如堯舜 只終始是一個敬 如說欽明文思 頌堯之德 四箇字獨將這個敬爲首 如說恭己正南面而已 如說篤恭而天下平皆是

(譯) 又曰—敬은 이것이 徹上徹下하게工夫해서 聖人の境地에까지 이르는 것이니 다만 그 한 敬字를 放下한다면 堯舜같이 될 수가 없을 것이니 다만 이 一箇의 敬字로서 終始해서「欽明文思」란 堯帝의 聖德을 頌한 四字를 말한것 같으면 獨히 그 敬을 가져다 首言으로 했으니「恭己正南面而已」나「篤恭而天下平」같은 것을 말 하여도 다 그러한 것이다.

又曰 自堯舜以來 便說這個敬字

(譯) 又曰—堯舜以來로 문득 그 敬字를 說한 것이다.

朱子曰 恭己者聖人敬德之容 既無所爲 則人之所見如此而已

(譯) 朱子曰—恭己란 것은 聖人の 敬德하는 容貌가 이미 所爲함이 없은즉 사람들이 본 바가 이와 같을 뿐이다.

新安陳氏曰 人不見其有爲之迹 可得見者臨御敬德之容耳

(譯) 陳新安曰—사람들이 그의 有爲한 事迹은 보지 못하고 可히 볼 수 있는 것은 臨御해서 敬德하는 容貌이 뿐인 것이다.

胡氏謂敬德之容 由外而知其內是也

(譯) 胡氏는 그「敬德之容」을 外로 由해서 內를 아는 이것이라고 하였다.

禹 文命敷于四海 祇承于帝(大禹謨篇)

(譯) 禹王은 文命이 天下에 펼쳐져서 舜帝에서 恭敬을 傳受하였다.

祇台得先不距(違) 朕行(禹貢篇)

(譯) 나의 德을 恭敬함에는 먼저 나의 行을 어기지 않는다고 하였다.

史記曰 聲爲律而身爲度 左準繩 右規矩

(譯) 史記曰—聲에는 律이 있고 身에는 度가 있고 左에는 準繩이 있고 右에는 規矩로 하였던 것이다.

孔氏曰 外布文德教命 內則敬承堯舜

(譯) 孔安國曰—外로는 文德의 教命을 宣布하고 內로는 堯舜을 敬承하였다.

蔡氏曰 祇敬也 禹既已布其文教 於四海矣 於是陳其謨 以敬承于舜也

(譯) 蔡氏曰—祇는 敬이니 禹는 이미 四海에 그 文敎를 宣布하고 이에 그 法을 배풀어 舜帝에게서 敬을 傳承하였다.

呂氏曰 聲教如此 亦已至矣 方祇承于帝無一毫自有意 禹有君民之大德 有事君之小心

(譯) 呂氏曰—聲敎가 이와 같으니 또한 이미 至極하였다. 必야호로 舜에서 敬을 傳承할때 一毫의 私意도 없었으니 禹는 民에 君될 大德이 있고 君을 事할 小心도 가졌던 것이다.

蔡氏曰 禹平水土 定土賦 建諸侯 治己定 功己成矣 當此之時 惟敬德以先天下 則天下自不能違

越我之所行也

(譯) 蔡氏曰—禹王은 水土를 平定하시와 土貢을 調定하시고 諸侯를 封建하시니 政治가 이미 定하였고 事

功이 이미 成하였다. 이때를 當해서 오직 敬德으로서 天下를 指導하였을즉 天下는 自然으로 그의 德行에 違反하지를 못하였던 것이다.

湯 湯降不遲 聖敬日躋 昭假遲遲 上帝是祇 帝命式于九圍(商頌長發篇)

(譯) 湯王 誕生 늦지 않아 聖敬으로 오르시어 假格함이 오라시니 하늘이 그 敬德에 九州天下 주시었네.

俾予一人 輯寧爾邦家 茲朕未知獲戾于上下 慄慄危懼 若將隕于深淵(書經湯誥篇)

(譯) 나 한사람으로 하여금 너의 邦家を 禱히 하니 이에 朕(我)는 上下神祇에 罪지을까 알지 못해서 戰慄하고 危懼하기 深淵에 빠질 것처럼 하노라.

欽崇天道 永保天命(仲虺之誥篇)

(譯) 天道를 崇敬하여 天命을 永保하시라.

盤銘曰 苟日新 日日新 又日新

(譯) 盤銘曰—진실로 日新하려는 날로 날로 새롭게 하고 또 날로 새롭게 하라.

顧諟天命 罔不祇肅 昧爽丕顯 懋敬厥德(太甲篇)

(譯) 옛적 先王은 이 天命을 돌아보사 인제라도 敬肅하여 未明에 일어나사 敬으로 그 德을 힘썼나이다.

朱子曰 祇敬式法也 湯之生也 應期而降其聖敬 又日躋升 以至昭格于天 久而不息 惟上帝是敬 故 帝命之 以爲法於九州也

(譯) 朱子曰「祇는 敬이고 式은 法이니 湯王이 誕生하심이 重要한 時期에 應해서 내리셔서 그의 聖敬하심이 또한 날로 上昇해서 天神에 昭格해서 오래도록 쉬지 않으시니 오직 하늘을 이 敬하기 때문에 上帝가 命하시 天下에 模範이 되게 하시었다.

慶源輔氏曰 言湯之敬 乃聖人之敬也 無一毫虧缺 無一息間斷 故能昭假于天 與天爲一也 以此觀之 則敬之一字 乃入聖之門 而學者成始成終之道 可見矣

(譯) 輔慶源曰「말하자면 湯王의 敬은 이것이 이 聖人の 敬이니 一毫의 缺點도 없고 一息의 間斷도 없기 때문에 能히 天神에 昭格해서 天神과 더불어 一致가 된 것이다. 이로써 본다면 敬의 一字는 이것이 聖人으로 들어가는 門이니 學者의 始와 終이 되는 大道임을 可히 알 것이다.

蔡氏曰 欽崇者 敬畏尊奉之意

(譯) 蔡氏曰「欽崇이란 것은 敬畏(欽)해서 尊奉(崇)하는 意味이다.

朱子曰 盤沐浴之盤也 銘名其器 以自警之辭也

(譯) 朱子曰「盤은 沐浴하는 盤이고 銘은 그릇에 이름을 새겨 自警하는 글이다.

華谷嚴氏曰 苟日新 日日新 又日新 是聖敬日躋之實 即文王之純亦不已也。

(譯) 嚴華谷曰「苟日新 日日新 又日新」이란 것은 이것이「聖敬日躋」하던 內實이니 即 文王의「純亦不已」하다고 함과 같은 것이다.

朱子曰 湯工夫全在敬字上看來 大段是修勅底人

(譯) 朱子曰 湯王之工夫는 全히 敬字에 있음을 보면 대개 그는 修勑하는 人物이었다.

朱子曰 聖人相傳 只是一箇字 聖人固未嘗不敬 如堯曰 欽明 舜曰 溫恭 湯曰 聖敬日躋是也

(譯) 朱子曰 聖人の 相傳하심은 다만 이 一箇의 敬字라 聖人은 진실로 敬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堯帝에는 「欽明」이라 하고 舜帝에는 「溫恭」이라 하고 湯王에는 「聖敬日躋」라고 하였음이 이것이다.

文王 穆穆文王 於緝熙敬止(詩經大雅文王篇)

(譯) 穆穆하신 文王이시여 / 언제라도 敬하셨네.

維此文王 小心翼翼 昭事上帝 聿懷多福 厥德不回 以受方國(大明篇)

(譯) 언제라도 文王님은 小心으로 翼翼하사 하나님을 섬기시니 그의 福도 많으셨다. 그의 德이 變하지 아니하여 四方國家 받으셨네.

雝雝在宮 肅肅在廟 不顯亦臨 無射亦保(思齊篇)

(譯) 宮室에는 和睦하고 廟當에선 嚴肅하사 神이 監視하시는듯 厭症없이 保全했네.

微猷懿恭 自朝至于日昃 不遑暇食(周書經無逸篇)

(譯) 微懿하신 柔恭으로(小民들을 保護하고 鰥寡를 救恤하시노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食事할 겨를도 없으셨다.

朱子曰 穆穆深遠之意 緝續 熙明 亦不已之意 止語辭 言穆穆然 文王之德 不已其敬如此

(譯) 朱子曰「穆穆은 深遠한 뜻이고 緝은 續이며 熙는 明이니 또한 말지 않는 뜻이고 止는 語助辭이니 말하자면 穆穆하신 文王의 德은 그 敬을 말지 않음이 그와 같았던 것이다.

華谷嚴氏曰 文王德容穆穆然可見 故穆穆足以形容之 所難言者 心之敬也 故緝熙不足以發 而又以於發之 緝熙敬止者 中庸之至誠無息也

(譯) 嚴華谷曰「文王의 德容이 穆穆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穆穆이란 말이 足히 말하기 어려운 心의 敬함을 形容한 것이다. 그러므로 緝熙만으로는 足히 表示할 수 없어서 또한 於」로서 發表하였으니「緝熙敬止」란 것은 中庸에「至誠無息」이란 것이다.

朱子曰 小心翼翼 恭慎之貌 即所謂敬也

(譯) 朱子曰「小心翼翼」은 恭慎하는 態度이니 바로 敬이라고 하는 것이다.

慶源輔氏曰 昭事上帝 言文王之敬 洞洞屬屬 終日對越上帝也 如此則盛大之福 自然來集 而文王之敬 自上直下 更無回曲之時 所以又能受四方來附之國也 一有回曲 則此心此理便絕 天人以上 皆不相管攝矣

(譯) 輔慶源曰「昭事上帝」란 것은 文王의 敬이 洞洞屬屬하여 終日도록 上帝를 對越했던 것을 말하였음이 이와 같은즉 盛大한 福이 自然히 來集해서 文王의 敬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 다시는 因曲할 때가 없으니 또한 能히 四方에서 來附하는 國家를 받는 所以인 것이라, 하나라도 因曲함이 없다면 이 心과 이 理가 문득 끊어져서 天人의 上下가 다 서로 管攝되지 못할 것이다.

豐城朱氏曰 聖人之德 敬爲大 上與天心合 下與人心合 故以之事天 非有心於求福 而自足以求多福 以之治人 非有心於求媚 而自足以受方國 其德之不回 即其心之敬者爲之也 使此心之敬 有一毫之空闕 一息之間斷 則不可謂之不回矣

(譯) 朱豐城曰 聖人の 德에는 敬이 重大하니 上으로는 天心과 合하고 下로는 人心과 合하기 때문에 이로써 事天을 하면 求福하는데 마음이 없어도 自足하게 多福을 求하게 되고 이로써 治人을 하면 求媚하는데 마음이 없어도 自足해서 諸國을 받게 되는 것이니 그 德을 論하지 않는 것은 바로 心의 敬함이 있기 때문이라 이 마음의 敬으로 하여금 一毫의 空闕이나 一息의 間斷이라도 있다면 論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朱子曰 離離和之至也 肅肅敬之至也 不顯幽隱之處也 射與數同厭也 保守也 言文王在閨門之內 則極其和 在宗廟之中 則極其敬 雖居幽隱 亦常有有臨之者 雖無厭射 亦常有所守焉 其純亦不已 蓋如是

(譯) 朱子曰 離離는 和가 至極함이고 肅肅은 敬이 至極함이며 不顯은 幽隱한 곳이고 射는 數과 같이 厭하는 것이며 保는 守함이니 말하자면 文王이 家庭의 內에 있어는 그 知를 至極히 하고 宗廟의 中에 있어는 그 敬을 至極히 하사 비록 幽隱한데 있어도 또한 恒常 監視하는 者가 있는 것이 하여 비록 침어함이 없어도 또한 恒常 지키는 바가 있었으니 그 純眞해서 또한 不已함이 대개 이와 같았던 것이다.

又曰 只觀離離在宮 肅肅在廟 不顯亦臨無射亦保 便可見敬 只是如此

(譯) 又曰 只觀 離離在宮 肅肅在廟 不顯亦臨 無射亦保 한데서 可히 敬을 볼수가 있음이 다만 이와 같았던 것이다.

華谷嚴氏曰 在宮則和在廟則敬 其誠隨所寓 而形見也 不顯之處 人所不見 而亦若有所臨 洋洋乎如在上也 無厭之時 踐履已熟 而亦自保守 悠久無間也

(譯) 嚴華谷曰 一宮중에 있어서는 和하고 宗廟에 있어서는 敬하여 그의 誠心이 간곳마다 나타나는 것이다 不顯한 곳에는 남들이 보지 못해도 또한 監視하는 바가 洋洋하게 上에 있는 것 같이 하고 無厭할 때에는 實踐함이 이미 익어서 또한 스스로 保守하여 悠久해도 間斷이 없는 것이다.

豐城朱氏曰 離離和之至也 所以爲治人之本也 肅肅敬之至也 所以爲事神之本也 不顯自其在己者言之 亦臨則指其在神者而言也 無射自其在人者言之 亦保則指其在己者而言也 己之所處 雖在於幽隱 而心之戒懼 則常若有臨之者 人之於我 雖無所厭射 而心之操存 則常若有所守焉 所以爲純亦不已之實也。

(譯) 朱豐城曰 一離離은 和의 至極함이니 治人하는 根本이 되는 所以이고 肅肅은 敬의 至極함이니 事神하는 根本이 되는 所以며 不顯은 그 自己에 있는 것으로서 말함이고 亦臨은 神明에 있는 것을 가리켜 말함이며 無射는 그 他人에 있는 것으로서 말함이고 亦保는 그 自己에 있는 것을 가리켜 말함이니 自己의 所處는 비록 幽隱에 있어서도 마음의 戒懼함은 恒常 監時하는 者가 있는 듯이 하여 他人이 自我에는 비록 厭射하는 바가 없어도 마음의 操存함은 恒常 固守하는 바가 있는 듯이 함이니 「純亦不已」의 實相이 되는 所以이다.

朱子曰 修齊治平 都少箇敬不得 如湯之聖敬日躋 文王小心翼翼之類皆是

(譯) 朱子曰 一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는 모두 敬이 아니면 될 수 없으니 湯王의 「聖敬日躋」와 文王의 「小心翼翼」의 類와 같은 것이 다 이것이다.

北溪陳氏曰 且如恭敬 古人皆如此着力 如堯之欽明 舜之溫恭 湯之聖敬 日躋 文王之緝熙 敬止 都是如此做工夫

(譯) 陳北溪曰 一 또한 恭敬은 古人이 다 이처럼 着力하였으니 堯帝의 「欽明」이나 舜帝의 「溫恭」이나 湯王의 「聖敬 日躋」나 文王의 「緝熙 敬止」와 같은 것이니 모두가 이와 같이 工夫한 것이다.

敬齋胡氏曰 讎讎在宮 肅肅在廟 不顯亦臨 無射亦保 此聖人之敬也

(譯) 胡敬齋曰 一 「讎讎在宮 肅肅在廟 不顯亦臨 無射亦保」라 한 것은 이것이 聖人의 敬하였음이다.

武王 踐阼三日 召師尚父 而問曰 黃帝 顓帝之道 可得 以見歟 曰 在丹書 王欲聞之 則齊矣 王齊三日 師尚父奉書而入 道書之言曰 敬勝怠者吉 怠勝敬者滅 義勝慾者從 慾勝義者凶 凡事不強則枉 不敬則不正 枉者滅廢 敬者萬世 王聞之 惕若恐懼 而乃爲戒 書於其几席 觴豆刀劍戶牖 而爲銘焉 (大戴禮踐阼篇)

其席銘曰 安樂必敬 無行可悔 一反一側 亦不可不志 殷鑑不遠 視爾所代 牖銘曰 隨天之時 以地之財 敬事皇天 敬以先時 (銘凡十有四 此不盡載)

(譯) 武王 即位한지 三日만에 大師인 太公望을 불러서 묻되 「黃帝 顓頊의 道를 可히 보게 할수가 있을까요」고 하니 曰 一 「丹書에 있습니다. 王께서 듣고자 하신다면 齊戒를 하소서」고 對答하였다. 그래서 王이 三日을 齊戒하니 太公이 冊을 가지고 들어와서 冊에 있는 말을 하되 「敬이 怠를 이기는 者는 吉하고 慾가 敬을 이기는 者는 滅하며 義가 慾을 이기는 者는 從하고 慾이 義를 이기는 者는 凶함이다. 凡事는 不強하면 枉해지고 不敬하면 不正해 지니 枉한 者는 廢滅이 되고 敬하는 者는 萬世나 갈 것임이다」고 하니 武王이 듣고서 惕然

하게恐懼하는 듯하더니 그를警戒로 해서 几席 觴豆 刀劍 戶牖 등에다가 써 붙여서 銘으로 하였다. 그의 席 銘에는 安樂할 때 반드시 敬해서 後悔할 行爲는 하지 말고 한번 反하고 한번 側담에는 또한 뜻을 두지 아니 해서 는 아니 되니 殷鑑은 먼 것이 아니라 너의 代替한 바를 보라」고 하고 또 牖銘에는 天의 時를 따르고 地의 財를 가져서 敬하여 皇天을 섬기는데 敬으로서 先時로 하라」(銘이 모두 十四나 되나 이에 는 다 記載하지 못함)

予小子夙夜祇懼 受命文考 類于上帝 宜于冢土 以與爾有衆 底天之罰 (周書泰誓篇)

(譯) 나小子는 夙夜로 敬懼해서 先考文王에게 受命하여 上帝에 祭祀하고 土地에도 告祀하여 너희들 大衆으로서 天의 罰을 (商紂에게) 주노라.

亦越文王武王 克知三有宅心 灼見三有俊心 以敬事上帝 立民長伯 (立政篇)

(譯) 또한 文王과 武王은 세가지의 宅心(마음먹음)이 있음을 잘 알고 세가지의 俊心(마음을 고침)이 있음도 밝게 보시고 敬으로서 上帝를 섬기시고 民間에 長伯을 세우셨다.

西山眞氏曰 武王之始踐祚也 訪丹書於太公 可謂急於聞道矣 而太公所告 不出於敬與義之二言 武王聞之 惕若戒懼 而銘之器物以自警 蓋恐斯須不存 而怠與欲得乘其隙也

(譯) 眞西山曰 武王이 처음으로 即位하시고 太公에서 丹書를 찾았으니 可히 聞道하기에 急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太公의 對答한 바가 敬과 義의 二言에 不過한데 武王이 그것을 듣고는 惕然하게 戒懼해서 器物에다 새겨서 自警하였으니 大개 暫時라도 敬과 義가 있지 않으면 怠와 慾이 그 틈을 타고 올라 두려워 했기 때문이다.

蔡氏曰 言予小子畏天之威 早夜敬懼 不敢自寧也

(譯) 蔡氏曰 「予小子畏天之威 早夜敬懼」라고 말 하였음은 敢히 스스로 편할수 없었기 때문이다.

陳氏曰 紂之惡在不敬上天 文王之德 在肅將天威 武王之德 在夙夜祇懼 敬與不敬 聖狂分焉 興亡判焉

(譯) 陳氏曰 紂의 惡은 上天을 不敬함에 있었으나 文王의 德은 天威를 肅畏하였음에 있고 武王의 德은 夙夜로 抵懼하였음에 있었으니 敬하고 不敬하는데에 聖과 狂이 나누어 지고 興과 亡이 判斷되는 것이다.

周公 周公之事文王也 行無專制 事無由己 身若不勝衣 言若不出口 有奉持於文王 洞洞屬屬 如將不勝 如恐失之 可謂能子矣 (淮南子汜論篇)

(譯) 周公이 文王을 섬기시는 데는 行動에는 任意로 함이 없고 事爲에는 固執함이 없으며 몸은 옷도 이기지 못할듯 하시고 말은 입에 나오지도 못할듯 하시며 文王을 받드는 데는 洞洞하고 屬屬해서 이기지 못할듯도 하고 일을까 겁내는 듯도 하였으니 可히 能子라고 할수가 있는 것이다.

公不敢不敬天之休 來相宅其作周匹休 (洛誥篇)

(譯) 公은 하나님 의 休命을 敢히 不敬하지 못하시와 相宅하여 周의 休命에 當하도록 하셨다.

公曰 我亦不敢 寧于上帝命 (君奭篇)

(譯) 周公曰 나는 또한 敢히 上帝의 命에 安心할수는 없노라.

思兼三王 以施四事 其有不合 仰以思之 夜以繼日 坐以待旦 (孟子離慶篇)

(譯) 생각은 三王(禹王 湯王 文王)을 兼하사 써 四事(當辭 當變 當象 當占)를 施하시나 그 不승한 것이 있으면 우리로서 생각하여 년부터 밤까지 이르고 일찍 일어나 해뜨기를 기다렸던 것이다.

公孫(遜) 碩膚 亦息凡凡 得音不瑕(廬風狼跋篇)

(譯)周公은 遜順하사 冕服으로 整齊하여 그 德音이 缺点없네.

吳氏(訥)曰 行無專制 必稟命也 事無由己 凡事不專決也 身若不勝衣 持身之謹 若怯懦也 言若不出口 言常謹慎也 至若奉物於父 則又極乎質懇專一之心 常如不勝 而有失墜者 可謂能盡子道者矣(小學集解)

(譯) 吳訥曰 「行無專制」라 함은 반드시 稟命한 것이고 「事無由己」란 것은 凡事를 自意로 하지 않았는 것이며 「身若不勝衣」라 함은 持身을 삼가함이 怯弱한듯도 하고 「言若不出口」라 함은 말을 恒常 謹慎한 것이다. 父親에게 物件을 받들때 또한 恭敬함을 極해서 專一한 마음이 恒常 無能해서 失墜함이 있는 듯하게 하였으니 可히 子息의 道理를 다 했다고 말 할수 있는 것이다.

朱子曰 三王禹湯文武也 待且急於行也 孟子歷叙羣聖 以見其憂勤惕厲之意 蓋天理之所以常存而人心之所以不死也

(譯) 朱子曰 「三王은 禹王 湯王 文王과 武王이고 待且은 實行하기에 急한 것이다. 孟子가 여러 聖人을 모두어서 그의 憂勤하고 惕厲한 뜻을 보이셨으니 대개 天理는 그로써 常存하고 人心은 그로써 不死한 것이다.

又曰 讀此使人心 惕然而常存也

(譯) 又曰—이 글을 읽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이惕然해서 常存하게 하는 것이다.

雲峯胡氏曰 聖人之所以爲聖人者 只是憂勤惕厲 須臾毫忽 不敢自逸 理無定在 惟勤則常存 心本活物 惟勤則不死 常人不能憂勤惕厲 故人欲肆 而天理亡 身雖存 而心已死 豈不大可哀哉

(譯) 胡雲峯曰—聖인이 聖人되는 所以는 다만 이것이 憂勤하고 惕厲해서 暫時라도 毫忽해서 敢히 自逸하지 아니 하였다. 理는 定在한 것이 아니라 오직 勤하면 常存하고 心은 본디 活物이라 오직 勤하면 不死하는 것이다. 그러나 常人은 能히 憂勤하고 惕厲하지 못하기 때문에 人慾대로 해서 天理가 亡해지니 몸은 비록 살아도 마음은 이미 죽어진 것이니 어찌 크게 슬퍼해야 하지 않을까.

慶源輔氏曰 周公皇皇汲汲 不己之誠如此 學者苟能心體 而默識之 則聖人之心與理昭昭 常存不死 而在吾心目之間矣

(譯) 輔慶源曰—周公은 皇皇하고 汲汲하여 끊임없는 誠心이 이와 같으니 學者가 萬若 能히 마음에 體得해서 默識한다면 聖人의 心과 理가 昭昭히 常存해서 죽지 않아서 내 心目의 間에 있을 것이다.

程子曰 周公之處己也 夔夔然存恭畏之心 其存誠也 蕩蕩然無顧慮之意 所以不失其聖 而得音不瑕也

(譯) 程子曰—周公이 處身함에는 危殆한듯 恭畏하는 마음이 있고 그의 存誠함에는 蕩蕩하게 顧慮하는 뜻은 없었으니 그것이 聖을 잃지 아니하여 德音에 缺點이 없었던 所以인 것이다.

朱子曰 公遭流言之變 而其安肆自得 乃如此 蓋其道隆德盛 而安土樂天 有不足言者 所以遭大

變而不失其常也

(譯) 朱子曰 周公은 流言의 變을 만나서도 그 安肆해서 自得함이 이와 같으니 대개 그의 道가 높고 德이 盛해서 安土하고 樂天함이 足히 말할수 없는 것이 있음은 大變을 當하여도 그의 常道를 잃지 않았던 所以인 것이다.

孔子 溫良恭儉讓(論語學而篇) 溫而厲威而不猛恭而安(述而篇) 燕居申申如也 夭夭如也(上同)

(譯) 孔子는 溫順하시고 善良하시며 恭敬하시고 儉素하시며 謙讓하시다. 溫順하시고도 嚴厲하시며 威嚴이 있어도 猛暴하지는 않으시고 恭敬하고 安定하시다. 平居에는 伸伸한듯 하시고 夭夭한듯 하시다.

於鄉黨恂恂如也 似不能言者(鄉黨篇下并同) 其在宗廟朝廷 便便言 惟謹爾

(譯) 鄉黨에 계실때는 溫恭하시와 能히 말도 못하는듯 하시고 그 宗廟나 朝廷에 계실때는 말을 잘 하시나 오직 삼가 하시다.

君在蹶躅如也 與與如也。君召使擯 色勃如也 足躩如也

(譯) 君이 계실때는 敬畏하는 듯하나 親近하는듯 하시다. 君이 불러서 接賓을 시키면 色은 莊敬하시고 足은 逡巡하시다.

入公門鞠躬如也如不容 過位色勃如也 足躩如也 其言似不足者

(譯) 公廳에 들어갈 때는 鞠躬하는 듯하사 容納되지 않는 듯이 하시다. 임금의 居位를 지날때는 발이 굽은 듯하고 그 말이 不足한 듯이 하셨다.

攝齊升堂 鞠躬如也 屏氣似不息者 出降一等 逞顏色 怡怡如也 沒階趨翼如也 復其位 蹠蹠如也

(譯) 옷을 여미고 마루에 오를 때는鞠躬하는 듯 하고서 屏氣해서 숨도 쉬지 않는 듯이 하시다. 그리고 退廳하여 一階段을 내려서면 顏色이 풀려서 和樂하는 듯 하고서 階段을 다 내려서면 나는 듯이 가시고 본자리로 돌아 와서는 敬畏하는 듯 하셨다.

執圭鞠躬如也 如不勝 上如揖 下如授 勃如戰色 足蹠蹠如有循 寢不尸 居不容

(譯) 他國에 使臣으로 가실 때 圭를 잡는 데는 鞠躬하사 이기지 못한 듯 하시어 올릴 때는 揖하고 내릴 때는 授하는 듯한 姿勢로 하사 莊敬하셔서 氣色은 戰慄한 듯 하고서 받은 조금씩 더어서 따라가는 듯 하시다. 잠잘 때는 尸같이 아니 하시고 平居 때는 緊張하지 않으시다.

見齊衰者 雖狎必變 見冕者與韜者 雖褻必以貌 凶服者式之 式負版者

(譯) 齊衰服은 者를 보면 비록 親해도 반드시 態度를 變하시며 高官이나 盲人을 보면 비록 私服이라도 반드시 禮貌를 하시고 凶服을 입은 者에게는 구부리고 戶籍簿를 진 者에게는 구부리시다.

迅雷風烈必變 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爲政篇)

(譯) 雨雷가 울리고 烈風이 불면 반드시 態度를 變하시다. 七十歲가 되어서는 마음대로 하셔도 法度에 어긋나지 않으셨다.

宰我曰 以予觀於夫子 賢於堯舜遠矣

(孟子公孫丑篇)

(譯) 宰我曰—나로서 先生님을 보면 賢哲하기가 堯舜보다도 더 하셨다.

子貢曰 由百世之後 等百世之王 自生民以來未有盛於夫子也(孟子)

(譯) 子貢曰—百世의 下에 있어서 百世의 王과 같으시니 人間이 생긴 以來로는 아직 先生님 같으신 人이 없었습니다.

朱子曰 溫和厚也 良易直也 恭莊敬也 (西山眞氏曰。莊主容。敬主心。自中發外。故曰恭也) 儉節制也 讓謙遜

也 五者夫子之盛德光輝 接於人者也 聖人過化存神之妙 未易窺測 然即此而觀則其德盛禮恭而

不願乎外 亦可見矣

(譯) 朱子曰—溫은 和厚함이고 良은 易直함이며 恭은 莊敬함이고 (西山眞氏曰—莊은 얼굴을 주로 함이고 敬은 마음을 주로 함이니 中心에서 外形으로 發表되기 때문에 恭이라고 하였다) 儉은 節制며 讓은 謙讓이니 五者는 孔夫子の 盛德光輝가 사람들에게 接하신 것이다. 聖人의 過化存神하신 妙理는 쉽게 엿볼수 없는 것이나 이에서 보면 그 德이 盛하고 禮로 恭해서 外의 것은 願하지 않으셨음을 또한 可히 볼 것이 다.

謝氏曰 學者觀於聖人威儀之間 亦可以進德矣 今去聖人千五百年 以此五者想見其形容 尚能使人興起 而況於親炙之者乎

(譯) 謝氏曰—學者는 聖人의 威儀間에 또한 可히 進德함을 볼 것이다. 至今에 聖人과 相距가 一千五百年이나 이 五者로서 그의 形容을 想見해도 오히려 能히 사람으로 하여금 興起를 시키는 데 하물며 親炙(親히 感化를 받은 것)를 받은 者일까.

林氏(少穎)曰 形容聖人之盛德 必惟其著見者言之 堯曰欽明文思 舜曰濬哲文明 溫恭允塞 湯曰齊

聖賢淵 文王曰徽柔懿恭夫子曰 溫良恭儉讓 皆以其德之著者 言之也

(譯) 林少穎曰—聖人の 盛德을 形容함은 만드시 오직 그의 나타난 것만으로서 말한 것이니 堯에는「欽明文思」라고 舜에는「濬哲文明 溫恭允塞」이라고 하고 湯王에는「齊聖廣淵」이라고 하고 文王에는「徽柔懿恭」이라고 하고 孔夫子에는「溫良恭儉讓」이라고 하였으니 다 그의 德이 나타난 것을 말한 것이다.

朱子曰 厲嚴肅也 人之德性 本無不備 而氣質所賦 鮮有不偏 惟聖人全體渾然 陰陽合德 故其中和之氣 見於容貌之間者如此 程子謂須是恭而安 初學如何便得安 除是孔子方恭而安

(譯) 朱子曰—厲는 嚴肅한 것이니 人間の 德性은 본디 具備하지 않음이 없으나 氣質은 단 것이 偏僻하지 않음이 드문데 오직 聖人만은 全體가 渾然해서 陰陽이 合德하기 때문에 그 中和의 氣가 容貌의 間에 나타나 이 이와 같았던 것이다. 程子는 「모름지기 恭해서 安하다」고 했으니 初學者가 어찌 해야만 바로 安하게 될까. 하면 孔子는 바로 恭해서 安하셨다.

朱子曰 燕居閒暇無事之時 此只是燕居如此 在朝及接人 又不然

(譯) 朱子曰—燕居는 閒暇無事할 때이니 이것은 다만 燕居에는 이렇게 했으나 朝廷이나 對人해서는 또한 그렇지 않으셨다.

楊氏曰 申申其容舒也 夭夭其色愉也

(譯) 楊氏曰—申申은 그 容態가 安叙함이요 夭夭는 그 顔色이 愉和함이다.

程子曰 此弟子善形容聖人處也 爲申申字說不盡 故更着天天字 今人燕居之時 不怠惰放肆 必

太嚴厲 嚴厲之時 着此四字不得 怠惰放肆時 亦着此四字不得 惟聖人便自有中和之氣

(譯) 程子曰「 이것은 弟子가 聖人을 잘 形容한 것이다. 申申하다는 字만으로는 말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天天하다는 字를 붙인 것이다. 只今 사람들은 燕居할 때는 怠惰하고 放肆하지 아니 하면 반드시 너무 嚴厲하니 嚴厲할 때는 이 四字 (申申天天)를 붙일 수도 없고 怠惰放肆할 때도 또한 이 四字를 붙일 수 없는 것이나 오직 聖人만은 문득 스스로 中和의 氣가 있는 것이다. 」

南軒張氏曰 燕居時在衆人 易以怠肆 君子則未免矜持 安有此氣象

(譯) 張南軒氏曰「 燕居할 때는 衆人에 있어서는 怠肆하기 쉬우나 君子만은 矜持함을 免하지 못하니 어찌 이런 氣象이 있으리오. 」

朱子曰 恂恂信實貌 似不能言者 謙卑遜順 不以賢知先人也 鄉黨父兄宗族之所在 故其容貌辭氣 如此 便便辯也 宗廟禮法之所在 朝廷政事之所出 言不可以不明辯 故必詳問 而極言之 但謹而不放爾

(譯) 朱子曰「 恂恂은 信實한 貌樣이고 「似不能言者」는 謙卑遜順해서 賢知로서 남에 앞서지 않는 것이다. 鄉黨은 父兄과 宗族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의 容貌辭氣가 이와 같이 便便하게 能辯하였고 宗廟는 禮法이 있는 곳이고 朝廷은 政事가 나는 곳이니 말을 明辯하게 하지 아니 해서 는 아니 되기 때문에 반드시 詳問해서 極言하셨으나 다만 삼가해서 放心하지 아니 하셨던 것이다. 」

朱子曰 君在視朝也 蹶蹶恭敬不寧之貌 與與威儀中適之貌

(譯) 朱子曰「 君在 視朝에서 볼때고 「蹶蹶」은 恭敬해서 편하지 않는 貌樣이며 「與與」는 威儀가 中道

에 맞는 貌樣이다.

朱子曰 勃變色貌 踴盤辟貌 皆敬君命故也。

(譯) 朱子曰 一勃은 變色하는 貌樣이고 踴은 盤辟하는 貌樣이니 다 君命을 恭敬하기 때문이다.

朱子曰 鞠躬曲身也 公門高大 而若不容敬之至也

(譯) 朱子曰 一鞠躬은 몸을 굽히는 것이니 公門은 高大한데도 容納되지 않는 듯이 하심은 敬이 至極하기 때문이다.

朱子曰 位君之位 君雖不在 過之必敬 不以處位 而慢之也 言似不足 不敢肆也

(譯) 朱子曰 一位는 君의 앞는 자리이니 君이 비록 不在해도 지나는 데는 반드시 敬하셨으니 虛位라고 해서 無視하지 않으심이고 말이 不足한듯 함은 敢히 放肆하지 않으신 것이다.

朱子曰 攝攝也 齊衣下縫也 屏藏也 息鼻息出入者也 近至尊 氣容肅也

(譯) 朱子曰 一攝은 攝하는 것이고 齊는 옷에 下縫이며 屏은 藏하는 것이고 息은 숨이 出入하는 것이니 至尊에 가까이 할때는 氣容을 肅하게 하심이다.

朱子曰 等階級也 逞放也 漸遠所尊 舒氣解顏 怡怡和悅也 沒階下盡階也 趨走就位也 復位蹶蹶 敬之餘也

(譯) 朱子曰 一等은 階級이고 逞은 放이니 漸漸君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緊張한 顏色을 푸는 것이니 怡怡는

和悅함이고 沒階는 階段을 다 내려온 것이며 趨는 제자리로 가는 것이고 復位해서 踧踏함은 敬하는 餘勢인 것이다.

朱子曰 圭諸侯命圭 如不勝執主器 執輕如不克 敬謹之至也 上如揖下如授 謂執圭平衡 高不過揖 卑不過授也 戰色戰而色懼也 踧踏舉足促狹也 如有循記所謂舉前曳踵 言行不離地 如緣物也 (譯) 朱子曰 圭는 諸侯가 주는 圭玉이니 主器를 잡는데 못이기는 듯이 하거나 가벼운 것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敬謹함이 至極한 것이고 「上如揖 下如授」는 圭玉을 잡는데 平衡하여 높혀도 揖하는 程度에 지나지 아니하고 下如授는 禮度에 지나지 아니 하였다. 戰色은 戰懼해서 顔色이 겁내는 것이고 踧踏은 발걸음을 음계 함이며 「如有循」은 禮記에 所謂「발가닥을 들고 발 뒤꿈치는 그는 것」이니 말하자면 踐는 발이 땅을 뜨지 않고 붙은 듯이 하였다는 것이다.

朱子曰 尸謂偃臥似死人也 居居家 容容儀 寢不尸 非惡其類於死也 惰慢之氣 不設於身體 雖舒布其四體 而亦未嘗肆耳 居不容非惰也 但不若奉祭祀 見賓客而已申申夭夭是也。

(譯) 朱子曰 尸는 죽은 屍體처럼 누웠는 것이고 居는 居家함이며 容은 容儀니 「寢不尸」는 그것이 죽은 것 같음을 싫어함이 아니라 惰慢한 氣를 身體에 發作하지 아니하게 한 것이니 비록 四肢를 펼쳐도 또한 일찌기 故步하지는 않았으며 「居不容」은 怠惰하지 않음이나 다만 祭祀를 받들고 賓客을 보는 것처럼 할 뿐만 아니라 申申하고 夭夭하다는 것이 이것이다.

朱子曰 狎謂素親狎 褻謂燕見貌 謂禮貌 式車前橫木 有所敬 則俯而憑之 負版持邦國圖籍者 式此二者 哀有喪 重民數也 人惟萬物之靈 而王子之所天也 故周禮獻民數於王 王拜受之 况其下

者 敢不敬乎

(譯) 朱子曰 坤은 平居에 本 것을 말한 것이며 貌는 禮貌를 말한 것이다. 式은 車前의 橫木이니 敬意를 表할 때는 구부러서 俯支하는 것이고 負版은 國家의 戶籍을 가진 者이니 이 二者에 敬式하는 것은 喪主를 哀悼하고 乘人을 尊重한 것이다. 人間은 萬物의 靈長으로서 王者도 하늘처럼 높이는 바이기 때문에 周禮에는 여러 人數를 王에게 드리면 王은 禮하고 받는다 하였고 하였고 하니 하물며 下民된 者로서 敢히 敬式하지 아니 해서 될까.

朱子曰 迅疾也 烈猛也 必變者所以敬天之怒 記曰若有疾風迅雷甚雨 則必變 衣服冠而坐

(譯) 朱子曰 迅은 빠른 것이고 烈은 모진 것이며 必變이란 것은 하늘님의 震怒하심을 敬畏한 것이니 禮記에는 萬物에 疾風과 迅雷가 甚할것 같으면 반드시 態度를 變해서 衣冠을 하고 坐定하라고 하였던 것이다.

朱子曰 矩法度之器 所以爲方者也 隨其心之所欲 而不過於法度 安而行之 不勉而中也

(譯) 朱子曰 矩는 法度의 器로서 方形을 만드는 것이다. 그 마음의 欲求하는대로 따라 해도 스스로 法度에 지나지 않으니 自然히 實行이 되어 힘쓰지 않아도 道에 맞는 것이다.

問 二程教人持敬 若每事加敬 則動靜語默 在規矩之內 久久精熟 有從心所欲 不踰矩之理 曰修身齊家治國平天下 都少箇敬不得 如湯之聖 敬日躋 文王之小心 翼翼 皆是 只是它便與敬爲一家 須用持着 少援則便忘了 所以常要惺惺地 久之成熟 可知道從心所欲 不踰矩

(譯) 누가 묻되 二程子가 사람들에게 持敬을 가르쳤는데 萬物에 每事에 敬만 加하면 動靜과 語默이 規矩

法度の内에 있어서 오래 되면 精熟해서 마음의 欲求하는대로 따라 해도 法度에 넘어 가지 않는 理數가 있는가」고 하니 答曰「修身齊家治家平天下는 도무지 그 敬이 적으면 될 수가 없는 것이니 湯王의 「聖敬日躋」나 文王의 「小心翼翼」같은 것이 다 이것이니 다만 이것이 바로 敬과 더불어 이이 되는 것이다. 自己가 모를지기 堅持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弛緩하면 문득 잊어 버리는 것이다. 恒常惺惺한 心地를 要하는 所以로서 오래도록 成熟하면 可히 道를 알아서 「從心所欲하여도 不踰矩하게」되는 것이다.

感興詩曰 放勛始欽明 南面亦恭己 大哉精一傳 萬世立人紀 猗與嘆日躋 穆穆歌敬止 戒矜光武烈 待旦起周禮 恭惟千載心 秋月照寒水 魯叟何常師 刪述存聖軌

(譯) 感興詩에는 曰「堯帝는 비로소 欽明하셔서 南面해서 自己를 恭敬하셨네 偉大하다 精一로 傳했음이여 萬世에 人紀를 세우셨도다. 거룩하다 날로 오름을 感嘆하오니 穆穆하게 敬에 止함을 노래하셨네. 大犬을 警戒함은 光武功이고 周公을 기다려 周禮지었네. 恭敬해서 생각하니 千事마음은 가을달이 寒水에 비치었도다. 孔子를 어찌 恒常 師事하는가 經書를 刪述함에 聖法이 있기에.

西山眞氏曰 坤六二敬義 自黃帝而武王 自武王而孔子 其實一道也

(譯) 眞西山曰「坤卦의 六二에 敬과 義는 黃帝로부터 武王이나, 武王으로부터 孔子에로 그의 實은 한道인 것이다.

朱子曰 聖人未嘗不敬 但自是聖人之敬 與凡人以下不同

(譯) 朱子曰「聖人은 언제나 敬하지 않음이 없으나 다만 스스로 그 聖人の 敬은 凡人以下の 敬과는 같지 않은 것이다.

西山眞氏曰 聖人之敬 純亦不已 即天也 君子之敬 自強不息 由人而天也 聖人之敬 安而行之

(譯) 眞西山曰 一聖人の 敬은 「純亦不已」함이니 곧 天이고 君子의 敬은 自強해서 不息함이니 人間으로 갈 미암아서 天으로 가나 聖人の 敬은 純하게 行해지는 것이다.

顏子 顏淵問仁 子曰 克己復禮爲仁 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焉 爲仁由己 而由人乎哉 顏淵曰 請

問其目 子曰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顏淵曰 回雖不敏 清事斯語矣 (論語顏淵篇)

(譯) 顏淵이 仁을 물었는데 孔子께서 「克己해서 禮로 돌아감이 仁이 되나니 하루라도 克己해서 禮로 돌아가면 天下가 仁으로 돌아갈 것이니 仁을 함은 自己에서 由하는 것이지 他人에서 由하는 것일까」고 하셨다.

顏子는 請하진데 「그의 條目을 묻습니다」고 하니 孔子께서는 「禮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禮가 아니면 듣지도 말며 禮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禮가 아니면 움직이지도 말라」고 답하셨다. 顏子는 「저 비록 不敏해도 請하진 데 이 말을 일삼겠나이다」고 하였다.

不遷怒 不貳過 (雍也篇) 三月不違仁 (上同)

(譯) 顏子는 忿怒를 옮기지 아니 하고 過失을 두번하지 아니 하였다. 三個月동안 繼續해서 仁을 어기지 아니 하였다.

朱子曰 非禮者己之私也 勿者禁止之辭 是人心之所以爲主 而勝私復禮之機也 勝私則動容周旋 無不中禮 而日用之間 莫非天理之流行矣

(譯) 朱子曰 一非禮란 것은 自己의 私慾이고 勿이란 것은 禁止하는 말이니 이것은 人心을 主로 해서 私慾을 이기고 禮로 돌아가는 動機가 되는 所以인 것이다. 私慾을 이기면 動容하고 周旋함이 禮에 맞아서 日

用하는 사이에 天理가 流行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又曰 此乃傳授心法切要之言 非至明不能察其幾 非至健不能致其決 故惟顏子得聞之 而凡學者亦不可以不勉也

(譯) 又曰—이것이 傳授하는 心法에 切要한 말씀이니 至明이 아니면 能히 그 幾微를 살필수가 없는 것이 고 至健이 아니면 能히 그의 決斷을 이룰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顏子는 그것을 얻어 들었으니 凡 學者는 또한 힘쓰지 아니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又曰 顏子平生 只是受用 克己復禮 四個字

(譯) 又曰—顏子는 一平生에 다만 이 「克己復禮」四字만을 受用했던 것이다.

程子曰 敬即便是禮 無己可克

(譯) 程子曰—敬은 바로 이것이 禮이니 自己를 이길 것도 없는 것이다.

又曰 視聽言動 不敢非禮 乃所以事天也

(譯) 又曰—視聽言動을 敢히 非禮로 하지 못하는 이것이 事天하는 所以인 것이다.

程子曰 敬以直內 義以方外 所以爲克己復禮也

(譯) 程子曰—「敬以直內 義以方外」하는 것은 克己復禮」하는 所以인 것이다.

又曰 顏子之不惰者敬也

(譯) 又曰—顏子之情忘하지 않는 것이 敬이었던 것이다.

程子曰 顏子與聖人相距 一息所未至者守之也 非化之也 以其好學之心 假之以年 則不日而化矣
 (譯) 程子曰—顏子は 聖人과의 相距가 一息間이니 아직 이르지 못한 것은 지키는 것이고 化하는 것은 아
 니나 그 好學하는 마음으로서 몇年만 더 살았으면 不日間에 化할 것이다.

又曰 人須是學顏子 入聖人爲近 有用力處

(譯) 又曰—人間은 모름지기 이 顏子의 배우던 것을 배우면 聖人으로 들어가기가 가까울 것이니 用力할
 곳이 있는 것이다.

問 顏子請事四勿者 亦只是持敬否 朱子曰 學莫要於持敬 故伊川謂敬 則無己可克 顏子止是持敬
 (譯) 누군가「顏子의 四勿을 實行하려고 한 것은 또한 이것이 持敬하는 것인가」고 물으니 朱子曰—學間에
 는 持敬보다 더 緊要한 것은 없기 때문에 伊川은 敬하기만 하면 이겨야 할 自己도 없다고 하였으니 顏子는
 이 持敬에만 그쳤던 것이다.

又曰 敬則無己可克 其說高矣 然夫子當時 只告顏子以克己復禮而已 蓋敬是常常存養底道理 克
 己是私欲發時 便與克除去 兩不相妨

(譯) 又曰—敬만 하면 自己를 이길 것도 없다고 하는 그 말은 높은 것이다. 그러나 孔子께서는 當時에 다
 만 顏子에게 「克己復禮」만으로서 告하셨으니 대개 敬은 이것이 恒常 存養하는 道理이고 克己는 이것이 私
 慾이 發할 때 바로 이겨버리는 것이니 두가지는 서로 妨害되는 것이 아니다.

又曰 敬則無己可克者 是無所不敬 故不用克己 此是大敬 如聖敬日躋 於緝熙敬止之敬也

(譯) 又曰 一敬하기만 하면 自己를 이길 것도 없다는 것은 이것이 不敬함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克己를 쓰지 않는 것은 이것이 큰 敬이니 「聖敬日躋」나 「於緝熙敬止」라는 敬같은 것이다.

又曰 能純於敬 則自無邪僻 何用克己 若有邪僻 只是敬心不純 只可責敬 故敬則無己可克

(譯) 又曰 一能히 敬에만 純全하면 스스로 邪僻함이 없을 것이니 무슨 克己가 必要할까. 萬若에 邪僻함이 있는 것은 다만 이것이 敬心이 不純한 것이니 다만 可히 敬을 要하기 때문에 敬만하면 自己를 이길 것도 없을 것이다.

又曰 敬是涵養操持不走作 克己則和根打併了 教它進靜

(譯) 又曰 一敬은 이것이 涵養하고 操持해서 마음이 달아나지 않는 것이고 克己는 根據를 쳐버려서 남에게 靜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又曰 敬如治田 而灌溉之功 克己則是去其惡草也

(譯) 又曰 一敬은 治田을 하는데 灌溉하는 功과 같은데 克己함은 이것이 그 惡草를 除去하는 것이다.

問 持敬克己工夫 相資相成否 曰 若不敬則此心散慢 何以能克己 若不克己 非禮而視聽言動 安能爲敬

(譯) 누가 「持敬하고 克己하는 工夫는 서로 資해서 되는가」고 물으니 答曰 一萬若에 不敬하면 이 마음이 散漫해서 어찌 能히 克己할수가 있을까. 萬若에 克己를 하지 못해서 禮가 아닌데도 視聽言動을 한다면 어찌

能히 敬이 될수 있을까.

又曰 程子言敬 必以整齊嚴肅 正衣冠 尊瞻視爲先 又言未有箕踞 而心不慢者 如此乃是至論 而先聖說克己 復禮尋常講說於禮字 每不快意 必訓作理字 然後己 今乃知其精微縝密 非常情所可及耳 (答林擇之書)

(譯) 又曰 程子가 敬을 말하는데는 반드시 「整齊嚴肅 正衣冠 尊瞻視」로서 先으로 한다 하고 또 말하되 「그箕坐를 하고서 마음이 倨慢하지 않는 者가 없다」고 하였으니 이와 같은 말씀이 이 至論이다. 先聖이 「克己復禮」를 말씀하시고 尋常한 講說을 하시는데 禮字에는 每樣快意하지 않고 반드시 理字를 訓으로 한 然後에야만 그만 하셨으니 只今 이에 그의 精微하고 縝密함은 常情으로서는 可及할 바가 아닌 것이다.

又曰 克己之目不及思 竊謂洪範五事 以思爲主 蓋不可見 而行乎四者之間也 然操存之漸 必自其可見者 而爲之法 則切近明白 而易以持守 故五事之次 思最在後 而夫子於此 亦偏拳四勿 而不及夫思蓋欲學者 循其可見 易守之法 以養其不可見 不可係之心也 至於久而不懈 則表裏如一 而私意無所容矣

(譯) 又曰 克己하는 要目에 思까지는 들지 않았으나 나는 洪範의 五事에는 思로서 主로 했다고 말하는데 大개 볼수 없는 것으로서 視聽言動 四者의 間에서 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操存하는 方道는 반드시 그 可見하는 것으로부터 法으로 했은즉 切近하고 明白해서 持守함을 쉽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五事의 順序에서 思가 最後로 되었으니 孔子가 이에서 또한 四勿한 말씀하시고 思에는 이르지 않았던 것이다. 대개 工夫하는 者가 그 可히 보고 쉽게 지키는 法을 따라서 그 볼수도 없고 뵈수도 없는 마음을 기르도록 하신 것이다. 그러나 오래도록 懈惰하지 않으면 表裏가如一해서 私意가 容納될 곳이 없을 것이다.

西山眞氏曰 孔子告顏淵 以非禮勿視聽言動 顏淵曰 請事斯語敬也

(譯)眞西山曰 孔子께서 顏淵에게 「非禮勿視聽言動」을 告하시니 顏淵이 「請事斯語」라고 하였음은 敬인 것이다.

又曰 堯舜以及周孔 其相傳之大槩 至孔子授顏子 本末盡見 聖人之蘊 無復遺餘 蓋希顏所以希孔 而堯舜禹湯文武周公之道從可知矣

(譯)又曰 堯舜에서 周孔에 이르기까지 그의 相傳하신 大槩가 孔子에 이르러서 顏子께 주시는데 本末이 나뉘는 것이니 聖人の 蘊蓄한 것이 다시 遺餘함이 없는 것이다. 대개 顏子를 希求함은 孔子를 希求하는 所以로서 堯帝 舜帝 禹王 湯王 文王 武王 周公의 道를 可히 따라서 알 것이다.

勿齊箴曰 勿之爲言 如防止水 孰其尸之 曰心而已 聖言十六 一字其機 機牙既幹 句石必隨其道

伊何 所主者敬 表裏相維 動靜俱正 惟勿一言 萬善自出 念茲在茲 其永無斁

(譯)勿齊箴曰 勿이라고 말했음은 물막음과 같은 것이니 누가 그를 지킬 것인가. 마음 하나 뿐이니라. 聖人 말씀 十六字에 勿한字가 그 機니라 機牙 이미 돌렸으니 돌 반드시 따르니라. 그 方道는 무엇인가 主動者는 敬이니라. 表裏 서로 일컫는데 動靜 모두 발라진다. 오직 勿字 한말씀에 萬善 모두 솟아나니 銘心 해서 기리 敬함 없게 하라.

曾子 子曰 參乎吾道一以貫之 曾子曰 唯 子出 門人問曰 何謂也 曾子曰 夫子之道忠恕而已矣(論語

里仁篇)

(譯) 孔子曰「參(曾子名)아 吾道는 一理로서 貫通하는 것이다」고 하시니 曾子는 「그렇습니다」고 한 뒤에 孔子께서 다른데로 가셨다. 어떤 門人이 曾子에게 「그것은 무슨 뜻인가」고 물으니 「先生님의 道는 忠恕뿐이니라」고 하였다.

曾子曰 吾日三省吾身 爲人謀而不忠乎 與朋友交而不信乎 傳不習乎(學而篇)

(譯) 曾子曰「나는 每日 세번씩 내 自身을 反省하노니 남을 爲해서 謀事를 하는데 忠하지 못하지는 않았던가. 朋友와 交際를 하는데는 信義가 없지나 않았던가. 배운 것을 實習하지 아니하던 가고 함이다.

有疾召門弟子曰 啓予足 啓予手 詩云 戰戰兢兢 如臨深淵 如履薄水 而今而後 吾知免夫(泰伯篇)

(譯) 曾子가 病이 들었을때 門人弟子를 불러서 말하되 「나의 발 나의 손을 열어 보라 詩經에는 (戰戰하고 兢兢하여 深淵에 다다른듯 薄水를 밟는듯)이라고 하였는데 今後에 나는 그것을 免할줄 아노라.

尹氏曰 曾子守約 故動必求諸身

(譯) 尹氏曰「曾子는 要點을 守行했기 때문에 動하면 반드시 自身에 求하였던 것이다.

朱子曰 唯應之速也 聖人之道 泛應曲當 用各不同 曾子於其用處 蓋已隨事精察 而力行之 但未知其體之一爾 夫子知其眞積力久 將有所得 是以呼而告之 曾子果能 默契其旨 卽應之速 而無疑也 (譯) 朱子曰「唯는 對答이 速한 것이다. 聖人의 道는 泛博하게 應하고도 委曲하게 當하여 그 用은 各各不同하였는데 曾子는 그 用하는 곳에서 대개 이미 隨事해서 精察하고 力行하였던 것이다. 다만 그體가 하나 임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孔子께서 그의 오래 眞積함에 힘을 써서 將次로 所得이 있음을 아시고서 불러 말씀하시니 曾子는 果然 能히 그 뜻을 默契해서 바로 速히 對答하여 疑心하지 아니 하였다.

又曰 若吾夫子 雖未得其位 然而所以繼往聖開來學 其功反有賢於堯舜者 當是時見而知之者 惟顏氏曾氏之傳得其宗

(譯) 又曰—우리夫子 같은 이로써 비록 그位는 얻지 못하였으나 往聖을繼承하고 來學을 열어서 그功績은 도리어堯舜보다도 더 나은 것이 있으니 그때를 당해서 보고 아는 者는 오직 顏子였으나 曾子의 傳이 그의 宗主를 얻었던 것이다.

朱子曰 曾子戰戰兢兢 如臨深淵 如履薄水 此乃敬之法

(譯) 朱子曰—曾子が「戰戰兢兢 如臨深淵 如履薄水」하였음은 이것이 바로 敬하는 法이었던 것이다.

又曰 曾子戰戰兢兢 只是戒慎恐懼 常恐失之

(譯) 曾子が 戰戰兢兢하였음은 다만 이것이 戒慎恐懼해서 언제나 잃을까봐 겁냈던 것이다.

又曰 曾子自戰戰兢兢中 做得來

(譯) 曾子는 스스로 戰戰兢兢해서 操心하는 中에서 만들어낸 것이다.

西山眞氏曰 曾子戰戰兢兢 臨深履薄 亦敬也 後之學者 欲適聖賢之淵源者 其必自顏曾始

(譯) 眞西山曰—曾子が「戰戰兢兢 臨深履薄」하였음은 또한 敬이었으니 後에 學者가 聖賢의 淵源을 溯及 하려면 반드시 顏子 曾子로부터 始作해야만 할 것이니라.

北山何氏(基)魯齊銘曰 昔者子輿

萬世標的 始病於魯 竟以魯得 匪得于魯 而得于實 確固深純 精粹嚴密 稽其用功 有始有卒 履薄臨深 是警是飭 日省者三 猶懼或失 講辨聖門 是織是悉 聞禮聞孝 寸累銖積 誠明兩進 敬義偕立 一唯領會 萬理融液

(譯) 何基의 魯齊銘에曰 一에 남에 曾子님은 萬世 標的이라 처음에는 鈍한 病이 그것으로 成功했다. 鈍이 所得 아닌 것이고 努力에서 얻은 것이다. 確固하게 深純하고 精粹하고 嚴密하여 그 工夫를 詳考하니 始作 있고 成功 있다. 履薄하고 臨深한 듯이 것으로 警飭하사 每日 세번 反省하여 失手할까 겁을 냈네. 聖門에서 講辨함이 細密하고 具備했네. 禮도 듣고 孝도 들어 한치 한는 쌓아 갔네 誠과 明이 兩進하고 敬과 義가 같이 섰다. 한번 唯로 領會하사 萬理를 다 融通했네.

子思 受業曾子之門 作中庸 以傳道統 戒懼謹獨 常存敬畏之義

(譯) 子思는 曾子の 門下에서 受業하여 中庸을 지으사 傳統을 傳하는데 戒懼와 謹獨으로 恒常 敬畏하는 뜻이 있었던 것이다.

程子曰 中者天下之正道 庸者天下之定理 此乃孔門傳授心法 子思恐其久而差也 故筆之於書 以授孟子

(譯) 程子曰 一中이란 것은 天下의 正道이고 庸이란 것은 天下의 定理이니 이것이 孔子의 門에서 傳授하는 心法이다. 子思는 그것이 오래가면 어긋날까 겁을 내서 冊으로써 孟子에게 주었던 것이다.

朱子曰 曾氏之再傳 而復得夫子之孫子思 則去聖遠 而異端起矣 子思懼夫愈久而愈失其眞也 於是推本堯舜以來 相傳之意 質以平日所聞父師之言 更互演繹 作爲此書 以詔後之學者

(譯) 朱子曰 曾子가 再傳해서 다시 孔子의 孫子 思를 얻었은 즉 聖人에서 멀어져 異端이 일어나니 子思가 그것이 오래되면 그 眞理를 잃을까 걱정하였다. 그래서 堯舜以後로 相傳해온 뜻을 根本해서 미루어 보고 平일에 父師에서 들은바 말에 根據를 찾아 보아서 다시 서로 演繹하여 이 冊을 지어 後世의 學者를 가르친 것이다.

又曰 首明道之本原 出於天 而不可易 其實體備於己 而不可離 次言存養省察之要 終言聖神功化之極 蓋欲學者 反求諸身 而自得之 以去夫外誘之私 而充其本然之善

(譯) 又曰 一 처음에는 道의 本原이 天에서 나와서 變易될수 없는 것과 그 實體는 自己에 갖추어 있어 分離될수 없는 것을 밝히었고, 다음은 存養하고 省察하는 要點을 말하고 끝으로는 聖神의 功化하는 極致를 말하였다. 대개 學者는 도리켜 自身에서 求하여 自得해서 外的으로 誘惑되는 私欲을 버리고 그의 本然한 善을 擴充하러 했던 것이다.

又曰 尚幸此書之不泯 故程夫子 兄弟者出 得有所攷 以續夫千載不傳之緒 得有所據 以斥夫二家似是之非 蓋子思之功 於是爲大

(譯) 又曰 一 오히려 多幸하게 이 冊이 없어지지 아니 하였기 때문에 程子의 兄弟가 나서 證攷할 바가 있어 千年동안이나 傳하지 못했던 道統을 잇고 依據할 바가 있어 老佛의 似而非한 說을 排斥하였으니 대개 子思의 功이 이에서 偉大하게 된 것이다.

孟子 受業子思之門人(序說) 崇仁義 黜霸功 關楊墨 閑先聖 功不在於禹下(韓愈說)

(譯) 孟子는 子思의 門人에게 受業해서 仁義를 높이어 霸功을 내치고 楊墨(楊朱와 墨子의 說)을 排斥하여

先聖을 保衛하였으니 그의 功이 禹王만 못하지 않은 것이다.

程子曰 孟子泰山岩岩氣象

(譯) 程子曰—孟子는 泰山이 岩岩한 氣象이었다.

龜山楊氏曰 孟子一部 只是要正人心 千變萬化 皆說從心來

(譯) 楊龜山曰—孟子冊一部는 다만 이것의 要는 人心의 千變萬化함을 다루는 것이니 다 心을 說한 데서 나온 것이다.

朱子曰 孔子不言心 孟子始說心

(譯) 朱子曰—孔子께서는 心을 말하지 않았는데 孟子가 비로소 心을 說하시었다.

韓子曰 堯以是傳之舜 舜以是傳之禹 禹以是傳之湯 湯以是傳之 文武周公 文武周公 傳之孔子

孔子傳之孟某 某之死 不得其傳焉

(譯) 韓退之曰—堯帝는 이것으로서 舜에게 傳하였고 舜帝는 이것으로서 禹에게 傳하였고 禹王은 이것으로서 湯에게 傳하였고 湯王은 이것으로서 文王 武王 周公에 傳하였고 文武周公은 孔子에게 傳하였고 孔子는 孟子에게 傳하였으나 孟子가 死하고는 그것이 傳하지를 못하였다.

周子 曾中酒落 如光風霽月(黃庭堅說)

(譯) 周濂溪는 心胸이 酒落하여 光風霽月과 같았던 것이다.

通書圖說 明善惡之幾 窮性命之原

(譯) 通書의 圖說에는 「善惡의 微幾를 闡明하고 性命의 根源을 窮理하였다」고 하였다.

一者無欲 只就敬上捱去 以無欲爲敬

(譯) 一者是 無欲함이니 다만 敬에로 나아가서 無欲함으로써 敬으로 한 것이다.

朱子曰 先生上接洙泗千載之統 下啓河洛百世之傳 脉絡分明 而規模宏遠矣

(譯) 朱子曰 周子는 위로는 孔子에서 온 千載前의 道統을 받고 아래로는 二程子로 가는 百世後의 傳統을 열어서 脉絡이 分明하고 規模가 宏遠하였다.

朱子作 畫像贊曰 道喪十載 聖遠言湮 不有先覺 孰開我人 書不盡言 圖不盡意 風月無邊 庭草交翠

(譯) 朱子가 周子의 畫像贊을 지었는데 曰 千載동안 道가 亡해 聖人말씀 멀어졌다. 先覺있지 않았다면 누가 우리 열어줄까. 書는 말을 다 못하고 圖는 뜻을 다 못하는데 風月은 끝이 없고 庭草는 푸르도다.

伯程子 資稟既異 而充養有道 內主於敬 而行之以恕 居廣居 而行大道 言有物 而動有常(行狀)

(譯) 程子는 資稟이 特異해서 充養함이 有道하여 內로는 敬을 주로 해서 行함은 恕로서 하였다. 仁宅에 廣居하시와 大道로 行하여서 言語에는 內實이 있고 行動에는 常規가 있었다.

終日端坐 如泥塑人 接人渾是一團和氣(上蔡語錄)

(譯) 終日토록 端坐해서 泥塑人(土製人形)과 같으나 接人하는 데는 渾然하게 一團의 和氣였다.

先生卒 潞公文彥博 題其墓曰 明道先生而伊川序之曰 孟子死 聖人之學不傳 先生生乎千四百年之後 得不傳之學於遺經 以興起斯文 爲己任 辨異端 闢邪說 使聖人之道 煥然復明於世 蓋自孟子之後 一人而已

(譯) 先生이卒하시니 潞公文彥博이 그의墓에다 「明道先生」이라고 題名하였는데 伊川이 그에 序해서 말하되 「孟子가 死한 뒤에 聖人의 學이 傳하지 못하였는데 先生이 千四百年後에 나서서 남긴 經書에서 傳하지 못하던 學問을 얻어서 斥文을 復興시킬을 自己의 責任으로 하여 異端을 論辨해서 邪說을 排斥한데서 문득 聖人의 道가 煥然하게 다시 世上에 밝아 졌으니 대개 孟子의 後로는 一人뿐이다.

朱子作畫像贊曰 揚休山立 玉色金聲 元氣之會 渾然天成 瑞日祥雲 和風甘雨 龍德正中 厥施斯普

(譯) 朱子가 지은 畫像贊에 曰「揚休하게 높이 솟아 玉色이고 金聲이다. 元氣가 모여서 渾然하게 나타났네, 瑞日이고 祥雲뜨며 和風불고 甘雨오니 龍의 德은 中正하여 그 施澤이 넓으시도다.

叔程子 道德純備 學問淵博 (呂公著說) 寬猛合宜 莊重有禮 (和靖序語)

(譯) 程伊川은 道德이 純備하고 學問이 淵博하다. 寬하고 猛함이 合宜하고 莊重하고도 禮가 있으셨다.

有經天緯地之文 有制禮作樂之手 生民之先覺 聖代之逸民 (年譜)

(譯) 經天緯地하는 文章이 있고 制禮作樂하는 手法도 있으니 生民의 先覺이고 聖代의 逸民이다.

朱子曰 河南程氏兩夫子出 而有以接乎孟氏之傳

(譯) 朱子曰 河南에 程氏의 兩夫子가 나서 孟子의 傳하심을 接承하셨다.

勉齊黃氏曰 周程倡明絕學 以繼孟子不傳之緒 故其所以誇門人者 尤先於持敬 敬則此心自存 而所以求放心之要旨歟

(譯) 黃勉齊曰 周子 程子가 斷絶되었던 學問을 倡明해서 孟子의 不傳하던 道統을 이었다. 그러므로 그의 門人을 가르치는 데는 더욱 持敬을 먼저 하였으니 敬하면 이 마음이 自存해서 放心을 求入하는 要旨가 되 는 所以인 것인 지

朱子 作畫像贊曰 規圓矩方 繩直準平 允矣君子 展也大成 布帛之文 菽粟之味 知德者希 孰識其貴

(譯) 朱子가 지은 畫像贊에 曰 規는 圓形 矩는 方形 繩은 直線 準은 平面. 미더음다 君子이시여 發展되어 大成했네, 布帛의 그 文이고 菽粟의 그 맛이다. 知德者는 드물거니 그 貴함을 누가 아리.

張子 氣質剛毅 德盛貌嚴 終日危坐 一室 左右簡編 俯而讀 仰而思 有得則識之 或中夜起坐 取燭以書 其志道精思 未始須臾息 亦未嘗須臾忘也(行狀)

(譯) 張橫準은 氣質이 剛毅하고 德이 盛하며 貌는 嚴한데 終日토록 靜어 坐아 一室의 左右에는 簡編이 쌓였 다. 구부러서는 讀書하고 우러러서는 思索하여 覺得함이 있으면 記錄하고 或은 中夜에 일어나 坐아 燭불을 켜고 글을 썼으니 그 道에 뜻을 가지고 精하게 研究해도 暫時동안 쉬는 것만 같지 못하고 또한 일찌기 暫時도 잊지 않았 다.

慨然有意三代之治 議與學者 欲買田試行經界法 有志未就而卒(上同)

(譯) 慨然하게 三代에 治에 뜻을 가지고 學者와 더불어서 田土를 사가지고 經界法을 試行하려고 議論하다가 有志한 것을 이루지 못하고서 卒하였다.

西銘一書是中庸之理(游定夫說)

(譯) 西銘의 一書는 이것이 中庸의 理致다.

主敬之工以己心爲嚴師

(譯) 敬의 工夫를 主로 하여서 自己 마음을 嚴師와 같이 하였다.

問 橫渠似孟子否 朱子曰 橫渠嚴密 孟子宏闊

(譯) 누가 「橫渠는 孟子和 같은가」고 물으니 朱子曰「橫渠는 嚴密하였고 孟子는 宏闊하였다.

或問 橫渠之書 有迫切處否 伊川先生曰子厚謹嚴 纔謹嚴便有迫切氣象 無寬舒之氣(指正蒙言)

(譯) 누가 「橫渠의 書는 迫切한 곳이 있는가」고 물으니 伊川先生曰 子厚는 謹嚴한데 그 謹嚴함이 바로 迫切 氣象이 있고 寬舒한 氣分은 없는 것이다.

朱子作畫像贊曰 早悅孫吳 晚逃佛老 勇撤臯比 一變至道 精思力踐 妙契疾書 訂頑之訓 示我廣居

(譯) 朱子가 지은 畫像贊에 曰「早年에는 孫吳(兵家인 孫武와 吳起)를 즐겨 하였고 晚年에는 老佛로 달리 갔으나 臯比(虎皮를 간 講席)를 勇斷있게 걸어버리고 한 번 變해 眞理에 이르렀다. 精思하여 힘써서 實踐하였고 妙契인어 빠르게 글을 쓰시다. 訂頑(學堂의 西窓에 붙인 戒詞인데 後에 西銘으로 改稱)이란

그 訓戒는 우리에게 仁宅을 보였었다.

朱子 泰山喬岳 蠶絲牛毛 剛健篤實 輝光日新 規模廣大 心法嚴密(畫像贊)

(譯) 泰山喬岳 雄壯한데 蠶絲牛毛 細密하다. 剛健하고 篤實하다 그 光輝가 日新했네. 規模는 廣大하고 心法은 嚴密했네.

從延平李先生學 謂致知不以敬 則昏惑紛擾無以察義理之歸 躬行不以敬 則怠惰放肆 無以致義理之實 持敬之方 莫先主一 既爲之箴 以自警 又筆之於書 以爲小學大學 皆本於此 終日儼然端坐一室 討論典訓 未嘗少輟 存此心於齊莊靜一之中 窮此理於學問思辨之際 不睹不聞之前 所以戒謹者 愈嚴愈敬 隱微幽獨之際 所以省察者 愈精愈密 思慮未萌 而知覺不昧 事物既接 而品節不差 無所容乎人慾之私 而有以全乎天理之正 修諸身者 其色莊 其言厲 其行舒而恭 其坐端而直 其閒居也未明而起 深衣幅巾方履 拜於家廟 以及先聖 退坐書室 几案必正 書籍器用心整 其飲食也 羹食行列有定位 匙筯拳指有定所 僊而休也 瞑目端坐 休而起也 整步徐行 中夜而寢 既寢而寤 則擁衾而坐 或至達旦 威儀容止之則 自少至老 祁寒盛暑 造次顛沛 未嘗有須臾之離也(行狀)

(譯) 延平李先生을 따라서 배웠는데 말하되 致知에는 敬으로서 하지 않으면 昏惑하고 紛擾해져서 義理의 歸趣를 살필수가 없고 躬行에는 敬으로서 하지 않으면 怠惰하고 放肆해져서 義理의 實을 이룰수가 없는 것이다 敬을 하는 方法은 主一하는 것보다 먼저 할 것이 없으니 이미 箴을 지어서는 自警하고 또冊을 써서 小學과 大學을 하였으니 大이 敬에 根本한 것이었다. 終日을 儼然하게 一室에 端坐하여 典訓의 討論을 조금도 쉬우지 아니 하였었다. 이 마음은 齊莊中正한 가운데에 두고 이 理數는 學問思辨하는 데서 研究하였었다. 不睹하고

不聞하는 前에서 戒謹하는 所以가 더욱 嚴하고 敬하며 隱微하고 幽獨한 際에서는 省察하는 所以가 더욱 精하고 密하였다. 思慮가 아직 萌動하지도 않는 데도 知覺은 어둡지 아니하고 事物을 이미 接하는 데는 品節이 여긋나지 아니하여서 人欲의 私心이 容納되지 아니 하니 天理의 眞正함이 穩全하였다. 自身을 단는 데는 그 顔色이 莊하고 그 言語는 厲하며 그 行步하는 데는 舒하고도 直하며 그 閒居할 때는 未明에 일어나서 深衣幅巾 方履로서 家廟에 參拜하고 先聖에까지 미치지 않고 書室에로 退坐할 때는 几案을 반드시 正하고 書籍이나 器物도 반드시 整頓하였으며 그 飲食하는 데는 藥飯의 列이 定位가 있고 匙箸를 씹이 定所가 있으며 倦怠해서 쉬는 데는 눈을 감고 端坐하며 쉬고서 일어나는 데는 整步로 徐行하며 中夜에는 자고, 잠이 깨이면 이불을 감고 앉아서 或은 아침까지 이르렀다. 威儀容止하는 法度는 少時부터 老年까지 極寒盛暑나 造次(倉卒間) 顛沛(危急時)에 暫時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었다.

自受學于李延平 退然如將不勝 斂華就實 反博歸約(年譜)

(譯) 李延平에게 受學함으로써는 退讓하여 無力한 듯이 하여 華飾은 버리고 實地로 하며 廣博을 등지고 要約으로 가셨다.

勉齊黃氏曰 由孔子而後 曾子子思繼其微至孟子而始著 由孟子而後 周程張子繼其絕 至先生而始著 自周以來 聖賢相傳之道 一旦豁然如大明中天 昭晰呈露

(譯) 黃勉齊曰 孔子로부터 그 뒤로는 曾子 子思가 그 微旨을 이었는데 孟子에 이르러서 비로소 顯著하였고 고 孟子로부터 그 뒤로는 周子 程子 張子등이 그 絕系를 이었는데 先生에 이르러서 비로소 顯著하였으며 周代로부터 그 뒤로는 聖賢의 相傳하는 道가 一朝에 豁然한 太陽이 中天에 온듯이 昭明하게 露呈되었다.

北溪陳氏曰 孔孟周程之道 至先生而益明所謂主盟斯世 惟先生一人而已

(譯) 陳北溪曰—孔孟周程의 道가 先生에 이르러서 더욱 밝아졌으니 所謂 이 世上을 主盟한다는 것은 오직 先生 한 사람 뿐이니라.

鶴山魏氏曰 自孟子歿 千有餘年而後 周程張子出焉 歷世既久 寢失其眞 及先生出而後 會濂溪之正傳 紹鄒魯之際緒 前聖後聖之道 該徧全備 可謂盛矣

(譯) 魏鶴山曰—孟子가 歿함으로부터 千有餘年뒤에 周子 程子 張子가 나섰는데 歷世가 이미 오래되어 그 眞理가 더욱 喪失되었더니 先生이 나신 뒤로는 周子 程子의 正傳을 받고 孔子 孟子의 際緒를 이어서 前聖 後聖의 道가 모두 高루 갖추었으니 可히 盛하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果齊李氏曰 夫子之經 得先生而正 夫子之道 得先生而明 起斯文於將墜 覺來裔於無窮 雖與天地俱弊可也

(譯) 李果齊曰—孔夫子의 經은 先生을 얻어서 正해졌고 孔夫子의 道는 先生을 얻어서 明해졌으니 떨어져 개된 斯文을 일으켰고 無窮하게 오는 後學들을 깨우쳤으니 비록 天地와 더불어도 같이 마칠 것이다.

退溪李先生屏銘曰 堯欽舜恭 禹祇湯慄 翼翼文心 蕩蕩武極 周稱乾惕 孔云憤樂 曾省戰兢 顏事克復 戒懼謹獨 明誠凝道 操存事天 直義養浩 主靜無欲 光風霽月 吟弄歸來 揚休山立 整齊嚴肅 主一無適 博約兩至 淵源正脉

(譯) 退溪李先生의 屏銘에曰—堯欽하고 舜恭하며 禹祇하고 湯慄하다. 文王小心翼翼하고 武王極功蕩蕩하다. 周公은 乾乾夕惕孔子는 發憤樂道 曾子反省操心했고 顏子克己復禮했네. 戒懼하고 謹獨하여 明誠으로

凝道하며 操存하고 事天하여 直義로서 養浩(浩然之氣를 養함)하며 主靜해서 無慾하니 光明齋月氣象이고
吟弄하고 歸來하니 揚明하게 우뚝했네 整齊하고 嚴肅하여 主一해서 無適하고 博文約禮兩全함이 淵源있는
正脉이다.

崇敬錄 卷之四

第一 旨訣通集

(按古今聖賢旨訣不無中間時代之隔絕故遂以是分上下而聖賢大訓之外亦多有諸子諸說所當相與參攷故又別爲通集以類分揭如左)

弟子職曰 顔色整齊 中心必式 夙興夜寢 衣帶必飭 朝益暮習 小心翼翼 一此不懈 是謂學則(管子)

(譯) 弟子職에는 曰—顔色이 整齊하면 中心이 必式하니 一일찍 일어나서 밤에 잠때까지 衣帶를 반듯이 갖추며 아침에 더 배우고 저녁까지 익혀서 小心으로 恭敬해서 한날같이 게을리 하지 않는 이것을 學則이라고 한다.

吳氏(訥)曰 整齊修治嚴肅之貌 式敬也 翼翼恭敬貌 此篇明白 簡要惓惓 以敬爲言 豈非當時 先王流風善教 猶有存者 管子其有所受歟 學者宜深體之

(譯) 吳訥曰—整齊는 修治해서 嚴肅한 貌樣이고 式은 敬함이며 翼翼은 恭敬하는 貌樣이니 이 冊은 明白하고 簡要해서 眞心을 다해 敬으로서 말한 것이다. 어찌 當時에 先王의 流風과 善教가 오히려 남은 것이 있어서 管子가 그것을 받은 바가 있는 것이 아닌가. 學者는 마땅히 깊이 體驗해야 할 것이다.

周內史過曰 敬德之興也 不敬則禮不行 禮不行 則上下昏 何以長世(春秋左傳)

(譯) 周內史過曰—敬은 德의 수레이니 不敬하면 禮가 行할수 없고 禮가 行하지 못하면 上下가 어두우니 어찌 그世上이 길게 갈 것이라.

林氏堯叟曰 敬載德而行 猶車載人而行 不敬是無輿也 故上慢下暴 禮不能自行

(譯) 林堯叟曰 一敬이 德을 싣고 가는 것은 車가 사람을 싣고 가는 것과 같으니 不敬하면 그것은 德에 車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上者는 慢하고 下者는 暴해져서 禮가 能히 가지 못하는 것이다.

豐城朱氏曰 敬者德之輿也 無敬德不行

(譯) 朱豐城曰 一敬이란 것은 德의 수레이니 敬이 없이는 德이 갈수가 없는 것이다.

白季(晉大夫名胥臣) 使(去聲) 過冀見冀缺耨 其妻饁之 敬相待如賓 與之歸 言諸文公曰 敬德之聚也 能敬必有德 德以治民 君請用之 臣聞 出門如賓 承事如祭 仁之則也(上同)

(譯) 白방에 季子가 使者로서 冀땅을 지나다가 冀缺이 밭매는 것을 보니 그 妻가 짐심을 가져와서 恭敬하기를 손님 接待하듯 하였다. 그를 데리고 돌아와서 文公에게 말하되 「敬은 德의 모인 것이니 能히 敬함은 반드시 德이 있을 것입니다. 德으로서 治民을 하도록 君에게 登用하기를 請합니다. 臣은 들으니(出門함에는 손님을 본듯이 하고 承事함에는 祭를 받드는 듯이 하라)고 하니 仁의 原則입니다.

問敬者德之聚 朱子曰 敬則德聚 不敬則都散了

(譯) 누가 「敬者는 德之聚」란 말을 들으니 朱子曰 一敬하면 德이 모이나 不敬하면 모두 흩어지는 것이니라.

陳氏曰 人能敬則心存 心存則理得 故敬德之聚也 修己可以安百姓 故曰 德以治民 出門如賓 承事如祭 敬也 敬以持己則私意無所容 而心德全矣 故曰 仁之則也

(譯) 陳氏曰 人間은 能히 敬하면 心이 있고 心이 있으면 理를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敬은 德의 聚한 것이니 修己함이 可히 百姓을 편히 하기 때문에 「德以治民」이라고 하였으며 「出門如賓 承事如祭」라고 함은 敬이니 敬으로서 持己하면 私意가 容納될수 없으니 心德이 完全하게 되기 때문에 「仁之則」이라고 말한 것이다.

敬軒薛氏曰 古語曰 敬德之聚也 此語最宜潛體 蓋道妙莫測 靡有攸定 惟敬則能凝聚得此理常在 如心敬 則能凝聚得德在心上 貌敬則能凝聚 得德在貌上 以至耳目口鼻之類 無不皆然 或有不敬 則心君放逸 而天德亡 百體解弛 而物則廢 雖曰 有人之形 其實塊然血氣之驅 與物無以異矣 此敬之一字 乃聚德之本 而爲踐形 盡性之要也歟

(譯) 薛敬軒曰 古語에 「敬德之聚也」란 이 말은 가장 潛心을 體驗하기에 마땅한 것이다. 대개 道는 微妙하고 莫測해서 固定된 것이 있지 않으니 오직 敬만 하면 能히 凝聚하여 이 理數가 恒常 있게 될 것이다. 心이 敬하면 能히 凝聚해서 心에 德이 있게 될 것이고 貌가 敬하면 能히 凝聚해서 德이 貌上에 있게 될 것이니 耳目口鼻의 類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或은 나 不敬함이 있다면 心君이 放逸해서 天德이 亡失되고 百體가 解弛해서 物則이 廢止될 것이니 비록 人間의 形體는 가졌다해도 그 實은 한 덩어리 血氣의 體軀로서 物體와 다름이 없을 것이다. 이 敬의 一字는 이것이 聚德하는 根本이고 實踐해서 盡性하는 要訣일 것인저.

成肅公受脈於社不敬 劉康公曰 吾聞之 民受天地之中以生 所謂命也 是以有動作禮義威儀之則 以定命也 能者養之以福 不能者敗之以取禍 是故君子勤禮 小人盡力 勤禮莫如致敬 盡力莫如敦篤 敬在養神 篤在守業 今成子惰棄其命矣 其不反乎(上同)

(譯) 成의 肅公이 禮해서 服을 받는데 敬하지 않으니 劉康公이 말하되 나는 들으니 百姓이 天地의 中에서 生을 受하였음이 命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動作에는 禮義와 威儀의 原則이 있어서 命을 定하는 것이니 能者는 그것을 질려서 福을 받고 不能한 者는 그것을 잃어서 禍를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君子는 禮에 勤하고 小人은 力을 盡하는 것이니 勤禮함에는 致敬함만 같지 못하고 盡力함에는 敦篤함만 같지 못한 것이다. 敬은 養神함에 있고 篤은 守業함에 있는 것인데 只今에 成子는 惰怠해서 그의 命을 버리니 그것을 돌릴 수 없는 가」고 하였다.

西山直氏曰 能不能者 豈有他哉 亦曰敬與不敬而已矣 夫敬之一言 堯舜禹湯文武以來 傳心之要 法春秋之世 去聖人未遠 名卿賢大夫 猶有聞焉 故呂成公曰 劉子之言 乃三代老師宿儒 傳道之淵源 信矣夫

(譯) 眞西山曰 能과 不能한 것에 어찌 다른 것이 있을까 또한 말하자면 敬과 不敬뿐이다. 그 敬이란 一 言은 堯帝 舜帝 禹王 湯王 文王 武王으로부터 오는 傳心하는 要法인데 春秋時代에는 聖人에 相距가 멀지 아니하여 名卿과 賢大夫가 오히려 드문 것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呂成公은 劉子의 말은 이것이 三代에 老師 宿儒가 傳道하던 淵源이다」고 하였으니 미더운 말이다.

蘭溪范氏(後) 心箴曰 茫茫堪輿 俯仰無垠 人於其間 眇然有身 是身之微 大倉稊米 參爲三才 曰惟心爾 往古來今 孰無此心 心爲形役 乃獸乃禽 惟口耳目 手足動靜 投間抵隙 爲厥心病 一心之微 衆欲攻之 其與存者 嗚呼幾希 君子存誠 克念克敬 天君泰然 百體從令

(譯) 范蘭溪의 心箴曰 茫茫하게 넓은 大地 俯仰해서 끝이 없네. 사람은 그 사이에서 眇然하게 몸 있으니 이 한몸이 微小함이 大倉庫에 一粟이나 三才中에 參與함은 오직 마음 뿐이니라 往古來今 그 사이에 누가 마

음 없을까만 心이 身의 使役되던 그것 바로 禽獸니라 耳目口鼻手足動靜 오직 心이 하는 것이니 그 사이에 틀이냐면 그것 마음의 病이 된다. 한 마음은 隱微한데 여러 慾心 起들으니 그를 能히 保存할者 아아 / 그는 드물거라. 君子들은 誠心 갖고 克念하고 克敬하면 天君(心)이 泰然하여 百體 모두 마르리라.

朱子曰 敬者一心之主宰 萬事之本根

(譯) 朱子曰 一敬이란 것은 一心的 主宰이고 萬事の 根本이다.

又曰 今之言敬者 乃皆粧點外事 不知直截於心上求功 遂覺累墜 不若眼下放求放心處 有功則尤省力

(譯) 又曰 只今에 敬을 말하는 者는 이에 모두 外事만을 꾸며서 바로 心上에서 功을 求할 줄은 모르고 드디어 累墜됨을 깨닫게 되니 放心을 求하는데 着眼해서 功이 있으면 더욱 살피는 것만 같지 못한 것이다

又曰 今人都不理會我底 自不知心所在 都會他事 又要齊家治國平天下 心者身之主也 撐船須用篙 喫飯須使匙 不理會心是不用篙 不使匙之謂也 攝心只是敬 才敬看做甚麼事 登山亦只這箇心 涉水亦只這箇心

(譯) 又曰 只今 사람들은 도무지 自身の 根底를 理會하지 못하여 스스로 心의 所存을 알지 못하고 도무지 다른 일에만 注意해서 또한 齊家 治國 平天下를 要求하는 것이다. 心이란 것은 身의 主宰이니 배를 부리는 데는 반드시 篙를 쓰고 밥을 먹는 데는 반드시 匙를 쓰는 것인데 心을 理會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이 篙도匙도 쓰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心을 收攝하는데는 다만 이 敬이니 敬만 하면 무슨 일이라도 看做되는 것이니 登山에도 또한 다만 그 마음이고 渡水에도 또한 다만 그 마음이다.

雲峯胡氏曰 念即思之謂 而敬即存誠之方也 一誠足以消萬僞 一敬足以敵千邪 所謂先立乎其大者 莫切於此

(譯) 胡雲峰曰 念은 卽思를 말함이고 敬은 卽誠을 있게 하는 方法이다. 一誠은 足히 萬僞를 消散하고 一敬은 足히 千邪를 擊破하는 것이니 孟子的 所謂「먼저 그 大者를 確立하면 小者가 能히 빼앗지 못한다」는 데는 이 보다 더 切實함이 없는 것이다.

武夷胡氏曰 敬之一字 力行十年須別

(譯) 胡武夷曰 敬의 一者는 力行해서 十年만 되면 반드시 別果가 있을 것이다.

致堂胡氏(演)曰 敬者存心之要法 檢身之切務也 有言主一之謂敬 無適之謂一 如執大圭 如奉盤水 如震靈之在上也 淵谷之在下也 師保之在前也 鬼神之在左右也 是則持敬之道 可願莫如善 敬立則百善從 宜遠莫如邪 敬立則百邪息

(譯) 胡致當曰 敬이란 것은 存心하는 要法이고 檢身하는 切務이다. 主一을 敬이라 하고 無適을 一이라 하니 大圭(天子가 衣帶속에 꽂아 笏로 하는 玉)를 잡은 듯하고 盤水를 받드는 듯하며 雷震이 위에 있고 淵谷이 아래 있으며 師保가 앞에 있고 鬼神이 左右에 있는 것같이 하는 이것이 敬을 가지게 하는 方法이다. 可願함은 善같은 것이 없으니 敬만 서면 百善이 따르고 宜遠함은 邪같은 것이 없으니 敬이 서면 百邪가 사라지는 것이다.

上蔡謝氏曰 事至應之 不與之往 非敬乎 萬物變 而此心常在 奚紛擾之有 夫子曰 事思敬 正謂此耳

(譯) 謝上蔡曰「事가 이르면 應하고 既往은 關心하지 않는 것이 敬이 아닌가. 萬物은 變化해 가도 此心만은 常存하면 어찌 紛擾함이 있으리오. 孔夫子께서 「事思敬」이라고 하셨음은 바로 이것을 말한 것이다.

問 敬是存誠之道否 曰然 須是實體 便見得 敬是常惺惺法

(譯) 누가 「敬은 이것이 存誠하는 길인가」고 물으니 謝上蔡曰「그러하다 모름지기 이것을 實地로 體驗해야 만 문득 見得이 있을 것이니 敬은 이것이 언제나 惺惺(마음이 精明한 것)하게 하는 方法이다.

朱子曰 惺惺乃心不昏昧之謂 只此便是敬 今人說敬 以整齊嚴肅言之 固是然 心若昏昧 燭理不明 雖強把捉 豈得爲敬

(譯) 朱子曰「惺惺은 이 마음이 昏昧하지 않음을 말한 것이니 다만 이것이 바로 敬이다. 그런데 今人은 敬을 말하는데 整齊嚴肅이라고 말하니 진실로 그러하나 마음이 萬若 昏昧해서 眞理를 보는데 不明하면 비록 억지로 把捉을 해도 어찌 敬이 될까.

又曰 學問須是警省 且如瑞巖和尚 每日常自問 主人翁惺惺否 自答曰 惺惺 今之學者 却不能如此

(譯) 又曰「學問은 모름지기 警省을 해야 하니 또한 瑞巖和尚같은 이는 每日처럼 自問하되 「主人翁은 惺惺한가」고 하고 自答해서 「惺惺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今에 學者는 도리어 이와 같이 못하는 것이다.

又曰 今人心聳然在此 尚無惰慢之氣 況心常能惺惺者乎 故心常惺惺 自無客慮

(譯) 又曰「只今에 사람의 마음이 聳然하게 이에 있기만 해도 오히려 惰慢한 氣가 없는데 하물며 마음이

언제나 能히 惺惺한 者일까. 그러므로 마음이 恒常 惺惺하면 自然히 客念이 없는 것이다.

又曰 須用常提掇起時 惺惺不要昏晦 若昏晦 則不敬莫大焉

(譯) 又曰—모름지기 恒常 提起할 때는 惺惺하니 昏晦하지 않는 것이다. 萬若에 昏晦하면 不敬함이 莫大한 것이다.

又曰 人之本心明 一如睡人都昏了 不知有一身 須是喚醒 方知治如瞌睡 強自喚醒 喚之不已 終會醒 某着來 大要工夫 只在喚醒上 然如此等處 須是體驗 教自分明

(譯) 又曰—사람의 本心이 不明함이 잠자는 것 처럼 全히 昏昧해서 一身이 있는 줄도 알지 못하면 모름지기 불려 깨우쳐야만 바야흐로 잠잔 줄은 알고 스스로 불려 깨우치는데 힘을 써서 말지 않아야 마침내 깨우친 것이다. 某는 보아오니 大要한 工夫는 다만 불려 깨우치는데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것을 모름지기 體驗해서 自身을 가르치는데 分明해야만 할 것이다.

又曰 人有此心 便知有此身 人昏昧 不知有此心 便如人困睡 不知有此身 雖困睡 得人喚覺 則此身自在 心亦如此 方其昏蔽 得人警覺 則此心便在這裏

(譯) 又曰—사람들은 이 마음이 있으니 바로 이 몸이 있음을 알 것이나 사람이 昏昧해서 이 마음이 있는 줄을 모르면 바로 사람이 困하게 자는데 이 몸이 있음을 알지 못함과 같은 것이니 비록 困하게 자더라도 남이 불려 깨움을 받으면 이 몸이 自在할 것이니 마음도 亦是 이와 같아서 그의 昏蔽할때 남의 警覺을 받으면 이 마음이 그 속에 便在한 것이다.

又曰 學者工夫 只在喚醒上

(譯) 又曰—學者가 工夫하는 것은 다만 불려 깨우치는데 있는 것이다.

或問 人放縱時 自去收斂 便是喚醒否 曰 放縱只爲昏昧之故 能喚醒 則自不昏昧 不放縱矣 不放縱矣

(譯) 누가 「放縱할 때는 스스로收斂을 버리는 것이니 바로 그것을 불려 깨우치는가」고 물으니 答曰—放縱은 다만 昏昧하기 때문이니 能히 불려 깨우치면 바로 昏昧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昏昧하지 않으면 바로 放縱하지 않을 것이다.

又曰 心只是一箇心 非是以一箇心 治一箇心 所謂存 所謂收 只是喚醒

(譯) 又曰—心은 다만 이것이 一箇의 心이고 이것이 一箇의 心으로서 一箇의 心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存이라 하고 收라하는 것은 다만 이것이 불려서 깨우치는 것 뿐이다.

又曰 人惟有一心是主 要常常喚醒

(譯) 又曰—사람은 오직 一心이 있어서 이것이 主이니 恒常 불려 깨우치기를 要하는 것이다.

又曰 人心常炯炯在此 則四體不待羈束 而自入規矩 只爲人心有散緩時 故立許多規矩來 維持之 但常常提警 教身入規矩內 則此心不放逸 而炯然在矣 心既常惺惺 又以規矩繩檢之 此内外交相 養之道也 又引釋氏說心云 不得跳擧 不得昏沉 無他見得此心 只有兩項 跳擧是走作時 昏沉是放 倒時 惟敬則都無此病

(譯) 又曰—人心이 恒常 惺惺하게 이에 있으면 四肢는 拘束을 기다리지 않아도 自然히 法度에 맞을 것이

나 다만人心은 散緩할 때가 있기 때문에 許多한 法度를 세워서 그를 維持하게 하는 것이니 다만 恒常提
 警해서 몸을 法度の 内に 들도록 하면 이 마음이 放逸하지 아니하고서 밝게 있을 것이다. 마음이 이미 恒
 常 惺惺한데도 또한 法度로서 檢束을 하는 이것이 内外가 서로 交合해서 기르는 方法이 되는 것이다. 또한
 佛家의 心說에서 말하되 跳拳하지도 못하고 昏沉하지도 못하고 다른 見得도 없다는 말을 引用하면 이 마
 음은 다만 兩項만 있는 것이니 跳拳은 이것이 走作할 때고 昏沉은 이것이 放倒할 때나 오직 敬만 하면 이
 러한 病은 전혀 없어질 것이다.

或問 謝氏之說佛氏 亦有此語 曰 其喚醒此心則同 而其爲道異 吾儒喚醒此心 欲他照管 許多道
 理佛氏空喚醒在此 無所作爲

(譯) 누가「謝氏의 說은 佛家에도 또한 이런 말이 있는가」고 물으니 答曰「그의 此心을 불러 깨우치는 것
 인즉 同하나 그 道가 되는 것은 異한 것이니 우리 儒家는 이 마음을 불러 깨우치는데 다른 許多한 道理에
 照管하려하나 佛家는 空虛하게 불러 깨우치는데 있고 作爲하는 바는 없는 것이다.

勉齊黃氏曰 持守之方 無出主敬 所謂常惺惺法 是將持敬人 心胸內事 摸寫出了

(譯) 黃勉齊曰「持守하는 方法은 敬을 主로 하는 것에 보을 것은 없으니 所謂「常惺惺法」이란 것은 이것이
 持敬하는 사람의 心胸의 內事를 摸寫해내는 것이다.

和靖尹氏曰 敬者其心收斂 不容一物之謂 祁寬問 如何是主一 曰 敬有甚形影 只收斂身心 便是主
 一 且如人到神祠中 致敬時其心收斂 更着不得毫髮事 非主一而何

(譯) 尹和靖曰「敬이란 것은 그 마음을 收斂해서 一物도 容納하지 않는 것을 말 함이다. 祁寬이「어떠한 것
 이 主一인가」고 물으니 答曰「敬에 무슨 形影이 있으리오. 다만 身心을 收斂하는 것이 바로 主一이다. 또한

사람이 神祠에 이르러 그 中에서 致敬할 때는 그 마음이 收斂되어서 毫髮같이 작은 일도 더 붙일 수 없는 것이 主一이 아니고 무엇일까.

朱子曰 心主這一事 不爲他事 攙亂 便是不容一物 問 心收斂不容一物 曰 這心都不着一物 便收斂他 上文云 今人入神祠 常那時 直是更着不得些子事 只有個恭敬 此最親切 今人若能專一 此心便收斂緊密 都無些子空隙 若這事思量未了 又走做那邊去 心便成兩路

(譯) 朱子曰 一 心이 그 一事만 主로 하여 他事에는 어지럽히지 않는 것이 바로 「不容一物」이란 것이다. 두가 마음을 收斂해서 一物도 容納하지 않는다는데 對해서 물으니 答曰 一 그 마음이 도무지 一物에도 붙지 않는 것이 바로 收斂이다. 上文에 말하되 只今에 사람이 神祠에 들어가는 그때는 바로 이 다시 조그만한 것도 붙지 아니하고 다만 그恭敬만 있는 것이니 이것이 가장 緊切한 것이다. 只今 사람이 萬若에 能히 專一하면 이 마음이 바로 收斂이 緊密해서 도무지 조그마한 틈도 없을 것이나 萬若에 그 일을 생각해서 마치기도 前에 또 다른 데로 달려가면 마음이 문득 兩路로 갈라지는 것이다.

朱子曰 觀程子謝氏尹氏數說(主人無適整齊嚴肅。常惺惺法。其心收斂不容一物三說) 足以知其用力之方矣

(譯) 朱子曰 一 程子 謝氏 尹氏의 數說(程子의 主一無適 整齊嚴肅과 謝氏의 惺惺法과 尹氏의 其心收斂不容一物等의 三說)에서 보면 足히 그 用力하는 方法을 알 것이다.

或問 三先生言敬之異 曰 譬如此室 四方皆入得 若從一方入至此則 三方入處皆在其中矣

(譯) 누가 三先生의 敬을 말한 差異에 對하여 물으니 答曰 一 譬하면 此室에 四方으로 다 들어갈 수가 있는데 萬若에 一方으로만 들어가도 此室에 들르면 三方으로 들어가는 곳이다 그 中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問 敬諸先生之說却不同 然總而言之 常令此心常存是否 曰 其實一般 若是敬時 自然主一無適

自然整齊嚴肅 自然常惺惺 其心收斂不容一物 但程子整齊嚴肅 與謝氏 尹氏之說 又更分曉

(譯) 누가 敬에 「諸先生의 說이 모두 같지 않으니 總合해서 말하면 恒常 그 마음으로 하여금 언제나 있게 하는 그것인가」고 물으니 答曰 「其實은 一般이니 萬若에 이 敬을 할때면 自然히 主一無適이 되고 自然히 整齊嚴肅이 되며 自然히 常惺惺이 되어 그 마음이 收斂되어 不容一物이 되는 것이나 다만 程子의 整齊嚴肅과 謝氏尹氏의 說은 또한 다시 分別해야만 될 것이다.

問 程子 謝氏之說 謝氏尤切當 曰 如某所見 程子說得切當 整齊嚴肅 心便存便能惺惺 未有外面 整齊嚴肅 而內不惺惺者 人一時間 外面整肅 便一時間 一時放寬了 便昏忘也

(譯) 누가 「程子와 謝氏의 說에서 謝氏가 더 切當한가」고 물으니 答曰 「나의 所見으로서는 程子의 說이 더 切當한것 같으니 整齊嚴肅하면 마음이 바로 있어서 能히 惺惺한 것이나 外面이 整齊嚴肅하고서 內心이 惺惺하지 않는 者는 있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一時間만이라도 外面이 整肅하면 바로 그 一時間은 惺惺한 것이고 一時間만이라도 放肆하면 바로 昏忘할 것이다.

問 和靖論敬 以整齊嚴肅 然專主於內 上蔡專於事上 作工夫 故云 敬是常惺惺法之類 曰 謝尹二說 難分內外 皆是 自己心地工夫 事上豈可不整齊嚴肅 靜處豈可不常惺惺乎

(譯) 누가 「尹和靖이 敬을 論하는데 整齊嚴肅으로 하였으나 오로지 內만 주로 하였고 謝上蔡는 오로지 事上에서만 工夫를 하였기 때문에 敬은 이것이 常惺惺法의 類라고 하는 것인가」고 물으니 答曰 「謝尹의 二說은 內外로 分說하기가 어려우니 다 이것이 自己의 心地上의 工夫인 것이다. 事上에 어찌 整齊嚴肅을 하지 않아서 되며 靜處에 어찌 恒常惺惺하지 않아서 될까.

勿齋程氏曰 整齊嚴肅 及收斂不容一物 皆敬之始也 主一無適 及常惺惺者 皆敬之成也 主一無適者 敬之純 常惺惺者 敬而明也 然主一無適 亦有淺深 以初學者言之 則欲主乎一 以成德言之 則所主者一

(譯) 程勿齋曰 一 整齊嚴肅과 收斂에 不容一物은 모두 敬의 始作이고 主一無適과 常惺惺法이란 것은 모두 敬의 成就한 것인데 主一無適이란 것은 敬의 純全함이고 恒常惺惺한 것은 敬해시 明한 것이다. 그러나 主一無適에 또한 淺深이 있었으니 初學者로서 말하면 一을 主로 하려는 것이고 成德者로서 말하면 主로 하는 바는 一이다.

勉齋黃氏曰 且將自家身心去 體察見得 如何是主一無適 如何是整齊嚴肅 如何是常惺惺 如何是其心收斂不容一物 是四者皆以有所畏而然 朱子晚年 言敬字之義 惟畏字近之 其意精矣

(譯) 黃勉齋曰 一 또한 自家의 身心을 가지고 體察해서 見得하면 이런 것이 「主一無適」이며 어떤 것이 整齊嚴肅이며 어떤 것이 「常惺惺」이며 어떤 것이 「其心收斂 不容一物」인지 이 四者는 다 두려워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朱子가 晩年에 敬字의 뜻을 말하는데 오직 畏字가 近似하다고 하였으니 그意味가 精密한 것이다.

西山眞氏曰 持敬之道 當合三先生之言 而用力焉 然後內外交相養之功始備

(譯) 眞西山曰 一 持敬하는 方法은 마땅히 三先生의 말을 統合해서 努力한 然後에야만 內外를 서로 交養하는 功이 비로소 갖추어질 것이다.

南軒張氏曰 敬者宅心之要 而聖學之淵源也 李季修問 所謂敬之說 當用力 誠不可怠惰 而嚮晦冥

息亦當隨時 某以爲齋時宴息乃敬也 知齋時宴息之謂 非怠惰乃可論敬之理矣

(譯) 張南軒曰 敬이란 것은 宅心(마음을 잡는 것)하는 要點이고 聖學의 淵源이다. 李季修가 묻되 「所謂敬의 說은 마땅히 努力해야 하니 眞실로 怠惰해서 는 아니 되는 것인데 齋時해서 宴息하는 것도 또한 隨時로 해야 하는가」고 함에 나는 齋時해서 宴息하는 것도 이것이 敬이니 齋時宴息이라고 함은 怠惰함이 아님을 알아야 만 이에 可히 敬의 眞理를 論할 수가 있는 것이다.

敬齋銘曰 天生斯人 良心即存 聖愚曷異 敬肆是分 事有萬變 統乎心君 一類其綱 泯焉絲棼 自昔先民 修己以敬 克持其身 須保常性 敬匪有加 惟主乎是 履薄臨深 不昧厥理 事至理形 其應若響 而實卓然 不與俱往 動靜不違 體用無忒 惟敬之功 協于天德 嗟爾君子 敬之敬之 用力之久 其惟自知 勿憚其艱 而或怠違 亦勿迫切 而以不常 毋忽事物 必精吾思 察其所發 以會于微 忿忿之前 即杜其源 有過斯改 見善則遷 是則天命 不遏于躬 魚躍鸞飛 仁在其中 於焉有得 學則不窮 知至而至 知終而終 嗟爾君子 勉哉敬止 成己成物 匪曰二致 任重道遠 其端伊邇 毫釐有差 繆則千里 (譯) 敬齋銘에 曰 天이 人을 낳는 데는 바로 良心 있게 했다. 聖愚 어찌 다를소냐 敬과 肆도 나뉘진다. 일은 비록 萬變해도 한 마음이 統御한다. 한번 紀綱 문어지면 混亂한데 빠지나니 옛적부터 先民들은 敬으로서 修己해서 그 自身을 能히 가져 恒常 本性 保全했다. 敬은 더함 없는 거니 오직 이를 주로 하여 履薄臨深하듯하라 그 理致에 밝아져서 事가 오면 理가 있으니 그 應함이 反響같다. 그의 實은 卓然하여 같이 가지 않는 거다. 動과 靜이 안어기고 體와 用도 안틀림이 오직 敬의 功인거니 天德으로 승致된다. 슬프도다 君子들은 敬하고도 敬하여라 用力함이 오려되면 그것 自然알 것이다. 어리움을 거려서 或은 나 怠惰하여 또한 迫切하게 되어 常道 아님이 없게 하라. 모든 事物 無視 말고 내 思惟를 精하게 하여 그 動機를 살피서 微細한데 理會해서 怒와 慾이 萌動하는 그 根本을 막을지니 過失하면 悔改하고 見善하면 遂行하는 것이 바로 天

命이니 自身해서 막지 말라. 魚가 튀고 쫓았는데 그 속에도 仁이 있으니 어디서나 得이 있다. 學問함엔 끝이 없으니 至할 때가 至해 있고 終할 때에 終하여라. 슬프도다 君子들이 힘을 써서 敬을 하라. 成己하고 成物함은 두 理致가 아니니라 重荷지고 먼길가나 그의 끝은 가적하니 조그만치 어긋나도 서로 千里를 떠러진다.

主一箴曰 人稟天性 其生也直 克慎厥彝 則靡有忒 事物之感 紛綸朝夕 動而無節 生道或息 惟學有要 持敬勿失 驗厥操舍 乃知出入 曷云其敬 妙在主一 曷云其一 惟以無適 居無越思 事靡他及 涵泳于中 匪忘匪函 斯須造次 是保是積 既久而精 乃會于極 勉哉勿倦 聖賢可則

(譯) 主一箴에曰 사람이 天性받아 그 생함이 直한거니 그 本心을 삼가하면 어긋남이 없을 것이나 外로 事物을 感觸하여 朝夕으로 紛擾되어 節度없이 動한다면 生의 道가 막힐 것이다. 오직 배움 必要하니 敬을 가져 잃지 말고 操舍함을 體驗하면 그의 出入알 것이다. 그 敬이란 어떤 것이냐 主一함이 妙法이고 그 이란 어떤 것이냐 無適하게 하는 것이다. 閑居할때 雜念없고 일할 때는 他心없이 中心에서 涵泳하여 잊지 말고 暫時동안 急할 때도 保全하고 살아 가서 오래되어 精하여는 그의 極에 이르나니 힘써 倦怠하지 말고 聖賢말을 摸法하라.

主一齋銘曰 人之心 一何危 紛百慮 走千歧 惟君子 克自持 正衣冠 攝威儀 湛以整 儼若思 主于一 復何之 事物來 審其幾 應以專 匪可移 理在我 寧彼隨 積之久 昭厥微 靜不偏 動靡違 嗟勉哉 自適卑 惟勿替 日在茲

(譯) 主一齋의 銘에曰 사람이 마음은 專一해야 한다. 百慮가 열키어 千歧로 가는건 오직 君子만이 克服하니라. 衣冠을 바르고 威儀를攝하며 맑게 整理하고 儼然히 생각하는듯 하나만 主로 하여 다시 어디 가리오. 事物이 來接하면 그 幾를 살피고 專心으로 應해서 옮기지 말지니라. 眞理는 내게 있다. 어찌 저를 따르

라. 쌓아서 오래가면 微함도 밝아 진다. 靜할뿐 偏하지 않고 動할뿐 어김 없이 참으로 힘을 쓰라 淵桴한 初
步에서 날마다 이렇게 해 變하지를 말아라.

朱子曰 敬之一字 學者若能實用其力 則雖程子兩言之訓 猶爲剩語 如其不然 則言愈多 而心愈
雜 所以病乎敬者 益深矣 誦敬夫之箴者 要當以識此意云

(譯) 朱子曰 敬이란 한 字를 學者가 萬若에 能히 그 힘을 實用한다면 비록 程子의 兩言한 訓戒라도 오히
려 餘談이 될 것이다. 그러하지 않을 것 같으면 말은 더욱 많아도 마음은 더욱 雜될 것이니 敬에 幣가 되
는 所以가 더욱 깊을 것이다. 張南軒의 이 箴을 의우는 者는 마땅히 이 뜻을 알아야만 할 것이다.

東萊呂氏曰 心在焉 則謂之敬 且如方對賓客談論 而他有所思 雖思之善 亦不敬也 才有間斷 便是
不敬

(譯) 呂東萊曰 一 마음이 있으면 敬이라고 하나 또한 方今 賓客을 對해서 談論을 하는데 다른 것을 생각하
는 바가 있으면 비록 생각함이 善이라도 또한 不敬한 것이니 조금이라도 間斷이 있는 것은 바로 不敬이 되는
 것이다.

敬也者 純一不雜之謂也 事在此 而心在彼 安能體得敬字 敬之一字 固難形容 古人所謂心莊則體
舒 心肅則容敬 此兩語當深體也

(譯) 敬이란 것은 純一해서 不雜한 것을 말하야니 일은 이에 있는데 마음은 저에 있으면 어찌 能히 敬字를
體得할까. 敬의 一字는 진실로 形容하기 어려우나 古人의 所謂「心이 莊하면 體가 舒하고 心이 肅하면 容이
敬한다」 한이 兩語를 마땅히 깊이 體得해야 할 것이다.

西山眞氏曰 莊謂嚴而重 肅謂靜而恭 氣象固不同也 心嚴重則體安舒 心輕肆則體躁擾 以身驗之 斯可見矣

(譯) 眞西山曰 莊은 嚴하고도 重한 것을 말한 것이고 肅은 靜하고도 恭함을 말한 것이니 氣象이 참으로 不同한 것이다. 心이 嚴重하면 體가 安舒하고 心이 輕肆하면 體가 躁擾할 것이니 몸소 體驗함으로써 이를 可히 볼 것이다.

操存則血氣順軌 而不亂 收斂則精神內守 而不浮

(譯) 操存하면 血氣가 軌道에 順해서 不亂하고 收斂하면 精神이 體內를 지켜서 不浮할 것이다.

九峯蔡氏曰 存心莫善於敬 進學莫善於知 二者不可偏廢也 (洪範皇極內篇)

(譯) 蔡九峯曰 存心에는 敬보다 나은 것이 없고 進學에는 知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 이 二者는 한가지라도 廢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敬者聖學始終之要 未知則敬以知之 己知則敬以行之 不敬則心無管攝 顛倒眩眚 安能有所知 有所行乎 (上同)

(譯) 敬이란 것은 聖學에 始終의 要訣이니 모를 때는 敬으로서 알고 이미 알았으면 敬으로서 行할 지니 不敬하면 마음이 管攝된 것이 없어서 顛倒하고 眩眚하여 어찌 能히 알 수가 있으며 行할 수가 있을까.

二帝三王之治 本於道 二帝三王之道 本於心 精一執中 堯舜禹相授之心法也 建中建極 商湯周武 相傳之心法也 曰德 曰仁 曰敬 曰誠 言雖殊 而理則一 無非所以明 此心之妙也 至於言天 則嚴其

心之所自出 言民則謹其心之所由施 禮樂教化 心之發也 典章文物 心之著也 家齊國治 而天下平 心之推也 心之德其盛矣乎(書集傳序)

(譯) 二帝三王之治는 道에 根本했고 二帝三王之道는 心에 根本한 것이다. 精一執中은 堯帝 舜帝 禹王之相授하는 心法이고 建中 建極은 商湯王 周武王之相傳하던 心法이다. 德이니 仁이니 敬이니 誠이니 함은 말은 비록 달라도 理는 하나 이니 이것은 無非이 마음의 妙理를 밝힌 것이다. 天을 말하는 데 이르러서는 그 心의 나오는 바를 嚴하게 함이고 民을 말하는 데 이르러서는 그 心의 비푸는 바를 삼가한 것이다. 禮樂教化는 心의 發한 것이고 典章文物은 心의 著한 것이며 家齊 國治 天下平은 心의 推한 것이니 心의 德은 그 盛한 것인저.

勉齋黃氏曰 敬者主一無適之謂 程子語也 然師說又謂 敬守惟畏 爲近之 蓋敬者此心肅然有所畏之名 畏則心主於一 如入宗廟 見君父之時 自無雜念 二者實相表裏 學者體之則可見矣

(譯) 黃勉齋曰 敬者는 主一無適을 이룸이라고 한 것은 程子の 말이나 先生님(朱子)說에는 또한 敬을 지킴에는 오직 畏가 近似하다고 하였으니 대개 敬이란 것이 이 마음이 肅然해서 두려워하는 바가 있음을 이르는 것이다. 畏하면 마음이 一을 주로 할 것이니 宗廟에 들어갈 때나 君父를 볼 때와 같은데는 自然히 雜念이 없어지니 主一無適과 敬守惟畏의 二者는 實로 서로 表裏가 되는 것이다. 學者는 이것을 體驗하면 可히 알 것이다.

覺軒蔡氏曰 敬字之義甚大 先師朱子 裒集程門論敬要語 詳且密矣 黃氏又述先師敬字之義 惟畏爲近之 尤精切 蓋人之一心 虛靈知覺 常肅然而不亂 炯然而不昏 則寂而理之體無不存 感而理之用無不行 惟夫虛靈知覺 既不能不囿於氣 又不能不動於慾 則此心之體用 亦將隨之 而昏且

亂矣 此所以不可不敬也 苟能惕然悚然 常若鬼神父師之臨其上 深淵薄氷之處其下 則虛靈知覺者 自不容於昏且亂矣 此敬字之義 惟畏爲近之 其說不可易矣

(譯) 察覺軒曰 敬字의 뜻은 불히 크니 先師朱子께서는 程子의 論敬하신 要語를 蒐集했음이 詳密한데 黃勉齋는 또 先師의 敬字뜻은 오직 畏字가 近似하다는 것을 承述해서 더욱 精切히 한 것이다. 대개 사람의 一心은 虛靈知覺해서 恒常 肅然하게 混亂되지 아니하고 炯然하게 昏昧하지 아니하며 靜寂해서는 理의 本體가 있지 않음이 없고 感動해서 理의 作用이 行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虛靈知覺은 이미 氣에 限定되지 않을 수가 없고 또한 慾에 被動되지 않을 수도 없다면 이 마음의 體와 用이 또한 將次 따라서 昏昧하고도 混亂한 것이니 이것이 敬하지 아니해서는 안되는 所以다. 萬若에 能히 惕然하고 悚然하게 恒常 鬼神이나 父師가 뒤에서 臨하시고 深淵이나 薄氷이 아래에 있는 듯이 하면 虛靈知覺한 것이 自然히 昏昧하고 混亂하게 될 수가 없을 것이니 이것이 敬字의 뜻이 오직 畏에 가깝다고 한 그說을 變易할 수가 없는 것이다.

西山眞氏(德秀)曰 端莊靜一 乃存養工夫 端莊主容貌而言 靜一主心而言 表裏交正之功 合而言之 敬而已

(譯) 眞西山曰 端莊靜一은 이것이 存養하는 工夫이니 端莊은 容貌을 주로 해서 말한 것이고 靜一은 心神을 주로 해서 말한 것이라 表裏가 交正하는 功을 합해서 말하면 敬본인 것이다.

心經贊曰 相古先民 以敬相傳 操約施博 孰此爲先

(譯) 心經贊曰 ！ 옛적 先民 仰慕하니 敬으로서 相傳했네. 要約하여 施博하는 이에 무엇 앞서리오.

魯齋許氏(應)曰 爲學之初 先要持敬 敬則身心收斂 氣不粗暴 清者愈清 而濁者不得長 美者愈美

而惡者不得行 靜而敬 常念天地 鬼神臨之 不敢少忽 動而敬 自視聽色 貌言事 疑忿 得一省察 不要逐物去了 雖千萬人中 常知有己 此持敬之大畧也 禮記一部 近十萬言 最初一句曰 毋不敬 天下古今之善 皆從敬字上起 天下古今之惡 皆從不敬上生 在小學便要敬 在大學也 索要敬 爲子爲臣 爲君爲父 皆索要敬 以至當小事 當大事 都索要敬 這一件 先能着力 然後可以論學 覺又先要窮理 (譯) 許魯齋曰 工夫하는 처음에는 먼저 持敬을 要하니 敬하면 身心이 收斂되어 氣가 粗暴하여 아니해서 淸한 것이 더욱 淸하여지고 濁한 것이 더하여 못하며 美한 것이 더욱 美하여져서 惡한 것이 行하여 못하는 것이다. 靜할때 敬함에는 恒常 天地鬼神이 臨한 듯이 생각되어 敢히 조금도 輕忽하지 아니 하며 動할때 敬함에는 스스로 視聽色貌 言事疑忿을 一一히 省察해서 外物을 따라가 버리지 않게 될 것이니 비록 千萬人中에서 라도 恒常 自己가 있음을 알 것이라 이것이 持敬하는 大累이다. 禮記 한부는 近十萬言인데 最初의 一句에 는 「毋不敬」이라고 하였으니 天下古今의 善은 다 敬字上에서 나오고 天下古今의 惡은 다 不敬에서 나오는 것이다. 小學에서는 문득 要敬을 찾았고 大學에서도 또한 要敬을 찾았으니 子思되고 臣下가 되고 君上이 되고 父親이 됨에도 要敬을 찾았으니 小事를 當하나 大事를 當하나 모두다 要敬을 찾는 二一件을 먼저 能히 着力한 然後에야만 可히 學을 論할 것이고 覺은 또한 먼저 窮理를 要하는 것이다.

篁墩程氏曰 許氏生畜戎 擾擾之秋 無所師承 而獨有得于程朱之心學 惜乎言語文字不能盡見 其可見者 若居敬窮理之類 皆至論也 然則民彝物則 固不與世爲存亡 而非豪傑之士 則亦豈能舊起乎百世之下也哉

(譯) 程篁墩曰 許氏는 亂戎의 擾亂할때 나서 師承한 곳도 없이 獨히 程朱의 心學에 所得이 있었으나 可惜하게도 言語文學을 能히 다 보지는 못하고 그 본것은 居敬窮理의 類같은 것이니 다 至論인 것이다. 그

러면 人間의 良心 物質의 法則은 眞실로 世上과 더불어서 存亡하게 되지 않는 것이니 聖傑의 士가 아니면 또한 어찌 能히 百世의 下에서 奮起할 수가 잇을까

草廬吳氏(諱) 敬銘曰 惟人之心 易於放逸 操舍存亡 或入或出 敬之一字 其義精密 學者所當 服膺 勿失 收斂方寸 不容一物 如入靈祠 如奉軍律 整齊嚴肅 端莊靜一 戒慎恐懼 兢業戰慄 如見大賓 罔敢輕率 如承大祭 罔敢慢忽 視聽言動 非禮則勿 忠信傳習 省身者悉 把捉於中 精神心術 檢束 於外 形骸肌骨 常令惺惺 又新日日 敢以此語 鏤于虛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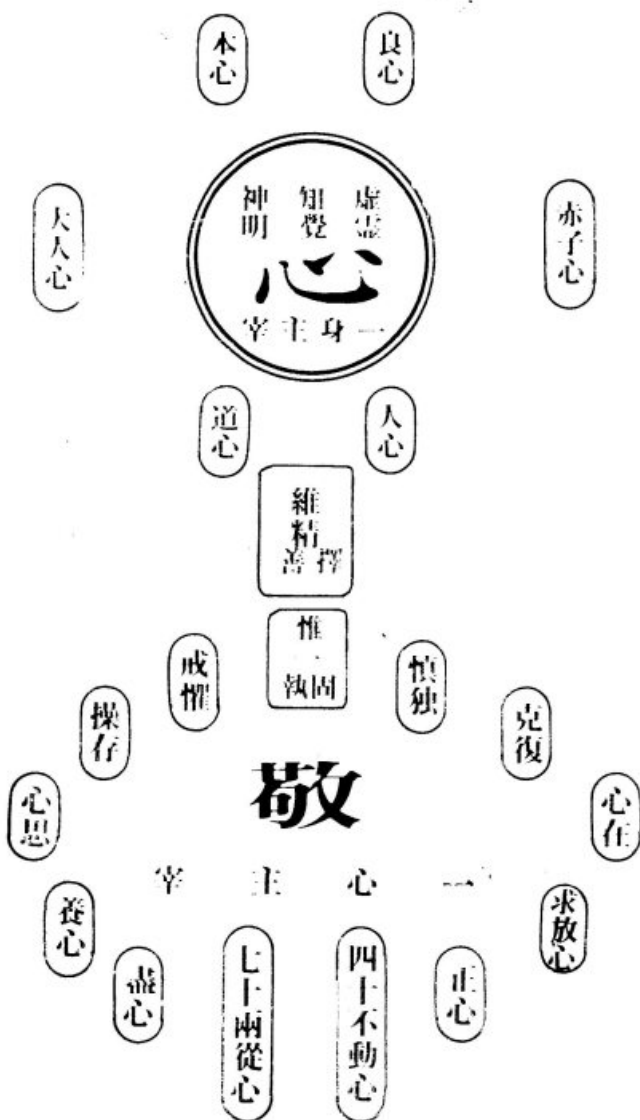
(譯) 吳草廬의 敬銘에 曰—오직 사람 마음이란 放逸하기 쉬운 것이니 操舍함에 存亡하여 或은 들고 或은 난다. 敬이라는 한 글자는 그의 뜻이 精密하니 學者들은 當然하게 服膺해서 잊지 말라. 方寸마음을 收斂하여 한 物件도 들수 없게 神靈 祠堂 들어간듯 嚴한 軍律 받드는듯 整齊하고 嚴肅하게 端莊하고 靜一하게 戒慎하고 恐懼하며 兢業하고 戰慄하여 큰 손님을 본듯하여 敢히 輕率하지 말고 큰 祭祀를 받드는듯 敢히 慢忽하지 말고 視聽하고 言動함에 禮아니면 하지 말고 忠과 信을 傳習하여 自身反省다 하여라 속에서 把捉함은 精神과 心術이고 밖에서 檢束함은 形骸와 肌骨이다. 恒常惺惺하게 하여 또한 날로 새롭혀라 敢히 이에 이 말로 서 虛室에다 새겨둔다.

林隱程氏(復心) 心學圖說曰 亦子心 是人欲未泊之良心 人心即覺於欲者 大人心 是義理具足之本心 道心即覺於義理者 此非有兩樣心實以生於形氣 則不能無人心 原於性命則所以爲道心 自精一擇執 以下 無非所以遏人欲 而存天理之工夫也 慎獨以下是遏人欲處工夫 必至於不動心 則富貴不能淫 貧賤不能移 威武不能屈 可以見其道明德立矣 戒懼以下 存天理處工夫 必至於從心 則心即體 欲 即用 體即道 用即義 聲爲律 而身爲度 可以見不思而得 不勉而中矣 要之 用工之要 俱不離乎敬

蓋心者一身之主宰而敬又一心之主宰也 學者熟究於主一無適之說 整齊嚴肅之說 與夫其心收斂常惺惺之說 則其爲工夫也盡而優入於聖域 亦不難矣。

(譯) 程林隱의 心學圖說에曰 一赤子心은 이것이 아직 人慾에 빠지지 않는 良心이고 人心은 바로 慾에 깨우친 것이며 大人心은 이것이 義理가 具足한 本心이고 道心은 바로 義理를 깨우친 것이니 이것은 두가지 形體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實은 形氣에서 生存하는대는 人心이 없을 수도 없고 性命에서 樣根源한 데서는 道心이 되는 것이다. 精一 擇執의 以下는 無非라 人慾을 막고 天理를 가지는 工夫가 되는 所以며 慎獨의 以下는 이것이 人慾을 막는 것이니 工夫가 반드시 不動心에 이르르면 富貴가 能히 誘惑하지 못하고 貧賤에 能히 移易되지 않으며 威武에 能히 屈服되지 않는 것이니 可히 그 道가 밝고 德이 선 것을 可히 알 것이다. 戒懼의 以下는 天理를 保存하는 것이니 工夫가 반드시 從心에까지 이르르면 心은 바로 體고 慾은 바로 用이며 體는 바로 道고 用은 바로 義며 聲은 律이 되고 身은 度가 되어 可히 不思想도 發見하고 不勉해도 得中하는 것이니 要컨데 用工하는 要點은 모두다 敬에 不外한 것이다. 대개 心은 一身의 主宰이고 敬은 또 一心의 主宰이니 學者가 主一無適의 說과 整齊嚴肅의 說과 其心收斂 常惺惺의 說을 닦혀 研究한다면 그의 工夫가 다 되어서 聖人의 世界에 超入하기가 또한 어렵지 않을 것이다.

心 學 圖



篁墩程氏曰 此圖盡心學之妙 而所論亦足以發心學之要

(譯) 程篁墩曰—이圖는 心學의 妙理를 다한 것으로서 論한 바가 또한 心學의 要點을 開發함에 足한 것이 다.

退溪先生曰 程氏字子見新安人 隱居不仕行義甚備 白首窮經 深有所得 著四書章圖三卷 元仁宗朝 以薦爲召至將用之 不願即致仕 而歸其爲人如此

(譯) 退溪先生曰—程林隱은 字가 子見이고 新安人이니 隱居해서 벼슬은 하지 아니하고 行義함에 甚備하였 다. 白首까지 經書를 研究해서 것은 所得이 있었으니 四書章圖란 冊三卷을 지었다. 元의 仁宗朝에 薦居되 어 政府에서 불러 쓰려하니 그것을 願하지 아니하고 退歸하였으니 그爲人이 이렷던 것이다.

南塘陳氏(栢) 夙興夜寐箴曰 鷄鳴而寤 思慮漸馳 盍於其間 澹以整之 或省舊愆 或紬新得 次第條理 瞭然默識 本既立矣 味爽乃興 盥櫛衣冠 端坐斂形 提掇此心 皦如出日 嚴肅整齊 虛明靜一 乃啓方冊 對越聖賢 夫子在座 顏曾後先 聖師所言 親切敬聽 弟子問辨 反覆參訂 事至斯應 即驗于爲 明命赫然 常目在之 事應既己 我則如故 方寸湛然 凝神息慮 動靜循環 惟心是監 靜存動察 勿式勿參 讀書之餘 間以游泳 發舒精神 休養情性 日暮人倦 昏氣易乘 齊莊整齊 振發精明 夜久斯寢 齊手斂足 不作思惟 心神歸宿 養以夜氣 貞則復元 念茲在茲 日夕乾乾

(譯) 陳南塘의 夙興夜寐箴에 曰—닭이 울면 잠이 깨서 思慮함이 漸馳한다. 어찌 그의 사이에서 澹然하게만 整할까. 或은 舊愆反省하고 或은 새것 찾아내서 順序대로 條理있고 瞭然하게 默識하라 本領이 미 서 있는데 未明할때 일어나서 洗水하고 衣冠갖춰 端坐해서 斂形하여 이 마음을 가다듬어 鮮明하게 朝日처럼 嚴肅하고

整齊하여 虛明하고 靜一할 때 이에 書冊 펴서 놓고 聖賢 말씀 대해보니 孔夫子가 계시는데 顔子曾子 앞과 뒤로 聖師께서 하신 말씀 親切하게 敬聽하고 弟子들이 問辨함을 反覆해서 參訂하여 일이오면 應하여서 바로 그것 體驗하라. 天의 明命赫然하게 恒常 눈에 있게 하여 일에 應해하고 나는 본래 그대로다. 方寸 마음 湛然하게 靜神統一 思慮없게 動靜함이 循環하나 마음만은 보고 있다. 靜存하고 動察함에 돌도 말고 셋도 말라. 讀書하는 餘暇에는 間或가다 游泳하여 精神을 發舒하고 情性을 休養하라. 날 저물어 倦怠하면 昏氣 쉽게 덮치나니 齊莊하고 整齊해서 精明함을 振發하라 밤에 오래 자는 데는 손과 발을 齊斂해서 아무 思慮하지 말면 心神이 歸宿하니 夜氣로서 靜養하여 貞하면 復元한다. 恒常 이를 思念해서 晝夜로 努力하라.

范氏祖禹曰 聖人順天地陰陽之理 觀萬物之情 明而動 晦而休 故以鷄鳴 爲夙興夜寐之節

(譯) 范祖禹曰—聖인은 天地陰陽의 理에 順하고 萬物의 情을 보아 明함에는 動하고 晦함에는 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鷄鳴으로써 夙興夜寐의 要節로 한 것이다.

又曰 君子之修身 不以有事而蚤 無事而晏 其與居皆順天地之理 所以爲常也

(譯) 君자의 修養함은 有事하다고 해서 早起하고 無事하다고 해서 晏起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興하고 居하는 것이 다 天地의 理에 順함으로써 常道로 하는 것이다.

夙興夜寐箴圖

鶴鳴而寤 思慮漸馳 盍於其間 潛以整之 或省舊愆 或紬新得 次第條理 瞭然嘿識

木既立矣 麻爽乃興 盥擯衣冠 端坐斂形 提掇此心 儼如出日 嚴肅整齊 虛明靜一



動靜循環 惟心是監 靜存動察 勿忒勿參 讀書之餘 間以游泳 發舒精神 休養情性

兼夙夜

日暮人倦 昏氣易乘 齊莊整齊 振發精明 夜久斯寢 齊手斂足 不作思惟 心神歸宿

退溪先生曰 右箴南塘陳茂卿所作 以自警者 金華王魯齋嘗主教台州上蔡書院 以是箴爲教 使人誦習服行 今謹倣魯齋敬齋箴圖 作此圖 蓋敬齋箴 有許多用工地頭 故隨其地頭 而排列爲圖 此箴有許多用工時分 故隨其時分 而排列爲圖 道之流行於日用之間 無所適而不在 故無一席無理之地 何地而可輟工夫 無頃刻之或停故無一息無理之時 何時而不用工夫 故子思子曰 道也者 不可須臾離也 可離非道也 是故君子 戒慎乎其所不睹 恐懼乎其所不聞 又曰 莫見乎隱 莫顯乎微 故君子慎其獨也 此一靜一動 隨處隨時 存養省察 交致其功之法也 果能如是 則不遺地頭 而無毫釐之差 不失時分 而無須臾之間 二者並進 作聖之要 其在斯乎

(譯) 退溪先生曰 右의 箴은 南塘陳茂卿의 所作으로 自警한 것인데 金華에 王魯齋가 있찌기 台州의 上蔡書院에 主敎로서 이 箴을 가르쳐서 사람마다 讀習하고 實行하게 하였던 것이다. 只今의 삼가 魯齋의 敬齋箴圖에 倣倣해서 이 圖를 지었으니 大개 敬齋箴에는 許多한 工夫할 地頭(端緒)가 있기 때문에 그 地頭를 따라서 排列하여 圖를 만들었고 이 箴에는 許多한 工夫할 時分이 있기 때문에 그 時分을 따라서 排列하여 圖로 만든 것이다. 道가 日用하는 사이에서 流行하는 데는 가는 곳마다 있지 않은 곳이 없기에 한곳에도 理가 없는 곳은 없으니 어느 곳에서 可히 치울수가 있을까. 工夫는 暫時라도 停止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一息의 間이라도 理가 없을 때는 없으니 인제인들 工夫를 하지 않을까. 그러므로 子思子는 「道란 것은 暫時라도 떠날수가 없으니 可히 떠날수 있다면 道가 아니다. 그러니 君子는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戒慎하고 그 들리지 않는 곳에서 恐懼한다」고 하였고 또한 「隱한 것 보다 더 보이는 것은 없고 微한 것 보다 더 드러나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君子는 그 獨居할 때를 삼가한다」고 하였으니 이 一靜一動은 곳을 따라 때를 따라서 存養하고 省察하여 그의 功을 交致하는 方法이다. 果然 能히 이와 같이 한다면 地頭를 잃지 않아서 毫釐의 差도 없을 것이고 時分도 잃지 않아서 暫時의 間斷도 없을 것이니 두가지가 並進하면 聖人되는 要

點이 이에 있을 것인저.

篁墩程氏(敏政)曰 人之得名爲人 可以參三才 而出萬化者 以能不失其本心而已 顧其操縱得失于一念 俄頃之間 聖狂舜黜 於是焉分 其可畏如此 古之人所以爲涵養本原之計者 至不敢撤琴瑟 而廢箴敝于左右 使體立用宏 顯微不二 用底于希聖布天之極功有以也 蓋嘗反覆紬繹得程子之說曰 天德王道 其要只在謹獨 又曰 學者須是將敬以直內 涵養直內是本 朱子亦曰 程先生有功於後學 最是敬之一字 敬者聖學始終之要也 蓋是經訓 不出敬之一言 故其語約而義精 其功簡而效博 誠所謂障川之柱 指南之車 燭幽之鑑 大有功于斯道 而造次顛沛 不可忽焉者也(心經附註序)

(譯) 程篁墩曰 一 사람의 사람이란 名을 얻었음은 可히 三才에 參해서 萬化가 出하는 것이기 때문이니 能히 그 本心을 잃지 않는 것 뿐이다. 一念을 操縱하고 得失함을 돌아보면 暫時 동안에 聖人과 狂人 大舜과 舜黜이 그에서 分化가 되나니 그 可畏함이 이와 같은 것이다. 옛적 사람이 本源을 涵養하는 方法은 敢히 琴瑟을 撤去하고 左右에 箴警을 廢하지 않는 데까지 至하여 하여금 體가 서고 用이 커서 顯과 微가 둘이 아니게 해야 하니 賢은 聖을 바라고 聖은 天을 바라는 極功에 까지 이른 所以가 있는 것이다. 대개 일찌기 反覆하고 紬繹하여 程子の 說을 얻으니 「天德이나 王道는 그 要點이 다만 謹獨에 있다」고 하고 또한 「學者는 모름지기 이 敬以直內를 가지고 涵養해야 하니 直內하는 이것이 根本이라」고 하였는데 朱子는 또 「程先生이 後學에 有功한 것은 가장 이 敬이란 一字이니 敬이란 것은 聖學의 始終되는 要點이다」고 하시었다. 대개 이 經典의 가 르친 바는 敬의 一言에 不過하니 그러므로 그 말은 要約해도 그 意義는 精하며 그 功은 簡小해도 그 效果는 博한 것이니 진실로 障川의 柱이고 指南의 車며 燭幽의 鑑이라고 하는 바라 크게 斯道에 功이 있으니 急遽間이라도 輕忽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敬軒薛氏曰 心如鏡 敬如磨鏡 鏡纔磨則塵垢去 而光彩發 心纔敬則人慾消而天理明(讀書錄 下并同)

(譯) 薛敬軒曰 心은 鏡과 같다면 敬은 그를 가는 것과 같으니 鏡을 다 갈면 塵垢가 없어지고 光彩가 나는 것처럼 心은 다 敬하면 人慾이 사라지고 天理가 밝아지는 것이다.

從事於主敬者 斯得太極之妙

(譯) 主敬에 從事하는 者는 이에 太極의 妙를 얻을 것이다.

敬則卓然

(譯) 敬하면 卓然하게 되느니라.

敬則光明

(譯) 敬하면 光明해 지나니라.

敬則中虛無物

(譯) 敬하면 中心이 虛明해서 無物하게 되리라.

惟敬足以神明其德

(譯) 오직 敬함에만 足히 그 德이 神明해 지나니라.

敬則都是一片公正的心 不敬則無限私竊的心生矣

(譯) 敬하면 都統이 一片의 公正한 마음이 되고 不敬하면 無限히 私竊한 마음이 생기리라.

只主於敬 自有卓立 不然東倒西歪 卒無可立之地

(譯) 다만 敬을 主로 하면 自然히 卓立될 것이나 그러하지 못하면 東西로 치우쳐서 마침내 可立할 땅이 없을 것이다.

人不持敬 則心無頓放處

(譯) 사람이 持敬하지 못하면 放心을 막을 곳이 없을 것이다.

纔敬便渣滓融化 而不勝其大 不敬則鄙吝即萌 而不勝其小矣

(譯) 조금이라도 敬하면 바로 渣滓가 融化해서 그 커지기가 限없을 것이나 不敬하면 鄙吝한 마음이 萌動해서 그 작아지기가 限이 없을 것이다.

不主敬 則嗜慾無涯 馳騖不止 眞病風狂惑之人也

(譯) 主敬을 하지 않으면 嗜慾이 끝없이 放馳해서 그 치지 않을 것이니 참으로 風病처럼 狂惑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主一則氣象清明 二三則昏昧矣

(譯) 主一하면 氣象이 清明하나 二三으로 같으면 昏昧해지는 것이다.

主一則作事不差 纔二三則雖動靜小事亦差 况大事乎

(譯) 主一하면 일을 하는데 어김이 없을 것이나 二三으로 갈라지면 비록 動靜하는 小事라도 또한 어긋날 것인데 하물며 큰 일일까。

行第一步 心在第一步上 行第二步 心在第二步上 三步四步 無不如此 所謂敬也 如行第一步 而心在二三步之外 行第二步 而心在五六步之外 即非敬矣 若寫字處事 無不皆然 寫第一字 心在第一字上 爲一事 心在一事上 件件專一 便是敬 此程子所謂主一之謂敬 無適之謂一歟

(譯) 行에 第一步를 때어 놓을 때는 心도 第一步上에 있고 行이 第二步를 때어 놓을 때는 心도 第二步上에 있고 三步나 四步도 모두 이와같이 하는 것이 所謂敬이란 것이다。萬若에 行은 第一步를 때어 놓는데 心은 二三步의 外에 있고 行은 第二步를 때어 놓는데 心은 五六步의 外에 있으면 바로 敬이 아닌 것이다。寫字나 處事같은 데도 다 그렇지 않음이 없으니 第一字를 쓰는 데는 心도 第一字上에 있고 一事를 하는 데는 心도 一事上에 있어서 件件마다 專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敬이니 이것이 所謂 程子の 主一을 敬이라 하고 無適을 一이라고 하는 것인저。

斯須苟且即非敬矣

(譯) 暫時라도 苟且히 함은 바로 敬이 아닌 것이다。

持己得一敬字 接物得一謙字

(譯) 自身을 가지는 데는 한 敬字를 얻고 他人을 接할 때는 謙字를 얻을 지니라。

自敬則人敬之 自慢則人慢之

(譯) 스스로 敬하면 남도 敬해 주고 스스로 慢하면 남도 慢해 줄 것이다.

作官者 於愚夫愚婦 皆當敬以臨之 不可忽也

(譯) 官員이 된 者는 愚夫愚婦에라도 다 敬으로서 臨해야 하고 可히 忽待해서는 안될 것이다.

伊尹曰 接下思恭 豈惟人君當然哉 有官君子 於臨政處事之際 所當極其恭敬 而不可有一毫倣忽之心 不惟臨衆處事爲然 退食燕息之時 亦當致其嚴肅 而不可有頃刻褻慢之態

(譯) 伊尹이「接下하는 데는 恭敬을 생각하라」고 하였음이 어찌 오직 人君만이 當然한 것일까. 官에 있는 君子도 臨政하고 處事할 때는 마땅히 그의 恭敬을 極盡히 해야만 할 것이고 一毫라도 倣忽하는 마음이 있어서 는 아니 되는 것이다. 오직 臨衆하고 處事하는 데만 그런 것이 아니라 退食하고 燕息하는 때에라도 또한 마땅히 嚴肅하게 해서 暫時라도 褻慢하는 態度를 가져서는 아니 될 것이다.

臨政持己 一於恭敬 則動靜無違 人慾消而天理明矣

(譯) 政治에 臨해서 自己를 가지는 데 恭敬에만 專一하면 動靜이 어기지 않아서 人慾이 사라지고 天理가 밝아질 것이다.

處已接物 事上使下 皆當以敬爲主

(譯) 自身이 處하고 他人을 接하며 事上하고 使下하는 데도 다 마땅히 敬으로서 爲主로 해야만 할 것이다.

天水胡氏(續宗) 書讀書錄後曰 薛氏其有得於敬乎 讀是錄數過 而心不敬身 不省者鮮矣 薛氏其有得於敬乎

(譯) 胡天水가 쓴 讀書錄의 後에 曰―薛氏는 그 敬에서 體得함이 있는 것인가. 그 讀書錄을 두어 번 읽으면 心을 警戒하고 身을 反省하지 않는 것이 드무니 薛氏는 그 敬에서 體得한 것이 있는 것인가.

退溪先生曰 爲學莫如先立其主宰 敬可以立主宰

(譯) 退溪先生曰―學問하는 데는 먼저 主宰를 세우는 것만한 것이 없는데 敬하면 可히 그 主宰가 세워질 것이다.

問 敬之爲說多端 何如可以不陷於 忘助之病乎 答曰其爲說雖多 而莫切於程謝尹朱之說矣 但學者或欲做惺惺工夫 或欲做不容一物工夫 而先有心於尋覓 而或涉安排 則其不生揠苗之病者 幾希不欲助長 而纔不用意 則其不至於舍 而不芸者 亦罕矣 莫若就整齊嚴肅上做工夫 不容尋覓 不容安排 只是立脚於規矩準繩之上 戒懼於幽暗隱微之際 不使此心 少有放逸 則久而後 自然惺惺 自然不容一物 無少忘助之病矣 伊川嘗曰 非着意非不着意 朱子答張敬夫書 以敬爲主 則內外肅然 不忘不助 而心自存 不以敬爲主 而欲存心 則不免將一個心 把捉一個心 外面未有一事時 裏面已是三頭兩緒 不勝其擾擾矣 程朱此說 明白切當 宜深味之(良齋錄)

(譯) 누가 敬의 說은 多端한데 어찌 해야만 可히 忘却하거나 助長하는 病에 빠지지 않을까고 물으니 退溪先生答曰―그의 說이 비록 多端해도 程子 謝上蔡 尹和靖 朱子の 說보다 더 切實한 것은 없으니 다만 學者가 或은 惺惺하는 工夫를 하려 하고 或은 一物도 不用하는 工夫를 하려해서 먼저 그것을 찾는 데 마음이 있고 或은 安排를 하면 그것은 곡식 희미를 뽑아 솟구어 키우려는 病이 되지 않는 者가 드물 것이고 그처럼 억지로 키우려고는 아니해도 조금 用意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밭을 버려두고 매지도 않는 데 이르지 않는 者도

또한 드물 것이다. 그러나 整齊嚴肅上에 나아가서 工夫하여 尋覓도 安排도 容認하지 않는 것만 같지 못하니 다만 이것은 規矩準繩의 上에 立却해서 幽暗隱微의 際에 戒懼하여 此心으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放逸함이 없게 하면 오랜 뒤에는 自然히 惺惺해지고 自然히 一物도 不容하게 되어 조금도 忘却하거나 助長하는 病이 없 어질 것이다. 伊川이 일찌기「着意하지 않음은 着意하지 않음이 아닌 것이다」고 말하고 朱子는 張敬夫書의 答에서「敬을 主로 하면 内外가 肅然해서 忘却하거나 助長하거나 하지 않아도 마음은 自存하게 될 것이나 敬 으로서 主로 하지 않고서 存心만 하려하면 一個心으로서 一個心을 把握하여 外面에는 아직 一事도 잊지 않 을 때 裏面에는 벌써 三頭兩緒로 紛擾하게 됨을 免치 못할 것이다」고 하셨으니 程朱의 이런 說이 明白하고 切實하니 마땅히 諷이 吟味해야만 될 것이다.

問 一日操存 雖無走作 往往昏冥 而無光明氣象 曰 持敬不熟之故也 強而操之 則反有此病 如波 滾沙 如谷騰霧 反以自病

(譯) 누가「一日에 操存해서 비록 走放함은 없다고 해도 往往이 昏冥해져서 光明한 氣象이 없다」고 물으니 答曰「持敬이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無理하게 잡으면 도리어 이 病이 있어서 물결이 沙上에 내칠과 같 고 골짜기에 濃霧가 오름과 같아서 도리어 스스로 病이 되는 것이다

問 何以則去此病 曰 別無他方法 程子曰 所以求收放心之心 是乃收放心之法 然則所以求持敬 是 持敬之法 大抵有此病者 無他助忘之所致 而忘病尤多 無此助忘之病 則無此昏冥之病矣(上同)

(譯) 누가「어찌하면 이런 病을 고칠까」고 물으니 答曰「別로 다른 方法은 없는 것이나 程子는「放心을 求入 하는 所以의 마음 이것이 이에 放心을 求入하는 法이다」고 하셨으니 그러면 持敬을 求하는 所以도 이것이 持敬하는 法이니 大抵이 病이 있는 者는 다름이 아니라 強助하고 忘却하는 所致인데도 忘却하는 病이 더욱

많으니 이 助忘하는 病이 없으면 이 昏冥하는 病은 없을 것이다.

問 靜坐有拘束之病 則如何 曰 血肉之軀自少全無檢束 一朝遽欲靜坐收斂 則豈無拘束之病 須是堅耐辛苦 無快活時節 更歷歲久 然後 方無拘束之病 若厭拘束 而待其自然 則是乃聖賢百體從令而恭而安之事 非初學之可能也 大抵拘束之病 實由持敬之工 未至故也 心若惺惺 無所怠放 則百體自然收斂 而從令矣(鶴峯集)

(譯) 누가 「靜坐하는데 拘束되는 病이 있으면 어찌 할까」고 물으니 答曰 「血肉으로 된 몸은 少時부터 全히 檢束됨은 없었는데 一朝에 갑자기 靜坐해서 收斂하려면 어찌 拘束되는 病이 없으리오. 모름지기 이 辛苦를 堅耐해서 快活한 時節이 없이 하여 다시 오랜 歲月을 지낸 然後에야만 拘束되는 病이 없어질 것이다. 萬若에 拘束을 싫어해서 그 自然을 기다리면 이것은 聖賢이 百體가 從令해서 敬으로 安하는 것은 初學者의 可能한 것이 아니다. 大抵 拘束되는 病은 實로 持敬하는 工夫가 아직 不足한데서 오는 것이니 마음이 萬若 惺惺해서 怠放한 바가 없으면 百體가 自然으로 收斂되어 제대로 될 것이다.

問 思慮煩擾 曰 人不可無思慮 只要去閒思慮耳 其要不過敬而已 敬則心便一 一則思慮自靜矣

(鶴峯集)

(譯) 누가 思慮가 煩擾함을 물으니 答曰 「사람은 思慮가 없을수 없으니 다만 閒漫한 思慮만 버리면 되는 것인데 그의 要點은 敬에 不過할 뿐이다. 敬하면 마음이 바로 專一해지고 專一하면 思慮가 스스로 安靜이 될 것이다.

答李宏仲書曰 詢及諸說 請各據本說明之 其正衣冠一段 本朱子答方耕道書中語 其上文有曰 願更

於日用動靜語默之間 自立規程深務涵養 若程夫子所謂敬者 不過曰 正衣冠一思慮 莊整齊肅 不欺 不慢而已 今詳垂問之意 欲於此分動靜 夫爲學者 立日用規程之語 固當動靜無學 無所遺闕 其曰 正衣冠曰莊整齊肅 是以靜言 然而動時 衣冠豈可不正 容止事物 豈可不莊整齊肅乎 曰一思慮曰 不欺不慢 是以動言 然而靜時 此心尤不可不主於一本原之也 又豈容有一毫欺慢乎 故朱子又嘗曰 心體通有無 貫動靜方無透漏 正謂此也 至若所學四先生言敬之異 各是發明一理 皆不可闕 如朱子敬 齋箴動靜表裏 主一無適 備舉而言之 安有取舍於其間哉 其用力之要 則亦當各從其語 旨義之所在 反覆研味 而實體行之 恐不當別求他方便也 若欲就此 求其所當先者 則意亦切矣 竊謂四先生言 敬之中 程子整齊嚴肅一段 始學之所當先 莫切於此 由此而入 至於力久功深 而有得焉 則所謂三方 入處 皆在其中者 始信其不我欺矣

(譯) 李宏仲에게한 答書의 曰—諸家의 說에 各其本據에 對한 說明을 請하였으니 그「正衣冠」의 一段은 本디 朱子가 方耕道에한 答書中에서 있는 말이니 그 위의 言에는 顯컨대 다시 日用하는 動靜과 語默의 間에 스스 로 規定을 세워서 깊이 涵養을 힘쓸 것이니 萬若에 程子의 所謂 敬이란 것은 正衣冠 一思慮 莊整齊肅 不欺 不慢에 不過하다고 할 뿐이다고 하였으니 只今에 仔細히 묻는 뜻은 이에서 動靜을 나는 것이다. 무릇 工夫하는 者는 日用에 規程하는 말을 세워서 眞실로 마땅히 動靜을 兼해서 遺闕함이 없게 해야만 할 것이다. 그의 말한「正衣冠」「莊整齊肅」은 이것이 靜으로서 말한 것이나 動할 때라고 衣冠을 어찌 바루지 아니 해서 되며 容止事物에 어찌 可히 莊整齊肅하지 아니해서 될까. 또 말한「一思慮」「不欺不慢」은 이것이 動으로 말한 것이나 靜할 때라도 이 마음은 더욱 一을 主로 하지 아니 해서 는 아니 되는 本原之地이니 또 어찌 一毫의 欺慢인줄 容納될수 있을까. 그러므로 朱子는 또「心體는 有無을 通하고 動靜을 貫해서 透漏함이 없는 바로

이것을 말씀 하셨다。拳論한바 四先生의 敬을 말씀함이 다른점 같은데 이르러서는 各其다 이 一理를 發明하셨으니 다 闕해서는 아니될 것이나 朱子の 敬齋箴 같은 것은 動靜 表裏 主一無適을 모두 들어 말씀하셨으니 어찌 그 間에 取捨한 것이 있었을까。 그 用力하는 要點은 또한 마땅히 各其 그 말에 따라서 그 뜻이 所在을 反復해서 研究하여 實際로 體行해야만 할 것이고 아마 別로 다른 方便을 求해서는 아니될 것이다。萬若 이에서 그의 先務할 바를 求하려 한다면 그 뜻이 또한 切實한 것이다。 나는 말하노니 四先生이 敬을 말한 가운데는 程子の 「整齊嚴肅」이란 一段은 初學者의 先務로 해야만 할 바가 이보다 더 切實한 것은 없을 것이니 그로 들어가 오래 힘써 功이 깊어져서 所得이 있으면 所謂三方으로 들어와도 모두다 그 中에 있다는 것이니 비로소 그것이 나를 속이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第二

淵源通集(按古今聖賢淵源大統之外亦多有諸賢實蹟與之相承故又分爲通集以類列揭如左)

昔在殷王中宗 嚴恭寅畏 天命自度 治民祇懼 不敢荒寧 肆中宗之享國 七十有五年(周書無逸篇)

(譯) 옛적 殷나라 왕 中宗에 있어서 는 嚴恭하고 敬畏해서 天命을 自度하여 治民에 謹愼하사 敢히 荒怠하지 않으셨으니 이것이 中宗의 享國이 七十五年이 된 近以인 것이다.

孔氏曰 以敬畏以故 得壽考之福

(譯) 孔子曰 敬畏하였기 때문에 壽考한 福을 얻었던 것이다.

呂氏曰 嚴恭寅畏 合而言之敬也 既畏天命 必不敢輕 下民祇懼 不敢荒寧 皆敬也 惟敬故壽也 主靜則悠遠博厚 自強則堅實精明 操存則血氣順軌 而不亂 收斂則精神內固 而不浮 此皆敬之方 壽之理也

(譯) 呂氏曰 嚴恭寅畏는 合해서 말하면 敬이다. 이미 天命을 敬畏했으니 반드시 輕忽하지 않으셨고 下民을 祇懼해서 敢히 荒寧하지 않으셨음이 모두 敬인 것이다. 오직 敬하기 때문에 壽를 한 것이니 主靜하고 悠遠하고도 博厚하며 自強하면 堅實하고도 精明하며 操存하면 血氣가 順行해서 不亂하고 收斂하면 精神이 內守해서 不浮한 것이니 이것이 모두 敬하는 方法이고 壽하는 理致인 것이다.

張氏曰 不敢荒寧 則志氣凝定 精神統一此長年之基

(譯) 張氏曰 一不敬荒寧하면 志氣가 凝定하고 精神이 統一될 것이니 이것이 長壽하는 基本인 것이다.

其在高宗時 不敢荒寧 嘉靖殷邦(上同)

(譯) 그 高宗때 있어서는 敢히 荒怠하지 않으시사 殷나라를 아름답게 安靖시켰던 것이다.

王庸作書以誥曰 台恐德不類 茲故不言 恭默思道(說命篇)

(譯) 王께서 詔書를 지어서 布誥하시 나는 德이 前人和 類似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니 그러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아니하고 恭敬해서 嘿嘿히 道理만 생각하노라.

蔡氏曰 此言以我 表正四方 任大責重 恐德不類于前人 故不敢輕易發言 而恭敬淵默 以思治道

(譯) 蔡氏曰 一이것은 말하자면 나로서 四方을 바루는 師表로 했으니 責任이 重大하데 나의 德이 前인에 類似하지 못할까 두려워 하기 때문에 敢히 輕易하게 發言하지 아니하고 恭敬해서 沉黙하여 治國하는 道理를 생각한다는 것이다.

厥亦惟我周 大王 王季 克自抑畏(無逸篇)

(譯) 그 또한 생각하건데 우리 周나라는 大王 王季(文王의 祖父)께서 能히 스스로 抑畏하셨던 것이다

陳氏(大猷)曰 克者眞能自用其力 而人不與也 抑者所以下之也 畏敬畏也 言文王曰柔 曰恭 曰不敢 皆原大王 王季抑畏之心 發之耳

(譯) 陳大猶曰「克이란 것은 참으로 能히 스스로 그 힘을 써서 남이 干與하지 않는 것이고 抑이란 것은 내려 누르는 所以인 것이며 畏는 敬畏함이니 말하자면 文王께서「柔」니「恭」이니「不敢」이니 하신 말씀이 모두 大王 王季의 抑畏하는 마음에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다.

成王免喪 始朝先王之廟 而作詩曰 念茲皇祖 陟降庭止 惟予小子 夙夜敬止(詩經周頌閔予小子篇)

(譯) 成王이 脫喪을 하고 비로소 先王의 廟에 參拜하고서 詩를 지어서「이에 皇祖追念하니 陟降하사 계시는 듯 오직 小子 저희 몸은 밤낮으로 恭敬해요」고 하셨다.

又受群臣之戒 而自爲答之又辭曰 維予小子不聰敬止 日就月將 學有緝熙于光明 佛時仔肩(任也)示

我顯德行(周頌敬之篇)

(譯) 또한 群臣의 警戒를 받고서 스스로 答하는 말을 하되「大統받은 나 小子는 聰敬하지 못하였기 日就月將 學習해서 光明함에 이르거나 이 重任을 도우시와 내게 顯德 보여 주오」고 하였다.

今予小子 祇勤于德 夙夜不逮(周書周官篇)

(譯) 只今 이에 나 小子는 恭敬하여 德에 努力. 晝夜로 미치지 못하듯 하노라.

我其夙夜 畏天之威 于時保之(周頌我將篇)

(譯) 나는 이에 밤낮으로 天의 威嚴함을 내서 이것으로 保全하네.

昊天有成命 二后受之 成王不敢康 夙夜基命宥密 於緝熙單厥心 肆其靖之(昊天有成命篇)

(譯) 하늘님의 成命하심 二王(文王과 武王)께서 받으셨네 成王 敢히 편하지 못해 밤낮으로 天命들어 오직 厥心 이어받아 그로 天下 安靖했네.

定宇陳氏曰 成王紹武王之上下陟降於家庭者是即武王念文王 而見其陟降於家庭者也 維其能敬以思繼武王 念文王之心所以能以武王之如見文王於庭者 而紹武王於家庭也

(譯) 陳定宇曰 成王의 武王의 上下로 家庭에서 昇降함을 이어 받은 것은 이것이 바로 武王의 文王을 생 각하사 그의 家庭에서 昇降함을 본 것이니 언제라도 그 能히 恭敬해서 武王이 文王의 마음을 생각하던 것 을 이어 받으려는 것이다. 이것이 能히 武王이 文王을 家庭에서 본 것처럼 家庭에서 武王을 이어받는 소 이인 것이다.

朱子曰 言我不聽 而未能敬也 然願學焉 庶幾日有所就 月有所進 續而明之 以至于光明 又賴羣臣 輔助我負荷之任 而示我以顯明之德行 則庶乎其可及爾

(譯) 朱子曰 1 말하자면 나는 聰明하지 못하여서 能히 敬하지는 못하였으나 願 컨대 工夫를 해서 거의 날 로 就하고 달로 進하는 바가 있어 이에서 啓明하여 光明에까지 이르고 또한 群臣이 내게 負荷된 責任을 輔助해서 내게 顯명한 德行으로 보이 주는 힘을 입는다 면 그에 可히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慶源輔氏曰 不聽知有所不及之事 不敬行有所未至之事 日就就事上言 月將就大本上言 成王自知其知與行 皆有所未至 故欲勉學問 庶幾日於事上有所就 月於本上有所將 繼續不已 以至於光明 又賴羣臣助我所任之事 而示我以顯明之德行 則庶乎其可及耳 日就月將 學有緝熙于光明 所以自責於己 佛時仔肩 示我顯德行 所以外資於人 責於己者盡 資於人者廣 則大學明明德 以至

平天下之事 庶乎其可及矣 故先師朱子 嘗語學者曰 詩中說得學有緝熙于光明 此句最好 蓋心地本自光明 只被利欲昏了 今所以爲學者 要令其光明處轉光明

(譯) 輔慶源曰 不聰함은 知가 不及한 것이고 不敬함은 行이 未至한 것이며 日就는 人事를 말한 것이고 月將은 大木을 말한 것이니 成王은 스스로 그의 知와 行이다 未盡함을 알았기 때문에 學問에 힘을 써서 거의 날로 事에 나아갈이 있고 달로는 本上에 인은 바가 있으니 繼續해서 말지 않음아 光明에까지 이르기도한 群臣들이 나의 所任한 일을 도와서 내게 顯明한 德行을 보여 주면 거의 그 道에 이를 것이다. 「日就 月將하여 學有緝熙于光明이다」고 한 것은 自己에 責任을 지운 所以고 「佛時仔肩하여 示我德行하다」는 것은 外로 남에게 資한 所以이니 自己를 責함이 極盡하고 他人에 資함이 廣大하던 大學에 明明德으로부터 平天下의 事에 이르는 것이 거의 可及할 것이다. 그러므로 先師朱子께서는 일찍이 學者에게 말씀하시되 이詩에서 「學有緝熙于光明」이라는 이 句가 가장 좋다고 하였으니 대개 心地는 본디 스스로 光明하나 다만 利慾에 昏昧된 것인데 只今에 工夫를 해야 된다는 그의 光明한 곳으로 하여금 光明하게 하는 것이다.

定宇陳氏曰 憂其未能敬天 而內爲學於己外求助於臣 是即求所以盡此敬也 學求助於光明 而臣復示我以德之光明 則天不在高高在上之天 而在吾心之天矣 其爲敬天孰大於是

(譯) 陳定宇曰 一 그가 아직 敬天하지 못하였음을 근심해서 內로는 自己에서 工夫를 하고 外로는 臣下에게 求助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이 敬을 다한 所以인 것이다. 工夫는 光明을 求하는 것인데 臣下가 다시 내게 德의 光明을 보인다면 天은 高高하게 있는 天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天이 있다는 것이니 그의 敬天함이 어찌 이보다 더함이 있을까.

衛武公年數九十五 猶歲徹于國曰 自卿以下至于師長 士苟在朝者 無謂我老耄而舍我 必恪恭於朝

夕以交戒我在輿有旅賁之規位宁有官師之典倚几有誦訓之諫居寢有瞽御之箴臨事有瞽史之道
宴居有師工之誦史不失書矇不失誦以訓御之於是作懿(抑)戒以自警及其歿也謂之睿聖武公

(國語)

(譯) 衛武公은 나이 九十五歲나 되었으나 오히려 國內에게 警戒하는 箴을 지어서「大臣의 以下로 師長에 이르기까지 士者가 朝廷에 있는 者는 나를 老老하다고 해서 버리지 말고 반드시 朝夕으로 恭敬해서 나를 警戒하라」고 하여 車中에서는 於賁하는 規箴이 있고 職位에서는 官師의 典法이 있으며 倚几할 때는 誦訓하는 諫言이 있고 居寢할 때는 近侍하는 箴規가 있으며 臨事에는 瞽史의 道가 있고 宴居에는 師工의 誦이 있으니 史官은 記錄을 잃지 않고 矇師는 傳誦을 잃지 않고서 訓御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록한 警戒을 지어서 自警하였다. 그러므로 그가 죽은 뒤에 睿聖한 武公이라고 하였다.

衛人美武公之德 而作詩曰 瞻彼淇澳 綠竹猗猗 有匪君子 如切如磋 如琢如磨 瑟兮僩兮 赫兮喧兮 有匪君子 終不可諼兮(詩經衛風淇澳篇)

(譯) 衛人들은 武公의 德을 讚美해서 詩를 지어「저 淇澳을 바라보니 푸른데가 猗猗하네. 빛이나는 저君子는 切하는듯 磋하는듯 琢하는듯 磨하는듯 嚴密하고 武毅하며 赫赫하고 順著하니 빛이나는 그君子는 끝내 잊지 못하리다」고 하였다.

大學傳曰 如切如磋者 道學也 如琢如磨者 自修也 瑟兮僩兮者 恂慄也 赫兮喧兮者 威儀也 有斐君子 終不可諼兮者 道盛德至善民之不能忘也

(譯) 大學의 傳文에 曰「如切如磋란 것은 學問을 말한 것이고 如琢如磨란 것은 스스로 修養하는 것이며 瑟兮僩兮란 것은 恂慄한 것이고 赫兮喧兮란 것은 威儀있는 것이며 有斐君子終不可諼兮란 것은 盛德과 至善을

民衆이 能히 잊지 못할을 말한 것이다.

朱子曰 武公學問之功 甚不苟 年九十五歲 猶命群臣 使進規諫 至如抑詩 是他自警之詩也

(譯) 朱子曰—武公은 學問의 功이 甚히 苟且하지 아니 해서 高齡의 九十歲나 되어서도 오�히려 群臣을 命해서 하여금 規諫을 하게 하였으니 抑詩같은 것은 이것이 그의 自警한 詩였던 것이다.

慶源輔氏曰 此正心誠意之極功 而武公及之 其亦聖人之徒歟

(譯) 輔慶源曰—이것은 正心하고 誠意하는 極盡한 功으로서 武公이 그에 可及하였으니 그도 또한 聖人의 學徒였던 것이다.

安城劉氏曰 盖由武公 本亦聖賢人之徒 宜其言之合聖賢之道也

(譯) 劉安城曰—내게 武公은 本디 또한 聖賢의 徒이니 마땅히 그 말이 聖賢의 道에 合하였던 것이다.

西山眞氏曰 人之常情 祇敬於群居者易 兢畏於獨處者難 嗚呼武公 其聖賢之徒歟

(譯) 眞西山曰—人間의 常情은 群居하는에서 恭敬하기는 쉬운 일이나 獨處하는에서 兢畏하기는 어려운 일이니 아아! 武公은 그 聖賢의 學徒였던 것이다.

朱子曰 瑟嚴密之貌 間武毅之貌 赫喧宜著盛大之貌 恂慄戰懼也 威可畏也 儀可象也 恂慄者嚴敬之存乎中也 威儀者光輝之著乎外也

(譯) 朱子曰—瑟은 嚴密한 貌樣이고 間은 武毅한 貌樣이며 赫喧은 宜著해서 盛大한 貌樣이고 恂慄은 戰懼한 것이며 威는 可畏하고 儀는 可象한 것이다. 恂慄이란 것은 嚴敬함이 中心에 있는 것이고 威儀란 것은

光輝가 外形에 나타난 것이다.

西山眞氏曰 威者正衣冠 尊瞻視 儼然人望 而畏之 非徒事嚴猛而已 儀者動容周旋中禮 非徒事容飾而已

(譯)眞西山曰―威란 것은 衣冠을 바꾸고 瞻視를 높이하여 儼然하게 남이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것이나 다만 嚴猛하기만 일삼는 것은 아니다. 儀란 것은 動容하고 周旋하는 것이 禮에 맞아서 다만 外飾하기만 일삼는 것은 아니다.

上蔡謝先生 學于程門 英果明決 強力不倦 克己復禮 日有程課(朱子語錄)

(譯)謝上蔡先生은 程子の 門下에서 工夫하였는데 英果하고 明決해서 勉強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여 克己로 復禮하는데 日로 課程이 있었던 것이다.

伊川曰 相別一年 做得甚工夫 謝曰 只去箇矜字 伊川點頭 因語在座同志者曰 此人爲學 切問近思者也

(譯)程伊川曰―「相別한지 一年인데 그 間에 무슨 工夫를 하였는가」고 하니 謝上蔡曰「다만 矜字를 버리는 것이다」고 하였다. 伊川이 그들 듣고 因해서 座中에 있는 同志들에게「이 사람이 工夫하는 것은 切問해서 近思하는 이나」고 하였다.

朱子曰 伊川之門 上蔡自禪門來 其說有差

(譯)朱子曰―伊川の 門下에 謝上蔡는 禪門에서 왔기 때문에 그 말에 差異가 있는 것이다.

和靖尹先生 緊守伊川說 始終依敬字做去 取畏天命 畏大人 畏聖人之言之意 開三畏齋 非吊喪問疾 不出戶 人不識其面 晚歲片紙手書聖賢所示 治氣養心之要 粘之屋壁以自警戒

(譯) 尹和靖先生은 伊川의 說을 固守해서 始終을 敬字에 依해서 工夫하는데 「畏天命 畏大人 畏聖人之言」이란 뜻을 取해서 三畏齋를 開設하여 吊喪이나 問病이 아니면 門밖을 나가지 아니하니 사람들은 그의 頭面도 알지 못하였다. 晩년에는 종이 조각에 聖賢의 보인파 治氣해서 養心하는 要法을 써서 壁上에 붙여두고 스스로 警戒했던 것이다.

質直弘毅 身體力行 伊川嘗以魯許之曰 我死而不失其正者 彥明也

(譯) 性質이 빠르고 弘毅해서 몸소 힘써 努力하니 伊川이 일찍이 魯로써 許與해서 「내가 죽어도 그의 正道를 잃지 않는 者는 彥明이다」고 하였다.

朱子曰 某竊念前賢進修不倦 死而後已 其心炯炯 猶若可識

(譯) 朱子曰 「나는 가만히 前聖의 進修함을 不倦해서 죽은 뒤에만 그만둔 이를 생각하니 그의 마음이 그 리움은 오히려 알것 같다.

朱子曰 和靖持守有餘 而格物未至 故所見不精明 無活法

(譯) 朱子曰 「尹和靖이 持守함이 有餘해도 格物은 不足하였다. 그러므로 所見이 精明하지 못하고 活法도 없는 것이다.

又曰 伊川先生 纔說病便有藥 和靖却似合下 便把作死馬醫 此道之傳 眞未易以屬人也

(譯) 又曰 「伊川先生은 겨우 病을 말하면 바로 藥이 있는데 尹和靖은 도리어 合當한것 같으나 分득 死馬

의 醫師가 되었으니 이 道統을 傳하는 것은 참으로 남에게 付託하기가 쉽지 않는 것이다.

又曰 和靖守得緊 見得不甚透 如俗語說他只抱得個不哭序孩兒

(譯) 又曰 尹和靖이 持守함에는 緊切하게 했으나 見得은 甚히 透明하지 못했으니 俗語에 그를 말하는데 다만 울지 않는 孩兒를 안은 것 같다고 하였다.

又曰 和靖才短 只緊守伊川之說

(譯) 又曰 尹和靖은 才能이 不足해서 다만 伊川의 說만 緊切하게 固守했던 것이다.

龜山楊先生 從游二程 潛心經史 東南學者推爲程門正宗

(譯) 龜山楊先生은 두 程子께 從游해서 經史에 潛心하니 東南에 學者들이 程子の 門下에 正宗이라고 推尊하였다.

體驗未發之中

(譯) 未發한 中을 體驗하였다.

朱子曰 龜山未見伊川時 先去看莊列等文字 後來雖見伊川 然而此念熟了 不覺時時發出來

(譯) 朱子曰 楊龜山이 伊川을 아직 未見했을 때는 먼저 莊子 列子 등의 書籍을 보다가 가버렸는데 그 뒤에 비록 伊川을 보았으나 그래도 生각에 의어서 時時로 發作됨을 알지 못하였다.

又曰 楊氏所謂未發之時 以心驗之 則中之義自見 執而勿失 無人欲之私 則發必中節 與夫所謂

須於未發之際 能體所謂中其曰 驗之體之執之 亦呂氏之說也

(譯) 又曰—楊氏의 이른바 未發할 때 마음—로써 體驗하면 未發한 中의 뜻이 스스로 나타나서 잡고서 잃지 아니하고 人慾의 私가 없으면 發表하는데 반드시 中節이 되니 그 이른바가 모름지기 未發할 때에 能히 이른바 中을 體得한 것이니 그가 「驗한다」 「體한다」 「執한다」고 한 것은 또한 呂氏의 說이다.

呂學士先生(與叔) 學於伊川 六月中來 緱氏閑居中 必儼然端坐 程子窺之曰 可謂敦篤矣(伊川說)

(譯) 呂學士先生은 伊川에게 배웠는데 六月中에 오니 緱氏가 閑居하는 中이라도 반드시 儼然하게 端坐하였음을 程子가 엿보고서 「可히 敦篤하다고 할수 있다」고 하였다.

有中庸說 求中於未發之前

(譯) 中庸의 說이 있으니 未發하기 前에 中을 求하는 것이다.

朱子曰 呂氏引允執厥中 明未發之旨 則程子之說書也 固謂允執厥中 所以行之 蓋其所謂中者 乃指時中之中 而非未發之中也 呂氏又謂 求之喜怒哀樂未發之時 則程子所以答蘇季明之問 又已有既思 即是已發之說矣 此皆其決不以呂說 爲然者

(譯) 朱子曰—呂學士는 「允執厥中」을 引用해서 未發의 뜻을 說明하였은즉 程子의 書經을 說함에 眞실로 允執厥中—로서 實行하는 所以인을 말한 것이다. 대개 그의 所謂中이란 것은 그것이 時中의 中을 가리킨 것이고 未發의 中은 아니다. 呂氏는 또 喜怒哀樂이 未發할 때 求한다고 말하였은즉 程子가 蘇季明의 質問에 答辯한 때에 또한 이미 생각한 것은 바로 已發이라고 說明하였으니 이것이 모두 決코 그 呂氏說을 모두 다 認定한 것은 아니다.

廣平游先生 師事二程 德器粹然 問學日進 有中庸說 發明隱微 見顯之義

(譯) 游廣平先生은 두程子를 師事해서 德器가 粹然하고 學問이 日進하여 中庸에 隱微함이 見顯하다는 眞義를 發明한 바가 있는 것이다.

朱子曰 以理言之 則游楊呂 不若程子之盡 以心言之 則程子不若游楊呂之密

(譯) 朱子曰 一理로서 말하면 游楊呂가 程子の 極盡한만 같지 못하고 心으로서 말하면 程子가 游楊呂의 嚴密한만 같지 못하다.

又曰 游楊謝三君子 初皆學禪 後來 餘習猶在 游定夫尤甚

(譯) 又曰 一游楊謝의 三君子는 처음에 다 禪을 배우다가 뒤에 와서 그의 餘習이 남았는데 游定夫는 더욱 甚했던 것이다.

蘇季明(昉) 始事橫渠 卒業二程門 問未發前用功 程子謂涵養便是 莫若且先理會敬

(譯) 蘇季明은 처음에 張橫渠를 師事하다가 두程子門下에서 卒業하였는데 未發하기 前의 工夫에 對해서 물으니 程子가 「涵養함이 옳으나 또한 敬을 먼저 理會하는 것만 못하다」고 하였다.

朱光庭(棐) 從伊川學 在洛有書室 兩旁各一牖 各三十六榻 一書天道之要 一書仁義之道 中以一

榜書毋不敬 思無邪 中處之 程子謂此意亦好

(譯) 朱光庭이 伊川에게 受學하여 洛에서 자는데 書室이 있으니 그 兩榜에는 各各한 壁窓이 있고 壁窓에는 各各三十六의 榻이 있는데 한곳에는 天道의 要를 쓰고 한곳에는 仁義의 道를 썼으며 그 中의 一榜에는 毋不

敬」思無邪」를 쓰고 그 中間에서 居處하였으니 程子는 그 뜻이 또한 좋다고 말하였다.

張思叔(譯) 伊川自涪還 往受業發憤力學 伊川稱穎悟卓異

(譯) 張思叔은 伊川이 涪에서 돌아와가서 受業하였는데 發憤해서 力學하니 伊川이 穎悟함이 卓異하다고 稱讚하였다.

又曰 吾晚得二士 謂釋與尹焯也 其座右銘略曰 凡語必忠信 凡行必篤敬 飲食必慎節 字畫必楷正 容貌必端莊 衣冠必肅整 步履必安詳 居處心正靜(以上程門諸子 凡八賢餘不能盡錄)

(譯) 又曰 伊川이 나는 晩年에 二士를 얻었으니 張釋과 尹焯이라고 하였다. 그 座右銘의 大畧에 더 무릇 言語는 반드시 忠信하고 무릇 行動은 반드시 篤敬하며 飲食은 반드시 慎節하고 字畫은 반드시 楷正하여 容貌는 반드시 端莊하고 衣冠은 반드시 肅整하며 步履는 반드시 安詳하고 居處는 반드시 正靜하라(以上은 程子の 門下에 諸子가 모두 八賢인데 餘外는 다 記錄할수 없는 것이다).

豫章羅先生 從楊龜山學 嚴毅清苦 築室山中 絕意仕進 終日端坐 時行溪上 吟咏而歸 充然有得 李延平嘗往從之學 終日相對靜坐 令靜中看喜怒哀樂未發之中 作何氣象

(譯) 豫章羅先生은 楊龜山에서 受學하여 嚴毅하고 清苦하였다. 山中에 집을 짓고 仕官에는 뜻이 없이 終日도록 端坐하다가 때로는 溪上으로 散步하면서 吟咏하다가 돌아오면 充然하게 所得이 있었던 것이다. 李延平이 일찍 가서 從學하는데 終日도록 相對해서 靜坐하는데 하여금 靜中에 喜怒哀樂의 未發한 中에 어떤 氣象인지를 보았던 것이다.

朱子曰 龜山倡道東南 士之游其門者甚衆 然潛思力行 任重詭極者 仲素一人而已

(譯) 朱子曰—楊龜山은 東南에서 倡道하여 그의 門下에서 游學하는 士者가 甚히 多러이나 潛思하고 力行해서 重荷를 지고 極地로 가는 者는 羅仲素한 사람 뿐이다.

祭延平文曰 道喪千載 兩程勃興 有的其緒 龜山是承 龜山之南 道則與俱 有覺其徒 望門以趁 惟時豫章 傳得其宗 一簞一瓢 凜然高風

(譯) 朱子가 李延平에게한 祭文에曰—道喪한지 千年만에 두 程子가 勃興해서 그의 道統있는 것을 楊龜山이 받았도다. 龜山의 南쪽에는 大道가 갖추어서 깨우침이 있는 그 學徒가 그 門下로 모였는데 그때에 羅豫章은 그의 主宗 傳受해서 한그릇의 밥 한그릇의 국으로 凜然하신 高風이네.

延平李先生 從羅先生學 終日跪坐 神彩精明 畧無墮墮之氣 涵養得自是別 講誦之餘跪坐終日 驗喜怒哀樂未發前氣象 如何而求所謂中者 嘗曰 默坐澄心 體認天理 一毫私慾之發 必退聽矣 久久用力於此 庶幾漸明 講學爲有力耳(行狀)

(譯) 李延平先生은 羅豫章에게 從學하여 終日토록 跪坐해서 神彩가 精明하여 조금도 墮忘가 된 氣象이 없이 涵養함에 特別한 것을 얻었던 것이다. 講說하는 餘暇에 跪坐해서 終日하는에 喜怒哀樂의 未發한 前의 氣象이 어떠한가를 體驗하여서 所謂「中」을 求하였다. 일찌기 말하되「默坐해서 澄心하여 天理를 體認하는데 一毫라도 私慾이 發하면 반드시 退聽하여 오래오래 이에 用力하면 거의 漸漸 밝아질 것이고 講學함에도 効力이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

邵天啓稱愿仲 如水壺秋月 澄澈無瑕

(譯) 邵天啓는 愿仲을 稱하되 水壺에 秋月처럼 澄澈해서 瑕疵가 없다고 하였다.

先生與朱子書曰 某曩時 從羅先生學問終日相對靜坐 某時未有知 退入室中 亦只靜坐而已 先生令靜中 看喜怒哀樂未發之謂中 未發作何氣象 此意不惟於進學有力 兼亦是養心之要 元晦偶有心恙 不可思索 更於此句內求之 靜坐看如何 往往不能無補也

(譯) 延平先生이 朱子에게한 片紙에 曰—나는 지난날 羅先生께 가서 學問을 할 때 終日도록 相對해서 靜坐하다가 내가 때로는 모르고 室中에 들어가면 또한 靜坐할 뿐이었다. 先生께서 하여금 靜中에 喜怒哀樂의 未發한 中이란 것을 보았으니 未發할 때 어떤 氣象을 지었던가 이 뜻은 오직 進學에 有力할 뿐만 아니라 兼해서 또한 養心하는 要點도 兼하였던 것이다. 元晦(朱子의 字)는 偶然히 心恙이 있어서 思索할 수가 없으면 다시 이 句內에서 求하여 靜坐해보는 것이 어떠한가. 往往이 能히 補足함이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朱子答何叔京書曰 李先生教人 大抵令於靜中 體驗大本 未發時氣象分明 即處事應物 自然中節 此乃龜山門下 相傳旨訣 然當時親炙之時 貪聽講論 又竊好章句訓話之習 不得盡心於此 至今若存若無 無一的實見處 辜負教育之意 每一念此 未嘗不發汗沾衣也

(譯) 朱子의 何叔京에게한 答書에 曰—李延平先生은 남을 가르치는데 大抵 하여금 靜中에서 大本을 體驗하여 未發時의 氣象을 體驗함이 分明하게 되면 바로 處事하고 應物하는 것이 自然히 中節되는 것이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龜山門下에서 相傳하는 旨訣이다. 그러나 當時에 親炙할 때는 講論을 貪聽하고 또한 가만히 章句訓話의 習을 좋아해도 이에만 마음을 다하지 못하였더니 只今에는 若存若無하여 하나도 實見한 곳이 없으니 教育의 뜻에 罪를 짓으니 每樣 이것을 一念하면 未嘗不 汗이 나서 옷을 적시는 것이다.

朱子後與學者方誼云 延平行狀中語 乃是當時所聞 有用力次第 今以聖賢之言 進修之實驗之 恐亦自是其一時入處 未免更有商量也

(譯) 朱子는 뒤에 學者인 方誼에게 말하되「延平의 行狀中에 말은 이것이 當時에 所聞으로 用力함에 順序가 있는 것이니 只今에 聖賢의 말씀한 進修의 實際로서 體驗하면 아마 또한 그로부터 그 一時에 入處가 다시 商量이 있음을 免하지 못하였다.

問 先生所作 李先生行狀云 驗未發前氣象如何 而求所謂中者 與伊川說若不相似 曰 這處 是舊日 下得語太重 今以伊川語格之 則其下工夫處 亦是有些子偏 今終日跪坐 只是且收斂在此 勝如奔馳 若一向如此 又似坐禪入定

(譯) 누가「先生의 지으신바 李延平의 行狀에「未發前의 氣象을 말하였으니 어찌해서 이른바 中이란 것을 求하는 것인지 伊川의 說과는 서로 같지 않은 것 같다」고 물으니 答曰「그곳은 이것이 옛날에 말이 太重하였으나 只今에 伊川의 말로서 보면 그工夫에 着手하는 곳에 또한 이 조금 偏僻됨이 있으니 只今에 終日토록 跪坐해서 다만 이 또한 收斂함이 이에 있어서 마음이 奔馳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萬若에 一向 그렇게만 하면 또한 坐禪해서 入定함과 같은 것이다.

問 延平欲於未發前 觀其氣象 此與楊氏體驗於未發之前者 異同如何 曰 這個亦有些病 那體驗字 是有個思量了 便是已發若觀時 恁着意看便也 是已發陳後之

(譯) 누가「延平은 未發前에서 그 氣象을 보려 했으니 이것이 龜山이 未發前을 體驗한 것과 그의 同異가 어떠한가」고 물으니 答曰「그것이 또한 조금 病幣가 있으니 그 體驗이란 字는 이것이 이미 思量했음이 있으니 바로 이것이 已發이고 萬若에 배를 보아서 그렇게 着意해 보는 것이 便하나니 已發은 뒤에 되는 것이다.

問 持守良久 亦可見未發氣象 曰 延平即是此意 若一向這裏 又差從釋去

(譯) 누가 「한참 동안 持守를 하면 또한 未發한 氣象을 볼 수 있는가」고 물으니 答曰 「延平이 바로 이 뜻이나 萬若에 그 속으로만一向해 가면 또한 어긋나서 佛法이 되는 것이다.

或問 延平何故 驗於喜怒哀樂未發之前 而求所謂中 朱子曰 只是要見氣象

(譯) 누가 「延平은 何故로 喜怒哀樂의 未發한 前을 體驗해서 이른바 中을 求하였던가」고 물으니 朱子曰 「다만 이것은 氣象만 보기를 要한 것이다.

又曰 只是被李先生 靜得極了 便自見得是有個覺處 不似別人

(譯) 又曰 「다만 이것은李先生이 靜을 極한데서 문득 스스로 見得하였으니 이것이 그 깨우친 곳이 別人과는 같지 않음이 있는 것이다.

問 此體驗是着意觀 只恁平常否 曰此亦是以不觀 觀之

(譯) 누가 「이 體驗은 이것이 着意해서 보는 것인가 다만 平常대로 하는 것인가」고 물으니 答曰 「이것이 또한 不觀으로서 觀하는 것이다.

西山眞氏曰 朱子於呂氏求中之說 楊氏體所謂中之說 皆深非之 及爲延平行狀 謂其跪坐終日 驗未發時氣象 而求其所謂中 則又呂氏之說也 蔡淵伯靜亦云 先生教人於靜中 體認大本 未發時氣象分明 卽處事應物 自然中節 其與方誼書 及後與學者書 其說又不同 將何所適從耶 蓋嘗思之 未發之前 但當敬以存養 而不可有心求 然思慮未形 而知覺不昧 性之體段 自有不可掩者 程子所謂靜中有物 呂氏所謂心體昭昭具在 朱子所謂瞭然心目之間者 皆謂此也 學者深味 而實驗之 自

當有見未可專 以言語求也(按吳草廬有云。常見吾德性。昭昭具在。如天之運轉。日月之往來。此與呂氏說相近。篁墩探入於心經末章附註而退溪先生心經後論。謂吳氏之爲此說何見。篁墩之取此條何意。無乃有率天下。歸陸氏之意歟。又謂草廬之說。反覆研究。終有伊滿塞氣味。今於呂氏說。似亦不可不商量看了。未知草廬。特以其謂氏常見二字。而爲病耶。)

(譯)眞西山曰—朱子께서는 呂氏의 求中之說이나 楊氏의 體中之說을 다 甚히 나무랐으나 延平의 行狀을 짓는데 그 終日도록 跪坐해서 未發時의 氣象을 體驗해서 그 이른바 中을 求함을 말하였은즉 또한 呂氏의 說이다 蔡淵(字는 伯靜)도 또한 말하되 先生이 教人함에는 靜中에서 大本을 體認해서 未發할 때 氣象이 分明하면 바로 處事하고 應物함이 自然히 中節된다고 하고 그의 方韻계한 便紙와 그 뒤에 學者에게한 片紙와는 그 說이 不同하니 어디로 따라가야 할까. 대개 일찍이 생각컨대 未發하기 前에는 다만 敬으로서 存養해서 有心히 求해서 는 아니 되나 思慮가 아직 表示되지 않아도 知覺이 어둡지 않으면 性的의 體段이 스스로 가리를 수 없는 것이 있으니 程子의 所謂「靜에도 物이 있다」는 것이고 呂氏의 所謂「心體의 昭昭함이 俱在한다」는 것이며 朱子의 所謂「心目的 間이 瞭然하다」는 것이 모두 이것을 말한 것이니 學者들은 깊이 玩味하고 實驗해서 스스로 見得이 있어야만 될 것이고 全혀 言語로서만 求해서 는 아니 될 것이다.

(按 권대(晦屏自說)吳草廬는 말하되「나의 德性이 昭昭하게 具在함을 보니 天體가 運轉함에 日月이 往來함과 같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呂氏의 說과 相近한 것이다. 篁墩(明代의 程敬啟)이 心經의 末章에 附註를 採用하였는데 退溪先生의 心經後論에는 吳氏가 이 說을 말 하였음은 무엇을 본 것이며 篁墩이 이 條를 引用하였음은 무슨 뜻인가. 이것이 天下사람을 거느리시 陸象山으로 돌아가는 뜻이 있는 것이냐」고 하시고 또한 草廬의 說은 反覆해서 研究하면 마침내 伊滿塞(優婆塞라고도 하니 佛教의 五戒을 받은 男子)의 氣味가 있으나 이에 呂氏의 說은 또한 商量해서 보지 않으면 아니 될 것 같다」고 하였다. 알지 못하나 吳草廬는 特히 그「常見」二字를 말한 것을 缺點으로 본 것일까.)

南軒張先生 學造精微 大本卓然(朱子說) 擴仁義之端 至可以彌六合 謹善利之判 至可以析秋毫(畫像

贊) 見識純粹 踐行篤實 使人望而敬之(朱子說)

(譯) 張南軒先生은 學問이 精微에 이르러서 大本이 卓然하였다. 仁과 義의 端을 擴充해서 可히 六合(上下四方)에 차도록 되었고 善(義)과 利의 判別을 謹慎해서 可히 秋毫라도 分析하는 데 이르렀다. 見識이 純粹하고 實踐이 篤實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바라보면 敬畏하게 하였던 것이다.

西山蔡先生 師事晦菴 學問有源 操履無玷登西山(建陽) 絕頂 忍飢啖齋讀書 僞學黨禁起 貶春陵 貽書訓子曰 獨行不愧影 獨寢不愧衾 勿以吾得罪 故遂懈其志(宋史)

(譯) 蔡西山先生은 朱子를 師事해서 學問에 淵源이 있고 操行에 缺點이 없었다. 西山의 絕頂에 올라가서 飢餓를 참고 齋菜를 씹으면서 讀書하니 僞學黨禁이 일어남에(宋代 寧宗 때 韓佐가 執政해서 人間은 貪黷放肆함이 眞情이고 廉潔修道함이 僞學이라고 해서 朱子の 官職을 罷免한 事件) 이르러서 春陵으로 追放이 되었다. 그 訓子하는 書를 지어서「獨行해도 影子에 부끄럽지 않고 獨寢해도 衾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내가得罪했다고 해서 그 뜻을 懈弛하지 않게 하라」고 하였다.

朱子叩其學 大驚曰 此吾老友 不當在弟子列

(譯) 朱子가 그의 學問을 두드려 보고 크게 놀라서「이우리 老友는 弟子의 列에 있을수 없다」고 하였다.

東萊呂先生 師事籍溪 而友晦菴南軒 學以閩洛爲宗 而旁稽載籍 任重道遠之志 既病不衰(史傳)

(譯) 呂東萊先生은 籍溪(宋代의 胡憲)를 師事해서 朱子와 張南軒을 벗으로 하여 學問은 程朱를 宗으로 하고 널리 載籍을 通達해서 責任이 重大하고 理想이 高遠함이 老病해도 衰하지 아니 하였다.

九峯蔡先生(沉字仲默) 受父師之托 凜凜焉常若有負 沉潛反覆者 數十年 註書傳 發明二帝三王 群

聖人用心(宋朝名臣錄)

(譯) 蔡九峯先生은 父師의 付托을 받아서 凜凜하게 恒常負擔이 있는 듯하여 研究을 反覆한지 數十年에 書傳을 註釋하여 二帝三王과 여러 聖人의 用心한 것을 發明하였다.

贊曰 業廣而精 德周而粹 有父有師 淵源有自(名臣錄)

(譯) 贊에 曰 業은 넓고 精明하며 德은 高루 純粹한 것이다. 父師께서 계시오니 그 淵源이 있나이다.

退溪曰 朱門傳道之人 雖稱勉齋爲第一 以集傳觀之 九峯當爲第一也

(譯) 退溪曰 朱子의 門下에서 傳道한 人物로서는 비록 黃勉齋를 第一이라고 해도 書經의 集傳으로 보아서 九峯이 當然히 第一이 될 것이다.

勉齋黃先生(幹字直卿) 自見朱子 夜不設榻 不解帶 少倦則微坐一椅 或至達曙 編禮著書 講論經理 朝夕不倦(史傳)

(譯) 黃勉齋先生은 朱子를 본 뒤로는 밤에도 寢臺에 눕지 않고 衣帶도 풀지 않았으며 조금 倦怠하면 한 椅子에 조금 앉아서 或은 날을 새우며 禮書를 編著하고 經理를 講論하여 朝夕으로 倦怠하지 아니 하였다.

朱子曰 直卿志堅思苦 與之交甚有益 竹林精舍成 又遺公書 有他時 便可代其講席之語 病革以深衣 及所著書手書 授之曰 吾道之托在此 吾無憾矣

(譯) 朱子曰 直卿은 志尚이 堅固하고 思慮가 勤苦하여 더불어 交際하니 甚히 有益하다"고 하고 竹林精舍가 完成되니 또 公에게 便紙를 보내서 그 때에 바로 講席을 代理하라는 말을 하고 病勢가 危篤할 때에

深衣와 所著한 書籍을 주는데 手書로서「吾道를 付托함이 이에 있으니 나는 遺憾이 없다」고 하였던 것이다.

主一齋張先生(治字元德) 自少用力於敬 以主一名齋 從朱先生學 六經傳註以下 皆究其指歸(史傳)

(譯) 張主一齋先生은 自少로 敬에 힘을 써서「主一」이라고 齋名을 하고 朱子에게 從學해서 六經을 傳註한 以下 모두 그의 指歸를 究得하였다.

朱子與公書曰 名齋之意甚善 然著實用工不須如此 每立標榜處 雖亦未足大害 然亦便見用心淺處 又嘉其篤志 謂黃直卿曰 所望以永斯道之傳 如二三君者 不數人也

(譯) 朱子가 公에게 한 便紙에는「齋號를 붙인 뜻은 甚히 좋으나 着實하게 工夫해서 모름지기 이와 같지 아니하고 每樣 標榜할 곳을 세우는 것이 비록 또한 足히 大害는 되지 아니 하여도 또한 用心함이 얕은 곳을 보이는 것이다」고 하고 또한 그의 篤志를 嘉賞해서 黃勉齋에게 對해 말하되「바라는 바는 斯道의 傳을 길이 하려는 것에 二三君과 같은 이는 多數人이 아니다」고 하였던 것이다.

果齋李先生(方字公晦) 博學能文 端謹純篤 初見朱先生 先生曰 觀公資質 自是寡過 但寬大中要規矩 和緩中要果決 又曰 開闊中又須縝密 寬緩中又須謹敬 遂以果名齋 跪坐竟日 未始傾倒 對賓客一語不妄發 雖奴隸亦不加詬詈 嘗語人曰 吾於問學 雖未能周盡 然幸於大本有見處 泰然不爲物欲所漬爾

(譯) 李果齋先生은 博學해서 能文하고 端謹해서 純篤하였다. 처음이 朱子를 보니 朱子가「公의 資質을 보고 이로부터 過失이 적게 하되 다만 寬大한 中에도 規矩를 要하고 和緩한 中에도 果決을 要한다」고 하고 또「開

闊한 中에도 또한 縝密히 해야 하고 寬緩한 中에도 또한 謹敬을 해야 한다」고 하니 드디어「果」를 齋名으로 하고 跪坐해서 終日하여 조금도 기울이지 않았다. 賓客을 對함에는 一語도 忘獲하지 아니하고 비록 奴隸에게라도 또한 卍字를 加하지 아니 하였다. 일찌기 사람들에 말하기를「내가 學問에서 비록 極盡하지는 못해도 多幸히 大本에는 見得한 곳이 있어서 泰然하게 物欲에 잠기는 바는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潛菴輔先生(廣漢卿) 師事朱先生 僞學禁與 學者多散去 公不爲動 先生甚器重之(一統志)

(譯) 輔潛菴先生은 朱子를 師事하다가 僞學의 禁이 일어나서 學者들이 많이 恣어져 가도 公은 動하지 아니 하니 朱子가 甚히 그 器量을 重視하였다.

嘗請于先生 求居敬窮理四字(語類)

(譯) 일찌기 朱子께 請해서「居敬窮理」의 四字를 求하였다.

得朱子之傳 扁其堂曰 傳貽以傳先儒 貽後學 爲己任(一統志)

(譯) 朱子의 所傳를 받아서 그 當號를「傳貽」라 하였으니 先儒를 傳承해서 後學에 끼쳐줌을 自己의 責任으로 한 것이다.

朱子嘗語公曰 須於主一上 做工夫 則外面許多義理 方始爲我有 便覺意思好 卓然精明 不然便 緩散消索了 沒意思

(譯) 朱子는 일찌기 公에게 말하되「모름지기 主一의 上에 工夫를 하면 外面의 許多한 義理가 비로소 나 를爲해서 있게 되니 문득 意思가 좋음을 깨쳐서 卓然히 精明하게 되나 그러하지 못하면 문득 緩散하고

消索해서 意味가 없어질 것이다.

北山何先生(基 字子恭) 師事黃勉齋 勉齋告以必有眞實心地 刻苦工夫而后可 公悚惕受命 得聞淵源之懿 嘗謂爲學 立志貴堅 規模貴大 克踐服行 死而後已(史傳)

(譯) 何北山先生은 黃勉齋를 師事하였는데 勉齋는 반드시 眞實한 心地가 있고 刻苦한 工夫를 한 뒤에야만 된다고 告하니 公은 悚惕受命하여 淵源의 기록함을 得聞하였다. 일찌기 말하되「學問함에는 立志를 堅固히 함이 貴重하고 規模는 廣大히 함이 重大하니 實踐하고 服行해서 卒은 뒤에야만 그만둔다」고 하였다.

以立志居敬之旨 授王魯齋

(譯) 立志해서 居敬하는 要旨로서 王魯齋에게 傳授하였다.

魯齋王先生(栢 字會之) 少慕諸葛亮爲人 自號長嘯 年逾三十 始知家學之原(公 大父師愈 從楊龜山學 又從晦菴南軒 東萊遊 父頤與第漢洽潭 皆乃晦菴東萊之門) 捐去俗學 勇於求進 嘗著論語通旨 至居處恭 執事

敬 惕然歎曰 長嘯非聖門持敬之道 函改以魯齋 聞何公從勉齋 得晦菴之傳 往從之 授以立志居敬之旨 有疑必就質之 論語 孟子 大學 中庸 通鑑綱目 標註點校 尤爲精密 作敬齋箴圖 夙興見廟 治家 嚴飭 當暑閉閣靜坐 子弟非衣冠不見也 其卒整衣冠端坐 揮婦人勿近(史傳)

(譯) 王魯齋先生은 少時에 諸葛亮의 爲人을 欽慕해서 自號를 長嘯이라 하였다. 나이 三十을 넘어서 비로소 家學의 原을 알고(公의 大父인 師愈는 楊龜山에게 從學하고 또한 朱子張南軒呂東萊와 從遊하였으며 父인 瀚은 그의 弟인 漢洽潭등과 더불어서 다 朱子와 東萊의 門下에 다녔던 것이다.) 俗學을 버리고서 求進하는데 勇氣가 있었다. 일찌기「論語通旨」를 지었는데「居處恭 執事敬」이란 句節에 이르러서는 惕然하게 嘆息하면서

「長嘯라고 함은 聖門의 持敬하는 道가 아니다」고 하고서 빨리「魯齋」라고 改號를 하였다. 何北山公이 勉齋에게서 朱子의 傳함을 듣고 가서 배우는데 立志하고 居敬하는 主旨를 주니 疑問이 있으면 반드시 가서 質問하였다. 論語 孟子 大學 中庸 通鑑綱目등을 標註하고 點校하였는데 더욱 精密히 하였다. 敬齋歲圖를 만들고는 일찍 일어나 家廟에 다니고 治家하는 데는 嚴飭하여 暑飭을 當해도 門을 닫고 靜坐해서 비록 子弟에게라도 衣冠을 아니 하고는 보지 아니 하였다. 그가卒할 때는 衣冠을 整齊하고 端坐해서 婦人을 가까이 오지 말라고 손을 저었다.

公嘗刪削風詩 又謂大學格致章未嘗亡 還知止節于聽訟之上 又改定中庸 其卓識獨見多此類 又嘗作人心道心圖 退溪曰 魯齋學術 固多病 人心道心圖 誠有可疑處

(譯) 公은 일찌기 風詩를 刪削하고 또 大學의 格致章은 없는 것이 아니라 하고 해서 知止節을 聽訟節의 위로 돌리고 또한 中庸을 改定하였으니 그의 卓識과 獨見이 이런 類가 많았다. 또한 일찌기 人心道心圖도 지었던 것이다. 退溪는「魯齋의 學術은 眞實로 缺點이 많으니 人心道心圖는 實로 疑心나는 곳이 있다」고 하였다.

西山眞先生(德秀字希元) 從朱門人 詹元善游 當韓侂胄立僞學之名 以錮善類 而公晚出 獨慨然以斯文自任 講習而服行之 黨禁既開 而正學遂明于天下 公之力爲多焉 嘗撫取聖賢格言 爲心經 自爲之贊(宋史)

(譯) 眞西山先生은 朱子門人 詹元善에게 從游하다가 韓侂胄가 僞學이란 名目을 세워서 善類들을 禁錮하였는데 公은 늦게 나서 獨히 慨然하여 斯文(儒道의 學問과 道理)으로서 自任해서 講習하고 服行하더니 黨禁이 解除되어 正學이 드디어 天下에 闡明되는 데는 公의 能力이 多大했던 것이다. 일찌기 聖賢의 格言을 取輯해

서「心經」을 만들고 스스로 贊을 지었다.

顏若愚心經贊下識曰 先生之心學 經考亭而適濂洛 洙泗之源 存養之功至矣 故其行己也 上帝臨汝 可以對越 而無愧 其臨民也 若保赤子 痒癩疾痛 眞切於吾身 其將勸講 若齋戒以交神明 而冥其感悟也 迨退而築室粵山之下 雖宴息之地 常如君父之臨其前 其著書皆本於中庸大學 雖遊戲翰墨 一出於正也 然猶夜氣有箴 勿齋有箴 敬義齋有銘 晚再守泉 復輯成是書 晨興必焚香危坐誦十數過 蓋無一日非學 亦無一事非學 其内外交相養如此

(譯) 顏若愚의 心經贊 아래 識에 曰—先生의 心學은 考亭(朱子가 所居하던 亭子)에서 말미암아 周程으로 거쳐 孔子의 源泉에까지 溯及이 되니 存養의 功이 至極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行己함은 上帝가 監臨해서 可히 對越해도 無愧하였고 그의 臨民함은 赤子를 保護하는 뜻이 痛痒함이 感同身에 迫切한 듯 했으며 그의 將次로 勸講함에는 齋戒해서 神明에 交하여 그의 感悟를 파랗던 것이다. 退隱해서 는 粵山의 下에 집 을 짓고 비록 宴息하는 곳이라도 恒常君父가 그 앞에 來臨한 듯이 하였다. 그의 著書는 다 中庸大學에 本據해서 비록 遊戲하는 書道라도 모두 다 正에서 나왔던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夜氣에 箴이 있고 勿齋에 箴이 있고 敬義齋에 銘이 있었다. 늦게는 다시 林泉을 지키고 다시 冊을 輯成하여 晨興해서 는 반드시 焚香을 하고 跪坐하여 十數番을 誦誦하였으니 대개 一日이라도 工夫하지 않을 때는 없었고 또한 一事라도 工夫안된 것은 없었으니 그 内外에 交해서 相養함이 이와 같았던 것이다.

退溪曰 眞西山議論 雖時有文章習氣 然其人品甚高 見理明 而造詣深 朱門以後一人而已

(譯) 退溪曰—眞西山은 議論이 비록 때로는 文章의 習氣가 있으나 그의 人品이 甚高해서 見理함이 밝고 造詣함이 깊었으니 朱門의 以後로는 一人뿐이었다.

又曰 年少輩於眞西山許魯齋 吳臨川鄭圃隱 吉治隱 皆議而非之(夫西山。賓師於官。豈濟王之臣乎) 如此等事 非吾之所能知也

(譯) 又曰 年少輩가 眞西山 許魯齋 吳臨川 鄭圃隱 吉治隱을 다 議論해서 나무라지마는(대개 西山은 東宮에 師賓이 있었으니 어찌 濟王의 臣일까) 이와 같은 일들은 나의 能히 아는 바가 아니다.

魯齋許先生(衡字平仲) 生裔戎倭擾之秋 往來河洛間 從柳城姚公樞 得程朱書 益大有得 慨然以道自任 常語人曰 綱常不可一日 亡於天下 苟在上者 無以任之 則在下者之責也(史傳)

(譯) 許魯齋先生은 戎族이 侵亂할 때에 나서 河洛의 間을 往來하면서 柳城姚(公樞)를 따라 程朱書를 얻어 더 욱 큰 所得이 있어서 慨然히 道로써 自任하여 恒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綱常은 一日이라도 天下에 없어서는 아니 되니 만약 在上者가 責任하지 않으면 在下者의 責任이다.

居家勤於自治 不嚴而整 閨門之內 若朝廷然 夫婦相對如賓

(譯) 居家해서 는 自治에 勤하여 嚴하지 않아도 調整되니 閨門의 內가 朝廷 다 같았고 夫婦가 相對하는 데는 賓客과 같았다.

嘗以朱子小學書 授弟子曰 吾於此書 敬之如神明 尊之如父母

(譯) 일찍기 朱子의 「小學書」를 弟子들에게 주면서 「나는 이 冊을 神明같이 恭敬하고 父母처럼 尊待한다」고 하였다.

問許魯齋出處 退溪曰 丘瓊山輩 皆託事元之非 但此時夷方主華 天理民彝 絕滅殆盡 天之生魯

齋似非偶然 魯齋若獨善 而果於忘世 則天理誰明 民彝誰整 天下其終爲左衽 而莫之揅 以愚觀之 魯齋之爲世而出 似不害義 未知聖賢復生 則其論如何耳

(譯) 누가 許魯齋의 出處를 물으니 退溪曰 「丘瓊山의 무리가 다 事元의 非를 나무라나 다만 그때는 夷狄이 中國의 主가 되어 天理와 民彝가 絶滅해 거의 다해졌으니 天이 魯齋를 生하였음은 偶然이 아닌 것같다. 魯齋가 萬若에 獨善해서 果然世上을 잇었다면 天理는 누가 밝히려 人倫은 누가 바를까. 天下는 마침내 野蠻化됨을 免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로서 본다면 魯齋가 世上을 爲해서 나왔음은 義理에 害를 지 않을 것 같으나 聖賢이 다시 난다면 그 論이 어떠한지는 알 수 없는 것이다.

問魯齋於墓碣 何不書其官爵耶 曰 此非平生欲仕故也 又問 若不仕 則誰勸以強仕 此必欲用夏變夷 不能成厥志 而沒故耶 曰 是 但今也之士 例皆不務切己工夫 徒論先賢 吾不知也

(譯) 누가 「魯齋의 墓碣에 어찌하여 그 官爵은 쓰지 않았는가」고 물으니 答曰 「이것은 平生에 仕官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묻되 「萬若에 仕官을 하지 않았다면 누가 勸해서 어지로 仕官을 하였을까. 이것은 반드시 文明으로서 野蠻을 變하게 하려했구나 그의 뜻은 能히 이루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인가」고 하니 答曰 「그러하나 다만 今世의 士者는 다 自己에 切實한 工夫를 힘쓰지 아니하고 한갓 先賢만 論하는 것이 例事이니 나는 모를 일이다.

草廬吳先生(澄字幼清) 生三歲穎悟日發 既長習通經傳 用力聖賢之學 身若不勝衣 正坐拱手 氣融神邁 答問疊疊 使人渙若冰釋 弱冠時嘗著說 以義黃堯舜禹湯文武周公 爲上古之元亨利貞 仲尼顏曾思孟 爲中古之元亨利貞 周程張朱 爲近古之元亨利而貞 則未之有也 可以終無所歸哉 其早以斯文自任如此(史傳)

(譯) 吳草廬先生은 나서 三歲에 穎悟가 날로 발달되어 이미 成長해서는 經傳을 習通해서 聖賢의 學에 用力하여 몸은 옷도 이기지 못하는 듯하고 正坐해서 拱手하니 氣가 融和하고 神이 豪邁하며 答問하는 때는 힘을 써서 사람으로 하여금 疑心을 解水하는 듯 풀어지게 하였다. 弱冠때 일찌기 著說을 해서 伏羲 黃帝 堯帝 舜帝 禹王 湯王 文王 武王 周公은 上古의 元亨利貞(生長遂成)이고 孔子 曾子 子思 孟子는 中古의 元亨利貞이고 周濂溪 兩程子 張橫渠 朱晦庵은 近古의 元亨利貞이라고 하였음은 아직 完全하지는 못하나 可히 끝내 歸着點이야 없을까. 그가 일찍 斯文으로서 自任하였음이 이와 같았던 것이다.

公嘗爲學者言 朱子於道問學之功居多 而陸子靜 以尊德性爲主 問學不本於德性 其敝必偏於言語訓釋之末 故學必以德性爲本 庶幾得之 議者遂以公爲陸氏之學 非尊信朱子本意

(譯) 公은 일찍기 學者를 爲해서 말하되 朱子는 問學을 말한 功이 居多하고 陸象山은 尊德性을 主로 하였으니 問學은 德性에 本據하지 않으면 그 弊가 반드시 言語와 訓釋의 末端에만 치우치기 때문에 工夫에는 반드시 德性으로서 根本으로 해야만 功의 成功될 것이라고 하니 議論하는 者는 公을 陸象山의 學이라고 하나 朱子의 本意를 尊信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退溪曰 草廬之爲陸學 當時已有其議 後世公論亦多云云 又草廬之說(心經附註未所載) 反覆研究終不免有伊蒲塞氣味 羅整庵之論得之 學者當領其意 而擇其言 同者取之 不同者去之 庶乎其可也 (譯) 退溪曰 草廬가 陸象山學을 했다는 것은 當時에 이미 그런 말이 있었고 後世에 公論도 또한 많았다고云云하고 또한 草廬의 說(心經의 附註 끝에 所載)을 反覆研究하면 마침내는 伊蒲塞(佛敎人)의 氣味가 있을은 免하지 못하였으니 羅整庵의 論이 得宜한 것이다. 學者는 마땅히 그 뜻을 領會해서 그의 말이 같은 것을 取하고 같지 않은 것은 버리는 것이 그의 그 可할 것이다.

林隱程先生(復心 字子見) 白首窮理於 朱子之學若飢之食 渴之飲 寒暑之裘葛 晝不舍 而夜不輟 貫穿精熟(四書章句總要序) 嘗作心學圖說 而以敬爲主宰

(譯) 程林隱先生은 白首가 되도록 朱子의 學을 研究하기에 飢者에 食物 渴者에 飲水 寒暑에 裘葛과 같아서 晝夜로 쉬지 않고 貫通하여 精熟하여라. 일찌기 心學圖說을 지었는데 敬으로서 主宰로 하였다.

仁山金先生(履祥字吉父) 事同郡王魯齋 從登何文定之門 初見魯齋 首問爲學之方 魯齋告以必先立志 且舉先儒之言 居敬以立其志 立志以定其本 志立乎事物之表 敬行乎事物之內 此爲學之大方也 及見何文定 文定謂之曰 理慾之分 便當自今始 宋將改物 所在盜起 公屏居金華山中 丘壑稍息 則上下巖谷 追逐雲月 寄情嘯咏 視世故泊如也 平居獨處 終日儼然 至與物接 則盎然和懌 訓迪後學 諄切無倦 而尤篤於分義(史傳)

(譯) 金仁山先生은 同郡에 있는 王魯齋를 섬기고 따라서 何文定의 門下에도 올랐던 것이다. 처음에 魯齋를 보고는 첫째 學問하는 方道를 물으니 魯齋가 반드시 먼저 立志를 하라고 말씀하고 또한 先儒의 말을 들어 居敬해서 그는 그 志를 세우고 立志해서 그는 그 本을 定하며 志는 事物의 表에 세우고 敬은 事物의 內에서 行하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爲學하는 大方이다. 그리고 또한 何文定을 보니 文定이 말하기를 理와 慾의 區分은 바로 只今부터 비롯해야 된다고 하였다. 宋朝에서 將次로 制度를 改事하려는 데에 盜賊이 일어나니 公은 金華山中에 屏居했다가 兵火가 조금 덜한즉 岩谷을 上下하고 雲月과 追逐하면서 嘯咏에 情을 부쳐 노래하며 世故에는 淡泊하게 보았다. 平居獨處할 때는 終日도록 儼然해도 接物을 하게 되면 盎然히 和懌함에 넘치고 後學을 指導함에 諄하고 切實해서 게으르지 아니 했는데 더우기 分義에 寫實하였다.

丹谿朱先生(震亨 字彥修) 孤高如鶴 挺然不群 聞文懿許公(謙 仁山門人) 講道入華山中 樞衣往事焉 始

聞天命人心之秘 內聖外王之微 自悔昔之沉冥顛隕 由是日有所悟 每宵挾冊 坐至四鼓 潛驗默察 必欲見諸實踐 抑其疎豪 歸於粹夷 理欲之關 誠僞之限 嚴辨確守 不以一毫苟且自恕 毅然之色 不可凌犯 而清明坦易 接物和粹 以一心同 天地之大 以耳目爲禮樂之原 積養之久 內外一致 夜寐即且 晝之爲 暗室即康衢之見 汲汲孜孜 耄而彌篤(慕表)

(譯) 朱丹谿先生은 孤高하기 鶴과 같이 뛰어난 群中에는 들지 않았었다. 許文懿公이 華山中에서 講道한다는 말을 듣고 가서 敬意를 表해 섬기는 데 비로소 天命人心의 秘訣과 內聖外王之 微旨를 듣고는 自身이 前日에 朦昧하고 墮落되었음을 後悔하고 그로부터는 날로 覺悟한 바가 있어서 每日 밤에는 冊을 가지고 앉아서 晝도 潛驗하고 默察해서 반드시 實踐해 보려고 그의 疎豪함은 抑制하여 純粹함에 歸結하였다. 理와 欲의 關係와 誠과 邪의 關係를 嚴密히 分辨하고 確實히 守行해서 一毫라도 苟且한 것은 스스로 容恕하지 아니하였다. 毅然한 氣色은 凌犯할 수가 없어도 清明하고 平易하여 接人하면 和粹해서 一心으로서는 天地와 大를 같이 하고 耳目으로서는 禮樂의 原을 보았으니 積養함이 오래되어 內外가 一致하였다. 밤에 자는 것은 바로 晝間에 함이 되고 어두운 방안 것은 바로 衢頭에 보는 것이니 汲汲하고 孜孜하여 晝를 수룩 더욱 篤實하였다.

敬軒薛先生(瑄字德溫)講周程張朱書嘆曰 此道學之正脉也 手錄性理大全一書 潛心誦讀至夜分乃寢 或思有所得 即起燃燭記之 或通宵不寐 味而樂之 爲學貴踐履 特以敬爲主 有讀書錄 發明敬字工夫

(譯) 薛敬齋先生은 周子 程子 張子 朱子의 書를 講하고서 感嘆해서 「이것이 道學의 正脉이다.」고 말하고 손으로 性理大全한 길을 써서 潛心으로 誦讀하였다. 밤이 되어 자다가도 或思索에 所得이 있으면 바로 일어나서

燭불을 켜고 記錄하며 或은 밤새도록 자지도 않고 맛을 보며 自樂하기도 하였다. 學問함에는 踐履함을 貴重히 하나 特히 敬으로서 주로 하였다. 「讀書錄」이 있는데 敬字의工夫를 發明했던 것이다.

退溪曰 皇明學者 大抵皆有恣嶺氣味 獨薛文清 眞得聖賢宗旨

(譯) 退溪曰 皇明에 學者들이 大抵는 다들 恣嶺(釋迦가 修道했던 山名佛敎란 뜻)의 氣味가 있었으나 獨히 薛文清만은 참으로 聖賢의 主旨를 얻었다.

又曰 文清之學 平生用工 專在敬字上

(譯) 又曰 薛文清의 學問은 平生 工夫한 것이 오직 敬字의 위에 있었다.

又曰 薛公讀書錄 非困知傳習之比 其言親切有味 最多喚醒人處

(譯) 又曰 薛公의 讀書錄은 困知하고 傳習한 比가 아니라 그 말이 親切해서 맛이 있는데 사람들을 喚醒시키는 곳이 가장 많은 것이다.

退溪李先生 築精舍于陶山之麓 一室洿寂 圖書滿壁 日處其中 兢存研索 主敬之工 貫始終 兼動靜而尤嚴於幽獨易肆之地 窮理之功 一體用 該本末 而深造於眞知實得之境 用工於日用語默之常 致察於幾微毫忽之間 存養日益純固 踐履日加敦篤 向上之工 進進不已 其可見之行 則律已甚嚴 淫樂慝禮 不接於心術 惰慢邪僻之氣 不設於身體 所履者規矩準繩也 雅言者 仁義道德也 居必整衣冠 尊瞻視 或對案觀書 或焚香靜坐 終日欽欽 未嘗見其有惰容(鶴峯撰實記)

(譯) 李退溪先生은 陶山의 기슭에 精舍를 짓고 一室이 潛寂한데 四壁에 圖書를 하고 날로 그 中에 處하여서

存心하고 研究하는데 主敬하는工夫는 始終을貫하고 動靜을兼하였다. 더욱 幽獨해서 放肆하기 쉬운 곳에 서 嚴하였고 窮理한 功積은 體用을 一貫하고 本末을 兼備했는데 眞知해서 實踐하는 境地에까지 갔다. 日用하는 語默의 常事에서 工夫를 하고 幾微의 毫忽한 그間에서 明察하여 存養(存心養性)함이 날로 더 욱 純固하고 實踐함이 날로 더욱 敦篤해서 向上하는 工夫가 進進해 말지 않으셨고 그의 보이는 行動은 律已함이 甚히 嚴하사 淫樂이나 惡禮는 心術에 接하지 아니하고 惰慢하고 邪僻한 氣風은 身體에 設하지 않으셨다. 實踐한 바는 規矩準繩이고 雅言한 바는 道德仁義였다. 平居에는 반드시 衣冠을 바꾸고 瞻視를 높이며 或은 冊床을 對해서 觀書를 하고 或은 焚香을 하고서 靜坐하사 終日도록 恭敬해서 일찌기 그 懈惰한 態度는 보이지 않으셨다.

先生之生 上距朱子之世 幾乎四百年 地之相距 亦幾乎萬餘里 而先生尚且讀其書求其義 以達其道 後之人若以先生 學晦翁之心 而求先生之學 則其至於道也 不遠矣

(譯) 先生의 誕生하심이 上으로 朱子는 時代의 相距가 거의 四百年이고 地域의 相距로 또한 萬餘리나 되는데 오히려 그의 書を 읽고 그의 義를 求해서 그의 道에 達하였으니 後世人이 萬若에 先生이 朱子를 배우던 마음으로서 先生의 學問을 求한다면 그 道에 가기가 멀지 않을 것이다.

集大成於群儒 上以繼絕緒 下以開來學 使孔孟程朱之道 煥然復明於世 求之東方一人而已(月川撰)

言行摠錄)

(譯) 여러 儒賢을 集大成하사 上으로는 絶緒를 받아 잇고 下로는 來學을 열어주어 孔孟程朱의 道로 하여 煥하게 다시 世上에 開明하였으니 우리 東國에서 求하면 一人 뿐이다.

陶山常享祀(月川撰) 曰 心傳孔孟 道紹閩洛 集成大東 斯文準極

(譯) 隔山書院의 常享祝文에 曰 心은 孔孟을 傳承했고 道는 程朱를 이 었도다 大東에서 集成하사 斯文水 準 높았도다.

第三 旨訣續集(按一敬字外에 又有相須相發之功하니 不可舉一偏廢이라 先儒旨訣이 亦極分曉하니 所當細討並究故로 特載四條하여 爲續集云이라)

一、誠敬說

程子曰 誠者天之道 敬者人事之本 敬則誠 誠然後能敬 未及誠時 却須敬 而後能誠

(譯) 程子曰 誠이란 것은 天의 道이고 敬이란 것은 人事의 本이니 敬하면 誠한 것이다. 誠한 然後에야만 能히 敬하니 誠에 未及할 때는 도리어 敬한 後에야만 能히 誠한 것이다.

胡季隨學學者問遺書曰 誠然後能敬 未及誠時 須敬而後能誠 學者如何便能誠 恐不若專主於敬 而後能誠也

(譯) 胡季隨는 學者의 質問에 對해서 言을 써 주어 말하되 誠한 然後에는 能히 敬하지마는 아직 誠에 未及할 때는 모름지기 敬한 後에야만 能히 誠하게 되니 學者는 어찌해야만 문득 能히 誠하게 될까 하면 아 마 敬을 專主로한 뒤에야만 能히 誠하게 됨만 같지 못하다.

朱子曰 敬是悚然如有所畏之意 誠是眞實無妄之名 意思不同 誠而後能敬者 意誠而後心正也 敬而後能誠者 意雖未誠 而能常有畏 則當不敢自欺 而進於誠矣 此程子之意也

(譯) 朱子曰 敬은 이것이 숙굴하게 所畏함이 있는 것같은 뜻이고 誠은 이것이 眞實해서 無妄함을

이름이니 意思는 不同하나 誠한 뒤에 能히 敬한다는 것은 意가 誠한 뒤에 心이 正한 것이고 敬한 뒤에 能히 誠한다는 것은 意는 비록 아직 誠하지 못해도 能히 恒常 畏함이 있는 듯하면 敢히 自欺하지 못해서 誠으로 나아가갈 것이니 이것이 程子의 意思이다.

主一者謂之敬 一者謂之誠 主則有意在

(譯) 主一하는 것을 敬이라 하고 一者인 것은 誠이라고 하니 주로 하면 意가 있는 것이다.

西山眞氏曰 主一指用功而言 一指本然全體而言 主則猶用意 所謂誠之者 人之道也 至於一 則不待用意 所謂誠者 天之道也

(譯) 眞西山曰 一主一은 工夫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고 一은 本然한 全體를 가리켜서 말한 것이니 主는 用意함과 같은 것이다 所謂「誠하게 하는 者는 人의 道이다」고 한 것이나 一에 至하면 用意하기를 가다리지 아니하는 것이니 所謂「誠이란 것은 天의 道이다」고 한 것이다.

又曰 在學者用功 須當主於一 主者念念守此 而不離之意也 及其涵養既熟 此心湛然 自然無二 無雜 則不待主 而自一矣 不待主 而自一 即所謂誠也 是人事之本 學者用功之要 至於誠 則達乎天德矣 此誠敬之分也

(譯) 又曰 一學者가 工夫를 하는데 있어서는 모름지기 一을 주로 해야 하니 主라는 것은 念念不忘하여 이 것을 지켜서 떠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涵養함이 이미 익으면 이 마음이 湛然해서 自然히 二도 아니 되고 雜도 아니 된 것인즉 主함을 가다리지 않아도 스스로 一이 될 것이다. 主함을 가다리지 않아도 스스로 一이 됨은 바로 誠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人事의 本이니 學者가 工夫하는 要點은 誠에 이르

면 天德에 達할 事이라 이것이 誠과 敬의 分이다.

又曰 不二者一也 主一者敬 而能一者誠也

(譯) 又曰 一不二한 것은 一이고 主一하는 것은 敬이니 敬해서 能一하는 것은 誠이다.

朱子曰 誠是一箇實 敬是一箇畏

(譯) 朱子曰 一誠은 이것이 一箇의 實이고 敬은 이것이 一箇의 畏함이다.

問 先敬然後誠 曰 且莫理會先後

(譯) 누가 「먼저 敬한 뒤에야만 誠하는가」고 물으니 答曰 一 또한 先後를 理會하지 말라.

問 敬是把捉工夫 誠則到自然處 曰 敬也有把捉時 也有自然時 誠也有勉而誠時 亦有自然誠時 且敬只是收斂畏懼 不縱放 誠只是個朴直懿實 不欺誑 初時須着如此 不縱放 不欺誑 到得工夫到時 則自然不縱放 不欺誑矣

(譯) 누가 「敬은 이것이 把捉하는 工夫이고 誠하면 自然處에 到達하는 것인가」고 물으니 答曰 一敬은 또한 把捉할 때도 있고 또한 自然히 될 때도 있으며 誠도 또한 힘써서 誠할 때도 있고 또한 自然으로 誠할 때도 있는 것이다. 또한 敬은 다만 이 收斂하고 畏懼해서 放縱하지 않는 것이고 誠은 다만 이것이 朴直하고 懿實해서 欺誑하지 않는 것이니 처음에는 모름지기 이와같이 放縱하지 아니 하고 欺誑하지 아니 하여 工夫에 이르러야 하니 그에 이르게 되면 自然히 放縱하지 않고 기만하지 않게 될 것이다.

答曾致虛書曰 所論誠敬之說甚善 但欽夫之意 亦非直謂學者 可以不誠 蓋以爲既曰 持敬便合實

有持敬之功 不容更有不誠之敬 必待別着誠字 然後爲誠也 大抵誠字 在道則爲實有之理 在人則爲實然之心 而其維持主宰 全在敬字 今但實然用力於敬 則日用工夫 自然有總會處 而道體之中名實異同先後本末 皆不相礙 若不以敬爲事 而徒曰誠 則所謂誠者 不知其將何所錯 且五常百行 無非可願 雜然心目之間 又將何所擇而可乎

(譯) 曾致虛問 答書에 曰 論한바 誠敬의 說은 甚히 精은나 다만 欽夫의 뜻도 또한 바로 學者는 敬이 誠하지 아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대개 持敬이라고 하면 바로 實에 合하는 것이니 持敬하는 工夫가 있으면 다시 誠하지 아니하는 敬이 있음을 容認하지 않는 것이다. 반드시 別로 誠字에 着心함을 기다린 然後에 만 誠이 되는 것이다. 大抵 誠字는 道에 있어서는 實有한 理가 되고 人에 있어서는 實然한 心이 되어서 그의 主宰를 維持함이 全히 敬字에 있는 것이다. 只今에 다만 實然하게 敬에 用力하면 日用하는 工夫가 自然히 總會되는 곳이 있어서 道體의 中에 名實이 異同함과 先後와 本末이 다 서로 拘碍되지 않는 것이나 萬若에 敬으로서 일삼지 아니 하고서 한갓 誠만 말한다면 所謂 誠이란 것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또한 五常과 百行이 願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雜然한 心目的 間에서 또한 將次로 무엇을 가려야만 될까.

南軒張氏曰 誠者天之道 敬者人事之本 敬道之成 則誠而天矣 然則君子之學 始終乎敬者也

(譯) 張南軒曰 誠이란 것은 天의 道이고 敬이란 것은 人事의 本이니 敬의 道가 成하면 誠해서 天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君子의 學問은 敬에서 始終하는 것이다.

問 誠敬兩字有異否 東萊呂氏曰 只是一般所謂存誠 存便是敬

(譯) 누가 「誠과 敬의 두 字가 다름이 있는가」고 물으니 呂東萊曰 一다면 이것은 一般이나 所謂 「存誠」한다는 存이 바로 이 敬이다.

西山眞氏曰 敬則誠 不敬則私意雜之 而不誠矣

(譯) 眞西山曰 一敬하면 誠하나 敬하지 않으면 私意가 섞여서 誠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敬義說

問 敬義何別 程子曰 敬只是持己之道 義便知有是有非 順理而行 是爲義也 若只守一個敬 不知集義 却是都無事也

(譯) 누가 「敬과 義는 무엇인가」고 물으니 程子曰 一敬은 다만 이것이 持己하는 方道이고 義는 바로 是非가 있음을 아는 것이니 順理해서 行하면 이것은 義가 되는 것이나 萬若에 다만 一箇의 敬만 지키고 義는 잡을줄 모른다면 도리어 이것은 都統 일이 아니 되는 것이다.

問 必有事焉 當用敬否 曰 敬是涵養一事 必有事焉 須用集義 只知用敬 不知集義 却是都無事也

(譯) 누가 「반드시 有事해야만 마땅히 敬을 쓰는가」고 물으니 答曰 一敬은 이것이 涵養하는 一事이니 반드시 有事하면 모름지기 義를 잡아야만하나 다만 敬할 줄만 알고 義는 잡을줄 모르면 도리어 이것이 都統 일 아니 되는 것이다.

五峯胡氏曰 居敬所以精義也

(譯) 胡五峯曰 一敬에 居함은 義를 精하게 하는 所以다.

朱子曰 五峯此言 精切簡當 深可玩味

(譯) 朱子曰 一五峯의 이 말은 精切하고도 簡當하니 깊이 玩味해야만 할 것이다.

朱子曰 敬有死底敬 有活底敬 只守主一之敬 若遇事 不齊之以義 辨其是非 則不活 若熟後敬便有義 義便有敬 靜以察其敬與不敬 動而察其義與不義 敬義夾持 循環無端 則內外透徹

(譯) 朱子曰 一敬에는 死한 敬과 活한 敬이 있으니 다만 主一하는 敬만 지키고 萬若 일을 만나서 義로서 齊하여 그의 是非를 辨하지 않으면 活한 敬이 아니 되는 것이고 萬若 익은 뒤이면 敬에 바로 義가 있고 義에 바로 敬이 있으니 靜해서 는 그 敬과 不敬을 明察하고 動해서 는 그 義와 不義를 明察해서 敬과 義를 兼해가지고 循環해서 끝이 없으면 內外가 透徹하게 될 것이다.

敬義工夫 不可偏廢 彼專務集義 而不知主敬者 固有虛矯急迫之病 而所謂義者 或非其義 然專言主敬 而不知就日用間 念慮起處 分別其公私義利之所在 而決取舍之幾焉 則亦未免於昏慣雜擾 而所謂敬者 有非其敬矣 (答余正叔書)

(譯) 敬과 義의 工夫는 하나도 廢해서는 아니 되니 그 義만 잡기에 힘을 쓰고 敬을 주로 할 줄을 모르는 것은 진실로 虛矯해서 急迫한 病이 있으니 所謂 義라는 것도 或은 그 義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오직 敬만 주로 한다고 말은 하면서 日用하는 사이에 思慮가 일어나는 곳에 나아가서는 그 公과 私 義와 利가 있음을 分辨하지 못해서 取하고 棄하는 幾를 決定한다면 또한 昏沉하고 擾亂함을 免하지 못할 것이니 所謂 敬이란 것이 그 敬이 아니 될 때가 있을 것이다.

能敬以直內矣 亦須義以方外 方能知得是非始格得物 不以義方外 則是非好惡 不能分別 物亦不可格

(譯) 能히 敬으로서 內를 바르게 하고는 또한 義로써 外를 모나게 해야만 能히 是非를 알고 비로소 格物을

할 것이나 義로써 外를 모나게 하지 못한다면 是와 非 好와 惡을 能히 分別하지 못할 것이고 또한 格物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聖人指示爲學之方 周遍詳密 不靠一邊 故曰 敬義立而德不孤 若只恃一箇敬字 更不做集義工夫 其德亦孤立 而易窮矣 須是精粗本末 隨處照管 不令工夫 少有空闕 乃爲善學也

(譯) 聖인은 學問하는 方法을 指示하는데 周遍하고 詳密해서 一方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易 敬에는 「敬義가 서니 德이 외롭지 않다」고 하였으니 萬若다만 一箇의 敬字만 믿고 다시 義를 잡는 工夫를 하지 않으면 그 德이 또한 孤立해서 쉽게 窮해질 것이니 모를지기 精과 粗 本과 末이 隨處해서 遍應하여 工夫로 하여금 조금도 空闕함이 없게 하는 이것이 善學이 되는 것이다.

方未有事時 只得說敬以直內 若事物之來 當辨別一箇是非不成 只管敬去

(譯) 아직 有事하지 않을 때는 다만 「敬以直內」만 說하고 萬若에 事物이 未接하면 마땅히 一箇의 是非를 分辨해야 하나 되지 않으면 一向으로 敬만 하여갈 뿐이다.

答何叔京書曰 或謂子程子曰 心術最難執持如何而可 曰敬 又嘗曰 操約者敬而已矣 惟其敬 足以直內 故其義有以方外 集義而氣得所養 則夫喜怒哀樂之發 其不中節者寡矣 孟子論養浩然之氣 以爲集義所生 而繼之曰 必有事焉 而勿正 心勿助長也 蓋又以居敬爲集義之本也 夫必有事焉者 敬之謂也 若曰其心儼然 常若有所事云爾 夫其心儼然肅然 常若有所事 則雖事物紛至 而奮來豈足以亂吾之知 思而宜不宜 不可之幾 已判然於胷中矣 如此則此心晏然 有以應物之變 而何躁妄

之有哉

(譯) 何叔京所答書에曰「누가 程子에게「心術을 執持하기가 가장 어려우니 어찌 해야만 可할까」고 물으니 答해서「敬이라」고 하고 또한 일찌기「要約을 잡는 것은 敬뿐이다」고 하였으니 오직 그 敬만이 足히 直內하기 때문에 그 義로서 方外함이 있는 것이다. 義를 모아서 氣를 기르는 바를 얻으면 그 喜怒哀樂의 發함이 그 中節되지 않는 것이 적을 것이다. 孟子는 나의 浩然之氣를 기른다는 것을 論하는데「集義로서 되는 바라」고 하고 이어서「반드시 有事해서 正하지 않으면 마음에 助長하지도 말라」고 하였으니 대개 또 居敬으로서 集義와 根本으로 한 것이다. 그의「必有事焉」이란 것은 敬을 말함이니 萬若에 그 마음이 儼然해서 恒常하는 바 일이 있는 듯이 하면 그 마음이 儼然하고 肅然해서 恒常하는 바 일이 있는 것 같은즉 비록 事物이 複雜하게 다쳐와도 어찌 足히 나의 知를 混亂시키리오. 思考해서 宜와 不宜 不과 不可의 幾는 이미 나의 胸中에서 判然하니 이와 같이만 하면 이 마음이 晏然해서 萬物의 變에 應함이 있는들 어찌 躁妄함이 있으리오.

南軒張氏曰 居敬集義工夫 并進相須 而相成也 若只要能敬 不知集義 則所謂敬者 亦塊然無所爲而已 烏得心體之周流哉

(譯) 張南軒曰「居敬과 窮理의 工夫는 并行해서 相須하고 相成하는 것이니 萬若에 다만 能敬만 要하고 集義는 알지 못한다면 所謂敬이란 것이 또한 土塊처럼 所用이 없을 뿐이니 어찌 心體가 周流할 수 있으리오.

靜敬說

周子太極圖說曰 聖人定之以中正仁義 而主靜(本註無慾故靜)

(譯) 周子の 太極說에曰「聖人은 中正과 仁義로서 定하여 靜을 주로 하였나. (本註에는「無欲하기 때문에 靜하다」고 하였음)

朱子曰 此言聖人專動靜之德 而常本之於靜也 蓋人稟陰陽五行之秀氣以生 而聖人之生 又得其秀之秀者 是以其行之也中 其處之也正 其發之也仁 其裁之也義 蓋一動一靜 莫不有以全夫太極之道 而無所虧焉 則向之所謂欲動情勝 利害相攻者 於此乎定矣 然靜者誠之復 而性之眞也 苟非此心寂然無欲而靜 則亦何以酬酢事物之變 而一天下之動哉 故聖人中正仁義 動靜周流 而其動也 必主乎靜 蓋必體立而後 用有以行 程子論乾坤動靜 而曰 不專一則不能直遂不翕聚 則不能發散 亦此意爾

(譯) 朱子曰—이것은 聖人의 動靜의 德을 專一하게 해서 恒常 靜에 本據함을 말한 것이다. 대개 人間은 陰陽 五行의 秀氣를 타서 났는데 聖人은 또한 그 秀氣의 秀氣를 얻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行함이 中하고 그의 處함이 正하며 그의 發함이 仁이고 그의 裁함이 義인 것이다. 대개 一動과 一靜은 全體로 太極의 道를 가지지 않음이 없어서 缺한 바가 없으니 前에 所謂欲이 動하고 情이 勝해서 利害가 相攻하던 것이 이에서 定하는 것이다. 그러나 靜이란 것은 誠의 回復함이고 性의 眞實함이니 萬若에 이 마음이 寂然하게 無欲해서 靜하지 않으면 또한 어찌 事物의 變에 酬酢해서 天下의 動을 統一할 수가 있을까. 그러므로 聖人은 中正한 仁義가 動靜에 周流해서 그의 動함이 반드시 靜을 주로 하였음은 대개 반드시 體가 선 뒤에야 만 用이 行해지기 때문이다. 程子는 乾坤과 動靜을 論해서 「專一하지 않으면 能히 直遂할 수 없고 翕聚하지 않으면 能히 發散할 수 없다」고 하였음이 또한 이런 뜻이다.

又曰 心未嘗遇事時 須是靜 及至臨事方用 便有氣力 如當靜時不靜 思慮散亂 及至臨事 已先倦了 伊川解靜專處云 不專一 則不能直遂 閑時須是收斂定做事 便有精神

(譯) 又曰—마음이 아직 事物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모름지기 靜하다가 臨事해서 作用하는데 바로 氣力이

있으니 만약 靜한 때를 당해서 不靜하고 思慮가 散亂하다가 臨事하게 되면 벌써 먼저 倦怠하게 되는 것이다. 伊川이 靜해서 專할 때를 解釋해서 말하되「專一하지 않으면 能히 直遂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閑靜할 때 모름지기 이 收斂해서 定해야만 做事함에 바로 精神이 있게 되는 것이다.

問 無欲故靜 曰 欲動情勝 則不能靜

(譯) 누가「無欲하기 때문에 靜한가」고 물으니 答曰「欲이 動해서 情이 勝하면 能히 靜할 수 없는 것이다.

又曰 主靜夜氣一章可見

(譯) 又曰「主靜은 孟子에 夜氣의 一章에서 可히 볼 것이다.

問 此是聖人主靜工夫 學者要主靜時 莫是向事物上 各得個當然之則 便是主靜否 勉齋黃氏曰 主靜下小註曰 無欲故靜 須就裏面下工夫 今人終日紛擾 心不定 費也 須着片時 去那裏靜坐收這心 (譯) 누가 이것이 聖人の 主靜하는 工夫이니 學者가 主靜함을 要할 때는 이 事物上에 向하지 말고 各其當然한 法則을 얻는 이것이 바로 主靜인가」고 물으니 黃勉齋曰「主靜이란 앞에 小註에는 無欲하기 때문에 靜하다」고 하였으니 모름지기 그 裏面에 나아가 工夫를 下手해야 하나 只今 하람들은 終日도록 紛擾해서 마음이 定靜하지 못하니 모름지기 暫時라도 着心해가는 그 속에 靜坐해서 그 마음을 收斂하다.

又曰 吳公濟云 逐日應接事物之中 須得一時辰寧靜 以養衛精神 要使事愈繁 而心愈暇 彼不足而我有餘 其言雖出於異說 然試之略有驗 豈周夫子所謂主靜者耶

(譯) 又曰「吳公濟는 말하되「逐日해서 事物을 應接하는 가운데는 모름지기 一時의 寧靜을 얻어서 精神을

養衛해야 하니 要컨대 事爲는 더욱 繁雜해도 心事는 더욱 閑暇하여 그는 不足해도 나는 有餘해야 한다」고 했으니 그 말은 비록 異說에서 나왔으나 試驗해 보면 또한 略干의 實徵이 있으나 이제 周濂溪의 所謂「主靜」이란 것일가.

謝顯道從明道先生於扶溝 明道一日謂之曰 爾輩在此相從 只是學某言語 故其學心口不相應 盍若行之 請問焉 曰且靜坐

(譯) 謝顯道는 明道先生을 따라 扶溝에 가서 배우는데 明道가 하루는 말씀하되「너를 이에서 相從하는데는 다만 나의 言語만 배우기 때문에 그 學問이 心과 口가 相應하지 않으니 어찌 實行하지 아니 하는가」고 함에 그의 實行을 請問한데「또한 靜坐하라」고 하였다.

朱子曰 靜坐則收斂 得精神定 道理方有溱泊處

(譯) 朱子曰「靜坐하면 收斂해서 精神의 安定을 얻을 것이니 道理가 그 때에 溱泊(集畧)할 곳이 있는 것이다.

伊川先生 每見人靜坐 便歎其善學

(譯) 伊川先生은 每樣 사람이 靜坐함을 보고 바로 그의 善學함을 贊嘆하였다.

或問 敬莫是靜否 曰 纔說靜便入於釋氏之說也 不用靜字 只用敬字 纔說着靜 便是忘也 孟子曰 必有事焉 而勿正 心勿忘 勿助長 必有事焉 便是心勿忘 勿正 便是 勿助長

(譯) 누가「敬에는 靜보다 나은 것이 없는가」고 물으니 答曰「겨우 靜만 말하면 바로 佛敎의 說로 들어가니

靜字을 쓰지 아니하고 다만敬字만 쓰는 것이니 겨우靜에 着心함을 말하면 바로 이것이 忘하는 것이다. 孟子는 必有事焉 而勿正 心勿忘 勿助長이라고 하였으니 必有事焉「함은 바로 이것이 心에 勿忘함이요」勿正「함은 바로 이것이」勿助長「함이다.

何叔京因程子此語 而疑問於朱子 意謂程子不用靜字 只慮學者 誤入禪去耳 靜不可廢也 而引必有事焉爲說 竊恐有事 則害於靜也 且程子嘗以呂氏求中 爲不可 今以必有事焉 爲主敬存養之工夫 則是與靜時求中 何以異乎 朱子曰 主敬存養 雖說 必有事焉 然未有思慮作爲 亦靜而已 所謂靜者 非槁木死灰之謂 而所謂必有事者 亦豈求中謂哉

(譯) 何叔京이 程子의 이 말에 因해서 朱子에게 疑問하되 心內로는 程子가 靜字를 쓰지 않았음은 다만學者가 그릇 禪으로 들어갈까 念慮했기 때문이나 靜도 廢해서 는 아니 되니「必有事焉」을 引用해서 말하였으나 가만히 생각컨데 有事하면 靜을 害할까 겁나고 또한 程子는 일찌기 呂氏의 求中으로서 不可하다고 했는데 只今에 必有事焉」으로써 主敬하고 存養하는 工夫로 한다면 이것이 靜時에 中을 求함과 무엇이 다르겠읍니까고 하니 朱子答曰「主敬으로 存養하는 데는 비록「必有事焉」을 말하였으나 아직 思慮와 作爲가 있지 않으면 또한 靜이 될 뿐이니 所謂 靜이란 것은 枯木死灰를 말함이 아니니 所謂「必有事焉」이란 것도 또한 어찌 求中함만 말하는 것일까.

問 程子常教人靜坐如何 朱子曰 亦是他人要多慮 且教人收拾此心耳 初學亦當如此

(譯) 누가「程子」는 恒常 사람들에 靜坐를 가르쳤으니 어떠한가고 물으니 朱子曰「또한 이것이 사람에게에 多慮함을 보고 또한 남에게 이 마음을 收拾하라고 가르쳤음이니 初學에는 또한 이렇게 해야만 마땅한 것이다.

今人皆不肯於本根上理會 如敬字只是將來說 更不做將去 根本不立 故其他零碎工夫 無溱泊 處明道延平 皆教人靜坐 看來須是靜坐

(譯) 只今 사람들은 다 根本上的 理會는 즐기지 아니하고 敬字같은 것도 다만 말로만 하고 다시 實行은 하지 않는 것이다. 根本이 서지 않기 때문에 그 外의 小小한 工夫는 溱泊할 處가 없으니 明道와 延平은 다 남에게 靜坐를 가르쳤음을 보면 모름지기 이 靜坐를 해야 할 것이다.

濂溪言主靜 靜字只好作敬字看 故又言無欲故靜 若以爲虛靜 則恐入釋老去

(譯) 周濂溪는 主靜을 말했으나 靜字는 다만 敬字로 봄이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또 말하기를 無欲하기 때 문에 靜한다」고 했으니 萬若에 虛靜이라고 한다면 老子 佛敎로 들어갈까 겁을 내었기 때문이다.

聖人定之以中正仁義 而主靜 正是要人靜定其心 自作主宰 程子又恐只管靜去 遂與事物不相交涉 却說箇敬云 敬則自虛靜 須是如此做工夫

(譯) 聖人이 中正仁義로서 主靜하였음은 바로 이것이 사람들이 그 마음을 靜定하여 스스로 主宰하기를 요할 것이다. 程子는 또한 靜하기만 하여가서 事物과는 서로 交涉하지 않음을 두려워 하여 그 敬을 말하였으니 靜을 하면 스스로 虛靜해지니 모름지기 이러하게 工夫를 해야 할 것이다.

問 周先生說靜 與程先生說敬 義則同 而其意似有異 曰 程子是怕人理會不得他靜字意 便似坐禪 入定 周子之說 只是無慾故靜 其意大抵以靜爲主

(譯) 누군가「周濂溪의 靜을 말함과 程明道의 敬을 말한 것이 義理는 같으나 그 意味는 다른 듯하다」고 물으니 答曰「程子는 사람들이 이 靜字의 뜻을 理解하지 못하고 바로 坐禪해서 入定하는 것과 같을까봐 겁을 냈

고 周子의 說은 다만 이 「無慾故靜」이라 했으니 그 뜻이 大抵 靜으로서 主로 한 것이다.

延平先生嘗言 道理須是日中理會 夜裏却去靜處 坐地思量 方始有得 某依此說做去 眞個是不同

(譯) 延平先生은 일찌기 말하되 道理는 모름지기 晝間에 理會하고 夜間에는 靜處를 가리 坐地에서 思量하면 비로소 所得이 있을 것이라고 했으니 나는 此說에 依해서 하여야 가니 참으로 이것이 不同한 것이다.

答張元德書曰 明道教人靜坐 蓋爲是時諸人相從 只在學中 無甚外事 故教之如此 今若無事 固是只得靜坐 若特地將靜坐 做一件工夫 則却是釋子坐禪矣 但只着一敬字通貫動靜 則於二者之間 自無間斷處 不須如此分別也

(譯) 張元德에 한 答書에 曰 明道는 靜坐로서 教人하였으니 대개 그때 諸人이 相從하였음은 다만 學問中에 있었고 그 外事는 없었기 때문에 이와같이 가르쳤으니 只今 萬若에 無事하면 진실로 다만 靜坐를 하는 것이 옳으니 特別한 곳에서 靜坐하는 一件의 工夫만 할것 같으면 도리어 佛敎의 坐禪이 될 것이니 다만 一敬字에 만 着心해서 動靜을 貫通하면 그 二者의 間에는 自然히 間斷된 곳이 없을 것이다 모름지기 이와같이 分別하지는 아니 해야 할 것이다.

答張敬夫書曰 來教謂 言靜則溺於虛無 此固所當深慮 然此一字如佛者之論 則誠有此患 若以天理觀之 則動之不能無靜 猶靜之不能無動也 靜之不能無養 猶動之不可不察也 但見得一動一靜 互爲其根 敬義夾持 不容間斷之意 則雖下靜字 元非死物 至靜之中 蓋有動之端焉 固非遠事絕物 閉目兀坐 而偏於靜之謂 但未接物時 便有敬以主平其中 則事至物來 善端昭著 而所以察之者益精明耳 (譯) 張敬夫에게 한 答書에 曰 惠書에는 靜을 말하면 虛無에 빠진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진실로 깊이 研究해

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一字가 佛者의 論과 같은 것이라면 眞實로 이런 境界이 있을 것이나 萬若에 天理로서 본다면 動해서는 靜이 없을수 없음은 靜해서는 動이 없을수 없음과 같고 靜해서는 養이 없을수 없음은 動해서는 察하지 않을수 없음과 같은 것이다. 다만 一動一靜이 서로 根本이 되고 敬과 義를 兼持해서 間斷할수 없는 뜻을 보면 비록 靜字에 着手해도 元來에 死物이 아니라 至靜한 中에는 대개 動하는 端이 있으니 眞實로 事物을 絶遠해서 閉目하고 兀坐하여 靜에만 치우침을 말함은 아니나 다만 아직 接物하지 않을 때는 문득 敬으로서 그 中을 主宰하면 事物이 와서 善端이 昭著할 것이니 그를 살피는 所以가 더욱 精明할 것이다.

來教又謂某言 以靜爲本 不若遂言 以敬爲本 此固然也 然敬字工夫 通貫動靜 而必以靜爲本 故某向來輒有是語 今若遂易爲敬雖若完全 然却不見敬之所施 有先有後 則亦未得爲諦當也 必如來教所謂 要須察夫靜以涵動之所本 動以見靜之所存 動靜相須 體用不離 而後爲無滲漏也 此數句卓然語意俱到 當書之座右 出入觀省(論中和第六書)

(譯) 惠書에 또 누구구 말에 靜으로서 根本으로 한다는 말은 드디어 敬으로서 根本으로 한다는 말만 감지 못하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眞實로 그러하나 敬字의 工夫는 動靜을 通貫해서 반드시 靜으로서 根本으로 하기 때문에 나는 먼저 문득 이 말을 했으나 只今에 만약 드디어 바뀌서 敬으로 함이 비록 完全할것 같으나 도리어 敬의 施할 바가 先과 後가 있음은 보지 못하였은즉 또한 得當하지 않은 것이다. 반드시 惠書에 말한바와 같은 것은 그 靜에는 動의 根本이 涵在하고 動에는 靜의 所存함을 發見하게 되니 動과 靜이 相須하여 體와 用이 不離하게 된 뒤에야만 滲漏함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 數句는 卓然하게 語意가 俱備되었으니 마땅히 座右에 써 부쳐서 出入하는데 觀省하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答何叔京書曰 未發之前 太極之靜而陰也 已發之後 太極之動而陽也 其未發也 敬爲之主 而義已

具其已發也 必主於義 而敬行焉 則何間斷之有哉

(譯) 何叔京에게 한 答書에 曰 未發하기 前은 太極의 靜한 것이니 陰이고 已發한 後는 太極의 動한 것이니 陽이다. 그 未發할 때는 敬을 主로 해서 義가 이미 갖추었고 그 已發할 때는 반드시 義를 主로 해서 敬을 行한 다면 이찌 間斷함이 있.리오.

南軒張氏曰 程子教人以敬 即周子主靜之意 一二年來 頗專於敬字上勉力 愈覺周子主靜之意爲有味 程子謂 於喜怒哀樂未發之前 更怎生求 只平日涵養 便是此意 當深體之也。

(譯) 張南軒曰 程子是 남에게 敬을 가르쳤으니 바로 周子의 主靜한 뜻이다. 一二年來로 자못 敬字上에 만 努力하니 더욱 周子의 主靜한 뜻이 意味가 있음을 깨우쳤다. 程子는 喜怒哀樂이 未發하기 前에 다시 무엇을 求할까고 하였으니 다만 平日에 涵養함이 바로 이런 뜻이다. 마땅히 體得해야 할 것이다.

豐城楊氏(廉)曰 按靜坐之說 明道嘗學以告上蔡 而伊川每見人靜坐 亦歎其善學 但伊川又謂纔說 靜 便入於釋氏說 說不用靜字 只用敬 則已慮靜之爲有偏矣 惟明道他日 復謂性靜者 可以爲學 則 夫朱子獨言 明道教人靜坐者 豈非靜 在明道則屢言之 伊川則雖言之 而不復以爲然乎 要之 明道 言靜則敬字之義 伊川恐學者未悟 故加別白焉 其後如龜山 如豫章 如延平一派 皆於靜中觀喜怒哀 樂 未發氣象 而上蔡亦謂多著靜不妨 此豈非明道之教乎 至和靖 始終一個敬字 做去 豈非伊川之教 乎 (伊洛淵源錄新增)

(譯) 楊豐城曰 程子각하건대 靜坐의 說은 明道가 일찍이 들어서 謝上蔡에게 告하고 伊川은 每樣靜坐하는 사람 을 보면 또한 그의 善學을 贊嘆하였으나 다만 伊川은 또한 겨우 靜만 말해도 바로 佛敎의 說로 들어간다고

해서 靜字를 쓰지 아니하고 다만 敬字만 썼은즉 이미 靜慮(禪)함에 치우침이 있는 것이다. 오직 明道는 他日에 다시 性이 靜한 者만이 可히 工夫할 수 있다고 말하였은즉 대개 朱子는 獨히 明道の 教人 靜坐를 말한 것이 어찌 靜이 아닐까. 明道에 있어서는 여러 번 말하였고 伊川에 있어서는 비록 말을 해도 다시 그리하고 고하지 아니 하였는가. 要컨대 明道가 靜을 말한 것은 바로 敬字의 뜻이고 伊川은 學者가 못개 우칠까 봐 겁을 내기 때문에 더욱 明白히 한 것이다. 크위에 楊龜山 羅豫章 李延平 같은一派는 다 靜中에서 喜怒哀樂의 未發한 氣象을 보았고 謝上蔡도 또한 많이 靜이라 하여도 無妨하다고 했으니 이것이 어찌 明道の 가르침이 아닐까. 尹和靖에 이르러서는 始終을 一個의 敬字로 하였으니 어찌 伊川의 가르침이 아닐까.

退溪先生曰 太極有動靜之妙 而其動也 本於靜 聖人全動靜之德 而其動也 主乎靜 衆人具動靜之理 而靜之理 常汨於動 動靜者氣也 所以動靜者理也 聖人純於理 故靜以御動 而氣命於理 衆人徇乎氣 故動而整靜 而理奪於氣 固不能立天下之本 何以應天下之事哉 是故古昔聖賢 莫不於是眷眷焉 夫子贊易 而有寂感之論 子思傳道 而發中和之旨 以至大學之定靜 圖說之主靜 皆是也 自是以來 濂溪而伊洛 伊洛而龜山 豫章 延平以及晦菴 其授受淵源宗旨 雖非一言可盡 而求其大本所在 則殆不外是 其可以易言也哉

(譯) 李退溪先生曰 太極에는 動靜의 妙理가 있으니 그 動은 靜에 根本한 것이니 聖人은 動과 靜의 德을兼全해서 그의 動함에는 靜을 主로하나 衆人은 動靜의 理만 갖추어서 靜의 理가 恒常 動에 빠지는 것이다. 動과 靜은 氣이고 動하고 靜하게 하는 所以는 理이니 敬人은 理에만 純하기 때문에 靜으로서 動을 制御해서 氣가 理에 命全을 받는 것이나 衆人은 氣에만 循하기 때문에 動으로서 靜을 穿鑿해서 理가 氣에게 被奪되는 것이니 진실로 天下의 本을 세우지 않으면 어찌하여 天下의 事에 應할 수가 있을까. 그러므로 옛날 聖賢은 이點에 眷眷하지 않음이 없었던 것이다. 孔夫子는 易經을 贊述하시는데 寂感(寂然不動 感而遂通天下之故)의

論이 있고 子思는 傳道해서 中和之旨을 發하여서 大學의 定靜과 圖說(太極)의 主靜에 이르기까지 다 이런 것이다. 그로부터 周子에서 程子로 程子에서 楊龜山 羅豫章 李延平에로 晦菴에 이르기까지 그의 授受한 淵源의 宗旨는 비록 一言으로서 다 할바가 아니나 그 大本의 所在를 求한다면 거의 이에 不外하니 그를 可히 쉽게 말할 수 있을까.

夫山不立 則不能以生物 水不止 則不能以鑑物 人心不靜 則又何以該萬理 而宰萬事哉 聖人之主靜 所以一天下之動 非謂其泯然無用也 學者之求靜 所以立萬用之本 非欲其漠然不應也 故主靜而能 御動者 聖賢之所以爲中和也 耽靜而絕事物者 佛老之所以爲偏僻也 程朱門下 屢以是警學者 而門人之賢者 亦往往流入虛無寂滅 而不自返 蓋知靜之汨於動 而遂厭動 而求靜 則未免遺粗 而索精 去器而探道 不知不覺 陷溺至此 所謂差之毫釐 謬以千里者也

(譯) 무릇 山은 靜立하지 않으면 能히 生物할수가 없고 水는 靜止하지 않으면 能히 鑑物할수가 없으니 人心은 靜定하지 않으면 또한 어찌 萬理에 達通해서 萬事를 主宰할수가 있을까. 聖인이 主靜한은 天下에 動하는 것을 統一하는 所以이고 그것이 泯然하게 無用함을 이룬 것은 아니다. 學者가 靜을 求함은 萬用의 本을 세우는 所以이고 그것이 漠然하게 不應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主靜해서 能히 御動하는 것은 聖賢의 中和하는 所以이나 耽靜해서 事物을 끊는 것은 老佛의 偏僻하게된 所以인 것이다. 程朱의 門下에는 자주 이로써 學者를 警戒했으나 門人에 賢者도 또한 往往히 虛無寂滅로 流入해서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다. 대개 靜이 動에 빠짐을 알고도 드디어 動을 심어서 靜을 求하면 粗大함은 버리고 精細함만 찾고 具象은 버리고 抽象만을 찾아서 不知不覺之中에 이곳으로 빠져 들어감을 免하지 못하니 이것을 毫釐의 틀림에서 千里가 어긋난다고 하는 것이다.

竊嘗思之 夫靜而存養 動而省察 固學者之所共知 而吾所謂靜 與彼之虛無寂滅 絕不相同 此則非人

人所能知也 故其用功也 每淪於禪寂 若或思是 而遂欲捨靜養 而專於動察 則又非全體大用之學 河洛以下 論此理多矣 而莫備於朱子與南軒 論中和之書 其言曰 敬字工夫 通貫動靜 而必以靜爲 本 近世篁墩程氏 論夜氣主靜之旨 而卒亦歸重於敬 其示人之意 深且切矣(靜齋記)

(譯) 가만히 생각하건대 무릇靜해서는 存養하고 動해서는 省察함은 진실로學者의 共知하는 바이니 나의 所謂靜이란 것은 저들의 虛無寂滅과는 絶對로 相同하지 않으니 이것은 사람마다 아는바가 아니다. 그러므로 그 工夫함이 每樣禪寂에 빠지니 萬若에 或 이것을 걱정해서 드디어 靜養을 버리고 動察만을 힘쓴다면 또한 全體大用の 學이 아니다. 程子以下로 此理를 論한 者가 許多하나 朱子가 南軒에게 中和를 論한 書처럼 完備된 것은 없으니 그의 말에「敬字의 工夫는 動靜을 貫通해도 반드시 靜으로써 本으로 한다」고 한 것이다. 近世에 程篁墩은 夜氣主靜의 旨를 論해서 마침내 또한 敬에 歸重하였으니 그의 示人한 뜻이 深하고도 切한 것이다.

先生手抄醫閻集 附白沙陽明集抄之書 其末曰 某按靜坐之學 發於二程先生 而其說疑於禪 然在延平朱子 則爲心學之本原 而非禪也 如白沙醫閻 則爲厭事求靜而入於禪 其害正甚矣 故錄白沙陽明於延平答問後 而終之以醫閻 以見靜學之易差 而不可忽也

(譯) 先生이 손주「醫閻集」을 抄錄하시는데 白沙陽明集抄를 附錄으로 하고 그의 末尾에 말하시되「나는 생각하건대 靜坐의 學은 二程先生에서 發端해서 그 說이 禪에 疑似하였으나 延平和 朱子에 있어서는 心學의 本原이 되니 禪은 아니다. 白沙 醫閻같은 이는 일을 싫어해서 靜을 求하여 禪으로 들어가니 그의 正을 害침이 甚한 것이다. 그러므로 白沙陽明은 延平答問의 뒤에다가 記錄하고 醫閻로써 끝마쳤는데 靜學의 어긋나기 쉬울을 보고는 輕過해서 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某既爲此說 而頗自覺 語意之疏 後得豐城楊廉 伊洛淵源錄新增 見其於明道錄下引朱子答張元德書所論 明道教人靜坐之說 而自爲之辨曰 按靜坐之說(止) 一箇敬字做去 豈非伊川之教乎 楊公此論 與鄙說相發 而辨析完密 今備錄於此 以自考飭(右先生自識)

(譯) 나는 이미 此說을 함에 자못 語意가 疎畧함을 自覺했더니 그 後에 豐城楊廉의 伊洛淵源錄新增을 얻어서 그 明道의 記錄 밑에 朱子가 張元德에게 한 答書에서 所論한 明道教人靜坐의 說을 引用한 것을 보고 서스스로 辨明하되 「생각하건대 靜坐의 說은 一箇의 敬字로 하는 것이 어찌 伊川의 가르침이 아닌가」고 했으니 楊公의 此論은 나의 說과 더불어서 相發해서 辨析함이 完密하기로 只今 이에 備錄해서 自身の 考飭으로 하는 바이다.

居敬窮理說

子思子曰 君子尊德性 而道問學 致廣大 而盡精微 極高明 而道中庸 溫故而知新 敦厚以崇禮(中庸)
 (譯) 子思子曰 君子는 德性을 尊重하고도 問學을 方道로 하며 廣大를 이루어도 精微를 다하며 高明을 極하여도 中庸을 道로 하며 溫故해서 知新을 하고 敦厚해서 崇禮를 하는 것이다.

朱子曰 尊者恭敬奉持之意 道由也 尊德性所以存心 而極乎道體之大也 道問學所以致知 而盡乎道體之細也 不以一毫私意自蔽 不以一毫私慾自累 涵泳乎其所已知 敦篤乎其所己能 此皆存心之屬也 析理則不使有毫釐之差 處事則不使有過不及之謬 理義則日知其所未知 節文則日謹其所未謹 此皆致知之屬也 盖非存心 無以致知 而存心者又不可以不致知 故此五句 大小相資 首尾相應 聖賢所示入德之方 莫詳於此 學者宜盡心焉

(譯) 朱子曰「尊이란 것은 恭敬해서 奉持하는 뜻이고 道는 山해가는 것이니 尊德性은 存心하는 所以로서 道體의 大함을 極한 것이고 道問學은 致知하는 所以로서 道體의 細함을 다한 것이다. 一毫의 私意로서 덮히지도 아니하고 一毫의 私慾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도 아니하여 그의 이미 아는 곳에서는 涵泳하고 그의 이미 能한 마로서는 敦篤하는 이것이 대개 存心하는 所屬이고 析理를 함에는 毫釐의 差도 있게 하지 아니하고 處事를 함에는 過不及의 謬가 있게 하지 아니하며 理義를 함에는 그의 알지 못하는 바를 알게 되고 節文을 함에는 그의 삼가지 못하는 바를 삼가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은 다 致知하는 所屬이다. 대개 存心하지 않으면 致知할 수가 없고 存心하는 때는 또한 致知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니 이 五句는 大小가 相資하고 首尾가 相應해서 聖賢의 入德하는 方向을 指示하는 바가 이 보다 더 詳密한 것은 없으니 學者는 마땅히 마음을 다 해야만 될 것이다.

朱子曰 尊德性 而道問學 一句 是綱領 下四句上截 皆是大綱工夫 下截皆是細密工夫 致廣大 極高明 溫故敦厚 此是尊德性 盡精微 道中庸 知新崇禮 此是道問學 如程先生言 涵養須用敬 進學則在致知 道之爲體 其大無外 其小無內 無往而不在 故君子之學 既能尊德性 以全其大 便須道問學 以盡於小

(譯) 朱子曰「尊德性 而道問學」이란 一句는 이것이 綱領이고 下의 四句에 上半折은 다 이것이 大綱의 工夫며 下半折은 이것이 細密한 工夫이니「致廣大 極高明 溫故敦厚」는 이것이 尊德性이고「盡精微 道中庸 知新崇禮」는 이것이 道問學함이니 程先生의 말씀과 같이 涵養에는 모름지기 敬을 써야하고 進學함은 致知에 있는 것이다. 道의 本體는 그의 크기엔 外가 없고 그의 작음엔 內가 없어서 어디를 가나 있지 않는 데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君子의 學은 이미 能히 尊德性으로서는 그의 大를 全하게 하고 모름지기 道問學으로서 그의 小를 다하는 것이다.

又曰 尊德性 至敦厚 此上一截 是渾淪處 道問學 至崇禮 此下一截 便是詳密處 道體之大者 直是難守 細處又難窮究 若有上一截 而無下一截 只管渾淪 則茫然無覺 若有下一截 而無上一截 只管要纖悉皆知 則又空無所寄

(譯) 又曰—尊德性에서 敦厚에까지 上에 一切은 이것이 渾淪한 곳이고 道問學에서 崇禮에까지 下의 一切은 이것이 詳密한 것이니 道體의 大단 것은 바로 이것이 지키기가 어렵고 細한 곳은 또한 窮究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萬若에 上의 一切만 있고 下의 一切은 없어서 다만 渾淪하기만 하면 茫然하게 覺悟가 없고 萬若에 下의 一切만 있고 上의 一切이 없어서 다만 纖悉하게 다 알기만 하면 또한 空無해서 寄着될 곳이 없는 것이다.

雲峯胡氏曰 讀此者往往謂存心 是力行工夫 遂疑高明 溫故知新屬知 殊不知章句但曰 存心致知 未嘗曰 力行致知 朱子不曰 尊德性所以力行 而必曰存心何也 大學補傳取程子或問十二節即致知之事 末後五節 所以涵養本原之地 即存心之事 若謂存心便是力行 下文有曰 非存心 無以致知 謂之非力行 無以致知可乎

(譯) 雲峯胡氏曰—이것을 읽은 者는 往往히 存心은 이것이 力行하는 工夫라고 하여 드디어 高明 溫故知新이 知에 屬함을 疑心하니 余의 章句는 알지 못하고 다만 存心하여 致知한다고는 말하나 力行하여 致知한다고는 말하지 아니 하였다. 朱子는 尊德性이 力行하는 所以라고는 말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存心하다고만 말한 것은 何故일까. 大學의 補傳에서 程子의 或問十二節을 取하였음은 바로 致知의 事이고 末尾에 五節은 本原涵養하는 所以인 것이니 바로 存心하는 일이다. 萬若에 存心이 바로 이 力行이라고 한다면 下文에는 存心하지 않으면 致知할 수가 없다고 하였으니 力行하지 않으면 致知할 수가 없다고만 해도 될 수 있을까.

大抵先看本文 大字與尊字 道體至大 心體本亦至大 尊之則能存此心之大 所以能極乎此道之大 恐未便說到力行處 窮以謂存心 不過是存其心體之本然者 致知是推極夫事理之當然者 心體本自廣大 不以私意蔽之 即謂之致 心體本自高明 不以私欲累之 即謂之極 己知者溫之 而涵泳之味深 己厚者敦之 而持守之力固 此皆存其心之本然者也

(譯) 大抵 먼저 本文에 大字와 尊字를 보아야 하니 道體는 至大하고 心體도 또한 至大한 것이다. 尊하면 能히 此心의 大함을 保存하고 能히 此道의 大함을 極하는 所以니 아직 바로 말이 力行하는 곳까지 到達하지 못할까 두려워한 것이다. 가만히 생각하니 存心은 이것이 心體의 本然한 것을 保存함에 不過한 것이고 致知는 이것이 事理의 當然한 것을 推極하는 것이라고 한다. 心體는 본디 廣大해서 私欲로서 덮지 못하게 함을 바로 致함이라고 말하고 心體는 본디 스스로 高明해서 私欲으로서 덮할 수가 없음을 바로 極함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미 知한 것은 溫하게 해야만 涵泳하는 맛이 깊고 이미 厚한 것은 敦하게 해야만 持守하는 힘이 굳어지니 이것이 내게 그 心의 本然한 것을 保存함이다.

然心之廣大 自具精微之理 不學則於理 便有毫釐之差 心之高明 自有中庸之則 不學則於事 易有過不及之謬 故之中 有無限新意 不學則不能知新 雖溫故亦不能以盡精微 敦厚之外 有多少節文 不學則不能崇禮 雖敦厚 亦不能以道中庸 中庸即是精微之極致 究其極 一而已矣 凡此皆推極其事理之當然者也

(譯) 그러나 心이 廣大함에는 스스로 精微한 理數를 갖추었으나 배우지 않으면 理數에 毫釐의 差가 있는 것이고 心이 高明함에는 스스로 中庸의 原則을 가졌으나 배우지 않으면 處事에 過不及의 誤가 있기 쉬운 것이다. 故의 中에는 無限한 新의 意가 있으나 배우지 않으면 能히 新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비록

溫故를 해도 또한 能히 精微를 다 할수 없을 것이며 敦厚의 外에 多少의 節文이 있으나 배우지 않으면 能히 崇禮할수가 없는 것이고 비록 敦厚해도 또한 能히 中庸으로는 갈수가 없는 것이다. 中庸은 바로 이것이 精微의 極한 것이니 그의 極만 究致하면 一이 될 뿐이니 무릇 이것이 모두 그 事理의 當然함을 推極한 것이다.

蓋道體極於至大而無外 非淺陋之胸襟所能容 所以不可不存夫心體之本然者 道體入於至細 而無間非粗疎之學問所能悉 所以不可不極夫事理之當然者 要之存心不大 故用力不自蔽 不自累足矣 涵泳乎此 敦篤乎此 足矣 不必於其中 又分知與行 若致知工夫 其中却自兼行而言 非十分細密不可也

(譯) 대개 道體는 至大함에 極해서 그 外가 없으니 淺陋한 心胸에는 能히 包容할수가 없는 것이다. 心體의 本然한 것을 保存하지 않을수 없는 所以이고 道體는 至細한게 入해서 그 內가 없으니 粗疎한 學問으로는 能히 知悉할수가 없는 것이니 그 事理의 當然한 것을 究極하지 않을수 없는 所以이다. 要컨대 存心이 크지 않기 때문에 用力에는 自蔽하지도 않음도 自累하지도 않지만 하면 足한 것이며 이에서 涵泳하고 이에 서 敦篤하기만 하면 足한 것이니 반드시 그 中에서 또 知와 行을 分할 必要는 없는 것이다. 萬若에 致知하는 工夫가 그 中에 도리어 스스로 兼行해서 말한다면 十分細密함이 不可함은 아닌 것이다.

程子曰 涵養須用敬 進學則在致知

(譯) 程子曰 涵養함에는 모름지기 敬을 써야만 하고 進學을 함은 致知하는데 있는 것이다.

朱子曰 程子二言 實學者立身進步之要 而二者之功 蓋未嘗不交相發也 然夫子教人持敬 不過以

整衣冠 肅容貌爲先 而所謂致知者 不過讀書史 應事物 求其理之所在而已

(譯) 朱子曰 程子の 二言은 實로學者가 立身해서 進歩하는 要訣이니 그 두가지의 工夫는 대개 서로 交發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것이다. 그러나 夫子는 사람들에 持敬을 가르치는 데는 衣冠을 整齊하고 容貌를 嚴肅히 함을 先務로 하는데 不過하고 所謂致知란 것은 書史를 읽고 事物에 應해서 그 理致의 所在를 求하는 것에 不過한 것이다.

答陳師德書曰 此二言者 體用本末 無不該備

(譯) 陳師德에게한 答書에 曰 一이 두말은 體用과 本末이 모두 具備된 것이다.

又曰 涵養本原 思索義理 須用齊頭做 方能互相發 程子須字在字 便是要齊頭着力

(譯) 又曰 一本原을 涵養하고 義理를 思索함은 모를지기 같이 해야만 能히 서로 互發할 것이니 程子の 須字와 在字는 바로 이것을 같이 着力해야만 하는 것이다.

答呂伯恭書曰 讀程子書 既已有年矣 而不得其要 比因講究中庸首章之指 乃知所謂涵養須用敬 進學則在致知者 兩言雖約其實入德之門 無踰於此 方竊洗心 以事斯語 而未有得也

(譯) 呂伯恭에게한 答書에 曰 程子の 書を 읽은지가 이미 몇年이나 되었는데 그의 要點을 얻지 못했더니 近者에 中庸首章의 뜻을 講究하다가 이에所謂「涵養須用敬 進學則在致知」하는 두말이 비록 簡單해도 그는 實로 入德하는 門으로는 이 보다 나은 것이 없음을 알고서 가만히 洗心하고 이 말을 일삼았으나 아직 所得은 있지 않는 것이다.

答孫敬甫書曰 主一無適者 亦必有所謂格物窮理者 以先後之也 故程夫子之言曰 涵養必以敬 而

進學則在致知 此兩言 如車兩輪 如鳥兩翼 未有廢一 而可行可飛者也 敬之與否 只在當人 一念操舍之間 而格物致知 莫先於讀書 講學之爲事 至於讀書 又必循序致一 積累漸進 而可以有功也

(譯) 孫敬甫에게한 答書에 曰 主一無適이란 것은 또한 반드시 所謂 格物해서 窮理하는 것이 있어서 先後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므로 程夫子의 말에 涵養함엔 반드시 敬으로서 하고 進學함은 致知에 있다 고한 이 두 말은 車에 兩輪이 있고 鳥에 兩翼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만 없어도 가거나 날 수는 없는 것이다. 敬의 與否는 다만 이것이 當者의 一念이 操하고 捨하는 사이에 있는데 格物致知에는 讀書을 하여 講學함을 일삼는 것보다 먼저 할 것이 없으니 讀書함에 이르러서는 또한 반드시 順序를 따라서 一貫하여 積累해서 漸進해야만 可히 功이 있을 것이다.

問持敬致知 互相發明否 北溪陳氏曰 古人如此說 必須是如此

(譯) 누가 持敬하고 致知함은 서로 發明하는 것인가 고 물으니 陳北溪曰 古人은 이 說과 같이 반드시 이리하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上蔡謝氏曰 君子大居敬 而貴窮理也

(譯) 謝上蔡曰 君子는 居敬을 大하게 하고 窮理는 貴히 하는 것이다.

新安陳氏曰 大居敬法公羊傳 君子大居正之文 以居敬爲大 而又以窮理爲貴也

(譯) 陳新安曰 大居敬이란 것은 公羊傳에 君子大居正이란 言을 본머서 居敬으로써 大로하로 또 窮理로써 貴로한 것이다.

朱子曰 學者工夫 惟在居敬窮理二事 此二者互相發 能窮理 則居敬工夫日益進 能居敬 則窮理

工夫日益密

(譯) 朱子曰—學者의 工夫는 오직 居敬과 窮理의 二事에만 있으니 二者는 서로 互發하는 것이다. 能히 窮理하면 居敬하는 工夫가 날로 더욱 進步하고 能히 居敬하면 窮理하는 工夫가 날로 더욱 詳密하게 되는 것이다.

答馮作肅書曰 居敬窮理二者不可偏廢 偏廢則德孤 而無所利矣

(譯) 馮作肅에게 한 答書에 曰—居敬과 窮理의 두가지는 하나도 廢해서는 아니되니 하나라도 偏廢한다면 德이 의로워서 利닐 바가 없는 것이다.

南軒張氏曰 二程先生所以教人者 不越於居敬窮理二事 蓋居敬有力 則其所窮理者愈精 窮理浸明 則其所居敬者 益有地 二者實互相發也

(譯) 張南軒氏曰—두 程先生이 教人하는 바는 居敬과 窮理의 二事에 지나지 않으니 대개 居敬이 有力하면 그의 窮理한 바가 더욱 精密하고 窮理가 明哲하면 그의 居敬하는 바가 더욱 據地가 있어서 二者는 實로 서로 互發이 되는 것이다.

敬軒薛氏曰 纔收斂身心 便是居敬 纔尋思道理 便是窮理 二者交資 而不可缺一也

(譯) 薛敬軒曰—겨우 身心을 收斂하면 바로 그것이 居敬이고 겨우 道理를 尋思하면 바로 그것이 窮理이니 二者는 서로 도와서 하나도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又曰 居敬有力 則窮理愈精 窮理有得 則居敬愈固

(譯) 又曰—居敬함이 有力하면 窮理가 더욱 精密해지고 窮理함이 有得하면 居敬이 더욱 堅固해지는 것이다

又曰 一於居敬 而不窮理 則有枯寂之病 一於窮理 而不居敬 則有紛擾之患

(譯) 又曰 一居敬에만 專一해서 窮理를 알으면 枯寂한 病이 있고 窮理에만 專一해서 居敬하지 않으면 紛擾한患이 있는 것이다.

又曰 程子論恭敬曰 聰明睿智 皆由此出 蓋人能恭敬 則心肅容莊 視明聽聰 乃可以窮衆理之妙 不敬則心昏氣逸 四體放肆 雖粗淺之事 尚茫然而不能察 况精微之理乎 是以知居敬窮理二者 不可偏廢 而居敬又爲窮理之本也

(譯) 又曰 程자가 恭敬을 論해서 말하되, 聰明睿知가 다 이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다"고 하였으니 大개 사람이 能히 恭敬만 하면 心氣가 肅整하고 容貌가 莊嚴해서 視함이 明하고 聽함이 聰하여 이에 可히 衆理의 妙를 窮究할수가 있으나 不敬하면 精神이 昏迷하고 心氣가 散逸해서 四肢가 放肆하게 되니 비록 粗淺한 일이라도 오히려 茫然해서 能히 明察할수 없는데 하물며 精微한 理일까。 그러므로 居敬과 窮理의 二者는 하나라도 廢해서는 아니 되니 居敬은 또한 窮理의 本도 되는 것이다.

朱子曰 主敬以立其本 窮理以進其知 使本立 而知益明 知精而本益固

(譯) 朱子曰 一敬을 主로 해서는 그 本을 세우고 理를 究해서는 그 知가 나아가게 하여 그 本을 세워서는 知를 더욱 밝게 하고 知를 精히해서는 本을 더욱 굳게 하는 것이다.

答徐元敏書曰 主敬者存心之要 而致知者 進學之功 二者交相發焉 則知日益明 守日益固 而舊習之非 自將日改月化 於冥冥之中矣

(譯) 徐元敏에게 한 答書에 曰 一主敬하는 것은 存心하는 要法이고 致知하는 것은 進學하는 工夫이니 二者는

서로 交發하게 되면 知가 날로 더욱 밝아지고 守함이 날로 더욱 굳어져서 舊習에 나쁜 것이 스스로 將次冥冥한 가운데서 날로 改正되고 달로 變化되는 것이다.

又曰持敬是窮理之本 窮得理明 又是養心之助

(譯) 又曰持敬은 이것이 窮理하는 本이니 窮究해서 理가 明해지는 것은 또한 이것이 養心하는데 도움도 되는 것이다.

答林擇之書曰 今且論涵養一節 疑古人直自小學中 涵養成就 所以大學之道 只從格物做起 今人從前無此工夫 但見大學以格物爲先 便欲只以思慮知識求之 更不於操存處用力 縱使窺測得十分 亦無實地可據 大抵敬字是徹上徹下之意 格物致知 乃其間節次 進步處耳

(譯) 林擇之에게한 答書에 曰只今에 涵養을 論하는 一節은 疑心하건데 古人이 바로 小學中으로부터 涵養을 成就하는 것이 大學의 道가 다만 格物에서 做起하는 所以였던 것이나 今人은 前에 따라서 이러한 工夫가 없이 다만 大學에 格物을 先으로 함만 보고서 바로 다만 思慮와 知識으로서 求하려 하고 다시 操存하는 處에서는 用力을 하지 않으니 假令 十分을 窺測해 인으려 하여도 또한 實地로 可據할 것은 없을 것이다. 大抵敬字는 이것이 徹上徹下하는 뜻이고 格物致知는 그것이 그 間의 節次로서 進步하는 것이다.

新安陳氏曰 居敬又爲窮理之本

(譯) 陳新安曰居敬은 또한 窮理의 基本이 되는 것이다.

何叔京問 致知以明之 持敬以養之 此學之要也 不致知 則難以持敬 不持敬 亦無以致知 曰 二者

交相爲用 固如此 然亦當各致其力 不可恃此 而責彼也

(譯) 何叔京이「致知로서는 밝히고 持敬으로서는 기르는 것이工夫하는 要點이다. 致知를 하지 않으면 持敬하기가 어렵고 持敬하지 아니 해도 또한 致知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고 물으니 答曰「그 두가지는 서로用이 됨이 진실로 이와 같으나 또한 마땅히 各各 그 힘을 다 해야만 하고 이것만 믿고서 저것을 다루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答王子充書曰 今日之弊 務講學者 多闕於踐履 專踐履者 又遂以講學爲無益 殊不知因踐履之實 致講學之功 使所知益明 則所守日固 與彼區區口耳之間者 不可同日語矣

(譯) 王子充에게한 答書에 曰「今日의 弊端은 講學만 힘쓰는 者가 흔히 實踐을 闕하고 踐履만 힘쓰는 者는 또한 講學을 無益하다고 하니 너무도 踐實하는 實地로 因해서 講學하는 功果를 이루어서 하여금 아는 바를 더욱 밝게 하고 지키는 바를 날로 굳게 할 줄은 모르니 그의 區區한 口耳之間에만 區區하는 者와는 같이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

退溪先生曰 孔子曰 博學於文 約之以禮 子思曰 尊德性 而道問學 孟子曰 博學而詳說之 將以反說約也 二者之相須 如車兩輪 如鳥兩翼 未有廢一 而可行可飛者 此朱子之說也 吾儒家法 本自如此 老先生一生從事於斯 二者纔覺 有一邊偏重 即猛省而痛改之 故其見於書尺 往復之間者 互有抑揚 此乃自用吾法 而自相資相掄 以趨於大中至正之道耳 其門人之述行狀云 晚見諸生 繳繞於文義 始頌指示本體云云 則尊德性 以掄文義之弊 此朱子之意也

(譯) 退溪先生曰「孔子께서는『文에는 博學하고 禮로서는 要約하라』고 하였고 子思는『德性を 높여서 問學

을 하라」고 하셨으며 孟子는 博學해서 詳說함은 그로서 要約으로 돌아오는 것이다」고 하셨으니 講學과 持敬이 두가지가 相須함은 車에 兩輪 鳥에 兩翼과 같아서 한쪽이라도 廢해서는 가지도 날지도 못한다는 것이 朱子의 說이다. 우리 儒家의 法은 본디 이러한 것이니 老先生은 一生을 이에 從事해서 二者를 겨우 깨우쳐서 한쪽만 偏重함이 있다면 바로 猛省해서 痛改하셨다. 그러므로 그의 性復한 書札속에 나타난 것이 서로 抑揚이 있었으니 이것은 스스로 우리 法을 서서서로 資하고 揀하여 大中至正한 길로 나아가 하셨다. 그 門人이 行狀을 지어 말하되「능계 여러 學生들이 文義에만 열매임을 보시고 비로소 本體를 指示하셨다」云云하엿음즉 德性을 높혀서 文義의 弊를 揀하신 이것이 朱子의 뜻이 었던 것이다.

第四 淵源附集

(按聖賢心學全體淵源之外亦或有日用實行特致謹嚴有足師法可以驗古人之必以務敬爲貴故特採錄十數條爲附集云。)

衛靈公與夫人夜坐 聞車聲 麟一 至闕而止 過闕復有聲 公問夫人曰 知此爲誰 夫人曰 蘧伯玉也 公曰 何以知之 夫人曰 妾聞 禮下公門 式路馬 所以廣敬也 夫忠臣與孝子 不爲昭昭信節 不爲冥冥惰行 蘧伯玉衛之賢大夫也 仁而有知 敬於事上 此其人必不以闇昧廢禮 是以知之 公使人視之 果伯玉也 (列女傳)

(譯) 衛나라 靈公이 밤에 夫人과 같이 있을때 車소리가 저격저격 하더니 大闕에 이르러 그쳤다. 大闕을 지나더니 다시 소리가 들리었다. 公이 夫人에게 이것이 누구일까 하고 물으니 夫人이 蘧伯玉이라고 말하였다. 公이 또 어떻게 아는가 고 물으니 夫人이 말하되 저는 들으니 禮에는 公門(王宮)앞에서는 下馬를 하고 路馬(王의 馬)를 보면 敬禮를 하라고 하였으니 그는 廣敬하는 所以오니 무릇 忠臣과 孝子는 밝은 데라고 해서 節操를 믿게 하지도 않고 어둠다고 해서 行動을 게을리 하지도 않는 것이니 蘧伯玉은 衛나라에 賢大夫로서 仁하고도 知하여 事上에서 恭敬하니 그 사람은 반드시 어두울때라고 해서 禮를 廢하지는 않았을 것이니 그때

서 앞이라」고 하였다. 공이 사람을 시켜 알아 보니 果然 蓬伯玉이었던 것이다.

萬石君石奮 歸老于家 過宮門闕 必下車 趨見路馬必式焉 子孫爲少吏來歸謁 萬石君必朝服見之不
名子孫勝冠者在側 雖燕必冠申申如也 上時賜食於家 必稽首俯伏而食 如在上前(漢書本傳)

(譯) 萬石君인 石奮이 退官하여 집에서 늙는데 宮門을 지날 때는 반드시 車를 내려서 걸어가고 王車를 보면 반드시 敬禮를 하였다. 子孫이 작은 官吏가 되어도 집에와 보이면 萬石君은 반드시 朝服을 입고 보는 데는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며 子孫이라든 成年이 된 者가 곁에 있으면 비록 燕居때라도 반드시 冠을 쓰고 申申하게 하였다. 王이 때로 집에 食物을 보내오면 반드시 稽首하고 俯伏해서 먹는데 王前에 있는 듯이 하였다.

張湛矜嚴好禮 動止有則 居處幽室 必自修整 雖遇妻子 若嚴君焉 及在鄉黨 詳言正色 三輔以爲儀
表 建武(光武年號)初 爲左馮翊 告歸平陵 望寺門而步 主簿進曰 明府位尊德重 不宜自輕 湛曰 禮
下公門 式路馬 孔子於鄉黨恂如也 父母之國 所以盡禮 何謂輕哉(漢書本傳)

(譯) 張湛은 矜嚴하고 好禮해서 動止에 規則이 있었다. 幽室에서 居處할 때도 반드시 스스로를 修整해서 비록 妻子를 만나도 嚴君과 같이 하며 鄉黨에 있어서는 詳言하고 正色하니 三輔(漢代에 長安以東은 京北尹 長陵以北은 左馮翊 渭城以西은 右扶風이라고 한 三官)가 儀表라고 하였다. 漢光武 初년에 左馮翊이 되어서 平陵으로 告歸하는데 寺門을 보고는 步行을 하니 主簿가 나와서 明府(地方長官)께서는 位도 尊하시고 德도 重하오는데 스스로를 가볍게 하심은 못 마땅합니다」고 하니 湛은 曰「禮에서 公門앞에는 下馬하고 路馬를 보던 敬禮하라고 하였고 孔子께서도 鄉黨에서는 恂恂하게 하셨으니 父母의 故鄉에서 禮를 다 하는 바인데 어찌하여 가볍다고 하는가.

茅容與等輩 避兩樹下 衆皆夷踞 容獨危坐愈恭 郭林宗行見之 而奇其異 遂與共言 因請寓宿 勸令

學卒以成德(漢書本傳)

(譯) 亨容은 同年輩들과 더불어서 나무 밑에서 비를 避하는 데 더더 사람들은 다 발을 걸치고 앉았는데 容만은 獨히 풀이 앉아 더욱 恭敬한 態度를 하였다. 郭林宗이 지나가다가 보고서 그것을 奇異하게 여겨 드디어 對話를 하고,因해서 같이 留宿하기를 請하여 勸해서 工夫를 시켜 마침내 成德을 시켰던 것이다.

王凝(字叔恬隋文帝時人) 常居慄如也 子弟非公服不見 閨門之內 若朝廷焉(文中子關朗篇)

(譯) 王凝은 平居에도 謹慄하여서 子弟들이라도 公服이 아니고는 보지 않으니 家庭안이 朝廷과 같았던 것이다.

柳仲郢字謙豪唐武宗時人) 以禮律身 居家無事 亦端坐拱手 出內齋 未嘗不束帶(柳氏家訓)

(譯) 柳仲郢은 禮로서 律身하여서 在家해서 無事할 때라도 端坐해서 拱手를 하고 內室에 들어가는데도 衽를 아니할 때는 없었던 것이다.

呂正獻公(名公著字晦叔宋人) 自少講學即以治心養性爲本 寡嗜慾 薄滋味 無疾言遽色 無窘步無惰容 凡嬉笑俚近之語 未嘗出諸口 於勢利紛華聲伎游宴 以至於博奕奇玩 澹然無所好(呂氏家傳)

(譯) 呂正獻公은 少時부터 講學을 해서 바로 治心하고 養性함을 基本으로 하여 嗜慾을 적게하고 滋味를 덜게 하며 疾言이나 遽色을 하지 않고 窘步나 惰容도 하지 않으며 무릇 嬉笑나 低俗한 말은 입에서 내지 않고 勢利紛華 聲伎 游宴에서 博奕奇玩에 이르기까지 澹然하게 좋아함이 없었던 것이다.

康節邵先生 於百源山中 闢書齋 獨處其中 王勝之常乘月訪 必見其燈下 正襟跪坐 雖夜深亦如之

(譯) 郢康節先生은 百源山中에 書齋를 열고 그 속에 獨居하였다. 王勝之가 恒常 달밤에 訪問하면 반드시 燈

下에서 正襟하고 跪坐해 있음을 보았으니 비록 夜深해도 또한 그러했던 것이다.

涑水司馬溫公 讀書必具衣冠 整坐莊色 不敢懈怠 嘗自言 吾無過人者 但平生所爲 未嘗有不可對人言者(宋名臣言行錄)

(譯) 司馬溫公은 讀書를 하는데도 반드시 衣冠을 갖추고 整坐해서 莊色으로 懈怠하지 아니 하였다. 일찌기 스스로 말하되「내가 남보다 나은 것은 없지만은 다만 平生에 한일이 남을 對해서 말하지 못할 것은 없는 것이다.」고 하였다.

安定胡先生(名復字秉之) 爲蘇湖二州教授 嚴條約以身先之 雖大暑必公服終日 以見諸生 嚴師弟子之禮(上同)

(譯) 胡安定先生은 蘇湖二州의 教授가 되어 規法을 嚴格히 해서 自身이 率先해서 하고 비록 大暑에라도 반드시 公服으로 終日하고 여러 學生을 보는 데도 師弟의 禮를 嚴格하게 하였다.

節孝徐先生(名穰字仲車) 自言 初見安定先生 退頭容少偏 安定忽厲聲云 頭容直 某因自思 不獨頭容直 心亦要直 自此不敢有邪心(上同)

(譯) 徐節孝先生은 스스로 말하되 처음에 安定先生을 뵈고 물러 나올때 頭容이 조금 기울니 安定先生이忽然히 소리를 질러「頭容을 바르게 하라」고 하기에 나는 因해서 생각하니 頭容을 바르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또한 발라야 한다고 하고 그後로는 敢히 邪心을 가지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元城劉忠定公(名安禮字器之) 見賓客談論踰時體無欷側 肩背竦直 身不少動 至手足亦不移(行錄)

(譯) 劉元城은 賓客을 맞이해서 오래 談論을 해도 몸이 기울지 아니 하며 肩背가 直立해서 몸이 조금도 움
직이지 아니하고 手足도 또한 옮기지 않으니 아니하였던 것이다.

第五 附懲省錄

(按不敬無道之爲萬古首惡嫉嫉打敬之爲奸小險悞과 與夫假敬欺人卒爲敬賊과 及持敬乖理와 空寂偏謬至爲異端不悟者는 此皆
後學所當鑑懲反省故로 特錄爲外篇揭末하여 目之爲懲省錄云이라)

蟲茲有苗 昏迷不恭 侮慢自賢 反道敗德(舜典)

(譯) 愚蟲한 이 苗族은 昏迷해서 不恭하여 侮慢으로 自賢해서 背道하고 敗德하다.

商王受 不敬上天 降災下民 狎侮五常 荒怠不敬 自絕于天 結怨于民 謂敬不足行 謂暴無傷(泰誓)

(譯) 이에 商王인 受는 上天을 不敬하고 下民에 降災하고 五倫을 狎侮해서 荒怠하고 不敬하여 天에서 自絶
되고 民에는 結怨해도 敬은 足히 行할 것도 없고 暴惡해도 無妨하다고 하였다.

朱公拔爲御史 端笏正立 嚴毅不可犯 蘇子瞻語人曰 何時打破這敬字 觀此一語 其娼嫉奸悞 正是
索性小人 朱子嘗謂使其得志 蘇氏之禍 甚於王氏 豈不可驗哉 陸棠(建安人)

(譯) 朱公이 御史가 되어 端笏로 正立함이 嚴毅해서 犯할수가 없었다. 蘇東坡는 사람들에게 말하되「언제
나 그 敬字를 打破할가」고 하였으니 이 一言을 보면 그의 忌惡하고 奸邪함이 바로 이 索性을 가진 小인이
었다. 朱子는 일찌기 말하기를 그로 하여금 高官을 하게 했다면 蘇氏의 禍가 王氏(王安石)보다 더 甚할 것
을 어찌 微驗하지 못할까.

陸棠(建安人) 初見楊龜山 容貌甚莊 端坐不動 每來必如是 一日引入書院久坐 忽報有客 龜山出接

棠獨坐凝然不動如故宅眷壁外窺之 大驚異 既別去 家人以實告 皆稱其好人 遂以女妻之 及范汝爲作亂 棠入其黨 汝爲敗 爲施達所誑 飲藥死 此正是象恭色莊之類 而共心跡綻露 卒不可誣 朱子嘗論此 以爲彼其挾詐欺人 是乃敬之賊耳 (朱子答楊子直書)

(譯) 陸棠이 처음으로 楊龜山을 가보니 容貌가 甚莊한데 端坐해서 움직이지 아니 하였다. 올때마다 반드시 그러하더니 하루는 書院으로 끌고 들어가서 오래 앉았는데 忽然히 손님이 왔다는 기별이 오니 龜山은 나가서 接待하는데 棠만은 獨坐해서 凝然하게 不動하기 如前하니 家人들이 壁外에서 엿보고서 크게 驚異하였다. 그 이미 作別해 간 뒤에 家人이 그 事實을 말하고 모두 好人이라고 稱道하여 드디어 그 말을 妻로 주었다. 그 뒤에 范汝爲가 作亂을 할때에 棠이 그 黨에 들어가서 范汝爲가 敗하자 施達의 속이는 바가 되어 飲藥하고 죽었으니 이것이 바로 貌象만 恭하고 顏色만 莊한 種類로서 그의 心跡이 綻露되어 마침내 속일수가 없었다. 朱子는 일찍기 이것을 論評해서 「그는 挾詐欺해서 欺人했으니 이것이 敬의 賊이다」고 하였다.

許渤與其子 隔一窓而寢 不聞其子讀書與否 程子謂此人持敬如此 曷嘗有如此聖人

(譯) 許渤이 그의 子와 一窓을 隔해서 자는데 그의 子가 讀書하는지 아니 하는지 듣지 못하였다. 程子는 말하기를 「此人이 持敬함이 이와 같으니 어찌 일찍기 이러한 聖人이 있었던가」고 하였다.

朱子答呂子約書曰 程子以有思 謂已發則可而記者 以無見聞 謂未發則不可 程子嘗論許渤持敬 而謂曷嘗有如此聖人 又力詆坐禪入定之非 若以爲未發時 無所見聞 則安可譏 許渤而非入定哉

(譯) 朱子가 呂子約에게한 答書에 曰「程子는 생각만 있어도 已發이라고 하는 것은 可하나 記者가 見聞할수 없다고 해서 未發이라고 하는 것은 不可하다」고 하고 程子는 일찍기 許渤의 持敬함을 評論해서 「曷嘗有如此聖人」이라고 하고 또한 坐禪入定함이 그르다는 것을 힘껏 나무랐으니 萬若에 未發할 때에는 見聞하는 바가

없다고 하면 어찌 可히 許渤을 譏弄해서 入定을 非難할까.

老佛虛無寂滅 所謂修鍊精神 清淨寡慾 坐禪入定 皆似敬非敬 朱子嘗謂修養家 想無成有 釋氏想有成無 只是個專一 莊子用志不分 乃凝於神 亦是如此教人 但他只是個空寂 又謂釋老等人 却是能持敬 但是它只知得那上面一截事 却沒下面一截事

(譯) 老佛은 虛無寂滅하여 所謂精神을 修鍊해서 清淨寡慾하고 坐禪入定한다는 것이 敬같은나 敬은 아니다.

朱子는 일찌기 말하기를「修養家는 無를 想해서 有를 成하나 佛氏는 有를 想해서 無를 成하나니 다만 이것은 專一할 뿐이다. 莊子는 志를 쓰는데 分하지 않고 이에 凝神함이 또한 이와같이 教人하였으니 다만 그는 空寂할 뿐이다」고 하고 또한 老佛의 學徒도 문득 能히 持敬은 하나 다만 이것은 그 上方의 一切事만 알고 드디어 下方의 一切事는 모르는 것이다고 하였다.

陸氏偏於居敬 而不要窮理 專以尊德性爲務 而廢道問學 其立本領持守處 蓋由主敬得力 而終是偏跛邪遁 陽儒陰釋 朱子嘗深加辨斥 其徒相與祖述 漸次浸染 如陽明 白沙 醫閭諸子 甘心爲附庸不悟 而草廬亦未免此患 當時已有其議 程篁墩又爲作道一編書 謂朱陸早異晚同 而陳清瀾建 爲作學菴通辨一書究極原委 洞覈明辨 得破疑案 退溪先生嘗謂朱陸不同 非故有意於不同 此儒而彼禪 此正而彼邪 此公平而彼私狼 夫如是安得而相同耶 凡有志爲學 而欲做持敬之功者 不可不於是明辨也 (譯) 陸象山은 居敬에 偏向해서 窮理는 不要하고 尊德性 專務해서 道問學은 廢하니 그의 本領을 세우고 守處를 가지는 데 대개 主敬으로 말미암아 得力은 하였으나 마침내 偏跛한 邪路로 遁入하여 陽은 儒고 陰은 佛이니 朱子는 일찌기 眞이 辨斥하였다. 그의 學徒는 서로 더불어 祖述하여 漸次로 浸染되었으니 陽明 白沙

醫閭같은 諸子는 甘心해서 附庸하여도 깨치지 못하였고 草廬도 또한 이런 缺點을 免하지 못하였으니 그 當時에 이미 그런 論議가 있었던 것이다. 程篁墩은 또한 作道一編이란 書を 지어서 朱子와 陸子가 早年에는 다르나 晩年에는 같다고 하였고 陳漕淵(名은 建明人)은 學部通辨이란 一書を 지어서 本末을 究極해서 洞徹하게 明辨하여 疑問을 得破하였다. 退溪先生은 일찌기 朱陸의 不同함은 故意로 不同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儒道이고 저것은 禪道이며 이것은 中正하고 저것은 偏邪하며 이것은 公正하고 저것은 私曲한 것이니 그와 같은데 어찌 相同할 수가 있을까. 무릇 學問에 뜻이 있어서 持敬하는 工夫를 하려는 者는 이것을 明辨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라고 하셨다.

跋 文

嗚呼！此吾先祖晦屏府君纂輯前聖賢所言敬字要旨 而別名爲崇敬錄者也 府君早嘗師事大山李先生 以高弟見推於門下 既卒而有文集若干卷 已行于世 惟此一部藏在巾衍 手澤尚新 不可委諸休廢 而付之蠹煤 此不肖輩之所不容 不汲汲搜發 而覬以效力者也 蓋嘗竊聞 敬之一字 實是千古聖賢之相傳的訣 而至程朱夫子 特加說明 吾道既東 陶山老先生 遠接遺緒 而大山先生 爲其嫡傳我府君之親承晤詔 其要旨實在於是

(譯) 아아! 이 책은 우리先祖晦屏府君께서 前聖賢의 말씀하신바 敬字의 要旨를 纂輯해서 別로『崇敬錄』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府君께서는 早年에 일찍이 大山李先生을 師事하시니 그 門下에서 高弟로 推尊을 받으셨다. 逝去하신 뒤에 文集若干卷이 있는 것은 이미 世上에 公布되었으나 오직 이 冊한部는 箱子에 감추어져 있는데 府君의 손때가 새로우니 可히 休廢에 맡겨 蠹煤에 버려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不肖들이 汲汲하게 찾아내서 効力を 希求하지 않아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大개 일찌기 들으니 敬의 一字는 이것이 實로 千古聖賢의 相傳하신 的訣로서 程子 朱子에 이르러서 特히 說明을 加한 것이다. 이 道가 東國으로 와서 退溪先生께 멀리 遺緒를 받으시고 大山先生은 그의 嫡傳을 이으셨는데 우리 府君께서는 親히 그 教導를 받으셨으니 그의 要旨가 모두 이에 있는 것이다.

觀乎此書之編 而可以知其心法之所由來矣 第其爲書 始成於府君晚年 而未盡整理 故條例之間 往往不免錯雜繁複 讀者恨焉 不肖輩既自潛無辨別 則不得不就同志士友 略加刪節 而繕寫爲二冊

四卷 上册二卷明主敬旨訣 下册一卷叙其淵源 而一卷合旨訣通續淵源通附 附以懲省錄 蓋亦壹遵府君原本 而稍有變動 是竊惶恐 既成而方將付之梓印謹識其前後梗槩如右 覽者其或諒之

歲甲寅三月五代孫 鎮旭敬書

(譯) 이 冊이 成編되었음을 보면 可히 그의 心法이 由來한 바를 알 것이다. 이 冊됨은 府君의 晩年에 비로소 되어서 整理가 未盡하기 때문에 條例의 사이에 往往히 錯雜되고 繁複함을 免하지 못하였음이 讀者들의 恨이다. 不肖들은 驟然해서 辨別할 수가 없는 것인즉 不得不 同志士友에게 나아가서 조금 刪節을 加해서 다시 謄寫하여 二冊四卷으로 하였으니 上册二卷은 主敬旨訣을 闡明하였고 下册의 一卷은 그의 淵源을 叙述하였는데 또 一卷은 旨訣通集 續集과 淵源通集 附集과 또 附錄으로 懲省錄등을 總合한 것이니 대개 이것은 府君의 原本을 따랐으나 조금 變動이 있으니 이것이 内心으로 惶恐한 일이다. 이미 成編이 되어서 方將印刷에 부치는데 그 前後의 梗槩를 以上과 같이 謹識하오니 讀者께서는 이점을 諒察하여 주실까.

끝으로 이 冊의 翻譯에 수고해 주신 柳正基 教授와 編輯委員 여러분께 深甚한 感謝를 드리며 讀者 여러분께서는 編輯上이나 翻譯에 不足함이 있더라도 理解하여 주시고 앞으로 더 좋은 完譯이 나올 수 있도록 下諒하시와 忠告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歲甲寅三月에 五代孫 鎮旭 敬書

錦淵精舍懸板目錄

一、錦淵精舍

二、崇敬門

三、主敬齋

四、集義齋

五、錦淵精舍記

錦淵者、錦山之右翼東厓也、在一山最佳故、必於此作精舍也、精舍之作始於歲壬寅、訖於癸卯、中一間、爲堂、左右各一間、爲室前三間、皆半架爲軒、余始念先人之夙志、中被丈席之催成、終賴朋友親戚、拔力相助、以就之、非余能獨辦也、余之棲于是也、固將收拾晚景、看書養疾、以自老耳、顧奚爲而將不負父師之、遺意哉、竊惟之、使我、若蒔花種藥、陟降原阿、歌考槃之詩、詠衡門之章、脫略塵勞、逍遙自適、不知世間、榮辱欣憾、爲何物、顧亦可樂也、惟樂、有虛實、不必專任閒放、余少承家傳之業、惟聖謨賢訓、是講是習、及長而受師門之教、略聞古人爲學之方、而因循頹懶、卒無所成、中夜興思拊躬悼歎、幸今縛得數椽、寄棲江阜、晚計稍閒、庶幾賴天之靈、

溫理舊學、省愆補過、得進分寸、顧先君先師之意、及親戚朋友之望、於余者亦豈曾出於是也、嗚呼小軒臨水、紙牕銜日、鑪有宿火、案有陳編閉門靜坐、焚香關卷、潛心玩究、窺見微旨、反而驗諸日用、要自體察、而同志往復、或相與講疑、冠童子弟之問輒竭所知、以對、要共策勵、日暖風恬、溪山靜明、或攜筇理屐隨意徜徉、覽川流之源流、觀鳶魚之飛躍、興闌而歸、歸又靜坐、動靜食息行住坐臥、常不離泉聲岳色之中而優游涵泳、保養天和、不知不覺之間、或有所自樂於中則所謂俛焉孜孜、不知老之將至、一息尚存、此志、不容少懈者、或庶幾萬一焉、精舍之成、豈曾無所補者哉、惟臨流望野、所處稍高、多通明爽豁之意、無專靜幽奧之趣、若可恨也、然惟谷宅在彼、乃將入樓出臨、咫尺來往、隨時取適惟意所安、當相與爲表裏也、力竭、財窮、無以覆瓦、逐年編茅、恐不能久然、亦惟作此生未死前幾許年計而已、奚足深憂也、岡巒泉石之勝、花草禽魚之樂、吾已略述於一山形勝記、茲不復煩云、丙午季春日、主人晦屏記

己未至月上澣義城金龍大 謹書

六、錦淵精舍上樑文

一區之形勝自足得樂土於晚年、數椽之藏修粗完愜素計於閒養、奚啻做自家之境界、聊以待同人之往來主人竊惟 景迫桑榆 學昧糟粕 聲名利祿本非心於強求 魚鳥林泉早識趣於閒臥 顧茲錦淵一帶 實爲龜洞合襟 斷麓面陽 壓水潄而橫繞 鳴灘響月 闢石間而爭流 蓋吾先人之所嘗盤桓 爰有古迹之可以傷感 逍遙來往 幾思菟裘之是營 躑躅登臨 亦要堂構之肯述 苦貧病之無暇 慨歲月之如流 霜雪滿頭

知無幾於餘日 詩書在案恐難得以專工 所以一朝募工不計歲侵力屈 惟冀數朔畢事 終要心安室寬
 鳩材柘基竄賴親知之合助 蒔花種樹幾多童孺之權趨 軒楹敞明不出青山影裏 枕几蕭灑長在流水聲中
 傍魚梁而有釣磯 橫石橋而渡沙渚 雙棧從水濱登岸 二川落臺下成淵 長郊之物色盈前 枕席可望 一
 壑之風光在背 庫藏非貧 樂林丘之寬閒 專水石之清絕 賓朋肯或相過 冠童與之共棲 爾月斯邁我日
 斯征 豈敢或怠 古人與稽今人與處 庶將自娛 陳編會心閉門潛究 佳景引興攜杖行尋 蒼壁背暉荷釣之
 漁翁或至 芳草連岸渡江之牧笛時聞 臨川流之不窮 覽鳶魚之自得 滄洲歲晏慨絕響之難追 花鳥春
 濃覺太平之斯在 爲終身送老之計 多怡神養性之資 山樑既摧雖莫追於杖履 金蘭共勉庶永照於襟期
 滿川之狂瀾日類是將誰遏 中流之一葦難濟恐遂同淪 賴天之靈庶幾追補前過 得地之勝惟將收拾殘
 齡 賢聖之遺訣 尚存將我歌而 我詠江湖之閒興 自在復誰爭而誰禁 聊賦一言 以贊六偉拋樑東 極
 目江源一望通 靜坐明窓朝日上 依然本體露天衷 拋樑西 短峯容易夕陽低 一心存警須無間 響晦工
 夫恐自迷 拋樑南 斷岸崩沙手自探 栽得名花開戶坐 一般春意靜中含 拋樑北 仰止高山青未極 復
 有景行行不休 聖師一語須長憶 拋樑上 上穹無語人咸仰 分明體物不容欺 一出遊及爾往 拋樑下
 聊向芳洲采杜若 一掬幽香欲贈人 問君誰是同心者 伏願上樑之後 松桂漸密 江山益清 朝往夕來
 一丘之玩適無限 唱余和汝百年之講討有功 晦屏主人記

純祖壬寅年建

己未菊月下泮 義城 金九稷 謹書

七、錦山六詠

○錦淵精舍

一山東落水聲邊懸岸平臺月上先別界藏修成晚計太平歌詠送殘年數椽棲息親魚鳥四壁圖書對聖賢
得失悲歡渾不記等閒雲過太虛然

○錦里幽居

錦里先生烏角巾園收芋栗未全貧蕭條話計真同趣磊落文章敢擬倫荒屋數三成一落別區耕鑿喜相隣
只緣咫尺淵齋近辛苦移家卜築新

○平錦山

洞門懸壁對嵯峨田畝層連向水多短麓雙支仍別局青山一面是平坡逶迤殘落宜多少甘冽名泉更若何
花柳欲舒春日暖清江宜浴又宜歌

○晦屏

青山一角擁如屏夕陽西下易生暝最在上房高絕處堪棲老釋寂寥形小庵鍾磬知何日一洞烟霞覺有靈
只爲此山名以錦晦光嘉遜義丁寧

○菖蒲洞

一山西落洞天團爲號菖蒲取義端咫尺靈源門外在葱瓏淑氣谷中蟠洌泉膏壤知非偶別界名區占更難

野老相傳稱異境會看籬落待時安

○鳳凰淵

鳳凰橋畔鳳凰淵蒼壁層厓水上懸知是洞門初入路倒來山下合流川漁人網集平沙外酒肆旗連芳草邊
州號聞韶淵號鳳九成何日羽儀翩

八、錦淵精舍重建上樑文

述夫 山益紫而水益明遺先世藏修之蹟 軒則高而窓則豁寓後承繼述之誠 是誠肯構肯堂爰但言登
言降 恭惟晦屏申先生 鵝洲舊閼 梧老肖孫 承先業而駐筇龜岑嶺嶺 得賢師而負笈蘇水泱泱 亢亢
窮年沉潛乎濂洛關閩之旨訣 孳孳竟日極養乎義仁禮智之良能 既有橫經秉燭之工 那無養性頤神
之所 睠彼錦淵一帶實惟天關勝區 矧茲草舍三間亦也人容短膝 庭出邵翁之綠草 砌開陶氏之黃花
柴凡明窓不出青山影裏 瑤絃寶匣長存流水聲中 然而 歲月滋荒茅茨易敗 風霖侵齧楹桷歸虛 寂
寥講道之場祗見兔葵燕麥 搖落論文之席空餘疊石荒苔 行客嗟傷尚指稱於某處 慈孫懷惕庶有待於
今辰 茲當桑渤百禩之秋 載起菟裘重建之役 拓遺墟而措劃庶氓彈厥箝誠 增舊制而周章工匠獻其
技術 構榭盾楔之方圓允愜鋸齒斷風 根闌侏儒之長短俱宜鉤唇磨電 昔也猿愁而鶴怨 今焉鳥革而
登飛 煨室京堂冬夏之起居各適 南窓北牖朝晡之坐臥俱便 日暖雕樑重到舊年燕子 風生敗篋更看
前日蠹兒 聊成耄艾之歌 庸助兒郎之曲 拋梁東 扶桑瑞旭入簾紅 惺惺驚罷羲皇夢 斗覺靈臺脫蔽朦

拋梁西 遠岵蒼蒼夕照低 緬想丁寧遺蹟地 至今幽樹鳥空啼 拋梁南 斷岸崩沙手欲探 若使先徵无
 敢墜 祝祥何必拜瞿曇 拋梁北 蔚彼山容青未極 山不動兮世易翻 當時型範長相憶 拋梁上 雲收
 綃幕森星象 畏威如疾有前箴 勿許來仍懷妄想 拋梁下 江州籬落 團成社 書農暇日會於斯 孰不融
 融敦睦者 伏願上梁之後 流時常常美麗 棟薨久久堅完 爰處爰居不弛羹牆之慕 或歌或詠毋忘存
 養之工 忠信而爲賢父兄 孝恭而爲佳子弟

己未菊月上澣 豐山柳賢佑 謹撰

九、錦淵精舍重建記

舍之不以亭軒而以爲精舍 蓋其講禮義 讀詩書 工隸矻勉之舍也 恭惟我六代祖晦屏府君 以敏穎之
 姿 立雪于湖上李先生門 得聞成己成物之學 而爲當時高足 退以與村秀子 日處精舍 鑽研工程有
 若師門授受 而牢籠講磨 以成課學則儒風丕振 多士彬蔚矣 一撤臯比 絃誦寢湮 向望遺墟 尤不勝過
 到葵麥之感 己累世矣 蓋事有興廢時有早晚 不可以一例容髮於其間也 顧我殘仍 數寄者 尚有微誠
 於體先一事 重起數棟 於舊日梓桑之坊 拓其荒蕪 補其頽圯 土石依然 軒窓分定 其敞豁爽塏之情
 溪山幽靜之狀 雖不爲之輪奐 誰井亦可爲繼述一事也 昔白鹿之茂草 增修於咸平者 豈但專美乎前
 日哉 且規模節度 不師祖儉而間架楹軒稍有舊制 寬曠之從於時勢而陟降 如承杖屨之跡 出入宛聽
 咳唾之響 則是所謂彷彿如在而不忘乎心目之中矣 今日子孫 寓慕之情 何如也 矧以讀於斯詠於斯

不替乎梧祖家聲繼以晦祖趾美之意則今精舍復起豈與尋常亭樓爲此哉重建者卽四從叔鎮旭氏也
記事者卽六世孫學泳也

庚申正月下澣 學泳謹記

庚申二月朔日 光山 金澤鎮 謹書

編輯委員 申鎬授 申 泓
 申鎮旭 申福根
 申炳哲 申炳浩
 後 援 鵝洲申, 梧峯派宗中

崇 敬



1980年 10月 10日 印刷

1980年 10月 15日 發行

著 者 申 體
 編 譯 柳 正 基
 編輯責 申 鎬 鎮 旭
 發行者 申 鎬 鎮 洙
 發行處 信 一 專 門 大 學

大邱市 壽城區 晚村洞 1091
 ☎ 6255

印刷處 昶 學 社

印刷人 申 鍾 甲

大田市 中區 大寺洞 126-9
 ☎ ③ 7667 ③ 6606

문공부 등록번호 No.바 858號(80.2.25) <非賣品>